The 7th KIHASA-IPSS Annual Policy Forum

Living Environments in an Era of Demographic Change: Mobility, Family, and Care

Date & Time

Tuesday, November 3, 2026, 10:30-16:50
Wednesday, November 4, 2026, 10:00-12:00

Venue

Sejong Hall (5F)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jong, Korea

KIHAS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프로그램

» 11월 3일(화) 10:30~16:50

사회 : **오신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10:00~10:30	**사전 등록**
10:30~11:40	**Session. 1** 고령화
좌장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1	**한국의 통합돌봄체계 현황과 과제** **이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2	**지역포괄케어에서 지역공생사회로** **-「8050 가구」와 관련성 높은 인구분석으로 본 개호보험제도의 새로운 역할 -** **FUJII, Takiko**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사회보장기초이론연구부장
토론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1:40~13:40	**오찬**
13:40~13:50	**개회식**
개회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인사말	**HAYASHI, Reiko**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소장
축사	**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13:50~16:50	**Session. 2** 인구이동
좌장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
발표 1	**한국「인구이동 및 정주실태 조사」의 개요 및 특징**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2	**양육가구 주거이동과 양육환경** **– 출산 전후 이동, 양육환경, 정주의향을 중심으로** **김은정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3	**중장년층의 이동과 정주 인식** **최경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4:35~14:50	**휴식**
발표 4	**일본「인구이동조사」의 설계와 실시** **NAKAGAWA, Masataka**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국제관계부 제1실장



발표 5	**인구이동조사의 분석 사례: 국내이동의 국제비교, 고령자의 이동, 다지역 거주, 외국 배경 인구** **HAYASHI, Reiko**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소장
발표 6	**지역별 부모-자녀 동거율은 동거 선택 경향을 나타내는가** **– 인구이동에 의한 선택적 재배치에 착목하여 –** **MARUYAMA, Yohei**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구조연구부 제2실장
15:35~15:50	**휴식**
토론	**곽윤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지혜C**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KOREKAWA, Yu**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국제관계부장 **배경택** | 인구전략위원회 인구구조변화대응국장

» 11월 4일(수) 10:00-12:00

사회 : **오신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10:00~11:10	**Session. 3** 결혼·출산
좌장	**고제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1	**미혼인구의 결혼·출산 가치관과 이성교제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조성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SUGA, Keita**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구조연구부 제1실장
발표 2	**일본과 한국의 결혼력과 출산력 비교: 핵심이 되는 템포 효과와 압축적 인구변천** **IWASAWA, Miho**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동향연구부장 **조성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MINAMI, Takuma**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동향연구부 주임연구관
토론	**신윤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은정B**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1:10~12:00	**특별세션** 양국 연구기관의 연구 교류 방향에 관한 논의
	일본 **KOREKAWA, Yu**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국제관계부장 한국 **김희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팀장 자유토론

プログラム

2026年 11月 3日(火)

司会: **オ・シニ** |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専門研究員

10:00~10:30	**受付・芳名録記入**
10:30~11:40	**Session. 1** 高齢化
座長	**ファン・ナムヒ**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先任研究委員
発表 1	**韓国の統合ケア体制現状と課題** **イ・ジョンウン**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副研究委員
発表 2	**地域包括ケアから地域共生社会へ** **-「8050世帯」と親和性の高い人口分析からみる介護保険制度の新たな役割 -** **藤井 多希子**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社会保障基礎理論研究部長
討論	**ソ・ドンミン**	白石大学校 社会福祉学部 教授 **イム・ドギョン**	韓国保健社会研究院 研究委員
11:40~13:40	**昼食**
13:40~13:50	**開会式**
開会の辞	**シン・ヨンソク**	韓国保健社会研究院 院長
ご挨拶	**林 玲子**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所長
祝辞	**キム・ヒョンスク**	保健福祉部 人口児童政策官
13:50~16:50	**Session. 2** 人口移動
座長	**カン・ジウォン**	韓国保健社会研究院 人口政策研究室長
発表 1	**韓国「人口移動・定住実態調査」の概要と特徴** **チョ・ソンホ**	韓国保健社会研究院 研究委員
発表 2	**子育て世帯の居住移動と子育て環境** **- 出産前後の移動、子育て環境、定住意向を中心に** **キム・ウンジョン**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副研究委員
発表 3	**中高年層の移動と定住意識** **チェ・ギョンドク**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副研究委員
14:35~14:50	**休憩**
発表 4	**「人口移動調査」の設計と実施** **中川 雅貴**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国際関係部第1室長



発表 5	**人口移動調査の分析例: *国内移動の国際比較、高齢者の移動、多地域居住、外国ルーツ人口*** **林 玲子**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所長
発表 6	**地域別の親子同居率は同居選択傾向を表すのか** **- 人口移動による選択的再配置に着目して -** **丸山 洋平**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構造研究部第2室長
15:35~15:50	**休憩**
討論	**クァク・ユンギョン** | 韓国保健社会研究院 研究委員 **イ・ジヘ** |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副研究委員 **是川 夕**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国際関係部長 **ペ・ギョンテク** | 人口戦略委員会 人口構造変化対応局長

2026年 11月 4日(水)

司会: **オ・シニ** \|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専門研究員

10:00~11:10	**Session. 3** **結婚・出産(日韓共同研究)**
座長	**コ・ジェイ** | 韓国保健社会研究院 研究委員
発表 1	**未婚人口の結婚・出産観と異性交際に関する韓日比較研究** **チョ・ソンホ** | 韓国保健社会研究院 研究委員 **菅 桂太**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構造研究部第1室長
発表 2	**日本と韓国の結婚力と出生力の比較: 鍵となるテンポ効果と圧縮人口転換** **岩澤 美帆**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動向研究部長 **チョ・ソンホ** | 韓国保健社会研究院 研究委員 **南 拓磨**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動向研究部主任研究官
討論	**シン・ユンジョン** | 韓国保健社会研究院 研究委員 **キム・ウンジョン** |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副研究委員
11:10~12:00	**特別セッション** **今後の研究連携の提案**
	日本 **是川 夕**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国際関係部長 韓国 **キム・ヒニョン** |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国際協力チーム長 自由討論

목차

개회식

개회사 ····· 2
신영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인사말 ····· 6
HAYASHI, Reiko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소장

축사 ····· 8
김현숙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Session. 1 고령화

[발표 1] **한국의 통합돌봄체계 현황과 과제** ····· 15
이정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2] **지역포괄케어에서 지역공생사회로**
– 「8050 가구」와 관련성 높은 인구분석으로 본 개호보험제도의 새로운 역할 – ····· 39
FUJII, Takiko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사회보장기초이론연구부장

Session. 2 인구이동

[발표 1] **한국 「인구이동 및 정주실태 조사」의 개요 및 특징** ····· 67
조성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2] **양육가구 주거이동과 양육환경**
– 출산 전후 이동, 양육환경, 정주의향을 중심으로 ····· 93
김은정A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3] **중장년층의 이동과 정주 인식** ····· 119
최경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4] **일본 「인구이동조사」의 설계와 실시** ····· 139
NAKAGAWA, Masataka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국제관계부 제1실장

[발표 5] **인구이동조사의 분석 사례:**
국내이동의 국제비교, 고령자의 이동, 다지역 거주, 외국 배경 인구 ····· 157
HAYASHI, Reiko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소장

[발표 6] **지역별 부모-자녀 동거율은 동거 선택 경향을 나타내는가**
- 인구이동에 의한 선택적 재배치에 착목하여 - ····· 187
MARUYAMA, Yohei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구조연구부 제2실장

Session. 3 결혼·출산

[발표 1] **미혼인구의 결혼·출산 가치관과 이성교제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 209
조성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SUGA, Keita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구조연구부 제1실장

[발표 2] **일본과 한국의 결혼력과 출산력 비교: 핵심이 되는 템포 효과와 압축적 인구변천** ····· 237
IWASAWA, Miho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동향연구부장
조성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MINAMI, Takuma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동향연구부 주임연구관

특별세션 양국 연구기관의 연구 교류 방향에 관한 논의

[일 본] **향후 연구협력 제안**
KOREKAWA, Yu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국제관계부장

[한 국] **KIHASA와 IPSS 향후 협력을 위한 제언**
김희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팀장

目次

開会式

開会の辞 ····· 4
シン・ヨンソク｜韓国保健社会研究院 院長

ご挨拶 ····· 7
林 玲子｜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所長

祝辞 ····· 10
キム・ヒョンスク｜保健福祉部 人口児童政策官

Session.1 高齢化

[発表 1] **韓国の統合ケア体制現状と課題** ····· 15
イ・ジョンウン｜韓国保健社会研究院 副研究委員

[発表 2] **地域包括ケアから地域共生社会へ**
-「8050世帯」と親和性の高い人口分析からみる介護保険制度の新たな役割 - ···· 39
藤井 多希子｜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社会保障基礎理論研究部長

Session.2 人口移動

[発表 1] **韓国「人口移動・定住実態調査」の概要と特徴** ····· 67
チョ・ソンホ｜韓国保健社会研究院 研究委員

[発表 2] **子育て世帯の居住移動と子育て環境**
- 出産前後の移動、子育て環境、定住意向を中心に ····· 93
キム・ウンジョン｜韓国保健社会研究院 副研究委員

[発表 3] **中高年層の移動と定住意識** ····· 119
チェ・ギョンドク｜韓国保健社会研究院 副研究委員



[発表 4] **「人口移動調査」の設計と実施** ····· 139
中川 雅貴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国際関係部第1室長

[発表 5] **人口移動調査の分析例: *国内移動の国際比較、高齢者の移動、多地域居住、外国ルーツ人口*** ····· 157
林 玲子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所長

[発表 6] **地域別の親子同居率は同居選択傾向を表すのか - 人口移動による選択的再配置に着目して -** ····· 187
丸山 洋平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構造研究部第2室長

Session.3 結婚・出産(日韓共同研究)

[発表 1] **未婚人口の結婚・出産観と異性交際に関する韓日比較研究** ····· 209
チョ・ソンホ | 韓国保健社会研究院 研究委員
菅 桂太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構造研究部第1室長

[発表 2] **日本と韓国の結婚力と出生力の比較: 鍵となるテンポ効果と圧縮人口転換** ····· 237
岩澤 美帆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動向研究部長
チョ・ソンホ | 韓国保健社会研究院 研究委員
南 拓磨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動向研究部主任研究官

特別セッション 今後の研究連携の提案

[日　本] **今後の研究連携の提案**
是川 夕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国際関係部長

[韓　国] **KIHASAとIPSS 今後の協力に向けた提言**
キム・ヒニョン |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国際協力チーム長

개회식

開会式

[개회사 開会の辞]

신영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シン・ヨンソク | **韓国保健社会研究院 院長**

[인사말 ご挨拶]

HAYASHI, Reiko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소장

林 玲子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所長**

[축사 祝辞]

김현숙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キム・ヒョンスク | **保健福祉部 人口児童政策官**

개회사

존경하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하야시 레이코 소장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님, 그리고 멀리 도쿄에서 오신 일본 측 연구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09년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Joint Announcement on the Cooperation)에 서명한 이래 교류를 이어 왔고, 2017년 서울에서 제1차 포럼을 연 뒤로는 매년 양국을 오가며 이 자리를 함께해 왔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멈춘 시기도 있었지만, 올해로 일곱 번째 포럼을 맞이하였고, 포럼을 시작한 지도 10년이 되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세종에서 일본 측 연구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포럼들을 돌아보면, 두 기관은 저출산·고령화의 충격과 대응에서 출발하여 생애주기와 사회보장, 이민과 돌봄노동, 불평등, 인구변동과 정책 대응, 그리고 보건통계에 이르기까지, 양국이 함께 마주한 과제를 하나씩 짚어 왔습니다. 주제는 해마다 달랐지만,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고 함께 답을 찾는다는 포럼의 정신은 한결 같았습니다.

제1차 포럼의 주제는 저출산·고령화의 충격과 대응이었고, 그 자리에서 장기요양보험의 양국 경험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올해 3월에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어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이 지역포괄케어에서 지역공생사회로 나아가며 쌓아 온 경험은 한국에 더없이 소중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오전 고령자 케어 세션에서 그 논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인구이동을, 내일은 결혼과 출산을 다룹니다. 두 나라 모두 역사상 가장 낮은 출생 수준을 경험하고 있고, 인구의 지역 간 이동과 정주가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저희 연구원이 올해 실시한 인구이동 및 정주실태조사와 일본의 인구이동조사를 나란히 놓고, 조사의 설계와 분석 결과를 서로 비교합니다. 내일 세션에서는 두 기관의 연구자가 함께 수행한 공동연구의 성과를 발표합니다.

2009년의 공동선언은 두 기관의 협력 활동으로 정보와 경험의 교류, 연구자의 상호 방문, 그리고 공동연구의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교류와 방문은 이 포럼을 통해 꾸준히 이어져 왔고, 내일 발표되는 공동연구도 그 교류 속에서 두 기관의 연구자가 맺은 인연이 만들어 낸 결실입니다. 다만 두 기관이 함께 기획하고 함께 수행하는 기관 차원의 공동연구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이 일본의 인구이동조사와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한 조사를 실시한 것은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마지막 순서에는 향후 공동연구의 방향을 논의하는 특별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7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10년에는 두 기관의 이름으로 함께 내놓는 연구 성과가 쌓여 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포럼을 위해 애써 주신 보건복지부와 양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틀 동안 활발한 토론과 뜻깊은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신 영 석**

開会の辞

第7回 日韓社会政策定例フォーラム 開会の辞

尊敬する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の林玲子所長、保健福祉部の人口児童政策官、そして遠く東京からお越しくださった日本側の研究者の皆様、ならびに内外のご来賓の皆様。韓国保健社会研究院へのご来訪を心より歓迎申し上げます。

韓国保健社会研究院と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は、2009年に「協力に関する共同宣言（Joint Announcement on the Cooperation）」に署名して以来、交流を続けてまいりました。2017年にソウルで第1回フォーラムを開催してからは、毎年両国を行き来しながら、この場を共にしてまいりました。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で一時中断した時期もありましたが、今年で第7回の開催を迎え、フォーラムを始めてから10年となりました。2年ぶりに再び世宗で日本側の研究者の皆様をお迎えできることを、ひときわ意義深く感じております。

これまでのフォーラムを振り返りますと、両機関は、少子化・高齢化の影響と対応を出発点として、ライフサイクルと社会保障、移民とケア労働、不平等、人口変動と政策対応、そして保健統計に至るまで、両国が共に直面する課題を一つひとつ取り上げてまいりました。テーマは年ごとに異なりましたが、互いの経験に学び、共に答えを探るというフォーラムの精神は、一貫して変わりませんでした。

第1回フォーラムのテーマは「少子化・高齢化の影響と対応」であり、その場では、両国の介護保険制度に関する経験を共に議論しました。10年が経過した今、韓国は超高齢社会に入り、今年3月には「ケア統合支援法」が施行され、地域を中心とした統合ケアが本格的に始まりました。日本が地域包括ケアから地域共生社会へと歩みを進める中で積み重ねてきた経験は、韓国にとってこの上なく貴重な参考となることでしょう。本日午前の高齢者ケアセッションでは、すでにその議論が始まっています。

本日午後は人口移動を、明日は結婚と出産を取り上げます。両国とも歴史上最も低い出生水準を経験しており、地域間の人口移動と定住が国家的な課題となっています。午後のセッションでは、当研究院が今年実施した「人口移動および定住実態調査」と日本の「人口移動調査」を並べて、調査設計と分析結果を相互に比較します。明日のセッションでは、両機関の研究者が共に取り組んだ共同研究の成果を発表します。

2009年の共同宣言では、両機関の協力活動として、情報・経験の交換、研究者の相互訪問、そして共同研究の三つが挙げられています。交流と訪問は、このフォーラムを通じて着実に続けられてきました。明日発表される共同研究も、その交流の中で両機関の研究者が築いたつながりが実を結んだものです。ただ、両機関が共に企画し、共に実施する機関レベルの共同研究は、なお課題として残されています。今回、当研究院が日本の人口移動調査と比較できるように設計した調査を実施したことは、その第一歩だと考えております。明日の最後のプログラムには、今後の共同研究の方向性を議論する特別セッションを設けました。これまでの17年間に培った信頼を基盤として、次の10年には、両機関の名の下に共に発信する研究成果が積み重なっていく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最後に、本フォーラムのためにご尽力くださった保健福祉部と両機関の関係者の皆様に感謝申し上げます。この2日間、活発な議論と意義深い交流が行われる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026年11月3日

韓国保健社会研究院 院長 **シン・ヨンソク**

인사말

오늘 이곳 한국 세종에 있는 KIHASA에서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연구자 6명과 함께 제7회 한·일 사회정책 정례포럼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소와 KIHASA가 연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2009년입니다만, 매년 번갈아 서로를 방문하여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이며, 저는 그때부터 매회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동 세미나뿐만 아니라 양 기관이 공통으로 다루는 과제에 대해서도 다층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달에도 KIHASA의 함영진 박사님 일행이 저희 연구소를 방문하여 사회보장비용 통계에 관한 실무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동일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의 절반 수준이었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현재는 다소 상승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크게 하락하고 있어, 혹시 한국에서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올해가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 병오년(히노에우마)으로, 60년 전인 1966년과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확인해 보니 지난해보다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듯한 상황입니다.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안심할 수는 없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출산율이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2022년에 사망률이 상승하였고, 그 후 2025년까지도 코로나19 이전의 기대수명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사망자 수도 크게 감소하여 마침내 '탈코로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7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1회 공동 세미나에서 저는 한·일 양국의 기대수명을 비교하였습니다. 당시 양국의 담당 기관, 즉 당시의 KOSTAT와 저희 연구소가 내놓은 기대수명 전망을 비교해 보니, 남성의 경우 2025년에 한국의 평균수명이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이미 지금은 2026년이므로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았더니, 한국에서는 아직 2024년의 기대수명만 발표된 상태였고, 아쉽게도 여전히 일본의 기대수명이 조금 더 긴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양국에서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2025년 통계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달 말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아시아인구학회가 개최되며, KIHASA도 기관 차원에서 참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 자리에 있는 연구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연구자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인구·사회정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과 내일, 뜻깊은 포럼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포럼 개최 준비와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 11월 3일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소장 HAYASHI, Reiko

ご挨拶

本日ここ韓国世宗にあるKIHASAにて、社人研の６人の研究者と共に第7回日韓社会政策定例フォーラムに参加できることをとても嬉しく思います。社人研とKIHASAが研究協力についての覚書を交わしたのは2009年ですが、毎年交互にお互いを訪問して合同セミナーを行うようになったのは2017年で、以来私は毎回参加しております。またこの合同セミナーに限らず、双方が共通して取り組む課題について、交流は重層的に行われており、先月にもKIHASAのハム・ヨンジン先生ご一行が社人研を訪問され、社会保障費用統計に関する実務的な会合が行われました。

韓国と日本は、少子高齢化人口減少という同じ課題を抱えています。ひところは日本の半分であった韓国の合計特殊出生率は、現在では韓国で若干上向き、日本では大きく低下していることから、あるいは少子化対策の効果が韓国で出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ても興味深いところです。一方日本では今年は60年に1回訪れる丙午（ひのえうま）の年であり、60年前の1966年と同様に大きく出生率が低下しないかと心配しておりましたが、蓋を開けると昨年よりも出生数が増えているような状況で、まだ今年は終わりませんので油断はなりませんが、韓国と同様に、コロナ禍を超え、出生率は上向くのではないか、という希望も見えているところです。同様にコロナにより日本では2022年に特に死亡率が上がり、その後2025年に至るまでコロナ以前の寿命に戻っていなかったのですが、今年は死亡数も大幅に減少し、ようやく「脱コロナ」といえる状況にな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2017年にソウル・コリアナホテルで開催された、第1回の合同セミナーで、私は日韓の寿命比較をいたしましたが、その時に双方の担当部局、つまり当時のKOSTATと社人研による寿命の見通しを比べると、男性については韓国の平均寿命が2025年に日本を上回る、というものでした。すでに今は2026年ですので、どうなったのか確認いたしましたら、韓国はまだ2024年の寿命のみの公表で、残念ながらまだ日本の方が若干寿命が長い状況でした。コロナの影響の違いもあったかもしれませんが、2025年の統計を待ちましょう。

今月末には、ベトナム・ハノイでアジア人口学会が開催され、KIHASAも組織をあげて参加されると聞いております。社人研からもここにいる研究者を含め、多くが参加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日韓でアジア、さらには世界の人口・社会政策を論じることも、今後協力して行っていく事ができればと思います。それでは、今日明日と、有意義なフォーラムにいたしましょう。フォーラムの開催準備とすばらしい受入れに感謝しながら、私の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2026年11月3日

林玲子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所長 **林 玲 子**

축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김현숙입니다.

먼저, 한·일 사회정책 정례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님,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하야시 레이코 소장님을 비롯하여, 양국의 인구·사회정책 발전을 위해 함께하고 계신 연구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한·일 사회정책 정례포럼은 지난 2017년부터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인구·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 해법을 모색해 온 소중한 협력의 장입니다.

그동안 양국의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뿐 아니라 세대와 지역 간 격차, 일과 가정의 양립, 고령자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성과와 정책경험을 공유해 왔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교류가 양국의 인구·사회정책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협력의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과 일본이 마주한 인구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줄고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일과 가족에 대하여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지역사회가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늘어난 수명만큼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을지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개개인의 삶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 간 인구이동, 가족구조의 변화, 돌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등 여러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정책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정책은 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을 넘어, 변화하는 인구구조 속에서도 모든 세대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제도와 환경을 함께 바꾸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현실 진단과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 설계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양국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빠른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비슷한 문제에 대응하면서도 각자의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 나라의 경험이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서로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살펴보는 과정은 더 나은 정책을 설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인구변화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넘어, 어떤 정책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어떠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지를 함께 연구하고 검증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지속가능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현장의 깊이 있는 분석과 정책적 제언에 귀 기울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김 현 숙**

祝辞

皆様、こんにちは。
大韓民国保健福祉部の人口児童政策官、
キム・ヒョンスクと申します。

まず、日韓社会政策定例フォーラムの開催を、
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

この意義深い場を設けてくださった　韓国保健社会研究院のシン・ヨンソク院長、日本の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の林玲子所長をはじめ、両国の人口・社会政策の発展に共に取り組んでおられる研究者の皆様にお目にかかることができ、大変うれしく思います。

今年で7回目を迎える日韓社会政策定例フォーラムは、2017年から、両国が共通して直面する人口・社会問題について共に考え、政策的な解決策を模索してきた、貴重な協力の場です。

これまで両国の専門家は、少子化や高齢化だけでなく、世代間・地域間の格差、仕事と家庭の両立、高齢者ケアなど、さまざまな分野で研究成果と政策経験を共有してまいりました。

こうした継続的な交流は、両国の人口・社会政策への理解をさらに深め、協力の基盤を広げることに貢献してきたと考えております。

今日、韓国と日本が直面する人口問題は、単に人口が減少し、高齢者が増えるということにとどまりません。

若者が結婚や出産、仕事と家族についてどのような選択を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地域社会が活力を維持できるのか、寿命が延びた分、健康で尊厳のある老後を送れるのかなど、私たちの社会の持続可能性と、国民一人ひとりの暮らしに関わる問題でもあります。

さらに、人口構造の変化は、地域間の人口移動、家族構造の変化、ケアの需要と供給の不均衡など、さまざまな社会的変化と相まって、新たな政策課題をもたらしています。

今、人口政策は、出産や高齢化への個別の対応を超え、人口構造が変化する中でも、すべての世代がより良い暮らしを享受できるよう、社会全体の制度と環境を併せて変えていく方向へと発展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そのためには、何よりも現状を正確に把握し、客観的な根拠に基づいて政策を設計することが重要です。

その点で、韓国と日本の協力には特別な意義があります。

両国は、世界でも類を見ないほど急速な人口構造の変化を経験しており、類似した問題に対応しながらも、それぞれの社会的な状況に応じて、多様な政策や制度を発展させてきました。

一国の経験を他国にそのまま適用できるとは限りませんが、互いの成果と限界を共に検討する過程は、より良い政策を設計するための重要な出発点となるでしょう。

特に今後は、人口変化の見通しや分析にとどまらず、どのような政策が国民の暮らしに実質的な変化をもたらしたのか、政策面でどのような補完が必要なのかを、共に研究し、検証する取り組みが一層重要になるでしょう。

韓国政府も、国民の生活の質を高め、人口構造の変化に持続可能な形で対応するため、さまざまな政策的取り組みを進めています。

その過程において、研究現場での掘り下げた分析や政策提言に耳を傾け、客観的な根拠と現場の声が政策に忠実に反映されるよう努めてまいります。

改めまして、本フォーラムの開催をお祝い申し上げますとともに、ご参加の皆様のご健康とご多幸をお祈り申し上げ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026年11月3日

保健福祉部 人口児童政策官 **キム・ヒョンスク**

세션. 1

Session. 1

고령화
高齢化

발표 1

発表 1

한국의 통합돌봄체계 현황과 과제

韓国の統合ケア体制 現状と課題

이정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イ・ジョンウン |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副研究委員

제7차 한·일 사회정책 정례포럼

한국의 통합돌봄체계 현황과 과제

2026. 11. 3.

이정은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第７回 韓日社会政策
定例フォーラム

韓国の統合ケア体制 現状と課題

2026. 11. 3.

イ・ジョンウン 副研究委員（韓国保健社会研究院）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ONTENTS

목차

Ⅰ 서론
Ⅱ 제도화의 경과
Ⅲ 통합이 이루어진 범위
Ⅳ 잔존하는 분절
Ⅴ 결론

1

CONTENTS

目次

Ⅰ はじめに
Ⅱ 制度化の経緯
Ⅲ 統合が進んだ範囲
Ⅳ 残存する分断
Ⅴ 結論

1

Ⅰ. 서론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합돌봄 법정 체계의 성립

법률에 근거한 조직과 인력은 비교적 단기간에 정비, 남은 과제는?

법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2024년 3월 제정
2026년 3월 27일 시행

조직
시군구 전담조직
229개 시군구 설치율 100.0%

인력
5,346명 증원
시도·시군구 본청 1,205명
읍면동·보건소 4,141명

재정
914억
229개 시군구별 평균 4억6천만원
고령화율, 재정자립도 등 고려
차등배분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1. 8./2026. 3. 27), 이영숙(2026). 2027년 통합돌봄 예산과 재원확보 방향. 제5차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포럼 자료집.

2

Ⅰ. はじめに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統合ケアの法定体制の成立

法律に基づく組織と人員は比較的短期間で整備。残された課題は？

法律
医療・療養等の地域ケアの統合支援に関する法律
2024 年 3 月制定
2026 年 3 月 27 日施行

組織
市・郡・区の専任組織
229 市・郡・区、設置率 100.0%

人員
5,346 人増員
市・道、市・郡・区の本庁 1,205 人
邑・面・洞、保健所 4,141 人

財政
914 億
229 市・郡・区の平均
4 億 6 千万ウォン
高齢化率・財政自立度等を
考慮し差等配分

※ 保健福祉部 報道資料（2026. 1. 8./2026. 3. 27）、イ・ヨンスク（2026）「2027 年の統合ケア予算と財源確保の方向」第 5 回地域社会統合ケア政策フォーラム資料集。

2

Ⅱ. 제도화의 경과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도사업에서 전국 시행까지

한국은 법률 제정을 통한 통합돌봄체계를 제도화

❶ 2019~2022	❷ 2023	❸ 2024. 3	❹ 2026. 3. 27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법 시행 본사업 전국 확대

◆ 정부 로드맵

2026~2027	2028~2029	2030~
도입기	**안정기**	**고도화기**
통합돌봄의 틀 마련과 30종 서비스 중심의 연계	대상자와 서비스의 확대, 지역 간 격차의 완화	노쇠예방부터 재가임종까지 연속 지원체계의 완성

일본의 지역포괄케어를 참고하였으나
일본은 개호보험 위에서, 한국은 법률을 통하여 절차의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3. 5)

3

Ⅱ. 制度化の経緯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先導事業から全国実施まで

韓国は法律の制定により統合ケア体制を制度化

❶ 2019~2022	❷ 2023	❸ 2024. 3	❹ 2026. 3. 27
コミュニティケア先導事業	高齢者医療・ケア統合支援モデル事業	ケア統合支援法制定	法律施行 本事業を全国に拡大

◆ 政府のロードマップ

2026~2027	2028~2029	2030~
導入期	**安定期**	**高度化期**
統合ケアの枠組みを整備し、30 種類のサービスを中心に連携	対象者・サービスの拡大、地域間格差の緩和	フレイル予防から在宅での看取りまで切れ目のない支援体制を完成

日本の地域包括ケアを参考にしたが、
日本は介護保険を基盤とし、韓国は法律を通じて手続きの枠組みを整備した点が異なる

※ 保健福祉部 報道資料（2026. 3. 5）

3

Ⅱ. 제도화의 경과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합돌봄의 정의와 대상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대상

-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

2028년에 정신질환자가 대상에 포함될 예정

◆ 서비스 : 4개 분야 60종

보건의료	방문진료, 퇴원환자 지원, 임종케어
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 노쇠예방, 건강증진
장기요양	방문요양·간호·목욕, 주야간보호
일상생활돌봄	노인맞춤돌봄, 식사·이동, 주거개선

※ 보건복지부(2026).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4

Ⅱ. 制度化の経緯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統合ケアの定義と対象

「統合支援」とは
統合支援対象者に対し、本法に基づき国および地方自治体の長が、保健医療、健康管理、長期療養、日常生活ケア、住居、その他大統領令で定める分野のサービス等を、直接または連携を通じて統合的に提供することをいう。

◆ 対象

- 日常生活の維持が困難な 65 歳以上の高齢者
- 65 歳以上の高齢障害者
- 65 歳未満の重度障害者
- その他、地方自治体の長が必要性を認める者

2028 年に精神疾患のある人を対象に含める予定

◆ サービス： 4 分野 60 種類

保健医療	訪問診療、退院患者支援、看取りケア
健康管理	訪問健康管理、フレイル予防、健康増進
長期療養	訪問介護・看護・入浴、昼夜間通所ケア
日常生活ケア	高齢者個別ケア、食事・移動、住環境改善

※ 保健福祉部（2026）『2026 年 医療・療養統合ケア事業案内』

4

Ⅲ. 통합이 이루어진 범위

통합돌봄 추진체계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앙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 신설 : 1관 2과
시·도	16	전담조직(과 또는 팀) 15개소 설치(93.8%)
시·군·구	229	전담조직(과 또는 팀) 229개소 설치(100.0%) 법 제21조제1항(임의규정)
읍·면·동	3,465	통합돌봄 전담 인력(1~2인) 배치(100.0%) 법 제21조제3항(규정없음)

→ **시·도 통합지원협의체**
법 제20조제1항 : 설치 의무
지역계획의 수립·평가 등을 심의

→ **시·군·구 통합지원협의체**
법 제20조제1항 : 설치 의무
지역계획의 수립·평가 등을 심의

5

III. 統合が進んだ範囲

統合ケアの推進体制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中央	保健福祉部	統合ケア支援官を新設： 1 官 2 課
市・道	16	専任組織（課またはチーム） 15 か所に設置（ 93.8% ）
市・郡・区	229	専任組織（課またはチーム） 229 か所に設置（ 100.0% ） 法第 21 条第 1 項（任意規定）
邑・面・洞	3,465	統合ケア専任職員（ 1~2 人）を 配置（ 100.0% ） 法第 21 条第 3 項（規定なし）

→ **市・道の統合支援協議体**
法第 20 条第 1 項：設置義務
地域計画の策定・評価等を審議

→ **市・郡・区の統合支援協議体**
法第 20 条第 1 項：設置義務
地域計画の策定・評価等を審議

5

Ⅲ. 통합이 이루어진 범위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합돌봄 절차 규정

법률로 절차를 규정

❶ 신청·발굴 제10조	❷ 종합판정 제12조	❸ 개인별지원계획 제13조	❹ 연계·제공 제14조	❺ 점검·조정 제14조제4항

신 청	조 사	계 획	연 계	모니터링
읍면동, 건보공단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의료, 요양, 돌봄 필요도 종합판정조사	필요도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 제공	대상자 상태변화 등 필요시 계획 변경
• 읍면동, 시군구 • 건보공단 • 직권신청 • 사전 조사 실시	• 지자체 • 전문기관	• 통합지원회의 • 시군구 중심, 서비스 제공기관 유기적 협력	• 보건의료 • 건강관리 • 장기요양 • 일상생활지원 등	• 시군구 총괄관리 • 읍면동 모니터링 수행(제공기관 협력)

통합지원회의
최소 월2회 개최

6

Ⅲ. 統合が進んだ範囲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統合ケアの手続き規定

法律で手続きを規定

❶ 申請・把握 第 10 条	❷ 総合判定 第 12 条	❸ 個別支援計画 第 13 条	❹ 連携・提供 第 14 条	❺ 点検・調整 第 14 条第 4 項

申請	調査	計画	連携	モニタリング
邑・面・洞、健康保険公団等 どこでも便利に	医療・療養・ケアの必要度を総合判定・調査	必要度に応じた個別支援計画の策定	医療・療養・ケアのサービスを連携・提供	対象者の状態変化等に応じ 必要時に計画を変更
・邑・面・洞、市・郡・区 ・健康保険公団 ・職権による申請 ・事前調査を実施	・自治体 ・専門機関	・統合支援会議 ・市・郡・区を中心に サービス提供機関と有機的に連携	・保健医療 ・健康管理 ・長期療養 ・日常生活支援等	・市・郡・区が総括管理 ・邑・面・洞がモニタリングを実施（提供機関と協力）

統合支援会議
月 2 回以上開催

6

Ⅲ. 통합이 이루어진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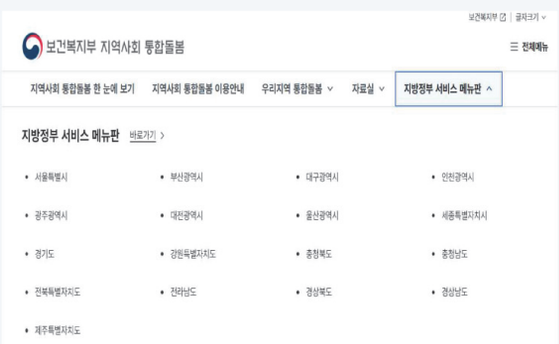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계서비스: 통합돌봄 서비스 메뉴판

지자체별로 연계가능한 서비스를 메뉴판으로 구성 운영

◆ 지역사회 통합돌봄 누리집 홈페이지 개설
https://www.mohw.go.kr/

기초자치단체별 서비스 메뉴판 등록



□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비스 메뉴판

대분류	중분류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제공기관	사업구분
① 보건의료	방문진료	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요양서비스에 방문의료 연계 제공	장기요양 수급자	건강보험공단	전국
		2	노인 방문 구강관리 사업	거동불편 노인의 구강위생 및 구강기능개선	노인	보건소 의약과	지역특화
		3	재가의료급여사업	장기입원자 퇴원 후 의료,돌봄,주거환경 개선 등	의료급여 수급자	사회복지과	지역특화
		4	중랑구 돌봄통합 방문의료지원사업	의사(한의사)가 가정방문하여 방문진료서비스 제공	노인 장애인	돌봄통합과	지역특화
		5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사업(의과한의)	거동불편 환자 방문 진료	노인 장애인	건강보험공단	전국
		6	다제약물관리사업	약물 중복 및 부작용 등 점검, 모니터링 서비스	건강보험가입자 만성질환으로 10개이상 약복용자	건강보험공단	전국
		7	서울케어-서울의료원 건강돌봄네트워크	다학제팀 구성(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발굴 의료취약계층, 시립병원 퇴원환자	서울의료원 건강돌봄 네트워크팀	지역특화
		8	서울케어-북부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건강관리 등		북부병원 건강돌봄 네트워크팀	지역특화
		9	방문 구강검진 및 치료연계프로그램	방문 기반 구강검진 및 지역 치과 연계 서비스 제공	와병 치과치료 접근 어려운 노인	중랑구 치과의사회	지역특화
		10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가정으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팀이 방문하여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말기암환자 등 가정형 호스피스가 필요한 환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지역특화

8

Ⅲ. 統合が進んだ範囲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連携サービス：統合ケアのサービスメニュー

自治体ごとに連携可能なサービスをメニューとして編成・運用

◆ 地域社会統合ケアのウェブサイトを開設
https://www.mohw.go.kr/

基礎自治体別のサービスメニューを掲載



□ ソウル特別市 中浪区 サービスメニュー

大分類	中分類	番号	事業名	事業内容	支援対象	提供機関	事業区分
① 保健医療	訪問診療	1	長期療養在宅医療センターモデル事業	長期療養受給者に療養サービスと訪問医療を連携・提供	長期療養受給者	健康保険公団	全国
		2	高齢者訪問口腔管理事業	移動困難な高齢者の口腔衛生・口腔機能を改善	高齢者	保健所医薬課	地域特化
		3	在宅医療給付事業	長期入院者の退院後の医療・ケア・住環境改善等	医療給付受給者	社会福祉課	地域特化
		4	中浪区ケア統合訪問医療支援事業	医師（韓方医）が家庭を訪問し、訪問診療サービスを提供	高齢者・障害者	ケア統合課	地域特化
		5	一次医療訪問診療報酬事業（医科・韓方）	移動困難な患者への訪問診療	高齢者・障害者	健康保険公団	全国
		6	多剤服薬管理事業	薬の重複・副作用等の点検、モニタリングサービス	健康保険加入の慢性疾患患者で10種類以上の服薬者	健康保険公団	全国
		7	ソウルケア―ソウル医療院 健康ケアネットワーク	多職種チーム（医師・看護師・社会福祉士）による統合サービス提供	地域社会で把握された医療上の脆弱層、市立病院の退院患者	ソウル医療院 健康ケアネットワークチーム	地域特化
		8	ソウルケア―北部病院 健康ケアネットワーク	家庭訪問、医療・社会福祉サービス、健康管理等		北部病院 健康ケアネットワークチーム	地域特化
		9	訪問口腔検診・治療連携プログラム	訪問による口腔検診および地域の歯科と連携したサービス提供	外来歯科診療へのアクセスが困難な高齢者	中浪区歯科医師会	地域特化
		10	在宅型ホスピス・緩和医療	ホスピス・緩和医療チームが家庭を訪問し統合ケアサービスを提供	末期がん患者等、在宅型ホスピスが必要な患者	ソウル特別市 北部病院	地域特化

8

Ⅳ

잔존하는 분절의 네 층위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재원

2 사업

3 정보

4 책임과 수단

9

Ⅳ

残存する分断の 4 つの層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1 財源

2 事業

3 情報

4 責任と手段

9

Ⅳ. 재원

통합돌봄 예산과 재정구조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58억 원
2027년 통합돌봄 본예산
전년 대비 1.7배 확대

655백만 원
시군구 1개소당 국고지원
2025년 시범사업 대비 1.1배

38.2조 원
통합돌봄 관련 재정사업 총액
2027년 예산안 기준

※ 이영숙(2026). 2027년 통합돌봄 예산과 재원확보 방향

주요 연계사업	재원
방문진료, 재택의료	건강보험
장기요양 (방문요양·간호, 주야간보호)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 방문간호 등	일반회계, 기금 등(국비, 지방비 매칭 등)
지역특화서비스	통합돌봄사업 예산(국비+지방비)

10

Ⅳ. 財源

統合ケアの予算と財政構造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1,558 億ウォン
2027 年の統合ケア本予算
前年比 1.7 倍に拡大

655 百万ウォン
市・郡・区 1 か所当たりの国庫支援
2025 年のモデル事業比 1.1 倍

38.2 兆ウォン
統合ケア関連財政事業の総額
2027 年予算案ベース

※ イ・ヨンスク（2026）「2027 年の統合ケア予算と財源確保の方向」

主な連携事業	財源
訪問診療、在宅医療	健康保険
長期療養（訪問介護・看護、昼夜間通所ケア）	高齢者長期療養保険
高齢者個別ケア、訪問看護等	一般会計・基金等（国費・地方費の共同負担等）
地域特化サービス	統合ケア事業予算（国費＋地方費）

10

Ⅳ. 사업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유의 체계를 유지하는 연계 사업

◆ 주요 연계사업의 자격 및 급여 결정 주체

주요 연계사업	재원	자격 기준	급여 결정 주체
방문진료, 재택의료	건강보험	건강보험 자격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방문요양·간호, 주야간보호)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맞춤돌봄, 방문간호 등	일반회계, 기금 등(국비, 지방비 매칭 등)	개별사업지침	개별사업마다 상이
지역특화서비스	통합돌봄사업 예산(국비+지방비)	지자체(시군구)	지자체(시군구)

계획과 결정의 분리

시군구가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결정권한은 개별사업의 몫

11

Ⅳ. 事業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固有の仕組みを維持する連携事業

◆ 主な連携事業の資格・給付決定主体

主な連携事業	財源	資格基準	給付決定主体
訪問診療、在宅医療	健康保険	健康保険の資格	国民健康保険公団
長期療養（訪問介護・看護、昼夜間通所ケア）	高齢者長期療養保険	長期療養等級	国民健康保険公団
高齢者個別ケア、訪問看護等	一般会計・基金等（国費・地方費の共同負担等）	個別事業の指針	個別事業ごとに異なる
地域特化サービス	統合ケア事業予算（国費＋地方費）	自治体（市・郡・区）	自治体（市・郡・区）

計画と決定の分離

市・郡・区が計画を策定しても
決定権限は個別事業に属する

11

Ⅳ. 사업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사례관리사업과의 관계 설정

◆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통합사례관리	의료·요양 통합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의료급여 사례관리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서비스	자활 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중독 사례관리
정신건강 사례관리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고립은둔·가족돌봄청년		

◆ 읍면동 수준에서의 공통된 사례관리 업무의 흐름

사업	① 발굴·접수	② 초기상담·조사	③ 계획 수립	④ 모니터링
복지사각지대 발굴	발굴 명단 통보	초기상담	급여·자원 연계	모니터 상담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안부 확인	서비스 연계	정기 안부 확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욕구·위기도 조사	사례관리 계획	점검·종결
통합돌봄	신청·발굴	방문조사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

12

Ⅳ. 事業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公共ケースマネジメント事業との関係整理

◆ 公共部門のケースマネジメント事業

統合ケースマネジメント	医療・療養統合ケア	高齢者個別ケアサービス	医療給付 ケースマネジメント	ドリームスタート
児童保護サービス	自立支援 ケースマネジメント	訪問健康管理	障害者の保健・健康 ケースマネジメント	依存症 ケースマネジメント
精神保健 ケースマネジメント	自殺未遂者 ケースマネジメント	孤立・ひきこもり／ 家族をケアする若者		

◆ 邑・面・洞レベルにおける共通のケースマネジメント業務の流れ

事業	① 把握・受付	② 初回相談・調査	③ 計画策定	④ モニタリング
福祉の狭間にある人の把握	把握対象者名簿の通知	初回相談	給付・資源との連携	モニタリング相談
孤独死予防	実態調査	安否確認	サービス連携	定期的な安否確認
統合ケースマネジメント	対象者の把握	ニーズ・危機度調査	ケースマネジメント計画	点検・終結
統合ケア	申請・把握	訪問調査	個別支援計画	モニタリング

12

Ⅳ. 사업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합사례관리란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이래 시군구에서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사례관리 체계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에 근거한 사업

지역 내 공공·민간 자원의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해 나가는 사업

◆ 사업 대상

발굴된 위기가구 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고독사 위험자, 가족돌봄청년 등

자활과 일상의 회복이 필요한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차상위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등

◆ 대상자의 구분

사례관리 가구

복합적 욕구로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 개입이 필요하며, 사례회의 등 일반적인 사례관리 절차를 적용한다.

서비스 연계 가구

욕구가 단편적이어서 1개월 미만의 단기 개입이나 단순 연계로 해결이 가능하며, 사례관리 절차를 축소하여 적용한다.

※ 보건복지부(2026). 2026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13

Ⅳ. 事業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統合ケースマネジメントとは

2012 年の希望福祉支援団の設置以来、市・郡・区が複合的ニーズを持つ対象者に提供するケースマネジメント体制

社会保障給付法第 42 条の 2 に基づく事業

地域内の官民の資源を管理・支援する体制を基盤に、複合的かつ多様なニーズを持つ対象者へ必要なサービスを統合的に連携・提供し、継続的に相談・モニタリングを行う事業

◆ 事業の対象

把握された危機世帯のうちケースマネジメントが必要な世帯

若年・中高年の単身世帯、ケア危機世帯、低所得ひとり親、休廃業者、失業者、自殺高リスク者、孤独死リスク者、家族をケアする若者等

自立と日常生活の回復が必要な世帯

基礎生活保障の新規受給者、受給資格を失った人、次上位世帯、緊急支援対象世帯等

◆ 対象者の区分

ケースマネジメント対象世帯

複合的ニーズにより 1 か月以上の中長期的介入が必要。ケース会議等の通常のケースマネジメント手続きを適用する。

サービス連携対象世帯

ニーズが限定的で、1 か月未満の短期介入や単純な連携で解決が可能。ケースマネジメントの手続きを簡略化して適用する。

※ 保健福祉部（2026）『2026 年 希望福祉支援団業務案内』

13

Ⅳ. 사업

통합돌봄과 통합사례관리의 비교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구분	통합사례관리	통합돌봄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	돌봄통합지원법
성격	기능이자 방법, "실시할 수 있다"	정책이자 사업, 법정 절차
연원	2012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2019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목적	위기의 해소와 일상의 회복	거주지에서의 생활 유지
단위	가구	개인
대상	복합적 욕구를 가진 수급자·차상위 가구 중심	복합적 돌봄 필요를 가진 노인·장애인
범위	소득·고용·주거·건강·권익 전 영역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지원·주거
수행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시군구 전담조직, 읍면동

※ 민소영(2021)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14

Ⅳ. 事業

統合ケアと統合ケースマネジメントの比較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区分	統合ケースマネジメント	統合ケア
根拠	社会保障給付法第 42 条の 2	ケア統合支援法
性格	機能であり方法。「実施できる」	政策であり事業。法定手続き
起源	2012 年 市・郡・区の希望福祉支援団	2019 年 コミュニティケア先導事業
目的	危機の解消と日常生活の回復	居住地での生活維持
単位	世帯	個人
対象	複合的ニーズを持つ受給世帯・次上位世帯が中心	複合的ケアニーズを持つ高齢者・障害者
範囲	所得・雇用・住居・健康・権益の全領域	保健医療・療養・日常生活支援・住居
実施	希望福祉支援団、訪問型保健福祉チーム	市・郡・区の専任組織、邑・面・洞

※ ミン・ソヨン（2021）を基に再構成

14

Ⅳ. 사업

통합사례관리의 절차와 수행 체계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절차 : 10단계

1 대상자 발굴	2 초기상담	3 대상자 접수	4 욕구·위기도 조사	5 사례회의
6 대상자 구분·선정	7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8 서비스 제공·점검	9 종결	10 사후관리

◆ 수행 체계와 인력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 사업의 총괄 수행과 관리
- 의뢰된 가구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수행
- 팀장은 사회복지직을 우선 배치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위기가구의 발굴과 초기상담
- 사례관리 필요 가구를 희망복지지원단에 의뢰
- 종결 가구의 사후관리

통합사례관리사
- 통합사례관리 업무의 전담·전문인력
-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제2항에 근거
- 시군구에 최소 1인 이상 배치

업무담당자 1인이 담당하는 사례관리 가구는 15가구 내외

※ 보건복지부(2026). 2026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15

Ⅳ. 事業

統合ケースマネジメントの手続きと実施体制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 手続き： 10 段階

1 対象者の把握	2 初回相談	3 対象者の受付	4 ニーズ・危機度調査	5 ケース会議
6 対象者の区分・選定	7 サービス提供計画の策定	8 サービス提供・点検	9 終結	10 フォローアップ

◆ 実施体制と人員

市・郡・区の希望福祉支援団

事業全体の実施と管理
依頼世帯の受付から終結までを担当
チーム長は社会福祉職を優先配置

邑・面・洞の訪問型保健福祉チーム

危機世帯の把握と初回相談
ケースマネジメントが必要な世帯を
希望福祉支援団に紹介
終結世帯のフォローアップ

統合ケースマネジメント専門員

統合ケースマネジメント業務の
専任・専門人材
社会保障給付法第 42 条の 2 第 2 項
に基づく
市・郡・区に最低 1 人以上配置

担当者 1 人当たりのケースマネジメント対象世帯は 15 世帯程度

※ 保健福祉部（2026）『2026 年 希望福祉支援団業務案内』

15

Ⅳ. 사업

통합돌봄과 통합사례관리의 수행 체계 비교

	통합돌봄	통합사례관리
중앙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	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 찾아가는 보건복지 공동 소관
시·도	시·도 전담조직	
시·군·구	시·군·구 전담조직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내 전담인력 배치 권장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2016년 복지허브화 이후

16

Ⅳ. 事業

統合ケアと統合ケースマネジメントの実施体制の比較

	統合ケア	統合ケースマネジメント
中央	保健福祉部 統合ケア支援官	保健福祉部・行政安全部 訪問型保健福祉を共同所管
市・道	市・道の専任組織	
市・郡・区	市・郡・区の専任組織	希望福祉支援団 統合ケースマネジメント専門員を配置
邑・面・洞	訪問型保健福祉チーム内に 専任職員の配置を推奨	訪問型保健福祉チーム 2016 年の福祉ハブ化以降

16

Ⅳ. 사업

동일 대상에 대한 두 제도의 접근 차이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통 영역	통합돌봄의 접근	통합사례관리의 접근
주거	손잡이와 문턱 제거 등 돌봄이 가능한 주거 환경의 조성	체납·퇴거 위기·비적정 거처 등 주거 불안정의 해소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상담·교육·휴식 지원	소득 상실, 가족돌봄청년, 관계 해체에 대한 개입
일상생활	가사·식사·이동 등 서비스의 안정적 연계	생활환경과 위생 등 가구 기능의 회복

중첩 구역의 확대

복합적 돌봄 필요에 가구의 위기가 더해진 경우, 두 체계 모두 해당

2028년에 정신질환자가 통합돌봄 대상에 포함되면 중첩은 확대

연계를 위해서는
- 사업, 재원의 통합적 고려
- 인력의 배치(통합사례관리사 등), 활용에 대한 고려 등이 필요

17

Ⅳ. 事業

同じ対象者に対する両制度のアプローチの違い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共通領域	統合ケアのアプローチ	統合ケースマネジメントのアプローチ
住居	取っ手・敷居の除去等、ケアが可能な 住環境の整備	滞納・退去危機・不適切な住居等に伴う 居住の不安定性の解消
家族	ケア負担軽減のための相談・教育・休息支援	所得喪失、家族をケアする若者、 関係の断絶への介入
日常生活	家事・食事・移動等のサービスへの 安定的な連携	生活環境・衛生等の世帯機能の回復

重複領域の拡大

複合的ケアニーズに世帯の危機が加わる場合、両制度の対象となる

2028 年に精神疾患のある人が統合ケアの対象に加わると、重複が拡大

連携のためには
- 事業・財源を統合的に検討
- 人員配置（統合ケースマネジメント専門員等）や活用の検討が必要

17

Ⅳ. 정보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시스템 연계의 범위

돌봄통합지원법 제2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다음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통합지원정보시스템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사회보장급여법	3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지역보건법
4 치매정보시스템 치매관리법	5 건강보험·장기요양 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병원, 서비스 제공기관 등 민간기관의 시스템 접속이 제한되어 대상자 정보 연계, 실시간 서비스 모니터링 등의 한계

18

Ⅳ. 情報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情報システム連携の範囲

ケア統合支援法第 22 条

保健福祉部長官は、統合支援情報システムを構築・運用できる。
同システムは、以下の情報システムと電子的に連携できる。

統合支援情報システム

1 社会保障情報システム 社会保障基本法	2 社会サービス情報システム 社会保障給付法	3 地域保健医療情報システム 地域保健法
4 認知症情報システム 認知症管理法	5 健康保険・長期療養システム 国民健康保険公団	6 その他、大統領令で定めるもの

病院・サービス提供機関等の民間機関はシステムへの接続が制限されており、対象者情報の連携やリアルタイムのサービスモニタリング等に限界がある

18

Ⅳ. 책임과 수단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과 수단의 불일치

지방에 부과된 책임	중앙에 유보된 수단
지역계획의 수립 (법 제6조)	지역계획의 평가와 평가 항목의 부령 위임 (제9조)
종합판정과 개인별지원계획의 작성	판정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 (제12조·제25조)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확정 연계사업의 대상자 연계와 조정	연계사업의 재정과 급여의 결정
지역특화서비스의 설계와 운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대상자 관리와 사업의 집행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차등 지원 (제28조제1항)

판정 권한의 실질적 소재에 대한 논란

법 제12조제1항

판정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법 제12조제3항 · 제25조

그 판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9

Ⅳ. 責任と手段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責任と手段の不一致

地方に課された責任	中央に留保された手段
地域計画の策定（法第 6 条）	地域計画の評価と評価項目の部令への委任（第 9 条）
総合判定と個別支援計画の作成	判定権限の専門機関への委託（第 12 条・第 25 条）
統合支援会議による個別支援計画の確定 連携事業への対象者のつなぎ・調整	連携事業の財政と給付の決定
地域特化サービスの設計・運営	社会保障制度の新設・変更に関する協議
対象者管理と事業の執行	評価結果に応じた予算の差等支援（第 28 条第 1 項）

判定権限の実質的な所在をめぐる議論

法第 12 条第 1 項

判定の主体は
市長・郡守・区庁長である。

法第 12 条第 3 項・第 25 条

判定を保健福祉部長官が
指定する専門機関に委託できる。

19

V. 결론

통합돌봄 완성을 위한 과제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합돌봄 100일간의 운영 실적

-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46,215명
  - ✓ 65세 이상 노인은 45,619명(98.7%)
  - ✓ 장애인은16,568명(35.8%, 고령 장애인 중복 집계)
- 그 중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37,304명
-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연계
  - ✓ 일상생활돌봄(가사지원, 이동지원 등)43.1%
  - ✓ 건강관리예방(치매전문관리, 정신건강관리 등)19.7%
  - ✓ 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등)12.8%
  - ✓ 주거복지(중간집, 주거환경 개선 등)10.1%
  - ✓ 보건의료(방문진료, 방문간호 등)9.1%
  - ✓ 기타(안부확인 등)5.3% 순
- 총 서비스 제공건수 123,595건
  - ✓ 국가사업이 62.6%, 지역특화 서비스가 37.4%

□ 사업운영 총괄 현황

(단위: 명)

대상자 (단위:명)	신청·접수		조사		서비스연계	
		주평균		주평균		주평균
계	46,215	3,301	40,245	2,875	37,304	2,665
노인	45,619	3,259	39,837	2,846	37,034	2,645
장애인(65세미만)	596	43	408	29	270	19

□ 연계서비스 분석

(단위: 건)

전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복지	기타
총 건수	123,595	11,196	24,352	15,770	53,251	12,446	6,580
비율	(100%)	9.1%	19.7%	12.8%	43.1%	10.1%	5.3%

□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현황

연번	시도	신청자 수(명)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전국		45,619	41.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7.3)

20

V. 結論

統合ケアの完成に向けた課題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統合ケア 100 日間の運営実績

- **申請・受付を完了した対象者は計 46,215 人**
- ✓**65 歳以上の高齢者は 45,619 人（ 98.7%）**
- ✓**障害者は 16,568 人（ 35.8%、高齢障害者を重複集計）**
- うち統合ケアサービスにつながった人は 37,304 人
- ✓**1 人当たり平均 3.3 件のサービスを連携**
- ✓日常生活ケア（家事支援、移動支援等） 43.1%
- ✓健康管理・予防（認知症専門管理、精神保健管理等） 19.7%
- ✓長期療養（訪問介護、訪問入浴等） 12.8%
- ✓住居福祉（中間住宅、住環境改善等） 10.1%
- ✓保健医療（訪問診療、訪問看護等） 9.1%
- ✓その他（安否確認等） 5.3% の順
- **サービス提供総件数 123,595 件**
- ✓**国の事業 62.6%、地域特化サービス 37.4%**

□ 事業運営の総括状況

(単位：人)

対象者（単位：人）	申請・受付		調査		サービス連携	
		週平均		週平均		週平均
計	46,215	3,301	40,245	2,875	37,304	2,665
高齢者	45,619	3,259	39,837	2,846	37,034	2,645
障害者（65歳未満）	596	43	408	29	270	19

□ 連携サービスの分析

(単位：件)

全体		保健医療	健康管理	長期療養	日常生活ケア	住居福祉	その他
総件数	123,595	11,196	24,352	15,770	53,251	12,446	6,580
割合	(100%)	9.1%	19.7%	12.8%	43.1%	10.1%	5.3%

□ 高齢者人口1万人当たりの申請状況

番号	市・道	申請者数（人）	高齢者人口1万人当たり申請者
全国		45,619	41.0

※ 保健福祉部 報道資料（2026.7.3）

20

V. 결론

통합돌봄 완성을 위한 과제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재원	분절된 재원의 통합적 운용 방식 검토
2	사업	통합지원회의의 구속력 확보, 연계사업의 대상 선정 기준, 체계의 공통화
3	정보	통합지원정보시스템 연계 범위의 확대
4	책임과 수단	지자체에 부여한 책임에 상응하는 수단과 권한을 부여

이에 더하여

연계할 자원 자체가 부족한 취약지역에 대한 공급 확충

21

V. 結論

統合ケアの完成に向けた課題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1	財源	分断された財源の統合的な運用方法を検討
2	事業	統合支援会議の拘束力を確保し、 連携事業の対象者選定基準・仕組みを共通化
3	情報	統合支援情報システムの連携範囲を拡大
4	責任と手段	自治体に課した責任に見合う手段と権限を付与

これに加えて

連携可能な資源そのものが不足する脆弱地域への供給を拡充

21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발표 2

発表 2

지역포괄케어에서 지역공생사회로
-「8050 가구」와 관련성 높은 인구분석으로 본 개호보험제도의 새로운 역할 -

地域包括ケアから地域共生社会へ
-「8050世帯」と親和性の高い人口分析からみる介護保険制度の新たな役割 -

FUJII, Takiko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사회보장기초이론연구부장

藤井 多希子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社会保障基礎理論研究部長

지역포괄케어에서 지역공생사회로
-「8050가구」와 관련성 높은 인구분석으로 본 개호보험제도의 새로운 역할 -

From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to a Community of Social Inclusion
- The Emerging Role of Japan's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sights from an Analysis of Populations Closely Associated with '8050 Households'

2026년 11월 3일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사회보장기초이론연구부장

후지이 다키코

1

地域包括ケアから地域共生社会へ
―「8050世帯」と親和性の高い人口分析からみる介護保険制度の新たな役割―

From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to a Community of Social Inclusion
- The Emerging Role of Japan's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sights from an Analysis of Populations Closely Associated with '8050 Households'

2026年11月3日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社会保障基礎理論研究部長

藤井　多希子

1

개호보험제도 창설 이전 노인복지·노인의료정책의 경과

연 대	고령화율	주요 정책
1960년대 노인복지정책의 시작	5.7% (1960)	1962(쇼와37)년 방문개호(홈헬프서비스) 사업 창설 1963(쇼와38)년 노인복지법 제정 ◇특별양호노인홈 창설, 방문개호 법제화
1970년대 노인의료비 증가	7.1% (1970)	1973(쇼와48)년 노인의료비 무료화 1978(쇼와53)년 단기입소생활개호(쇼트스테이) 사업 창설 1979(쇼와54)년 주간개호(데이서비스) 사업 창설
1980년대 사회적 입원과 와상노인의 사회문제화	9.1% (1980)	1982(쇼와57)년 노인보건법 제정 ◇노인의료비 정액 부담 도입 등 1987(쇼와62)년 노인보건법 개정(노인보건시설 창설) 1989(헤이세이 원)년 소비세 신설(3%) 골드플랜(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 수립 ◇시설의 긴급 정비와 재가복지 추진
1990년대 골드플랜 추진 개호보험제도 도입 준비	12.0% (1990)	1990(헤이세이2)년 복지 8법 개정 ◇복지서비스의 시정촌 일원화, 노인보건복지계획 1992(헤이세이4)년 노인보건법 개정(노인방문간호제도 창설) 1994(헤이세이6)년 후생성에 고령자개호대책본부 설치(개호보험제도 검토) 신골드플랜 수립(정비 목표 상향 조정) 1996(헤이세이8)년 개호보험제도 창설에 관한 연립여당 3당(자민·사회·사키가케) 정책 합의 1997(헤이세이9)년 소비세 인상(3%→5%) 개호보험법 성립
2000년대 개호보험제도 시행	17.3% (2000)	2000(헤이세이12)년 개호보험법 시행

2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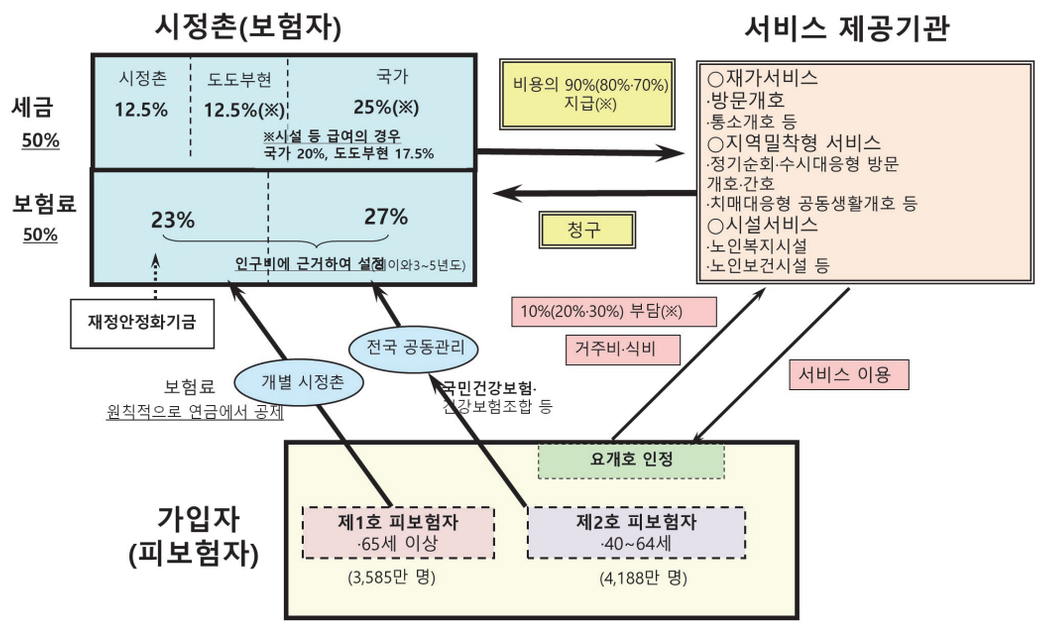
介護保険制度の創設前の老人福祉・老人医療政策の経緯

年　代	高齢化率	主 な 政 策
1960年代 老人福祉政策の始まり	5.7% (1960)	1962(昭和37)年 訪問介護(ホームヘルプサービス)事業の創設 1963(昭和38)年 老人福祉法制定 ◇特別養護老人ホーム創設、 訪問介護法制化
1970年代 老人医療費の増大	7.1% (1970)	1973(昭和48)年 老人医療費無料化 1978(昭和53)年 短期入所生活介護(ショートステイ)事業の創設 1979(昭和54)年 日帰り介護(デイサービス)事業の創設
1980年代 社会的入院や 寝たきり老人の 社会的問題化	9.1% (1980)	1982(昭和57)年 老人保健法の制定 ◇老人医療費の一定額負担の導入等 1987(昭和62)年 老人保健法改正(老人保健施設の創設) 1989(平成元)年 消費税の創設(3%) ゴールドプラン(高齢者保健福祉推進十か年戦略)の策定 ◇施設緊急整備と在宅福祉の推進
1990年代 ゴールドプランの推進 介護保険制度の導入準備	12.0% (1990)	1990(平成2)年 福祉8法改正 ◇福祉サービスの市町村への一元化、老人保健福祉計画 1992(平成4)年 老人保健法改正(老人訪問看護制度創設) 1994(平成6)年 厚生省に高齢者介護対策本部を設置(介護保険制度の検討) 新ゴールドプラン策定(整備目標を上方修正) 1996(平成8)年 介護保険制度創設に関する連立与党3党(自社さ)政策合意 1997(平成9)年 消費税の引上げ(3%→5%) 介護保険法成立
2000年代 介護保険制度の実施	17.3% (2000)	2000(平成12)年 介護保険法施行

2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개호보험제도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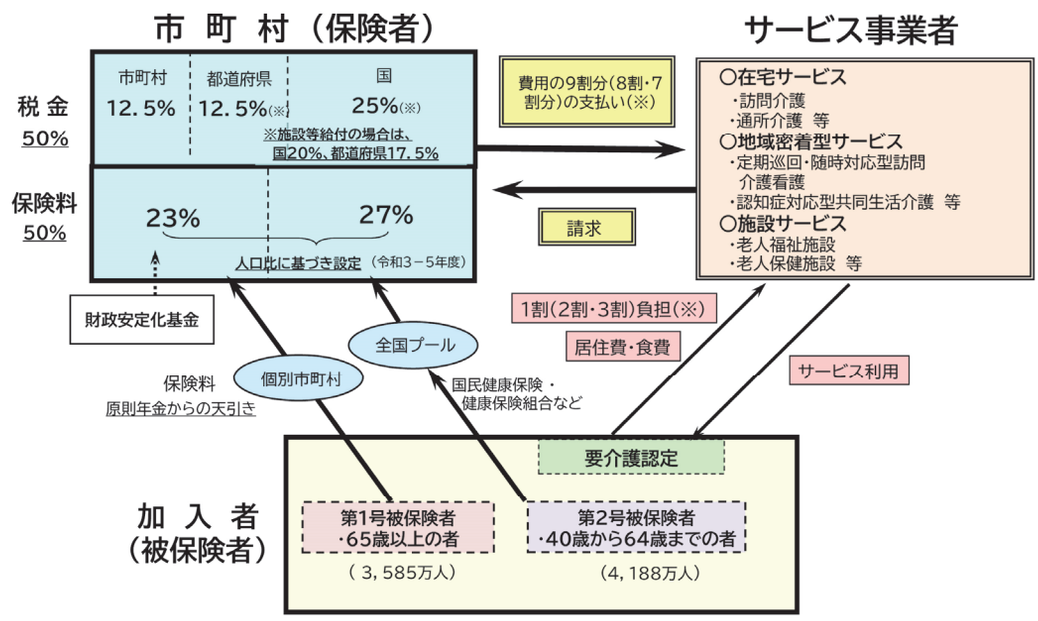


(주) 제1호 피보험자 수는 「2022년도 개호보험사업 상황보고 연보」에 따른 것으로, 2022년도 말 기준 수치임.
제2호 피보험자 수는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이 개호급여비 납부액을 확정하기 위해 의료보험자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른 것으로, 2022년도 월평균 수치임.
(※) 일정 소득 이상인 사람은 비용의 20%(2015년 8월 시행) 또는 30%(2018년 8월 시행)를 부담.

3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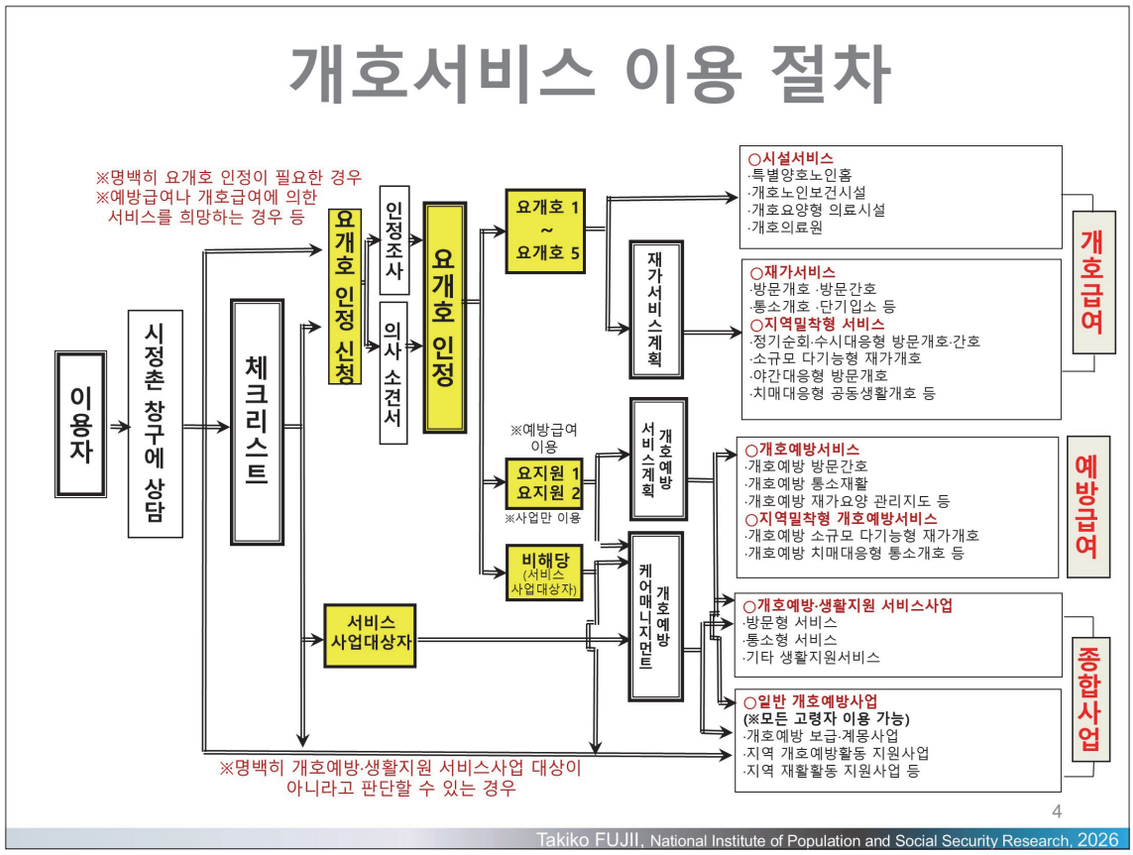
介護保険制度の仕組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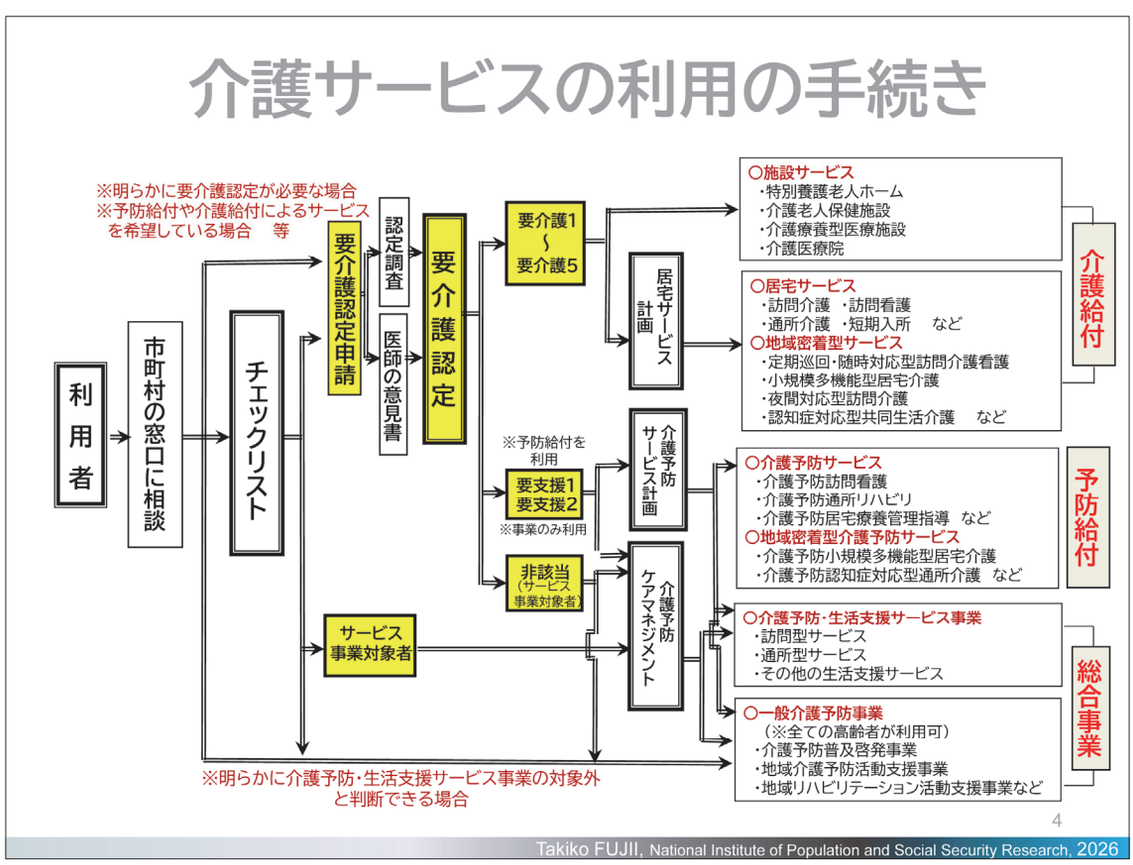


(注) 第1号被保険者の数は、「2022年度介護保険事業状況報告年報」によるものであり、2022年度末現在の数である。
第2号被保険者の数は、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が介護給付費納付金額を確定するための医療保険者からの報告によるものであり、2022年度内の月平均値である。
(※)一定以上所得者については、費用の2割負担(2015年8月施行)又は3割負担(2018年8月施行)。

3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개호서비스 이용 절차
※명백히 요개호 인정이 필요한 경우
※예방급여나 개호급여에 의한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등
이용자
시정촌 창구에 상담
체크리스트
요개호 인정 신청
인정조사
의사 소견서
요개호 인정
요개호 1 ~ 요개호 5
재가서비스계획
○시설서비스
·특별양호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개호의료원
○재가서비스
·방문개호 ·방문간호
·통소개호 ·단기입소 등
○지역밀착형 서비스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재가개호
·야간대응형 방문개호
·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개호 등
개호급여
※예방급여 이용
요지원 1 요지원 2
※사업만 이용
비해당 (서비스 사업대상자)
개호예방 서비스계획
개호예방 케어매니지먼트
○개호예방서비스
·개호예방 방문간호
·개호예방 통소재활
·개호예방 재가요양 관리지도 등
○지역밀착형 개호예방서비스
·개호예방 소규모 다기능형 재가개호
·개호예방 치매대응형 통소개호 등
예방급여
서비스 사업대상자
○개호예방·생활지원 서비스사업
·방문형 서비스
·통소형 서비스
·기타 생활지원서비스
○일반 개호예방사업
(※모든 고령자 이용 가능)
·개호예방 보급·계몽사업
·지역 개호예방활동 지원사업
·지역 재활활동 지원사업 등
종합사업
※명백히 개호예방·생활지원 서비스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4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介護サービスの利用の手続き
※明らかに要介護認定が必要な場合
※予防給付や介護給付によるサービスを希望している場合　等
利用者
市町村の窓口に相談
チェックリスト
要介護認定申請
認定調査
医師の意見書
要介護認定
要介護1 ～ 要介護5
居宅サービス計画
○施設サービス
・特別養護老人ホーム
・介護老人保健施設
・介護療養型医療施設
・介護医療院
○居宅サービス
・訪問介護　・訪問看護
・通所介護　・短期入所　など
○地域密着型サービス
・定期巡回・随時対応型訪問介護看護
・小規模多機能型居宅介護
・夜間対応型訪問介護
・認知症対応型共同生活介護　など
介護給付
※予防給付を利用
要支援1 要支援2
介護予防サービス計画
○介護予防サービス
・介護予防訪問看護
・介護予防通所リハビリ
・介護予防居宅療養管理指導　など
○地域密着型介護予防サービス
・介護予防小規模多機能型居宅介護
・介護予防認知症対応型通所介護　など
予防給付
※事業のみ利用
非該当 (サービス事業対象者)
介護予防ケアマネジメント
サービス事業対象者
○介護予防・生活支援サービス事業
・訪問型サービス
・通所型サービス
・その他の生活支援サービス
○一般介護予防事業
（※全ての高齢者が利用可）
・介護予防普及啓発事業
・地域介護予防活動支援事業
・地域リハビリテーション活動支援事業など
総合事業
※明らかに介護予防・生活支援サービス事業の対象外と判断できる場合
4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개호보험제도의 주요 개정 경과

2000년 4월 개호보험법 시행

제1기 (2000년도~)

제2기 (2003년도~)

2005년 개정(2006년 4월 등 시행)
- ○개호예방 중시(요지원자 급여를 개호예방급여로 전환. **지역포괄지원센터** 창설, 개호예방 케어매니지먼트는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 실시. 개호예방사업·포괄적 지원사업 등 지역지원사업 실시)
- ○소규모 다기능형 재가개호 등 지역밀착서비스 창설, 개호서비스 정보 공표, 부담능력을 세밀히 반영한 제1호 보험료 설정 등

제3기 (2006년도~)

2008년 개정(2009년 5월 시행)
- ○개호서비스 제공기관의 법령 준수 등 업무관리체계 정비. 휴업·폐업 사전신고제. 휴업·폐업 시 서비스 확보 의무화 등

제4기 (2009년도~)

2011년 개정(2012년 4월 등 시행)
- ○**지역포괄케어 추진**. 24시간 대응 정기순회·수시대응서비스 및 복합형 서비스 창설. **개호예방·일상생활지원 종합사업 창설.** 개호요양병상 폐지 기한 유예(공포일)
- ○의료적 케어 제도화. 개호직원의 가래 흡인 등. 유료노인홈 등의 선납금 반환 관련 이용자 보호

제5기 (2012년도~)

2014년 개정(2015년 4월 등 시행)
- ○지역의료·개호 종합확보기금 창설
-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지원사업 확충(재택의료·개호 연계, 치매 시책 추진 등)**
- ○전국 공통의 **예방급여(방문개호·통소개호)를 시정촌이 수행하는 지역지원사업으로 전환·다양화**
- ○저소득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경감 비율 확대, 일정 소득 이상 이용자의 본인부담 인상(헤이세이27년 8월) 등
- ○특별양호노인홈 입소 대상을 중등도·중증자로 중점화

제6기 (2015년도~)

제7기 (2018년도~)

2017년 개정(2018년 4월 등 시행)
- ○모든 시정촌이 보험자 기능을 발휘하여 자립지원·중증화 방지에 나서는 체계 제도화
- ○「일상적 의학관리」, 「임종 돌봄·말기 케어」 등의 기능과 「생활시설」 기능을 겸비한 개호의료원 창설
- ○특히 소득이 높은 계층의 이용자 부담 비율 조정(20%→30%), 개호납부금에 총보수 비례방식 도입 등

제8기 (2021년도~)

2020년 개정(2021년 4월 시행)
- ○지역주민의 복잡·복합적인 지원 욕구에 대응하는 **시정촌의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지원**
- ○의료·개호 데이터 기반 정비 추진

5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介護保険制度の主な改正の経緯

2000年4月　介護保険法施行

第1期 (2000年度～)

第2期 (2003年度～)

2005年改正(2006年4月等施行)
- ○介護予防の重視(要支援者への給付を介護予防給付に。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を創設、介護予防ケアマネジメントは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が実施。介護予防事業、包括的支援事業などの地域支援事業の実施)
- ○小規模多機能型居宅介護等の地域密着サービスの創設、介護サービス情報の公表、負担能力をきめ細かく反映した第1号保険料の設定　など

第3期 (2006年度～)

2008年改正(2009年5月施行)
- ○介護サービス事業者の法令遵守等の業務管理体制整備。休止・廃止の事前届出制。休止・廃止時のサービス確保の義務化等

第4期 (2009年度～)

2011年改正(2012年4月等施行)
- ○地域包括ケアの推進。24時間対応の定期巡回・随時対応サービスや複合型サービスの創設。介護予防・日常生活支援総合事業の創設。介護療養病床の廃止期限の猶予(公布日)
- ○医療的ケアの制度化。介護職員によるたんの吸引等。有料老人ホーム等における前払金の返還に関する利用者保護

第5期 (2012年度～)

2014年改正(2015年4月等施行)
- ○地域医療介護総合確保基金の創設
- ○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構築に向けた地域支援事業の充実(在宅医療・介護連携、認知症施策の推進等)
- ○全国一律の予防給付(訪問介護・通所介護)を市町村が取り組む地域支援事業に移行し、多様化
- ○低所得の第一号被保険者の保険料の軽減割合を拡大、一定以上の所得のある利用者の自己負担引上げ(平成27年8月)　等
-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入所者を中重度者に重点化

第6期 (2015年度～)

第7期 (2018年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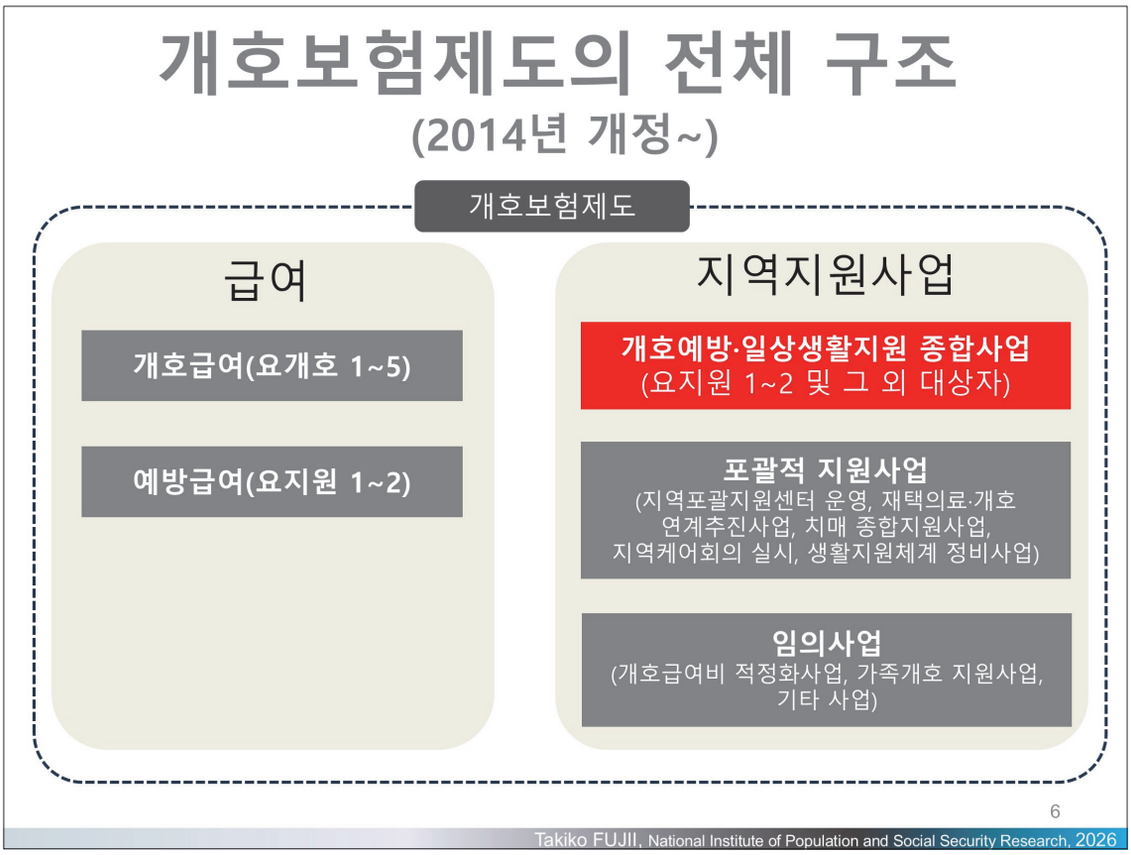
2017年改正(2018年4月等施行)
- ○全市町村が保険者機能を発揮し、自立支援・重度化防止に向けて取り組む仕組みの制度化
- ○「日常的な医学管理」、「看取り・ターミナル」等の機能と「生活施設」としての機能を兼ね備えた、介護医療院の創設
- ○特に所得の高い層の利用者負担割合の見直し(2割→3割)、介護納付金への総報酬割の導入　な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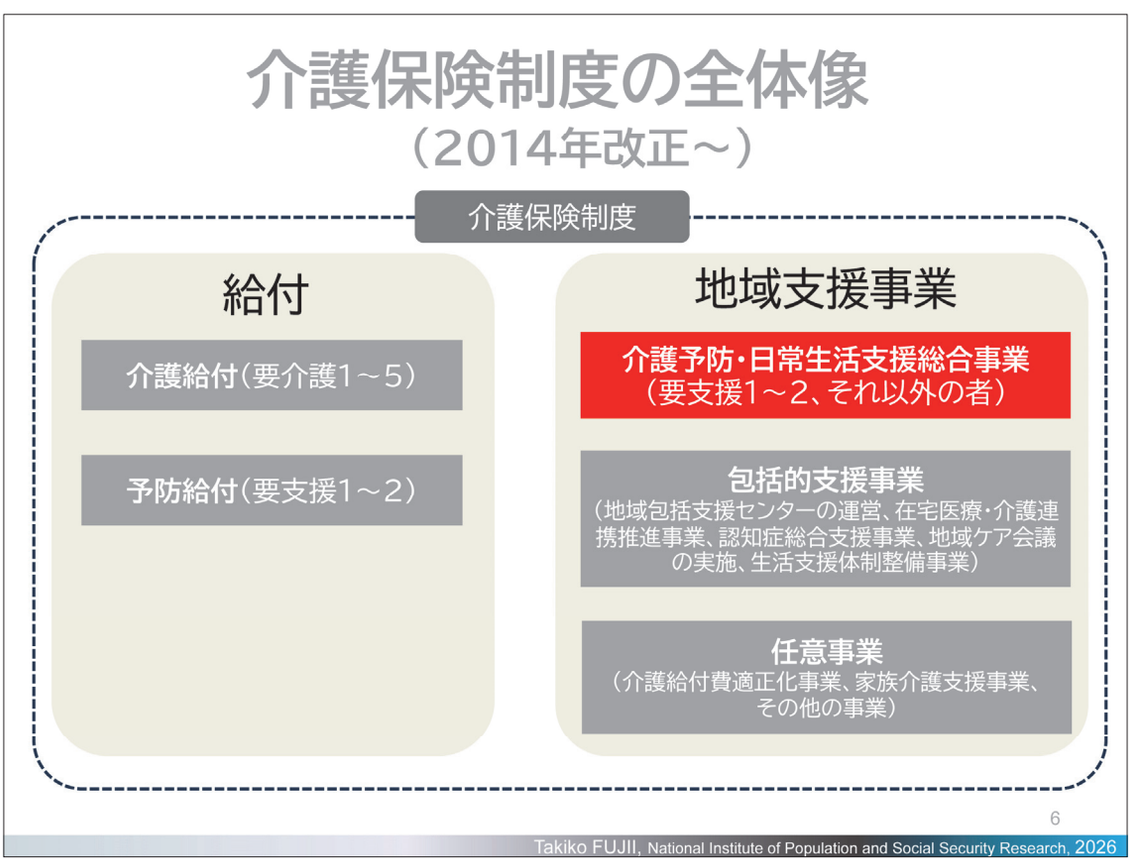
第8期 (2021年度～)

2020年改正(2021年4月施行)
- ○地域住民の複雑化・複合化した支援ニーズに対応する市町村の包括的な支援体制の構築の支援
- ○医療・介護のデータ基盤の整備の推進

5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개호보험제도의 전체 구조
(2014년 개정~)
개호보험제도
급여
개호급여(요개호 1~5)
예방급여(요지원 1~2)
지역지원사업
개호예방·일상생활지원 종합사업
(요지원 1~2 및 그 외 대상자)
포괄적 지원사업
(지역포괄지원센터 운영, 재택의료·개호 연계추진사업, 치매 종합지원사업, 지역케어회의 실시, 생활지원체계 정비사업)
임의사업
(개호급여비 적정화사업, 가족개호 지원사업, 기타 사업)
6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介護保険制度の全体像
（2014年改正～）
介護保険制度
給付
介護給付（要介護1～5）
予防給付（要支援1～2）
地域支援事業
介護予防・日常生活支援総合事業
（要支援1～2、それ以外の者）
包括的支援事業
（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の運営、在宅医療・介護連携推進事業、認知症総合支援事業、地域ケア会議の実施、生活支援体制整備事業）
任意事業
（介護給付費適正化事業、家族介護支援事業、その他の事業）
6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고령자를 넘어 모든 세대를 위한 포괄케어로

- 치매가 있는 80대 부모, 정신질환이 있는 50대 장녀, 히키코모리(은둔) 상태의 장남이 함께 사는 한부모·자녀 가구
-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를 계속 돌보다가 자녀도 마침내 65세가 된 초고령 부부와 자녀 가구
- 떨어져 사는 고령의 부모를 돌보는 한부모 어머니(자녀는 "영 케어러")
- 취업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쁘지만 진단명이 없어 개호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50대 1인가구

7

高齢者だけでなく全世代型の包括ケアへ

- 認知症の80代の親、精神疾患を持つ50代の長女、ひきこもりの長男で暮らすひとり親と子の世帯
- 障害を持って生まれた子の世話をし続けて、子もついに65歳となった超高齢の夫婦と子の世帯
- 離れて暮らす高齢の親を介護するシングルマザー（子どもは"ヤングケアラー"）
- 仕事に就けないほど体調が悪いが、診断名が付かないために介護保険制度が使えない50代のひとり暮らし

7

지역포괄케어·지역공생사회 관련 정책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복지 제공 비전」 보고서(2015년)
·전 세대·전 대상형 지역포괄지원체계 제시

「일본 1억 총활약 플랜」 각의 결정(2016년)
·지역공생사회 실현 명시

재범 방지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2016년)
·취업, 주거 확보, 민간 협력 촉진, 계몽활동 등 중점과제 제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 일부개정법」 시행(2018년)
·상위계획에 지역복지계획, 포괄적 지원체계 정비 추가

지역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법 등 일부 개정(2020년)
·중층적 지원체계 정비사업 창설(고령·아동·장애·생활곤궁 관련 보조금을 통합 교부)

「어려운 문제를 겪는 여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2022년)
·복잡·다양해지는 여성의 문제에 인권 존중·양성평등 관점으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대응

「고독·고립대책추진법」(2023년)
·국가·지자체의 종합적 시책 추진을 위한 책무와 체계

사회복지법 등 일부 개정(2026년)
·의지할 가족·친족이 없는 고령자 등의 일상생활·입원입소 절차·사후사무 지원, 지역권리옹호상담지원센터 설치

민법 개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변경(2026년)
·후견·보좌·보조 3유형을 「보조」로 일원화, 종신제 폐지, 후견인 변경의 유연화, 자기결정권 존중

8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地域包括ケア・地域共生社会に関連する政策

「新たな時代に対応した福祉の提供ビジョン」報告書（2015年）
・**全世代、全対象型**地域包括支援体制を提示

「ニッポン一億総活躍プラン」閣議決定（2016年）
・**地域共生社会**の実現を明記

再犯の防止等の推進に関する法律（2016年）
・**就労、住居確保、民間協力**の推進、啓発活動等の重点課題を提起

「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強化のための介護保険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施行（2018年）
・上位計画に地域福祉計画、**包括的支援体制の整備**を追加

地域共生社会の実現のための社会福祉法等の一部改正（2020年）
・**重層的支援体制整備事業（高齢、子ども、障害、生活困窮の補助金を一体的に交付）**を創設

「困難な問題を抱える女性への支援に関する法律」（2022年）
・複雑化、多様化する女性の課題を、人権尊重・男女平等の視点から、民間団体との協働を取り入れ展開

「孤独・孤立対策推進法」（2023年）
・国、自治体における総合的な施策推進のための責務、体制

社会福祉法等の一部改正（2026年）
・頼れる身寄りがいない高齢者等への日常生活・入院入所手続・死後事務支援、地域権利擁護相談支援センターの設置

民法改正による成年後見制度の変更（2026年）
・後見・保佐・補助の3類型を「補助」に一本化、終身制の廃止、後見人の柔軟な変更、自己決定権の尊重

8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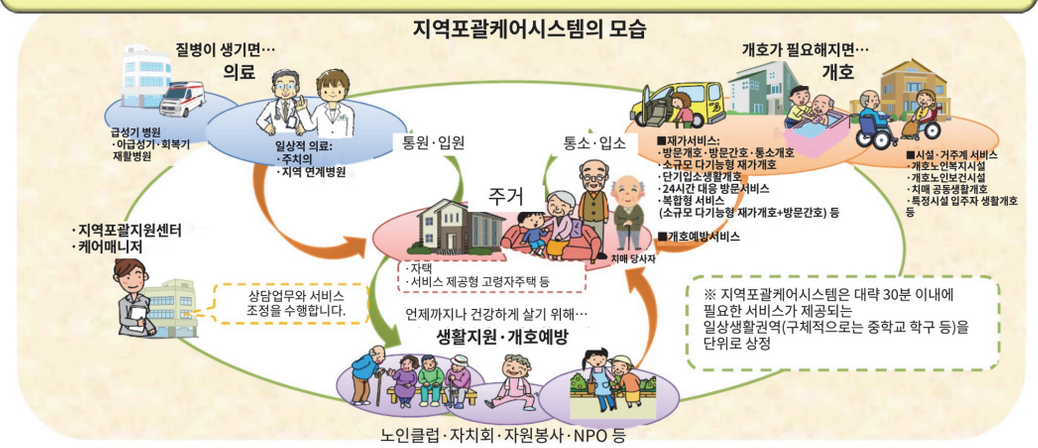
지역포괄케어시스템

○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목표로, 중증의 요개호 상태가 되더라도 익숙한 지역에서 자신다운 삶을 생의 마지막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의료·개호·예방·생활지원이 일체적으로 제공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앞으로 치매 고령자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치매 고령자의 지역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 인구는 정체하나 7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는 대도시와, 75세 이상 인구 증가는 완만하나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시정촌 등, 고령화 진행 상황의 지역차가 큽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보험자인 시정촌과 도도부현이 지역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구축해야 합니다.



출처: 후생노동성「지역포괄케어시스템」웹사이트(현재는 이 그림 대신 다음 페이지의 그림이 게시되어 있음)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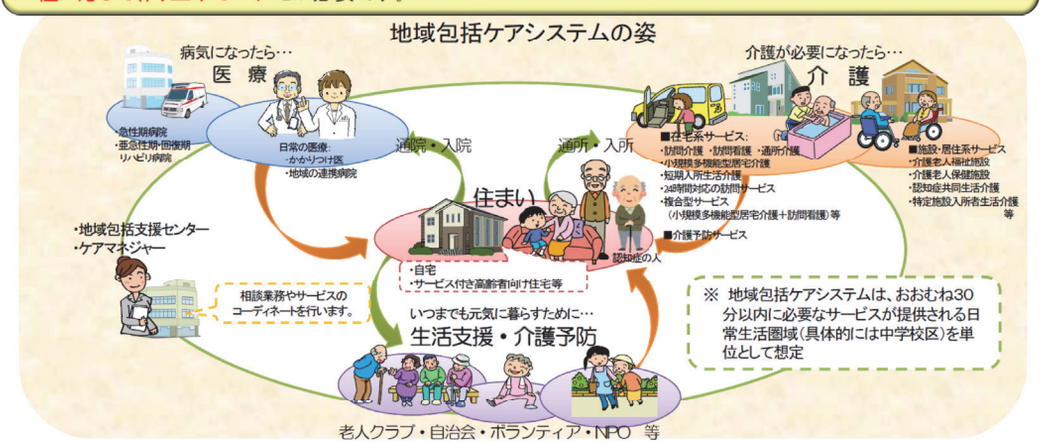
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

○ 団塊の世代が75歳以上となる2025年を目途に、重度な要介護状態となっても住み慣れた地域で自分らしい暮らしを人生の最後まで続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住まい・医療・介護・予防・生活支援が一体的に提供される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構築を実現**していきます。

○ 今後、認知症高齢者の増加が見込まれることから、認知症高齢者の地域での生活を支えるためにも、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構築が重要です。

○ 人口が横ばいで75歳以上人口が急増する大都市部、75歳以上人口の増加は緩やかだが人口は減少する町村部等、**高齢化の進展状況には大きな地域差**が生じています。

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は、**保険者である市町村や都道府県が、地域の自主性や主体性に基づき、地域の特性に応じて作り上げていく**ことが必要です。



出典:厚生労働省「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ウェブサイト(現在はこの図の代わりに次ページの図が掲載され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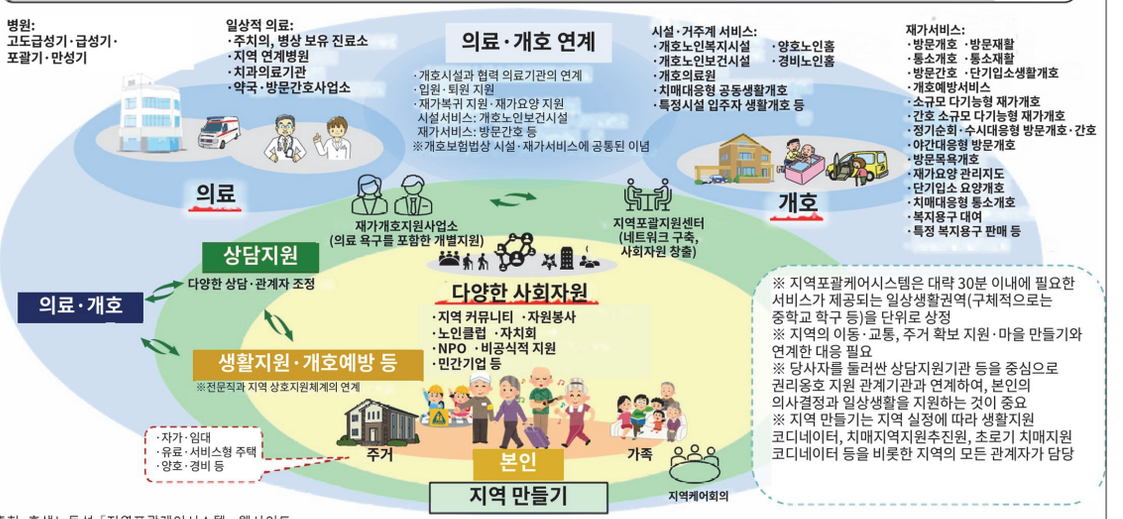
9

2040년을 향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심화

○ 개호 분야에서는 중증의 요개호 상태가 되더라도 익숙한 지역에서 자신다운 삶을 생의 마지막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개호·예방·주거·생활지원이 포괄적으로 확보되는 체계(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추진.

○ 2040년을 향해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 한편, 85세 이상의 의료·개호 욕구가 있는 고령자와 치매 고령자, 독거 고령자 등이 늘어날 전망이므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심화가 필요. 고령인구의 변화에 따라 중산간·인구감소지역, 대도시부, 일반시 등 서비스 수요의 지역차가 큼. 서비스 제공체계도 2040년에 걸쳐 변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만들기를 추진할 필요.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보험자인 시정촌과 도도부현이 지역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계속 구축해야 함. 이를 위해 지역의 개호·의료 자원 등을 가시화하고 지역 관계자가 분석·논의할 필요.



출처: 후생노동성「지역포괄케어시스템」웹사이트
https://www.mhlw.go.jp/content/12300000/001753123.pdf

2040年に向けた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深化について

○ 介護分野において、重度な要介護状態となっても住み慣れた地域で自分らしい暮らしを人生の最後まで続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従前から**医療・介護・予防・住まい・生活支援が包括的に確保される体制（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構築を推進。**

○ 2040年に向けて生産年齢人口が減少する中、85歳以上の医療・介護ニーズを抱える者や認知症高齢者、独居高齢者等の増加が見込まれ、**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深化が必要**。高齢者人口の変化に伴い、中山間・人口減少地域、大都市部、一般市など、**サービス需要に大きな地域差**。それに応じ、サービス供給体制も2040年にかけて変化する中、これらを踏まえて、利用者にとって切れ目ないサービス提供が可能となるようにしていくとともに、地域づくりを推進していくことが必要。

○ 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は、**保険者である市町村や都道府県が、地域の自主性や主体性に基づき、地域の特性に応じて作り上げていく**ことが引き続き必要。そのために地域の介護・医療資源等を見える化し、地域の関係者で分析・議論することが必要。



出典：厚生労働省「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ウェブサイト
https://www.mhlw.go.jp/content/12300000/001753123.pdf

「지역공생사회」란

현황	○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진행되면서 지역·가정·직장 등 사람들의 생활영역에서 서로 돕는 기반도 약화되고 있음. ○ 또한 많은 지역에서는 사회경제를 지탱하는 인력도 감소하고 있어 지역사회 자체의 존속이 위협받고 있음.
지향하는 사회	·생활 속 사람 간 관계를 재구축하고, 누구나 역할과 삶의 보람을 가지며, 서로 돕고 도움받는 관계가 순환하는 지역사회 ·사회·경제활동의 기반으로서 사람과 자원이 순환하고, 지역생활을 구성하는 폭넓은 관계자의 참여와 협동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사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지역공생사회」 실현을 지향.



출처: 후생노동성 웹사이트「지역공생사회 실현을 향하여」
https://www.mhlw.go.jp/content/001548692.pdf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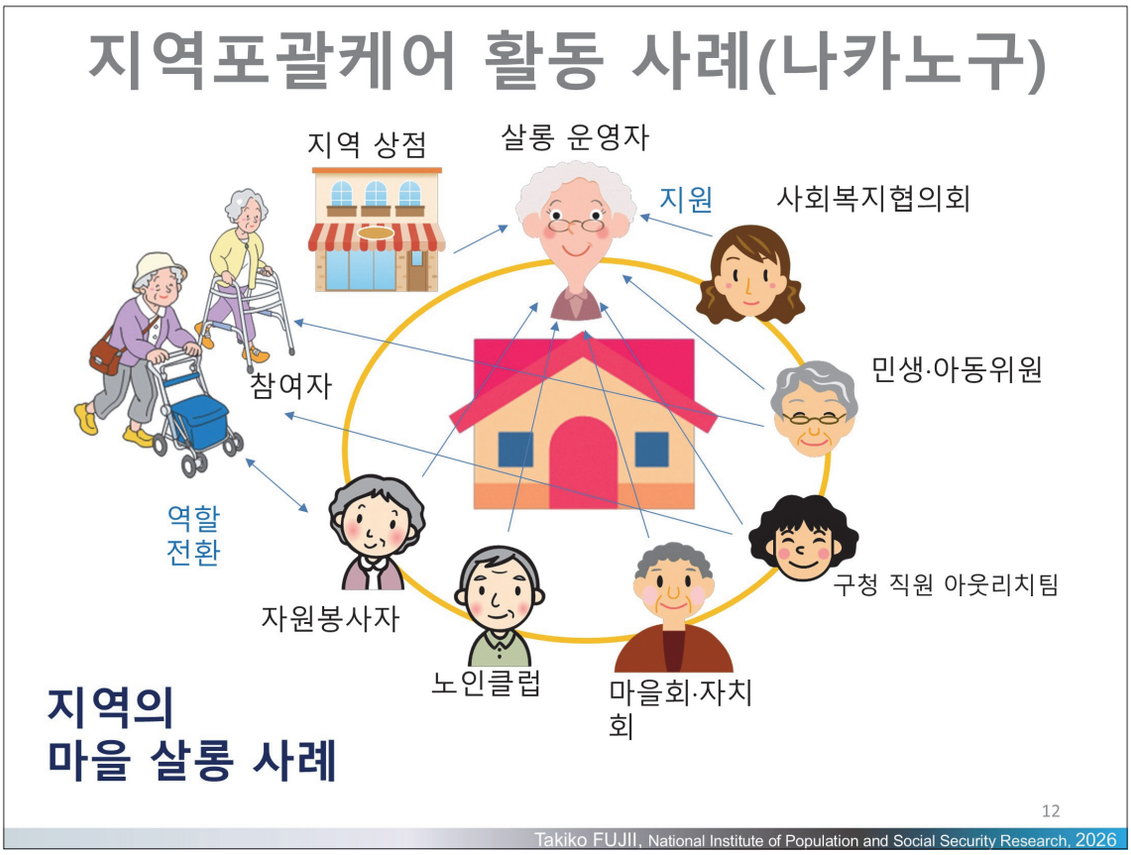
「地域共生社会」と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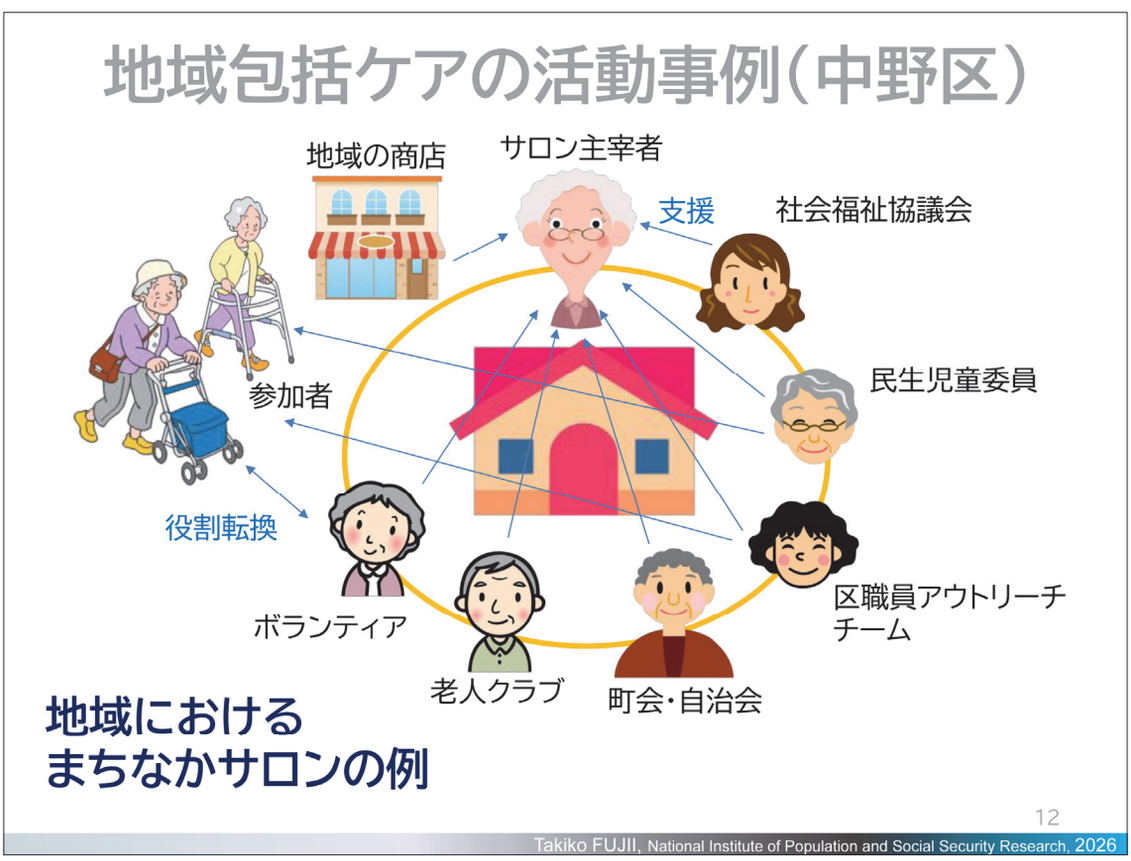
現状	○ 高齢化や人口減少が進み、地域・家庭・職場といった、人々の生活領域における支え合いの基盤も弱まっている。 ○ 加えて、多くの地域では、社会経済の担い手も減少しており、地域社会そのものの存続も危ぶまれている。
目指すべき社会	・ 生活における人と人とのつながりを再構築し、誰もが役割と生きがいを持ち、互いに支えたり、支えられたりする関係が循環する地域社会 ・ 社会・経済活動の基盤として、人と資源が循環し、地域での生活を構成する幅広い関係者による参加と協働により、持続的発展が期待できる地域社会 の２つの視点からなる、「地域共生社会」の実現を目指す。



出典：厚生労働省ウェブサイト「地域共生社会の実現に向けて」
https://www.mhlw.go.jp/content/001548692.pdf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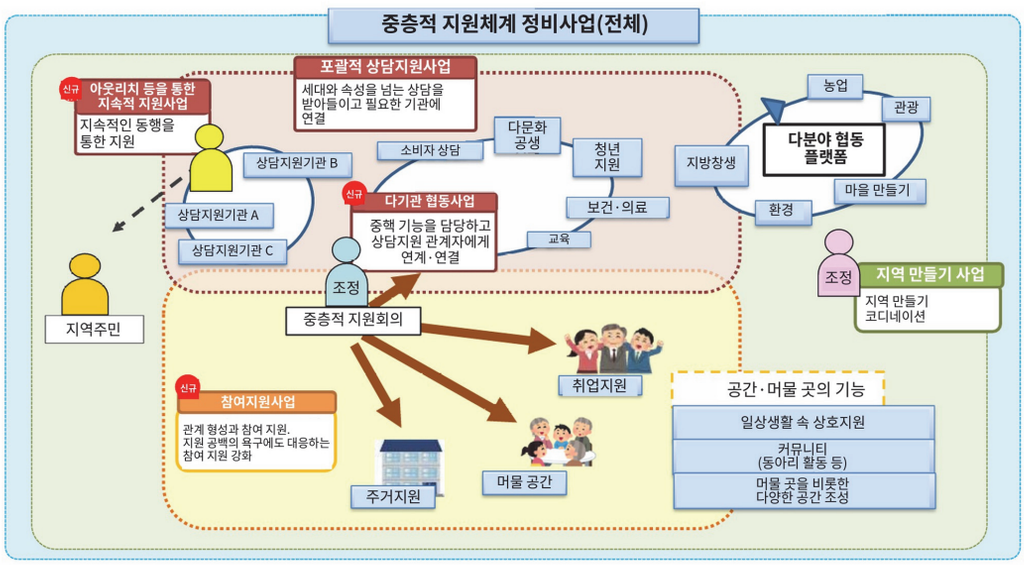

지역포괄케어 활동 사례(나카노구)
지역 상점
살롱 운영자
지원
사회복지협의회
민생·아동위원
구청 직원 아웃리치팀
마을회·자치회
노인클럽
자원봉사자
역할 전환
참여자
지역의 마을 살롱 사례
12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地域包括ケアの活動事例(中野区)
地域の商店
サロン主宰者
支援
社会福祉協議会
民生児童委員
区職員アウトリーチチーム
町会・自治会
老人クラブ
ボランティア
役割転換
参加者
地域における まちなかサロンの例
12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중층적 지원체계 정비사업

■2020년 개정 사회복지법으로 창설된 사업(임의사업)

■고령·아동·장애·생활곤궁 각 분야의 기존 사업에 따로 교부되던 보조금을 통합하여 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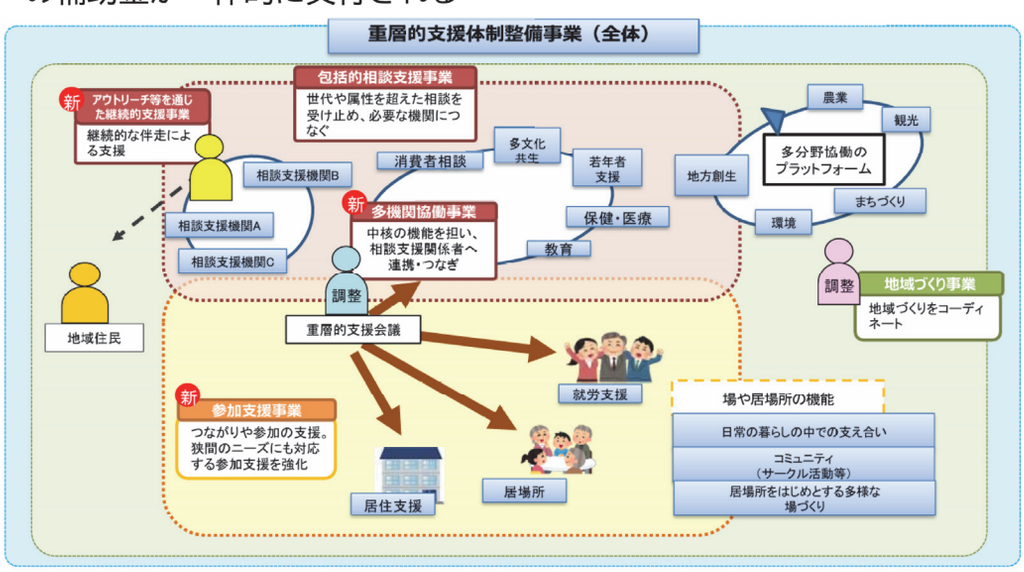


출처: 후생노동성 자료 https://www.mhlw.go.jp/content/12000000/001406455.pdf 13

重層的支援体制整備事業

■2020年改正社会福祉法で創設された事業(任意事業)

■高齢、子ども、障害、生活困窮それぞれの分野で交付されてきた既存事業の補助金が一体的に交付される



出典:厚生労働省資料 https://www.mhlw.go.jp/content/12000000/001406455.pdf 13

「8050」가구란

·80대 부모와 50대 미혼·무직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70대 부모와 40대 자녀, 90대 부모와 60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도 있을 수 있음)

·부모의 연금 등으로 가족 모두가 생활

·자녀는 히키코모리 상태

·내각부의 2018년 조사에서 40~64세 중장년 히키코모리는 전국 61.3만 명으로 추계 → 2023년 조사에서는 83.5만 명으로 증가!

14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8050」世帯とは

・80代の親と50代の未婚かつ無職の子からなる世帯
（70代の親と40代の子、90代の親と60代の子の世帯もありうる）

・親の年金等によって家族全員が生活

・子はひきこも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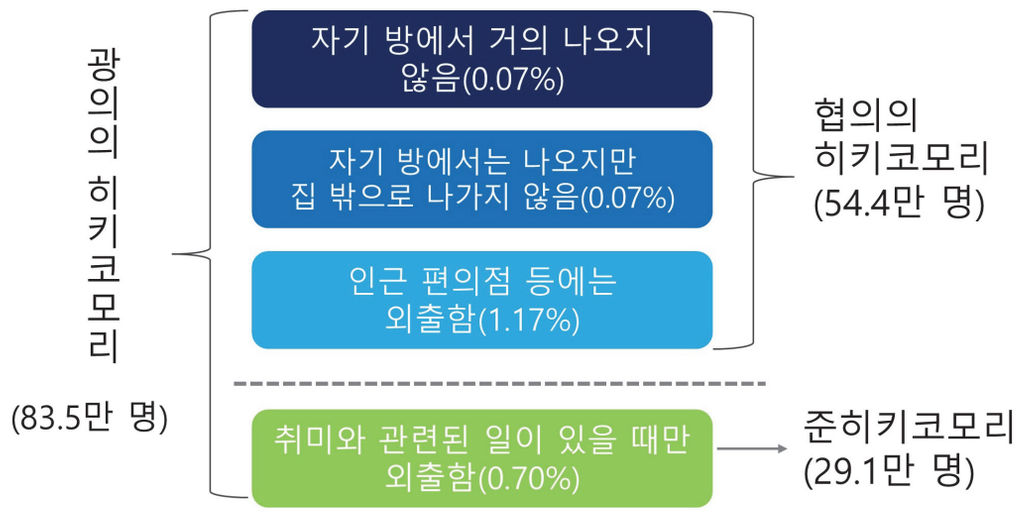
・内閣府が2018年に実施した調査では、40～64歳の中高年のひきこもり者は全国で61.3万人と推計
→2023年調査では、83.5万人に！

14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히키코모리의 정의와 추계(2023년 내각부 조사)

※( ) 안의 %는 40~64세 응답자의 비율. 히키코모리 인원은 2022년 10월 1일 기준 40~64세 추계인구(일본인만)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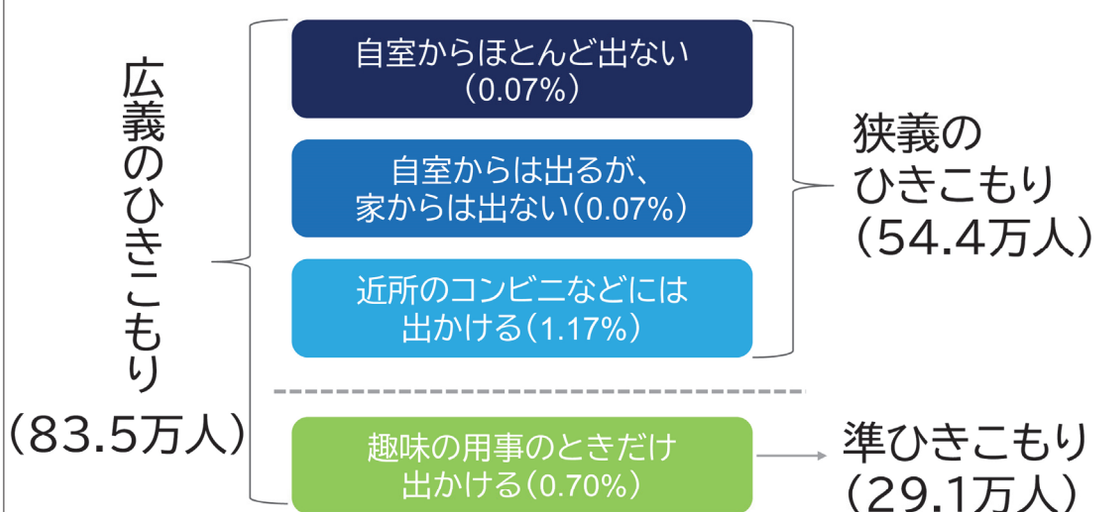
출처:「아동·청년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2022년도)」내각부(2023년 3월)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772297/www8.cao.go.jp/youth/kenkyu/ishiki/r04/pdf/s3.pdf

15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ひきこもりの定義と推計
（2023年内閣府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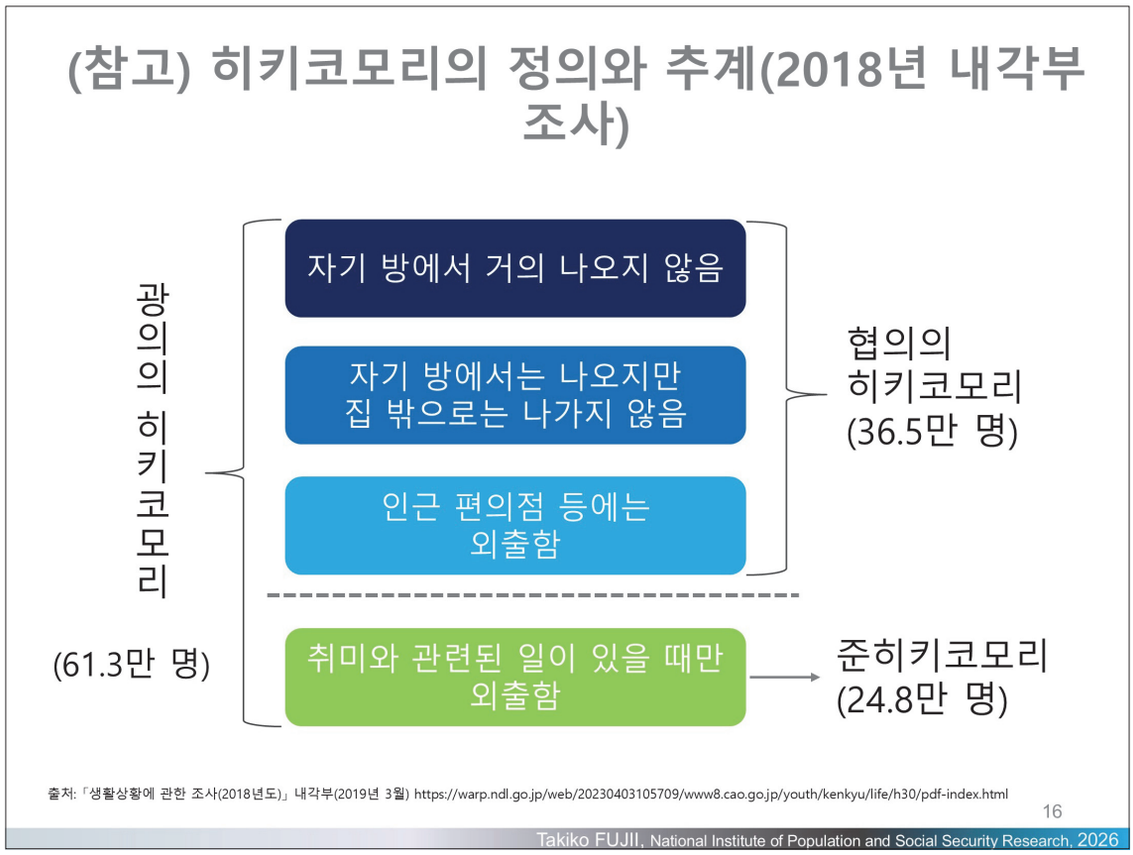
※( )内の%は、40～64歳における回答者の割合。ひきこもりの人数は2022年10月1日時点の40～64歳推計人口(日本人のみ)に割合を掛けて算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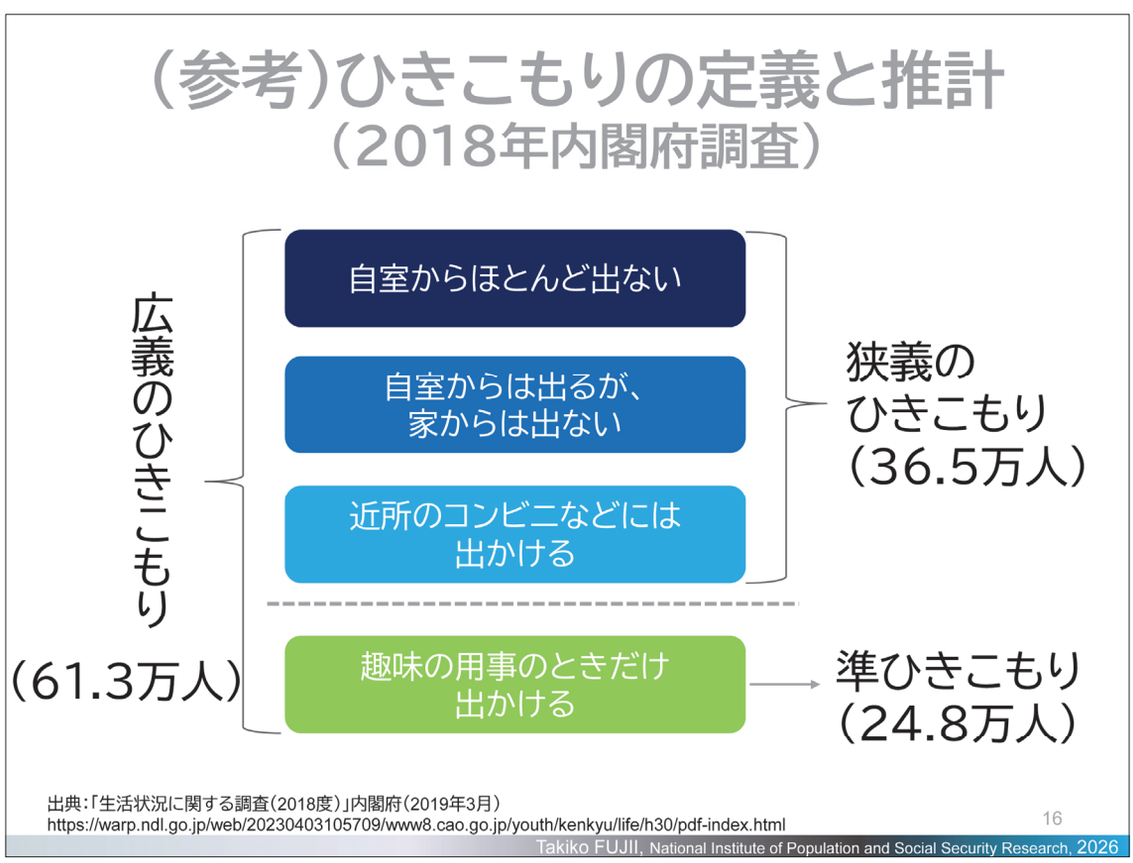


出典:「こども・若者の意識と生活に関する調査(2022年度)」内閣府(2023年3月)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772297/www8.cao.go.jp/youth/kenkyu/ishiki/r04/pdf/s3.pdf

15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참고) 히키코모리의 정의와 추계(2018년 내각부 조사)
광의의 히키코모리
(61.3만 명)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
자기 방에서는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음
인근 편의점 등에는 외출함
협의의 히키코모리 (36.5만 명)
취미와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만 외출함
준히키코모리 (24.8만 명)
출처: 「생활상황에 관한 조사(2018년도)」 내각부(2019년 3월) https://warp.ndl.go.jp/web/20230403105709/www8.cao.go.jp/youth/kenkyu/life/h30/pdf-index.html
16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参考)ひきこもりの定義と推計
(2018年内閣府調査)
広義のひきこもり
(61.3万人)
自室からほとんど出ない
自室からは出るが、家からは出ない
近所のコンビニなどには出かける
狭義のひきこもり (36.5万人)
趣味の用事のときだけ出かける
準ひきこもり (24.8万人)
出典:「生活状況に関する調査(2018度)」内閣府(2019年3月)
https://warp.ndl.go.jp/web/20230403105709/www8.cao.go.jp/youth/kenkyu/life/h30/pdf-index.html
16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생활상황에 관한 조사」(내각부, 2018년)

·40~64세 히키코모리의 출현율은 1.45%
·남성이 76.6%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없음
·통원·입원 경험 중「정신적 질환」이 31.9%
·7년 이상 은둔한 사람이 46.7%
·은둔의 계기는「퇴직」, 이어「인간관계」,「질병」,「직장에 적응하지 못함」순
·「상담하고 싶다」와「상담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다」는 응답이 각각 절반. 상담을 희망하는 기관은「병원·진료소」가 가장 많음.

17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生活状況に関する調査」
（内閣府、2018年）

・40～64歳のひきこもり者の出現率は1.45%
・男性が76.6%
・年代による差はない
・通院・入院経験は、「精神的な病気」が31.9%
・7年以上ひきこもっている人が46.7%
・ひきこもったきっかけは「退職」、次いで「人間関係」「病気」「職場になじめなかった」
・「相談したい」という回答も「相談したいとは思わない」という回答も半々。「相談したい」相談機関は「病院・診療所」がトップ。

17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8050가구」에 대한 대응

- 80대 부모만, 또는 50대 자녀만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가족 전체」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
- 반응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신뢰관계 구축
- 당사자 곁에서 의사결정을 돕는「동행형 지원」을 중심으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문제해결형 지원」을 적절히 병행하면서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하고, 잘되지 않으면 다른 지원으로 다시 연결
- 부모가 원하더라도 히키코모리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데리고 나와 자립지원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는 것은 위법

18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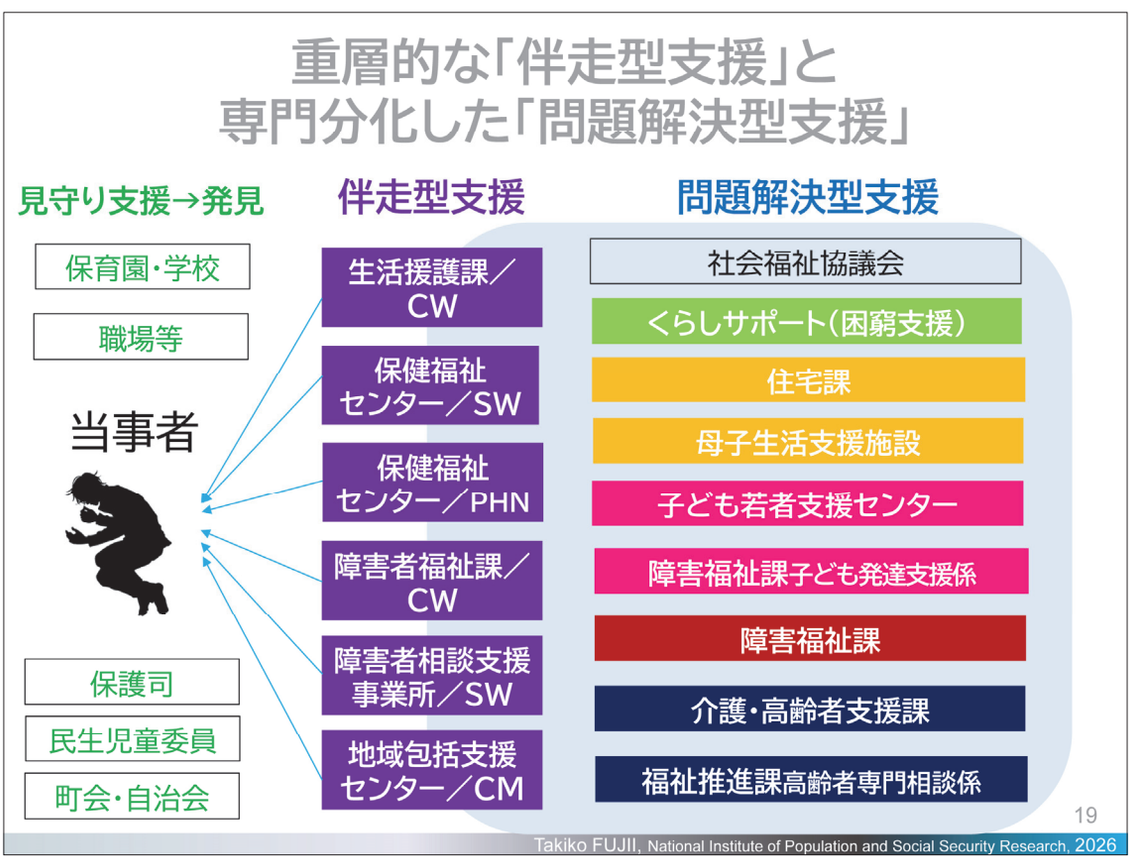
「8050世帯」への対応

- 80代の親だけ、あるいは50代の子だけの問題を把握するのではなく、「家族全体」の問題は何かを把握する
- 反応がなくとも、定期的に訪問し、信頼関係を築く
- 当事者に寄り添い、意思決定支援を行う「伴走型支援」を中心に、特定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問題解決型支援」を適宜組み合わせながら、必要な支援につなげたり、うまくいかない場合には、別の支援につなげ直す
- 親が望んでいても、ひきこもりである本人が望んでいないならば、無理矢理に連れ出して自立支援施設や病院に入所させることは違法

18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중층적인「동행형 지원」과
전문화된「문제해결형 지원」
안부확인 지원→발견
동행형 지원
문제해결형 지원
보육원·학교
직장 등
당사자
보호사
민생·아동위원
마을회·자치회
생활원호과 / CW
보건복지 센터 / SW
보건복지 센터 / PHN
장애인복지과 / CW
장애인상담지원사업소 / SW
지역포괄지원 센터 / CM
사회복지협의회
생활서포트(곤궁지원)
주택과
모자생활지원시설
아동·청년지원센터
장애복지과 아동발달지원계
장애복지과
개호·고령자지원과
복지추진과 고령자전문상담계
19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重層的な「伴走型支援」と
専門分化した「問題解決型支援」
見守り支援→発見
伴走型支援
問題解決型支援
保育園・学校
職場等
当事者
保護司
民生児童委員
町会・自治会
生活援護課／CW
保健福祉センター／SW
保健福祉センター／PHN
障害者福祉課／CW
障害者相談支援事業所／SW
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CM
社会福祉協議会
くらしサポート(困窮支援)
住宅課
母子生活支援施設
子ども若者支援センター
障害福祉課子ども発達支援係
障害福祉課
介護・高齢者支援課
福祉推進課高齢者専門相談係
19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8050」가구의 발생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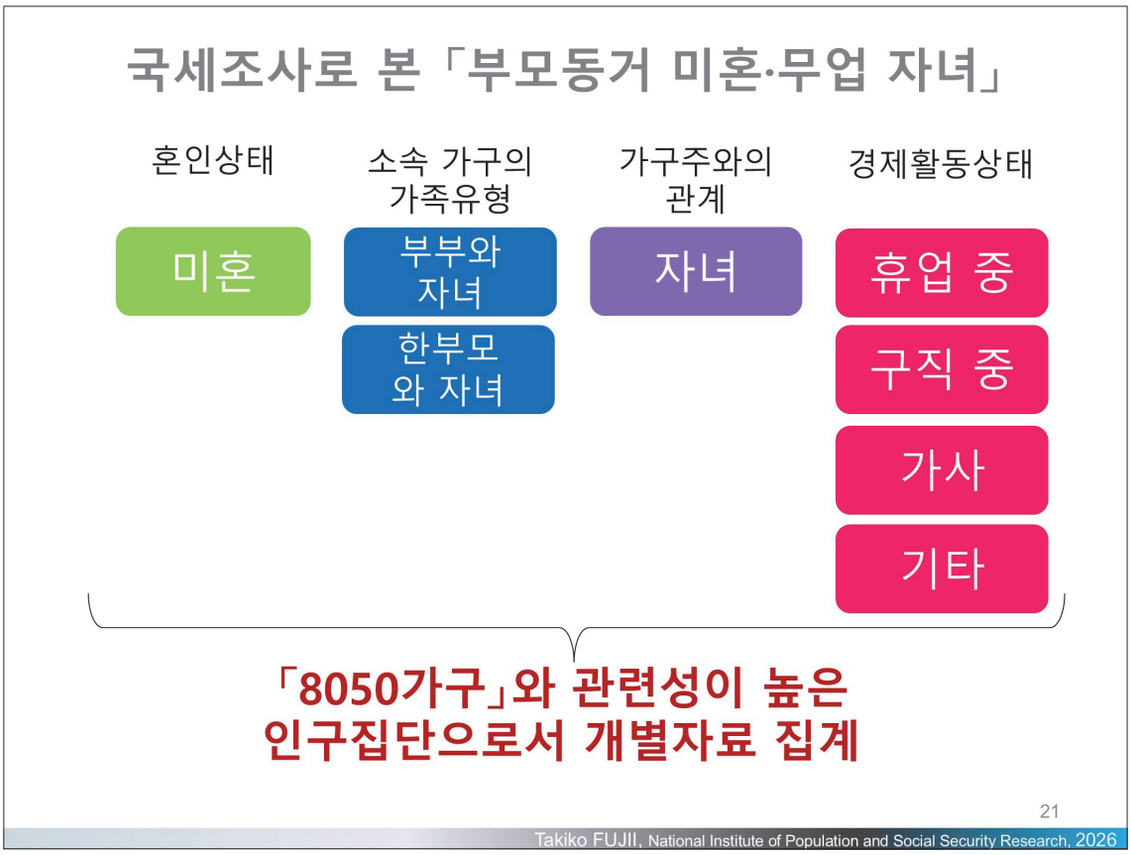
①과거의 인구전환
②고도성장기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핵가족 가구의 등장
③전후 주택담보대출에 기반한 자가소유 주도정책
④부모·자녀 간 경제적 격차
⑤자녀 세대의 미혼자 비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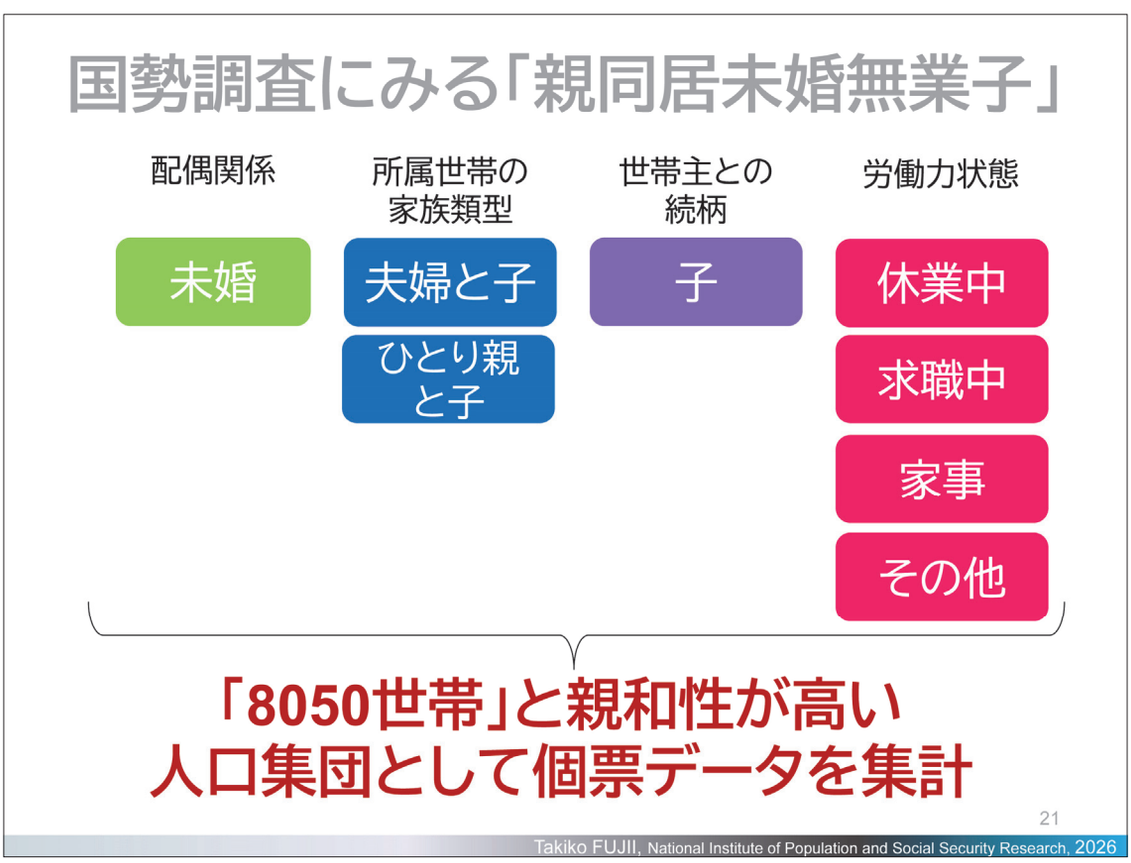
20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8050」世帯の発生構造

①過去の人口転換
②高度成長期における都市への人口集中と
　核家族世帯の出現
③戦後の住宅ローンをベースとした持家主導
　政策
④親子間の経済格差
⑤子世代の未婚者割合の上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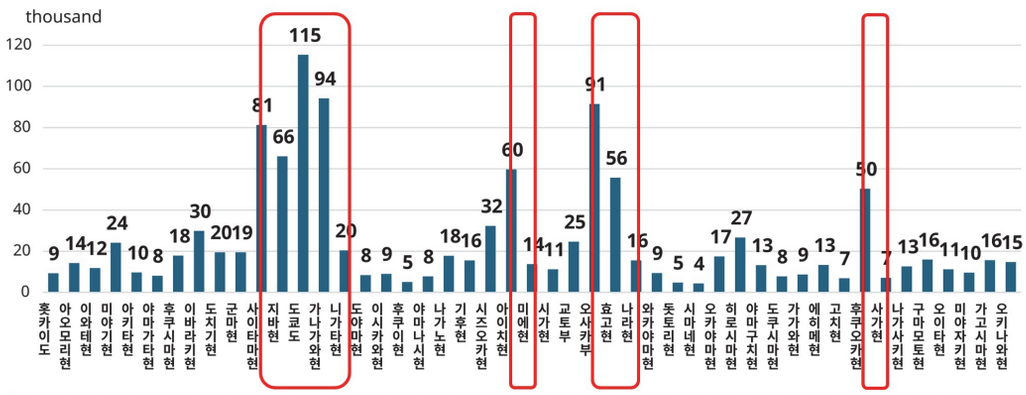
20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국세조사로 본「부모동거 미혼·무업 자녀」
혼인상태
소속 가구의 가족유형
가구주와의 관계
경제활동상태
미혼
부부와 자녀
한부모와 자녀
자녀
휴업 중
구직 중
가사
기타
「8050가구」와 관련성이 높은 인구집단으로서 개별자료 집계
21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国勢調査にみる「親同居未婚無業子」
配偶関係
所属世帯の家族類型
世帯主との続柄
労働力状態
未婚
夫婦と子
ひとり親と子
子
休業中
求職中
家事
その他
「8050世帯」と親和性が高い人口集団として個票データを集計
21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도도부현별「부모동거 미혼·무업 자녀」수(2020년)

·2020년 기준 27~62세 대상
·「부모동거 미혼·무업 자녀」는 전국 약 116만 명
·이 중 남성 약 67만 명(58.0%), 여성 약 49만 명(42.0%)



도쿄권·아이치현·오사카부·효고현·후쿠오카현에 약 61만 명 (전체의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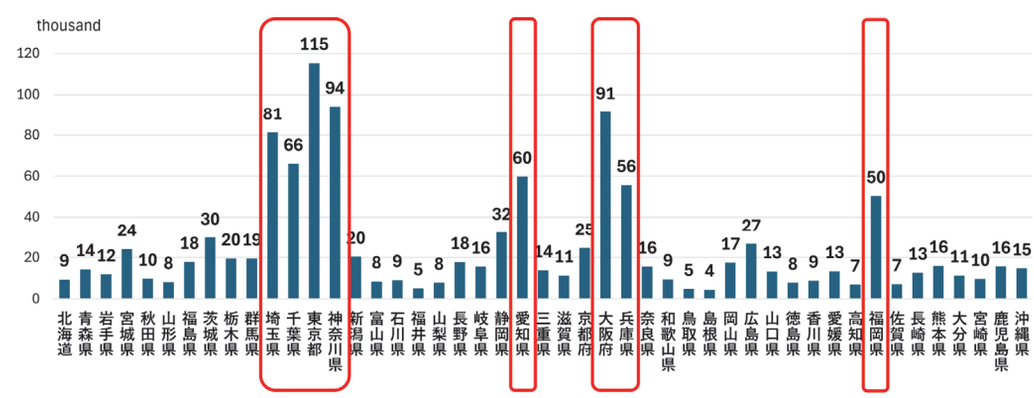
출처: 후지이 다키코(2026)「현재의 현역 세대에서 나타나는 인구학적 특성의 세대차 - 취업빙하기 세대를 중심으로 한「부모동거 미혼·무업 자녀」의 세대 간·지역 간 비교 - 」『사회보장연구』vol.11, no.2, pp.126-146.

22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都道府県別「親同居未婚無業子」数（2020年）

・2020年における27～62歳が対象
・「親同居未婚無業子」数は全国で約116万人。
・うち、男性約67万人（58.0%）、女性約49万人（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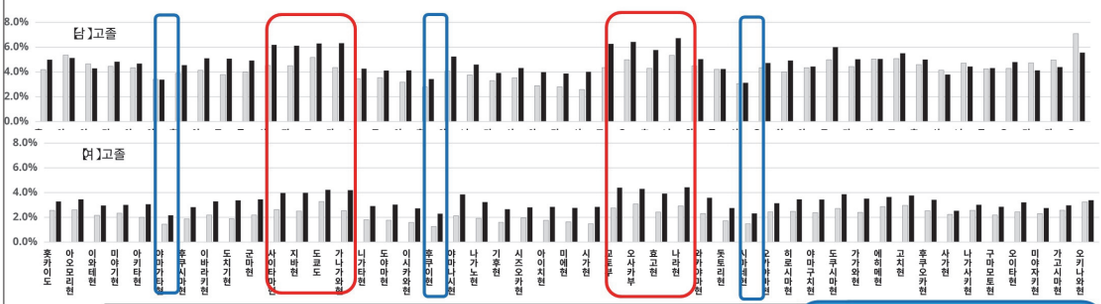
東京圏、愛知県、大阪府、兵庫県、福岡県で約61万人（全体の53%）

出典：藤井多希子（2026）「現在の現役世代にみる人口学的特性の世代差－就職氷河期世代を軸とした「親同居未婚無業子」の世代間・地域間比較－」『社会保障研究』vol.11, no.2, pp.126-146.

22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도도부현별「부모동거 미혼·무업 자녀」출현율(고졸자)



37~48세(2010년)
(1962~73년도 출생)

35~46세(2020년)
(1974~85년도 출생)

취업빙하기 세대
(1993~2004년에
학교를 졸업한 사람)

도쿄권·긴키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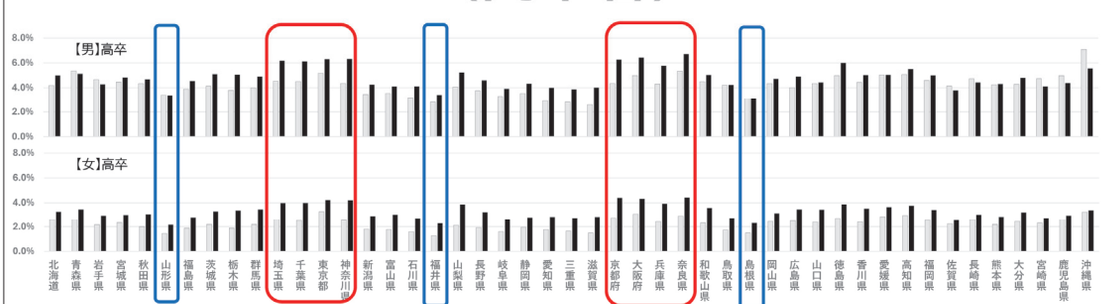
야마가타현·후쿠이현·시마네현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출처: 후지이 다키코(2026)「현재의 현역 세대에서 나타나는 인구학적 특성의 세대차 - 취업빙하기 세대를 중심으로 한「부모동거 미혼·무업 자녀」의 세대 간·지역 간 비교 - 」『사회보장연구』vol.11, no.2, pp.126-146.

23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都道府県別「親同居未婚無業子」出現率（高卒者）



37~48歳(2010年)
(1962~73年度生まれ)

35~46歳(2020年)
(1974~85年度生まれ)

就職氷河期世代
(1993~2004年に
学校を卒業した人)

東京圏、近畿圏で相対的に高い

山形県、福井県、島根県で相対的に低い

出典：藤井多希子(2026)「現在の現役世代にみる人口学的特性の世代差－就職氷河期世代を軸とした「親同居未婚無業子」の世代間・地域間比較－」『社会保障研究』vol.11, no.2, pp.126-146.

23

Takiko FUJII,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26

정리

- 개호보험제도의 지역지원사업은 요개호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서로 돕고 도움받는」지역 만들기에 활용되고 있음
- 중층적 지원체계 정비사업은 그동안 개호보험제도 안에서 추진해 온 고령자 종합상담창구인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지역케어회의 등 지역지원사업의 체계를 **고령자 이외의 대상에게도** 확대하여, **전 세대·전 대상형 지역포괄케어** 구축을 지향함
- 복지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4

まとめ

- 介護保険制度の地域支援事業は、要介護者だけでなく、実質的に**全ての高齢者**を対象とし、「支えたり、支えられたりする」地域づくりに活用されている
- 重層的支援体制整備事業は、これまで介護保険制度のなかで取り組んできた、高齢者の総合相談窓口である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や地域ケア会議などの地域支援事業の仕組みを、**高齢者以外にも**広げ、**全世代型・全対象型の地域包括ケア**の構築を目指すもの
- 福祉分野における地方自治体の果たす役割は、ますます大きくなっており、自治体に対する支援が必要である

24

세션. 2

Session. 2

인구이동
人口移動

발표 1

発表 1

한국 「인구이동 및 정주실태 조사」의 개요 및 특징

韓国「人口移動・定住実態調査」の概要と特徴

조성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チョ・ソンホ | 韓国保健社会研究院 研究委員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7차 한일 사회정책 정례포럼
2026년 11월 3일(화) 13:50~16:50
세션 2: 인구이동
한국「인구이동 및 정주실태 조사」의
개요 및 특징
조성호 연구위원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第 7 回 韓日社会政策定例フォーラム
2026 年 11 月 3 日 (火) 13:50~16:50
セッション 2 ：人口移動
韓国「人口移動・定住実態調査」の
概要と特徴
チョ・ソンホ 研究委員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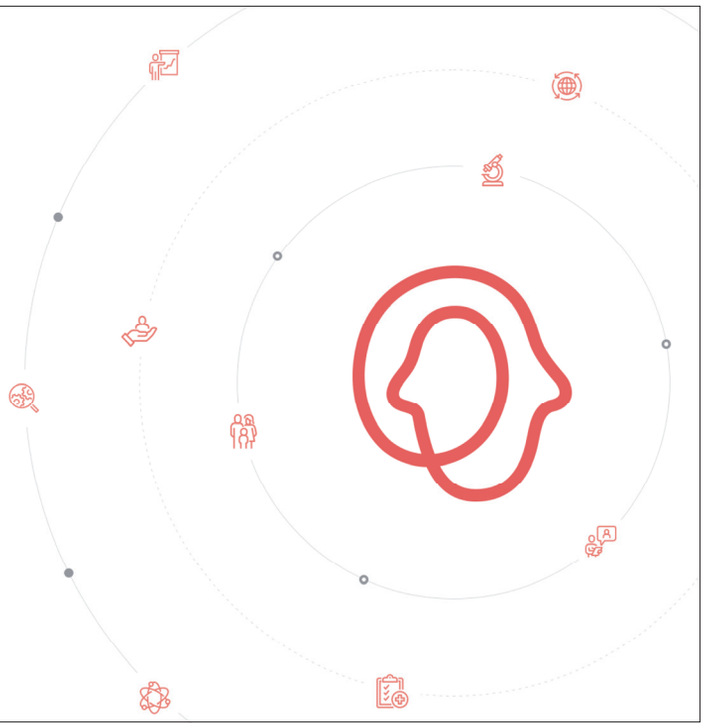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ART.1
조사의 배경과 목적

PART.2
조사의 개요와 특징

PART.3
주요 결과: 이 조사로 알수 있는 것

PART.4
향후 과제: 한·일 공동연구를 위한 검토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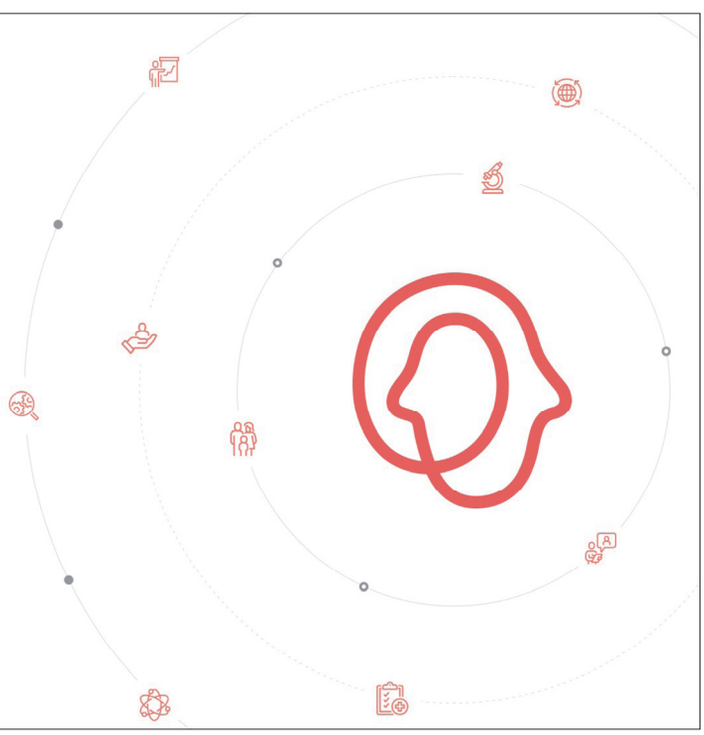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ART.1
調査の背景と目的

PART.2
調査の概要と特徴

PART.3
主な結果：本調査からわかるこ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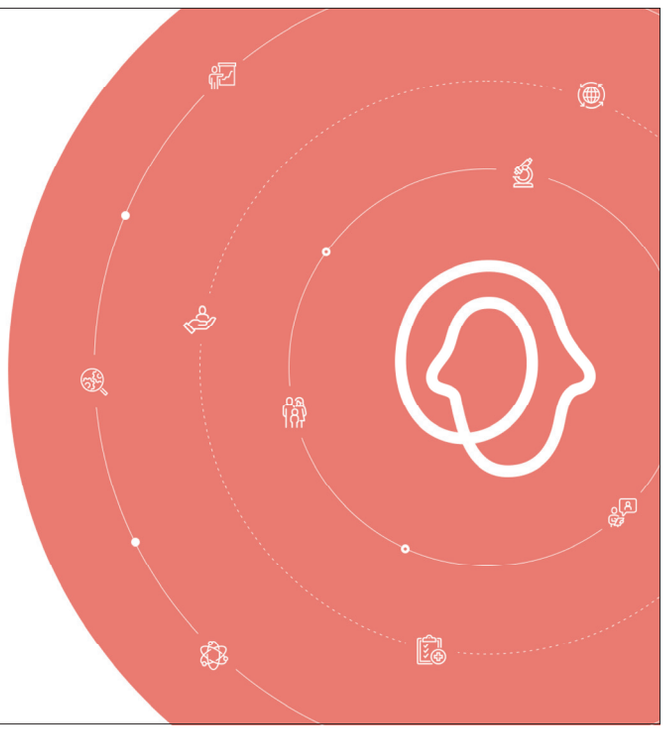
PART.4
今後の課題：韓日共同研究に向けた検討



PART.1

조사의 배경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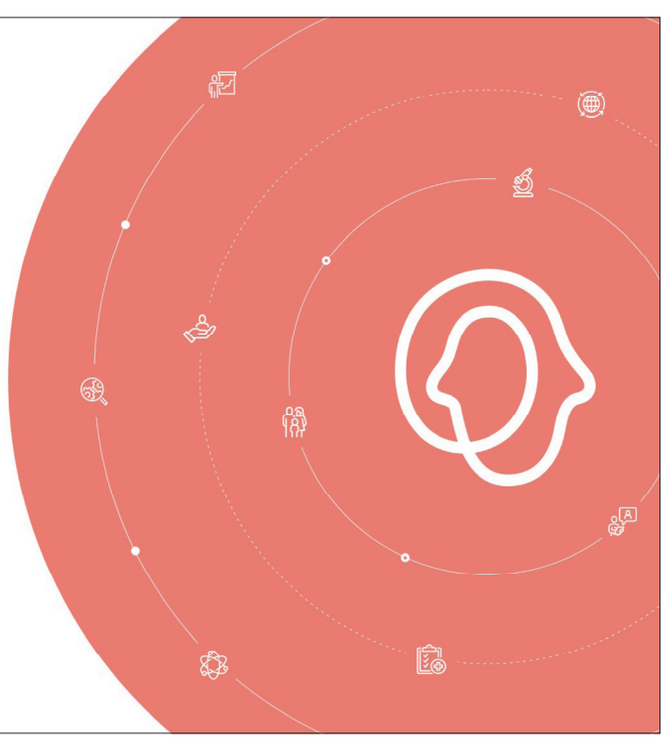
01 | 배경
02 | 조사 목적과 설계 원칙



PART.1

調査の背景と目的

01 | 背景
02 | 調査目的と設計原則



PART.1 조사의 배경과 목적

01. 배경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동의 '규모와 방향'은 알지만, '누가 왜 떠나고 남는가'는 모른다

기존 통계로 볼 수 있는 것

『국내인구이동통계』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기반한 보고통계
- 시군구 단위 전입·전출의 규모와 방향, 월별 추이
- 2013년부터 7개 범주의 전입 사유 공표

『인구주택총조사』
- 5년 전·1년 전 거주지(2020년부터 주민등록 행정자료로 대체)
- 이동 여부만 파악, 사유·인식은 없음

볼 수 없는 것

개인별 이동 사유
전입 사유는 7개 범주로 한정되고 세대 단위로 기재되어 개인의 사유를 알 수 없음

정주자의 인식과 여건
이동하지 않은 사람은 통계의 대상이 아니며, 왜 남는지, 여건은 어떤지에 대해 묻지 못함

생애 전체의 이동 이력
출생 이후의 궤적, 향후 이동 의향, 이동을 억제·유인할 정책 조건은 파악 불가

→ 생애주기별 이동 경험·정주 여건·정주 의향을 개인 단위로 묻는 전국 조사의 필요

* 자료: 통계청(2020),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정보보고서.

PART.1 調査の背景と目的

01. 背景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 移動の「規模と方向」はわかるが、「誰が、なぜ離れ、残るのか」はわからない

既存統計でわかること

『国内人口移動統計』
住民登録の転入届に基づく報告統計
- 市・郡・区別の転入・転出の規模・方向、月別推移
- 2013 年から 7 区分の転入理由を公表

『人口住宅総調査』
- 5 年前・ 1 年前の居住地（ 2020 年から住民登録行政データで代替）
- 移動の有無のみ把握し、理由・認識は把握しない

わからないこと

個人別の移動理由
転入理由は 7 区分に限られ、世帯単位で記入されるため、個人の理由は不明

定住者の認識と環境
移動しない人は統計の対象外であり、残る理由や環境について把握できない

生涯全体の移動歴
出生以降の軌跡、今後の移動意向、移動を抑制・誘引する政策条件は把握できない

→ ライフサイクル別の移動経験・定住環境・定住意向を個人単位で問う全国調査が必要

* 出典：統計庁 (2020) 、『国内人口移動統計』統計情報報告書。

PART.1 조사의 배경과 목적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2. 조사 목적과 설계 원칙

✔ 생애주기의 주요 전환점마다 '어디에 살았고, 왜 옮겼으며, 머물 것인가'를 묻는다

조사 목적 국민의 인구이동 경험과 정주 여건·정주 의향, 가족형성·출산·양육·은퇴·돌봄 등 생애주기별 이동 실태와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국가·지역 인구정책 수립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

설계 원칙 4가지

1. 생애사건 기반 거주이력
출생·졸업·첫 일자리·혼인·출산 시점의 거주지를 시군구 단위로 복원하여 개인의 이동 궤적을 재구성

2. 생애주기별 모듈
미혼·기혼·중장년에게 각 단계의 이동 쟁점(만남, 양육, 은퇴·돌봄)을 별도로 질문

3. 정주의 '인식'과 '조건'
정주 여건 평가와 함께 정책 조건별 반응을 측정하여 정책 수단의 유인을 비교

4. 국제비교 호환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인구이동조사』와 핵심 문항을 대응시켜 설계

PART.1 調査の背景と目的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02. 調査目的と設計原則

✔ ライフサイクルの主な転換点ごとに「どこに住み、なぜ移り、今後も留まるのか」を問う

調査目的 国民の人口移動経験、定住環境・定住意向と、家族形成・出産・子育て・引退・ケアなどライフサイクル別の移動実態と認識を総合的に把握し、国・地域の人口政策の策定と定住環境の改善に向けた基礎資料を整備

4 つの設計原則

1. ライフイベントに基づく居住歴
出生・卒業・初就職・結婚・出産時の居住地を市・郡・区単位で復元し、個人の移動軌跡を再構成

2. ライフサイクル別モジュール
未婚者・既婚者・中高年に、各段階の移動課題（出会い、子育て、引退・ケア）を個別に質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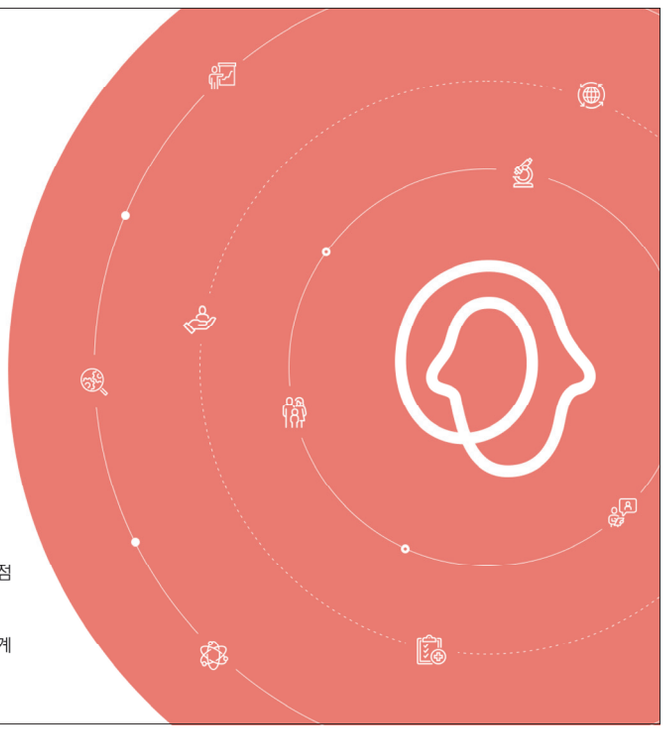
3. 定住の「認識」と「条件」
定住環境の評価と政策条件別の反応を測定し、政策手段の誘引効果を比較

4. 国際比較の互換性
日本の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人口移動調査』と主要設問を対応させて設計

PART.2

조사의 개요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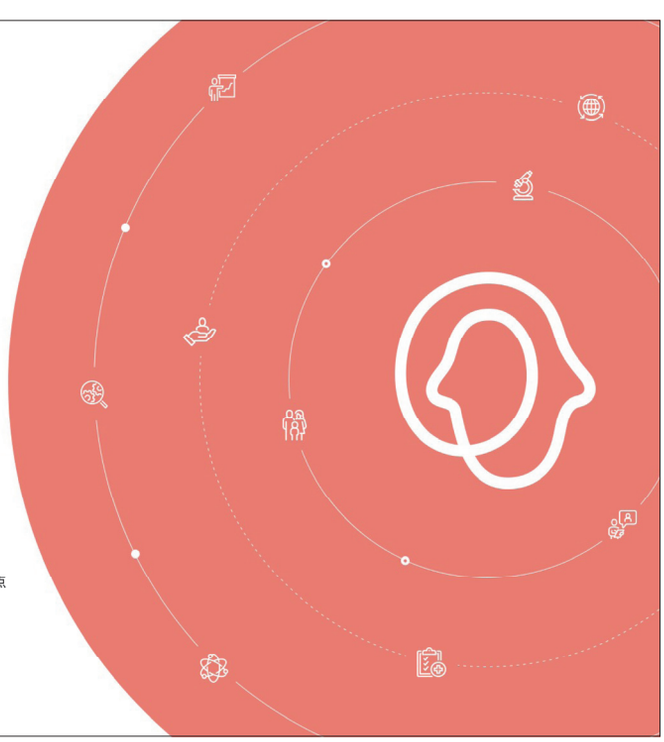
01 | 조사 개요
02 | 조사 구조: 생애주기에 따른 분기 설계
03 | 특징 ① 생애사건 기반 거주이력: 이동 '궤적'의 복원
04 | 특징 ② 생애주기 모듈: 이동이 '삶의 기회'와 만나는 지점
05 | 특징 ③ 정주의 '인식'과 '조건'을 측정
06 | 특징 ④ 일본 인구이동조사와의 호환, 그리고 자료의 한계



PART.2

調査の概要と特徴

01 | 調査概要
02 | 調査構造：ライフサイクル別の分岐設計
03 | 特徴① ライフイベントに基づく居住歴：移動「軌跡」の復元
04 | 特徴② ライフサイクル別モジュール：移動と「人生の機会」の接点
05 | 特徴③ 定住の「認識」と「条件」の測定
06 | 特徴④ 日本の人口移動調査との互換性とデータの限界



PART.2 조사의 개요와 특징

01. 조사 개요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19~64세 5,439명, 생애주기 분기형 온라인 조사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 만 19~64세 성인
조사 시기	2026년 7월
조사 방법	온라인 패널 조사(구조화 설문, 평균 약 10분)
표본 설계	목표 5,000명, 시도별 제곱근 비례 배분, 소규모 시도의 분석 가능 표본 확보
확보 표본	5,439명(목표 대비 108.8%), 2단계 데이터 클리닝 후 확정
가중치	전국 인구비례(전국 추정용) / 제곱근 비례(지역 간 비교용) 2종
조사 내용	사전질문 12문항 + 본조사 7개 영역 30문항

5,439명
확보 표본 (목표 5,000명)

19~64세
전국 성인, 16개 시도

7개 영역
사전질문 12 + 본조사 30문항

PART.2 調査の概要と特徴

01. 調査概要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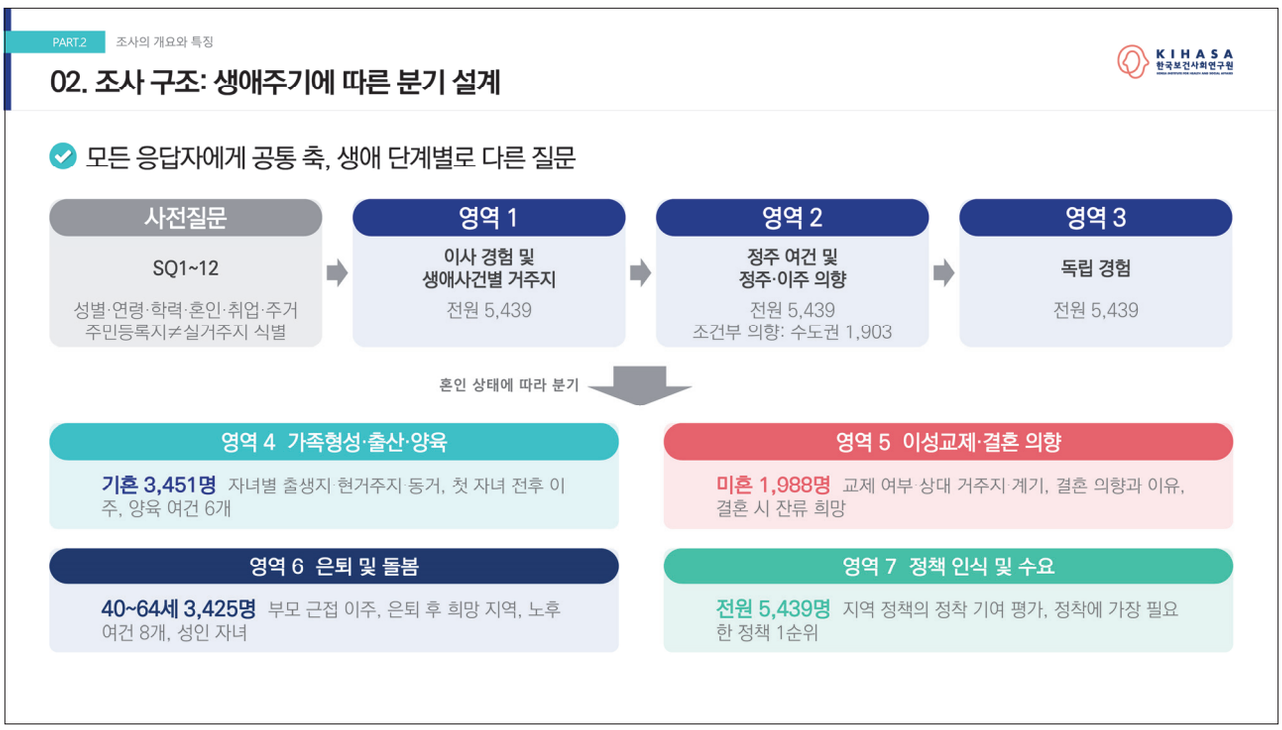
全国の 19~64 歳 5,439 人を対象とする、ライフサイクル別分岐型オンライン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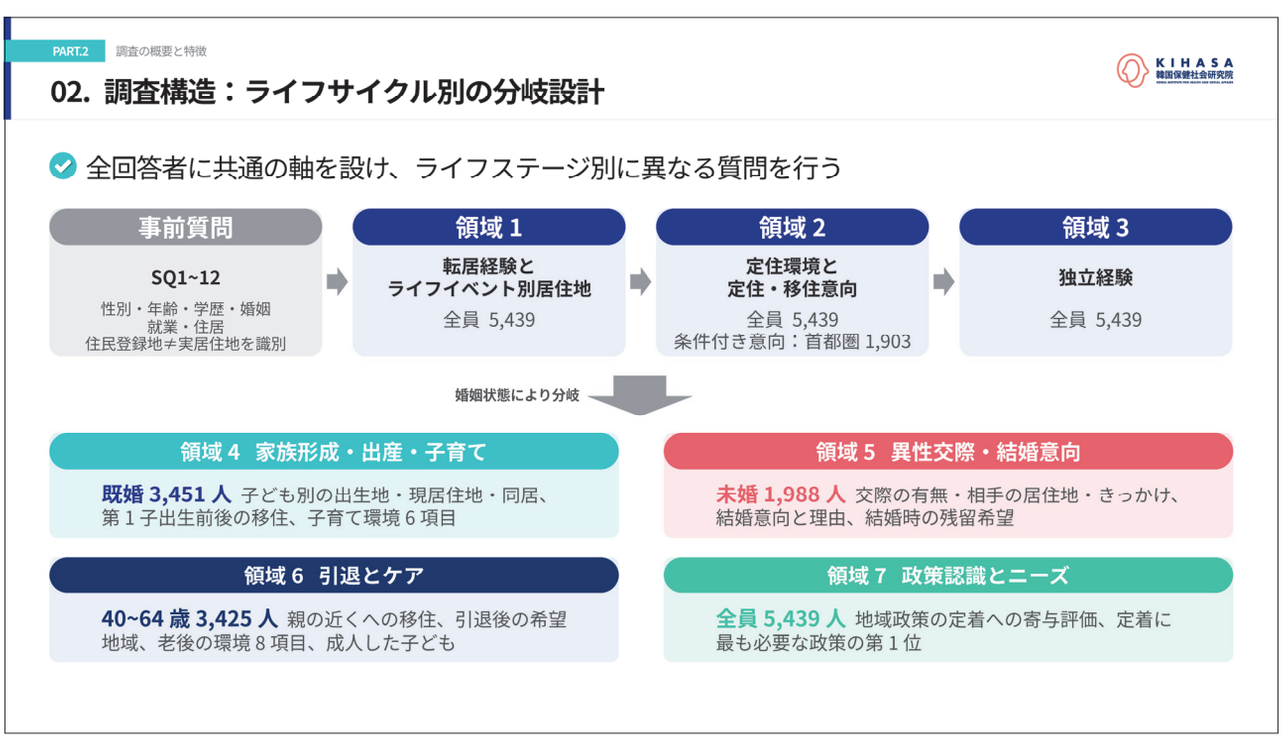
区分	内容
調査対象	全国の満 19~64 歳の成人
調査時期	2026 年 7 月
調査方法	オンラインパネル調査（構造化質問票、平均約 10 分）
標本設計	目標 5,000 人、市・道別に平方根比例配分し、 小規模な市・道でも分析可能な標本を確保
確保標本	5,439 人（目標比 108.8% ）、 2 段階のデータクリーニング後に確定
ウェイト	全国人口比例（全国推計用）／平方根比例（地域間比較用）の 2 種類
調査内容	事前質問 12 問＋本調査 7 領域 30 問

5,439 人
確保標本（目標 5,000 人）

19~64 歳
全国の成人、 16 市・道

7 領域
事前質問 12 ＋本調査 30 問


PART.2 조사의 개요와 특징
02. 조사 구조: 생애주기에 따른 분기 설계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모든 응답자에게 공통 축, 생애 단계별로 다른 질문
사전질문
SQ1~12
성별·연령·학력·혼인·취업·주거
주민등록지≠실거주지 식별
영역 1
이사 경험 및
생애사건별 거주지
전원 5,439
영역 2
정주 여건 및
정주·이주 의향
전원 5,439
조건부 의향: 수도권 1,903
영역 3
독립 경험
전원 5,439
혼인 상태에 따라 분기
영역 4 가족형성·출산·양육
기혼 3,451명 자녀별 출생지 현거주지 동거, 첫 자녀 전후 이주, 양육 여건 6개
영역 5 이성교제·결혼 의향
미혼 1,988명 교제 여부 상대 거주지 계기, 결혼 의향과 이유, 결혼 시 잔류 희망
영역 6 은퇴 및 돌봄
40~64세 3,425명 부모 근접 이주, 은퇴 후 희망 지역, 노후 여건 8개, 성인 자녀
영역 7 정책 인식 및 수요
전원 5,439명 지역 정책의 정착 기여 평가, 정착에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


PART.2 調査の概要と特徴
02. 調査構造：ライフサイクル別の分岐設計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全回答者に共通の軸を設け、ライフステージ別に異なる質問を行う
事前質問
SQ1~12
性別・年齢・学歴・婚姻
就業・住居
住民登録地≠実居住地を識別
領域 1
転居経験と
ライフイベント別居住地
全員 5,439
領域 2
定住環境と
定住・移住意向
全員 5,439
条件付き意向：首都圏 1,903
領域 3
独立経験
全員 5,439
婚姻状態により分岐
領域 4 家族形成・出産・子育て
既婚 3,451 人 子ども別の出生地・現居住地・同居、第 1 子出生前後の移住、子育て環境 6 項目
領域 5 異性交際・結婚意向
未婚 1,988 人 交際の有無・相手の居住地・きっかけ、結婚意向と理由、結婚時の残留希望
領域 6 引退とケア
40~64 歳 3,425 人 親の近くへの移住、引退後の希望地域、老後の環境 8 項目、成人した子ども
領域 7 政策認識とニーズ
全員 5,439 人 地域政策の定着への寄与評価、定着に最も必要な政策の第 1 位

PART.2 조사의 개요와 특징

03. 특징 ① 생애사건 기반 거주이력: 이동 '궤적'의 복원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입신고 통계가 '이동 건수'를 센다면, 이 조사는 '사람의 경로'를 따라간다

Q2	Q3	Q4	Q5	Q6	Q7	Q8	SQ2
출생	최종학교 졸업	첫 일자리	첫 혼인	첫 자녀 출생	5년 전	1년 전	현재

각 시점의 시도·시군구(해외는 국가명)와 당시 연령을 기록 → 8개 시점을 잇는 개인별 이동 궤적

함께 측정하는 것

- **최근 이사** 시기 · 직전 거주지 · 이유(16개 보기, 1·2순위) · 동반 가족
- **생애 총 이사 횟수**와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도(복수응답)
- **가공 가능한 지표** 생애사건별 이동 여부·방향(시도 간/시군구 간/수도권↔비수도권), 출생지 기준 잔류·U턴·전출, 첫 독립의 사유·연령·목적지
- **코호트별 궤적 유형화** 예: "졸업 시 유출 → 혼인 시 정착"

예시 — 한 응답자의 궤적 (가상)

출생	졸업 20세	첫 일자리 25세
전남 ○○군	광주	경기 수원
혼인 31세	**첫 자녀 33세**	**현재 42세**
서울	경기 화성	경기 화성

PART.2 調査の概要と特徴

03. 特徴① ライフイベントに基づく居住歴：移動「軌跡」の復元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 転入届統計が「移動件数」を数えるのに対し、本調査は「人の経路」をたどる

Q2	Q3	Q4	Q5	Q6	Q7	Q8	SQ2
出生	最終学校卒業	初就職	初婚	第 1 子出生	5 年前	1 年前	現在

各時点の市・道／市・郡・区（海外は国名）と当時の年齢を記録 → 8 時点を結ぶ個人別の移動軌跡

あわせて測定する項目

- **直近の転居** 時期・直前の居住地・理由（16 選択肢、第 1・2 位）・同伴家族
- **生涯の総転居回数**と 3 か月以上居住した市・道（複数回答）
- **作成可能な指標** ライフイベント別の移動の有無・方向（市・道間／市・郡・区間／首都圏↔非首都圏）、出生地基準の残留・U ターン・転出、初めての独立の理由・年齢・行き先
- **コーホート別の軌跡類型化** 例：「卒業時に流出 → 結婚時に定着」

例 — ある回答者の軌跡（仮想）

出生	卒業 20 歳	初就職 25 歳
全南 ○○郡	光州	京畿 水原
結婚 31 歳	**第 1 子 33 歳**	**現在 42 歳**
ソウル	京畿 華城	京畿 華城

PART.2 조사의 개요와 특징

04. 특징 ② 생애주기 모듈: 이동이 '삶의 기회'와 만나는 지점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만남·결혼, 출산·양육, 은퇴·돌봄의 결정이 지역과 어떻게 얽히는지를 묻는다

미혼 (Q20~22)
미혼 1,988명

- 교제 여부, 상대의 거주지, 만난 계기(9개), 교제 의향
- 결혼 의향과 의향이 없는 이유: '지역 내 만남 기회 부족' 포함
- 결혼한다면 현 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인가

기혼 (Q16~19)
기혼 3,451명

- 자녀별 성별·출생연월·출생지·현 거주지·동거 여부
- 첫 자녀 출생 전후 2년 내 이주 여부·시기·사유(7개)
- 현 지역의 결혼·출산·양육 여건 6개 평가, 추가 출산 의향

중장년 (Q23~28)
40~64세 3,425명

- 부모 근접 목적의 이주 경험과 사유
- 은퇴 후 희망 거주지, 노후 정주 여건 8개 평가
- 성인 자녀 근접 이주, 자녀 독립 후 인식 변화, 노후 자녀 근접 희망

공통 (Q15) 부모로부터의 첫 독립: 사유(6개)·당시 연령·거주지 → 청년기 이동의 출발점을 포착

PART.2 調査の概要と特徴

04. 特徴② ライフサイクル別モジュール：移動と「人生の機会」の接点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 出会い・結婚、出産・子育て、引退・ケアの決定が地域とどう関わるかを問う

未婚 (Q20~22)
未婚 1,988 人

- 交際の有無、相手の居住地、出会いのきっかけ（9 項目）、交際意向
- 結婚意向と意向がない理由：「地域内の出会いの機会不足」を含む
- 結婚する場合、現地域に住み続けるか

既婚 (Q16~19)
既婚 3,451 人

- 子ども別の性別・出生年月・出生地・現居住地・同居の有無
- 第 1 子出生前後 2 年以内の移住の有無・時期・理由（7 項目）
- 現地域の結婚・出産・子育て環境 6 項目の評価、追加出生意向

中高年 (Q23~28)
40~64 歳 3,425 人

- 親の近くに住むための移住経験と理由
- 引退後の希望居住地、老後の定住環境 8 項目の評価
- 成人した子どもの近くへの移住、子どもの独立後の認識変化、老後の子どもとの近居希望

共通 (Q15) 親からの初めての独立：理由（6 項目）・当時の年齢・居住地 → 青年期の移動の出発点を把握

PART.2 조사의 개요와 특징

05. 특징 ③ 정주의 '인식'과 '조건'을 측정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살기 좋은가"뿐 아니라 "무엇이 충족되면 옮기겠는가"를 묻는다

정주 여건 평가 (Q12)
일자리·주택·출산양육·교육·의료·교통·문화여가·안전·가족근접·자연환경 → 10개 영역, 5점 척도

조건부 비수도권 거주 의향 (Q14)
수도권 거주자에게 11개 정책 조건별 효과를 질문 → 정책 수단 간 상대적 유인의 비교가 가능한 정책 실험적 문항

지역 정책 평가와 수요 (Q29~30)
현 지역 정책의 정착 기여 평가 + 정착에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10개)

복수 생활거점과 타지역 생활 (Q10~11)
거점의 보유·위치·목적(6개)과 거주지 외 지역 생활 빈도 → 주민등록이 포착하지 못하는 복수 거점 생활

주민등록지 ≠ 실거주지 (SQ3)
행정자료와 실제 거주의 괴리를 조사 내부에서 식별

Q14 조건부 비수도권 거주 의향의 11개 조건
"다음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지방 또는 비수도권에 거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안정적 일자리
- 현재 소득 유지·증가
- 주거비 지원
- 양질의 보육·교육 환경
- 의료 접근성 개선
- 광역 교통 인프라
- 문화·생활 인프라
- 원격·유연근무 가능성
- 디지털·AI 일자리 확대
- 부모·자녀와 가까운 거리
- 정착지원금·세제지원

전혀 효과 없음 ~ 매우 효과 있음, 5점 척도

PART.2 調査の概要と特徴

05. 特徴③ 定住の「認識」と「条件」の測定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 「住みやすいか」だけでなく、「何が満たされれば移るか」を問う

定住環境の評価（Q12）
雇用・住宅・出産子育て・教育・医療・交通・文化余暇・安全・家族近接・自然環境 → 10 領域、 5 段階尺度

条件付き非首都圏居住意向（Q14）
首都圏居住者に 11 の政策条件別の効果を質問 → 政策手段間の相対的な誘引効果を比較できる政策実験的設問

地域政策の評価とニーズ（Q29~30）
現地域の政策の定着への寄与評価＋定着に最も必要な政策の第 1 位（ 10 項目）

複数の生活拠点と他地域での生活（Q10~11）
拠点の保有・場所・目的（ 6 項目）と居住地以外での生活頻度 → 住民登録では捉えられない複数拠点生活

住民登録地 ≠ 実居住地（SQ3）
行政データと実際の居住の乖離を調査内で識別

Q14 条件付き非首都圏居住意向の 11 条件
「以下の条件が満たされれば、地方または非首都圏に居住する意向がありますか」

- 安定した雇用
- 現所得の維持・増加
- 住居費支援
- 質の高い保育・教育環境
- 医療アクセスの改善
- 広域交通インフラ
- 文化・生活インフラ
- テレワーク・柔軟な勤務の可能性
- デジタル・ AI 雇用の拡大
- 親・子どもとの近距離
- 定着支援金・税制支援

全く効果がない ~ 非常に効果がある、 5 段階尺度

PART.2 조사의 개요와 특징

06. 특징 ④ 일본 인구이동조사와의 호환, 그리고 자료의 한계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핵심 문항은 일본 조사와 대응하도록 설계: 비교연구의 출발점

일본 제9회 인구이동조사(2023)와 대응하는 문항

- **생애사건별 거주지** 출생 · 최종학교 졸업 · 첫 취직 · 초혼 / 5년 전 · 1년 전 거주지
- **최근 이사 이유 16개 보기** 항목과 순서 동일
- **5년 후 이동 가능성** 4점 척도와 후속 질문(희망 지역·지역 유형·이유) 구조 동일
- **복수 생활거점** "과거 1년간 가장 오래 머문 곳" 기준 동일, 목적 6개 보기 동일
- **부모로부터 독립 사유 6개 보기** / 자녀의 출생지·현 거주지

한국 조사에서 추가한 것

- 첫 자녀 출생 시 거주지
- 정주 여건 평가 10개 영역
- 조건부 비수도권 거주 의향
- 미혼·양육·중장년 모듈
- 정책 평가·수요

해석 시 유의할 한계

온라인 패널
고령·저학력·농촌 거주자의 과소 대표 가능성(가중 보정으로 일부 완화)

대상 연령
19~64세로 한정

회고 응답
생애사건 거주지의 기억 오차(연월 정합성 보정 변수 제공)

횡단면
의향은 행동이 아님 — 인과 해석에 신중

PART.2 調査の概要と特徴

06. 特徴④ 日本の人口移動調査との互換性とデータの限界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 主要設問を日本の調査と対応させて設計：比較研究の出発点

日本の第 9 回人口移動調査 (2023) に対応する設問

- **ライフイベント別居住地** 出生・最終学校卒業・初就職・初婚／5 年前・1 年前の居住地
- **直近の転居理由 16 選択肢** 項目と順序が同一
- **5 年後の移動可能性** 4 段階尺度と追加質問（希望地域・地域類型・理由）の構造が同一
- **複数の生活拠点** 「過去 1 年間で最も長く滞在した場所」の基準、目的の 6 選択肢が同一
- **親からの独立理由 6 選択肢** ／子どもの出生地・現居住地

韓国の調査で追加した項目

- 第 1 子出生時の居住地
- 定住環境評価の 10 領域
- 条件付き非首都圏居住意向
- 未婚・子育て・中高年モジュール
- 政策評価・ニーズ

解釈時に留意すべき限界

オンラインパネル
高齢者・低学歴者・農村居住者の過少代表の可能性（ウェイト補正で一部緩和）

対象年齢
19~64 歳に限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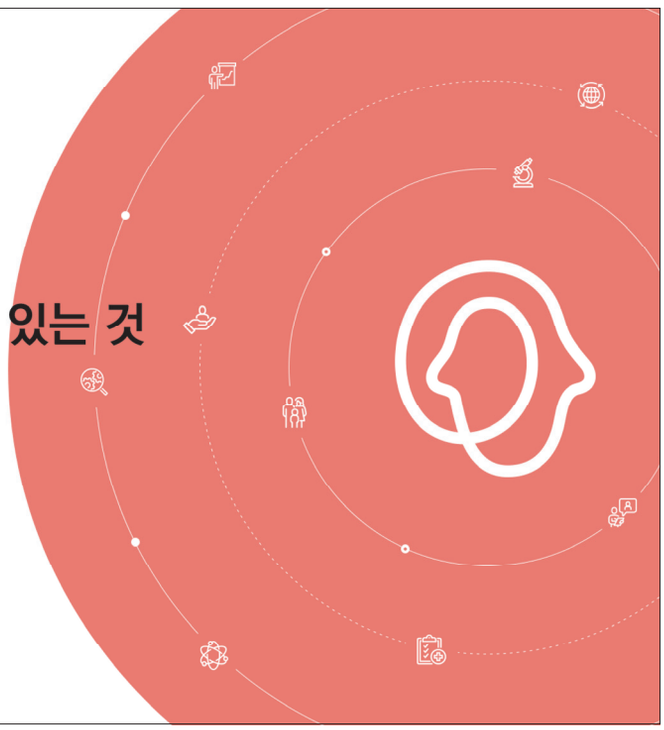
回顧回答
ライフイベント時の居住地の記憶誤差（年月の整合性補正変数を提供）

横断面
意向は行動ではない — 因果解釈は慎重に

PART.3

주요 결과: 이 조사로 알 수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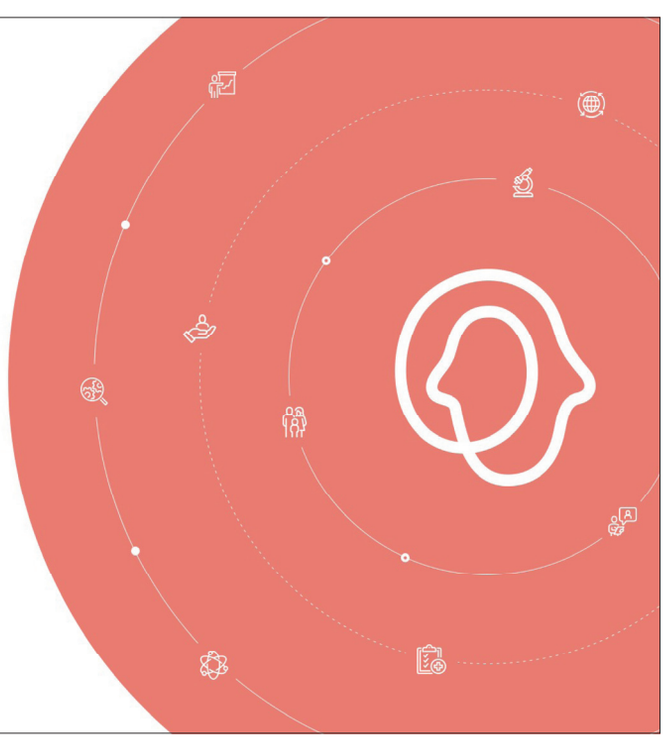
01 | 생애 이동의 규모
02 | 5년 후 이동 의향
03 | 정주 여건의 지역 격차
04 | 지역과 미혼남녀의 만남
05 | 무엇이 수도권 거주자를 움직이는가
06 | 정책 평가와 수요, 복수 거점 생활



PART.3

主な結果：本調査からわかること

01 | 生涯における移動の規模
02 | 5 年後の移動意向
03 | 定住環境の地域格差
04 | 地域と未婚男女の出会い
05 | 何が首都圏居住者の移動を促すのか
06 | 政策評価とニーズ、複数拠点生活



PART.3 주요 결과: 이 조사로 알수 있는 것

01. 생애 이동의 규모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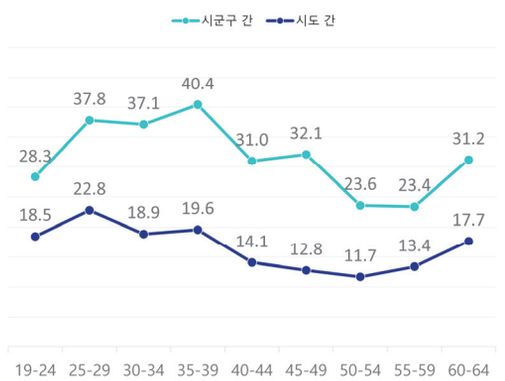
✔ 열에 아홉은 이동 경험, 5년 안에 셋 중 하나가 시군구를 옮겼다

91.5%
출생 이후 이사 경험
19~29세 81.9 → 60~64세 98.4

31.3%
5년 전과 다른 시군구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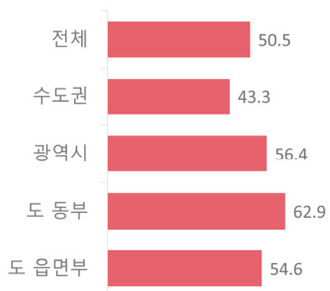
16.2%
5년 전과 다른 시도 거주

연령별 5년 이동률 (%)



30대 정점 → 50대 저점 → 60~64세 재상승: 은퇴기 이동의 시사

출생 시도에 현재 거주 (%)



수도권 거주자의 56.2%는 타 시도 출생

* 5년 전 거주지 '모름' 104명 제외. 같은 시군구 내 이동은 식별되지 않음. 전국 인구비례 가중치 적용.

PART.3 主な結果：本調査からわかること

01. 生涯における移動の規模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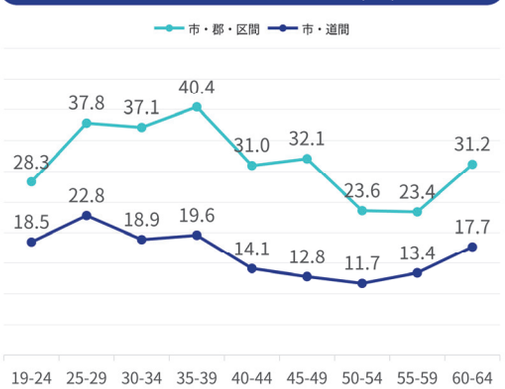
✔ 10 人に 9 人が移動を経験し、 5 年以内に 3 人に 1 人が市・郡・区を越えて転居

91.5%
出生以降の転居経験
19~29 歳 81.9→60~64 歳 98.4

31.3%
5 年前とは異なる
市・郡・区に居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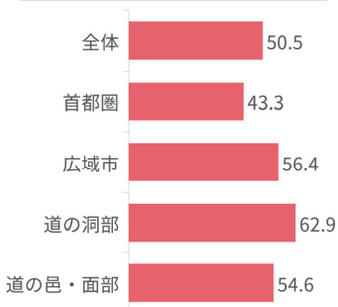
16.2%
5 年前とは異なる
市・道に居住

年齢別の 5 年間移動率 (%)



30 代でピーク → 50 代で最低 → 60~64 歳で再上昇：引退期の移動を示唆

出生市・道に現在居住 (%)



首都圏居住者の 56.2% は他の市・道で出生

* 5 年前の居住地が「不明」の 104 人を除く。同一市・郡・区内の移動は識別不可。全国人口比例ウェイトを適用。

PART.3 주요 결과: 이 조사로 알수 있는 것

02. 5년 후 이동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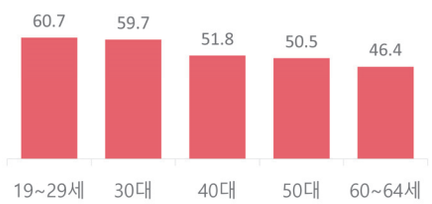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절반 이상이 "옮길 의향 있다": 연령이 높아져도 완만하게만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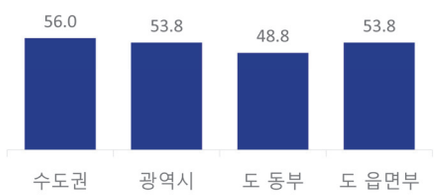
54.0%
5년 후 이동 의향 있음 (매우 17.5 + 어느 정도 36.5)

도 동부 60~64세만 37.9%로 40% 미만

연령별 의향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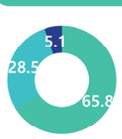
지역별 의향 있음 (%)



이동 희망 지역 (복수응답, %)



이동 예정지 유형 (모름 제외, %)



대도시권 65.8 중소도시권 28.5 농어촌 5.1

- 읍면부 거주자는 타 시도 희망이 38.2%로 가장 높음
- 타 시도 희망자의 예정지도 대도시권에 집중

* 희망 지역·예정지 유형은 '매우 없다' 응답자를 제외한 4,500명 기준. 전국 인구비례 가중치 적용.

PART.3 主な結果：本調査からわかること

02. 5 年後の移動意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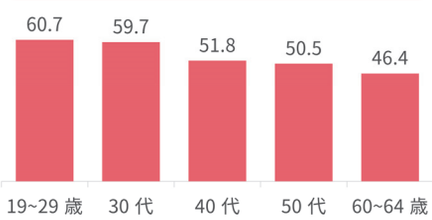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 半数以上が「移る意向あり」：年齢が上がっても減少は緩や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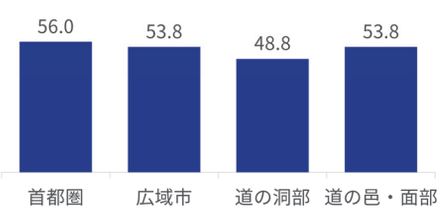
54.0%
5 年後の移動意向あり（非常に 17.5 ＋ ある程度 36.5 ）

道の洞部の 60~64 歳のみ 37.9% で 40% 未満

年齢別の意向あ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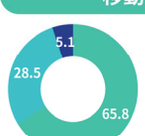
地域別の意向あり（%）



移動希望地域（複数回答、%）



移動予定地の類型（不明を除く、%）



大都市圏 65.8 中小都市圏 28.5 農漁村 5.1

- 邑・面部居住者では他の市・道を希望する割合が 38.2% と最も高い
- 他の市・道を希望する人の予定地も大都市圏に集中

* 希望地域・予定地類型は「全くない」と回答した人を除く 4,500 人が対象。全国人口比例ウェイトを適用。

PART.3 주요 결과: 이 조사로 알수 있는 것

03. 정주 여건의 지역 격차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자리는 어디서나 부족하고, 생활 인프라 격차는 읍면부에서 결정적이다

	영역 (%)	수도권	광역시	도 동부	도 읍면부
정주 여건 충분 (계)	일자리 기회	28.2	19.4	20.1	18.3
	의료	51.5	46.2	32.4	22.3
	교육	45.2	41.8	32.1	23.4
	문화·여가	46.9	37.2	24.9	14.9
	출산·양육	40.4	35.8	31.2	23.7
양육 여건 긍정 (기혼)	보육시설 접근성	56.2	48.8	38.3	29.7
	의료 접근성	61.4	55.4	40.0	27.0
	교육환경	53.7	49.7	38.3	25.8
노후 여건 충분 (40~64세)	의료기관 접근성	58.9	50.3	37.4	24.2
	대중교통·보행	58.4	55.6	41.7	24.8
	중장년 일자리	31.9	26.0	23.7	18.2

일자리 기회
충분 24.1%로 10개 영역 중 최저, 수도권도 28.2%

읍면부의 생활 인프라
문화·의료·교육 충분이 수도권의 절반 이하

양육·노후 여건
보육·의료 접근성의 지역 격차가 가장 큼. 중장년 일자리·주거 리모델링은 전국 최저(27.9·25.6)

* 각 셀은 '충분(함)'·'그렇다' 상위 2범주 응답 비율. 색이 짙을수록 긍정 비율이 높음. 전국 인구비례 가중치 적용.

PART.3 主な結果：本調査からわかること

03. 定住環境の地域格差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雇用はどこでも不足し、生活インフラの格差は邑・面部で決定的となる

	領域 (%)	首都圏	広域市	道の洞部	道の邑・面部
定住環境十分 (計)	雇用機会	28.2	19.4	20.1	18.3
	医療	51.5	46.2	32.4	22.3
	教育	45.2	41.8	32.1	23.4
	文化・余暇	46.9	37.2	24.9	14.9
	出産・子育て	40.4	35.8	31.2	23.7
子育て環境肯定的 (既婚)	保育施設へのアクセス	56.2	48.8	38.3	29.7
	医療へのアクセス	61.4	55.4	40.0	27.0
	教育環境	53.7	49.7	38.3	25.8
老後の環境十分 (40~64 歳)	医療機関へのアクセス	58.9	50.3	37.4	24.2
	公共交通・歩行環境	58.4	55.6	41.7	24.8
	中高年の雇用	31.9	26.0	23.7	18.2

雇用機会
十分は 24.1% で 10 領域中最低。首都圏でも 28.2%

邑・面部の生活インフラ
文化・医療・教育が十分との回答は首都圏の半分以下

子育て・老後の環境
保育・医療アクセスの地域格差が最大。中高年の雇用・住宅改修は全国で最も低い（27.9 ・ 25.6）

* 各セルは「十分」・「そう思う」の上位 2 区分の回答割合。色が濃いほど肯定的な割合が高い。全国人口比例ウェイトを適用。

PART.3 주요 결과: 이 조사로 알수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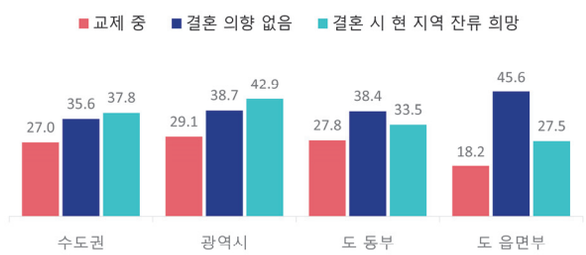
04. 지역과 미혼남녀의 만남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읍면부의 미혼은 교제 기회가 적고, 결혼 의향은 낮으며, 결혼하면 떠나겠다고 답한다

19~49세 미혼 1,741명

지역별 미혼의 교제·결혼·잔류 (%)



비수도권 미혼: 출생지 기준 이동 유형별 (%)

토박이	U턴	타지 출신
22.2	25.5	34.5
교제 중	교제 중	교제 중
28.0	35.1	41.1
결혼 의향 있음	결혼 의향 있음	결혼 의향 있음

토박이 〈 U턴 〈 타지 출신의 경사 → 이동 경험이 만남의 기회와 함께 간다

읍면부 여성 57.7%
결혼 의향 없음 (남성 35.8%)

읍면부 43.5%
교제 상대가 타 시도 거주 (전체 28.3%)

70.4% vs 52.5%
교제 중 vs 비교제 미혼의 5년 후 이동 의향

* 결혼 의향 없는 이유 1위는 '결혼 필요성을 못 느낌' 42.5%, 남성은 경제적 불안정 38.1%

PART.3 主な結果：本調査からわかるこ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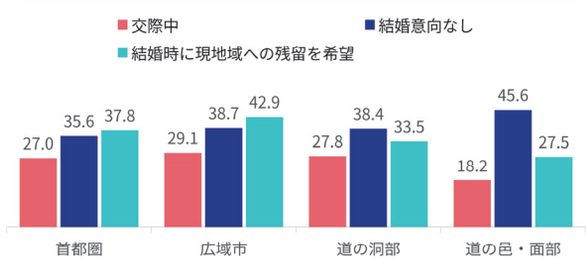
04. 地域と未婚男女の出会い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 邑・面部の未婚者は交際機会が少なく、結婚意向が低く、結婚すれば離れると回答

19~49 歳の未婚者 1,741 人

地域別の未婚者の交際・結婚・残留（%）



非首都圏の未婚者：出生地基準の移動類型別（%）

地元定住者	U ターン	他地域出身
22.2	25.5	34.5
交際中	交際中	交際中
28.0	35.1	41.1
結婚意向あり	結婚意向あり	結婚意向あり

地元定住者 ＜U ターン ＜ 他地域出身の勾配 → 移動経験と出会いの機会が関連

邑・面部の女性 57.7%
結婚意向なし（男性 35.8%）

邑・面部 43.5%
交際相手は他市・道に居住（全体 28.3%）

70.4% vs 52.5%
交際中 vs 非交際の未婚者の 5 年後の移動意向

* 結婚意向がない理由の第 1 位は「結婚の必要性を感じない」 42.5%、男性は経済的不安定 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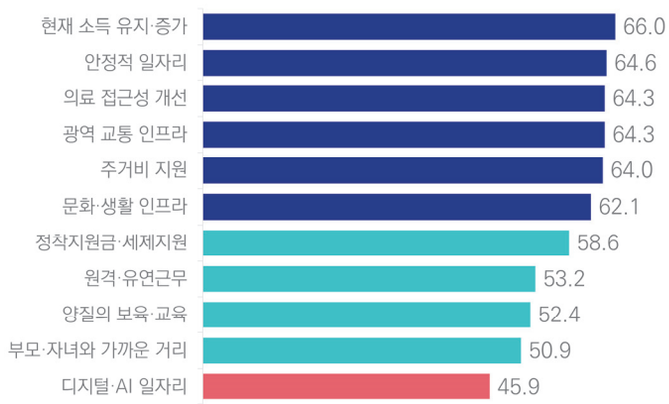
PART.3 주요 결과: 이 조사로 알수 있는 것

05. 무엇이 수도권 거주자를 움직이는가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소득·일자리·주거비·의료·교통이 나란히 60%대, 디지털 일자리는 46%

조건 충족 시 비수도권 거주 의향: 효과 있음(계), 수도권 거주자 1,903명 (%)



60~64세에서 가장 효과적
의료 72.7 · 교통 71.8 · 정착지원금 70.0

19~29세는 원격근무
58.9%로 전 연령 최고

디지털·AI 일자리는 최하위
45.9% — 특정 산업 일자리 공급만으로는 부족

단일 유인보다 **소득·일자리·생활 인프라의 묶음**이 조건

* '효과 있음' + '매우 효과 있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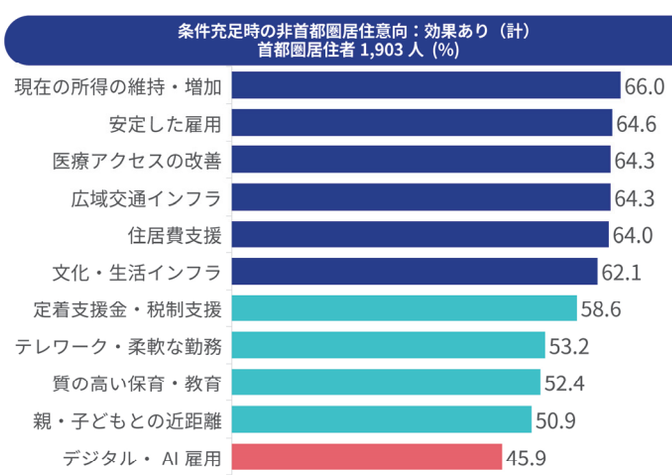
PART.3 主な結果：本調査からわかること

05. 何が首都圏居住者の移動を促すのか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 所得・雇用・住居費・医療・交通はともに 60% 台、デジタル雇用は 46%

**条件充足時の非首都圏居住意向：効果あり（計）
首都圏居住者 1,903 人 (%)**



60~64 歳で最も効果的
医療 72.7 ・交通 71.8 ・定着支援金 70.0

19~29 歳ではテレワーク
58.9% と全年齢で最高

デジタル・ AI 雇用は最下位
45.9% — 特定産業の雇用供給だけでは不十分

単一の誘因よりも、**所得・雇用・生活インフラの組み合わせ**が条件

* 「効果がある」＋「非常に効果がある」の割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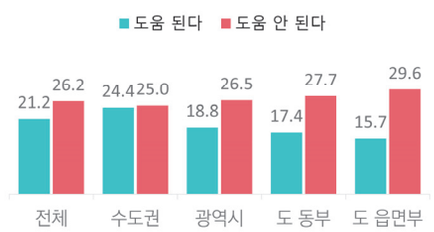
PART.3 주요 결과: 이 조사로 알수 있는 것

06. 정책 평가와 수요, 복수 거점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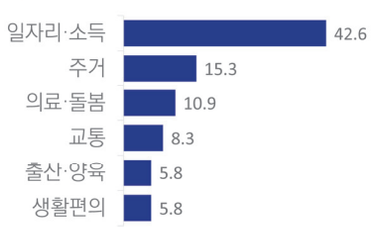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도움 안 된다"가 "된다"보다 많고, 요구의 절반은 일자리·소득이다

지역 정책의 정착 기여 평가 (%)



정착에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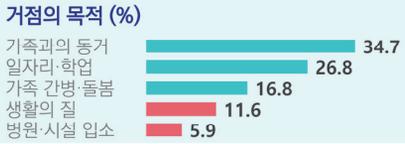


집단별 2순위 요구

- **수도권** 주거 지원 18.5
- **도 읍면부** 의료·돌봄 15.4
- **30대** 출산·양육 13.0
- **19~29세** 교통 11.4

10.1%
복수 생활거점 보유

거점의 목적 (%)



선택적 '2지역 거주'는 소수
다수는 가족·일 때문에 거점을 나눠 사는 분거형. 거주지 외 지역에서 매주 1일 이상 정기 생활하는 비율은 12.1%

* 정책 평가: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이 된다' vs '도움이 되지 않는다'+'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국 인구비례 가중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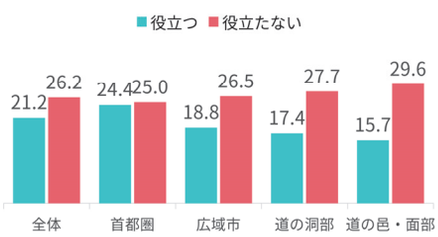
PART.3 主な結果：本調査からわかること

06. 政策評価とニーズ、複数拠点生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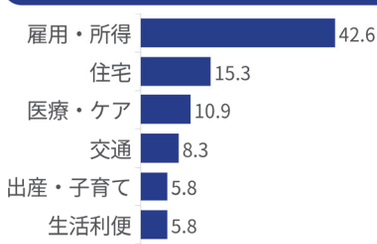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役立たない」が「役立つ」を上回り、ニーズの半分は雇用・所得

地域政策の定着への寄与評価 (%)



定着に最も必要な政策の第 1 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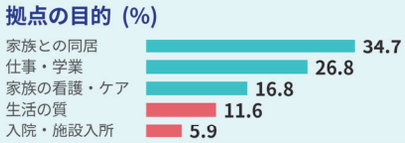


集団別の第 2 位のニーズ

- **首都圏** 住宅支援 18.5
- **道の邑・面部** 医療・ケア 15.4
- **30 代** 出産・子育て 13.0
- **19~29 歳** 交通 11.4

10.1%
複数の生活拠点を保有

拠点の目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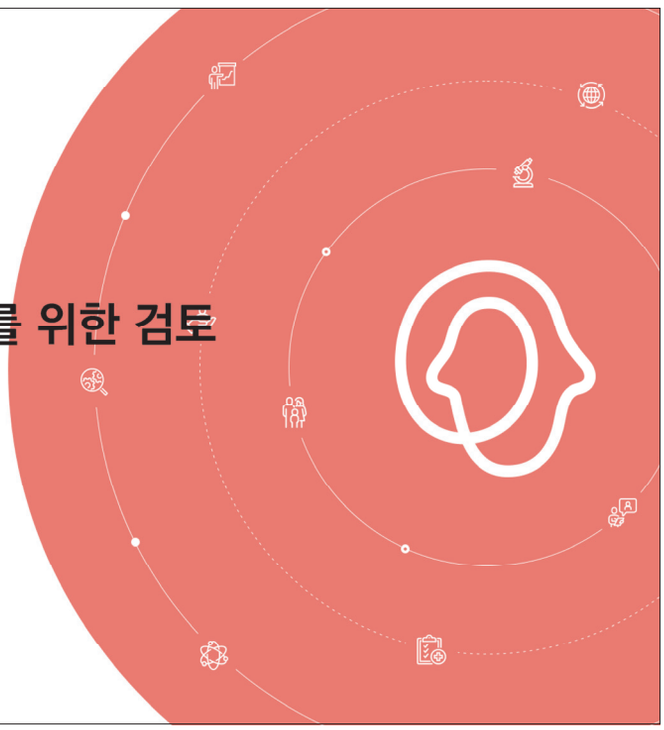
選択的な「 2 地域居住」は少数
多くは家族・仕事のために拠点を分けて暮らす分居型。居住地以外の地域で毎週 1 日以上、定期的に生活する割合は 12.1%

* 政策評価：「役立つ」＋「非常に役立つ」 vs 「役立たない」＋「全く役立たない」。全国人口比例ウェイトを適用。

PART.4

향후 과제: 한·일 공동연구를 위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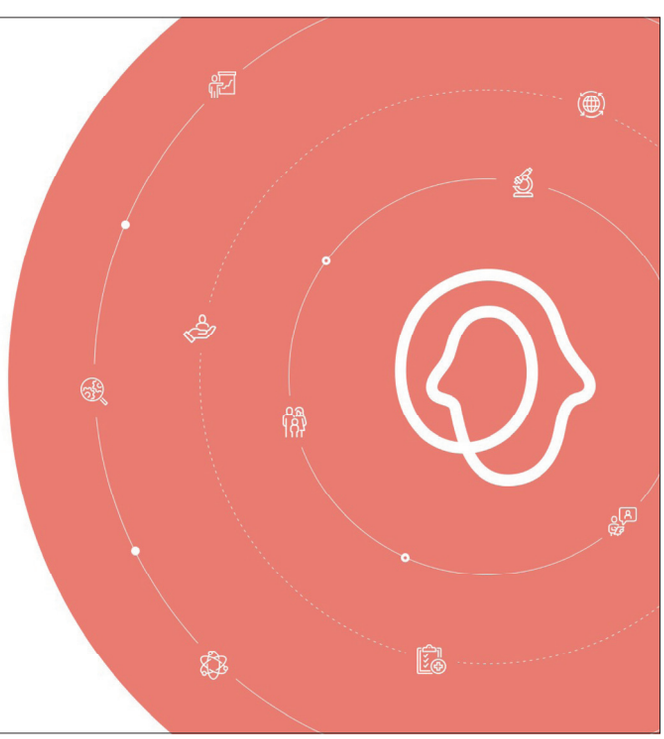
01 | 비교 가능 항목
02 | 조건과 제안
03 | 마무리



PART.4

今後の課題：韓日共同研究に向けた検討

01 | 比較可能な項目
02 | 条件と提案
03 | まとめ



PART.4 향후 과제: 한·일 공동연구를 위한 검토

01. 비교 가능 항목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핵심 6개 항목은 직접 비교 가능, 분모와 척도의 통일이 전제

항목	한국 조사	일본 제9회(2023)	비교	유의점
생애사건별 거주지	Q2~Q5	問13·15·16·17	◎	출생·최종학교·첫 취직·초혼
5년 전·1년 전 거주지	Q7·Q8	問18·19	◎	한국은 시군구 내 이동 식별 불가
최근 이사 이유	Q1-3 (16개)	問12-3 (16개)	◎	일본 공표는 5년 내 이동자 한정
5년 후 이동	Q13 (4점)	問23 (4점)	◎	"의향" vs "가능성" 문구 차이
복수 생활거점	Q11	問22	○	목적: 단일 vs 복수응답
부모로부터 독립 사유	Q15-1 (6개)	問24-1 (6개)	◎	보기 거의 동일
자녀 출생지·현거주지	Q16-1	問27-1	○	자녀 단위 정보 구조 상이

한국 고유
첫 자녀 출생 시 거주지 · 정주 여건 평가 · 조건부 비수도권 거주 의향 · 미혼·양육·중장년 모듈 · 정책 평가·수요

일본 고유
코로나19가 이사에 미친 영향 · 별거 부모의 거주지와 건강 상태 · 부모의 출생지

* 問 번호는 일본 제9회 인구이동조사 조사표(2023.7.1) 기준.

PART.4 今後の課題：韓日共同研究に向けた検討

01. 比較可能な項目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主要 6 項目は直接比較可能。ただし分母と尺度の統一が前提

項目	韓国の調査	日本第 9 回 (2023)	比較	留意点
ライフイベント別居住地	Q2~Q5	問 13·15·16·17	◎	出生・最終学校・初就職・初婚
5 年前・ 1 年前の居住地	Q7·Q8	問 18·19	◎	韓国では市・郡・区内の移動を識別不可
直近の転居理由	Q1-3 (16 項目)	問 12-3 (16 項目)	◎	日本の公表は 5 年以内の移動者に限定
5 年後の移動	Q13 (4 段階)	問 23 (4 段階)	◎	「意向」 vs 「可能性」の表現の違い
複数の生活拠点	Q11	問 22	○	目的：単一 vs 複数回答
親からの独立理由	Q15-1 (6 項目)	問 24-1 (6 項目)	◎	選択肢はほぼ同一
子どもの出生地・現居住地	Q16-1	問 27-1	○	子ども単位の情報構造が異なる

韓国独自
第 1 子出生時の居住地・定住環境評価・条件付き非首都圏居住意向・未婚／子育て／中高年モジュール・政策評価／ニーズ

日本独自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転居に及ぼした影響・別居する親の居住地と健康状態・親の出生地

* 問番号は日本の第 9 回人口移動調査の調査票 (2023.7.1) に基づく。

PART.4 향후 과제: 한·일 공동연구를 위한 검토

02. 조건과 제안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같은 문항이라도 같은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물었는지를 먼저 맞춰야 한다

1 연령 범위

한국 19~64세 vs 일본 전 연령

→ 전체 비율이 아닌 연령별 비교

2 조사 방식

온라인 패널 vs 조사원 배포·회수(일부 온라인)

→ 방식 효과를 염두에 둔 해석

3 분모와 응답 방식

5년 내 이동자 한정 여부, "모름" 보기 유무, 단일·복수응답

→ 공통 분모로 재집계

제안

- 공통 연령대(20~64세)·공통 분모로 양국 원자료를 재집계한 한·일 비교표 작성
- 우선 주제: ① 5년 후 이동 의향의 연령 추이 ② 이사 이유 구조 ③ 복수 거점 생활의 목적 구조
- 차기 정례포럼의 공동 세션으로 제안

PART.4 今後の課題：韓日共同研究に向けた検討

02. 条件と提案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同じ設問でも、同じ対象に同じ方法で尋ねたかを、まず揃える必要がある

1 年齢範囲

韓国 19~64 歳 vs 日本は全年齢

→ 全体の割合ではなく年齢別に比較

2 調査方法

オンラインパネル vs 調査員による配布・回収（一部オンライン）

→ 調査方法の影響を考慮して解釈

3 分母と回答方法

5 年以内の移動者への限定、「不明」の選択肢の有無、単一・複数回答

→ 共通の分母で再集計

提案

- 共通年齢層（20~64 歳）・共通分母で両国の個票データを再集計し、韓日比較表を作成
- 優先テーマ：① 5 年後の移動意向の年齢別推移 ② 転居理由の構造 ③ 複数拠点生活の目的の構造
- 次回定例フォーラムの共同セッションとして提案


PART.4 향후 과제: 한·일 공동연구를 위한 검토
03. 마무리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동이라는 '사건'이 아니라,
이동하는 '사람과 생애'를 보는 조사
생애사건 거주이력
생애주기 모듈
정주 인식과 조건
국제비교 호환


PART.4 今後の課題：韓日共同研究に向けた検討
03. まとめ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移動という「出来事」ではなく、
移動する「人と生涯」を捉える調査
ライフイベント 居住歴
ライフサイクル モジュール
定住の認識と 条件
国際比較 互換性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감사합니다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발표 2

発表 2

양육가구 주거이동과 양육환경
- 출산 전후 이동, 양육환경, 정주의향을 중심으로

子育て世帯の居住移動と子育て環境
- 出産前後の移動、子育て環境、定住意向を中心に

김은정A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キム・ウンジョン |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副研究委員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양육가구 주거이동과 양육환경

- 출산 전후 이동, 양육환경, 정주의향을 중심으로

| 일시: 2026.11.3.(화) 10:30~16:50
|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子育て世帯の居住移動と子育て環境

- 出産前後の移動、子育て環境、定住意向を中心に

| 日時 : 2026.11.3.(火) 10:30~16:50
| 会場 : 韓国保健社会研究院

キム・ウンジョン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 배경 및 목적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배경

- 한국 사회에서 자녀 양육과 교육 환경은 주거지 선택의 중요한 결정요인
- 저출생 및 지역 소멸 위기에 따라 정주여건의 중요성 대두
- 공공 보육 인프라 이외 교육환경, 의료서비스 등 지역 격차 지속

연구 목적

- 본 분석에서는 양육가구의 주거이동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양육 가구의 출산 전, 후 주거 이동 실태와 동기 분석
  - 현재 거주지의 양육 인프라(보육, 의료, 교육)에 대한 체감 만족도 진단
  - 양육환경이 정주의향 및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파악

研究の背景と目的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研究の背景

- 韓国社会では、子育て・教育環境が居住地選択の重要な決定要因
- 少子化と地域消滅の危機に伴い、定住条件の重要性が浮上
- 公共保育インフラに加え、教育環境・医療サービスなどの地域格差が持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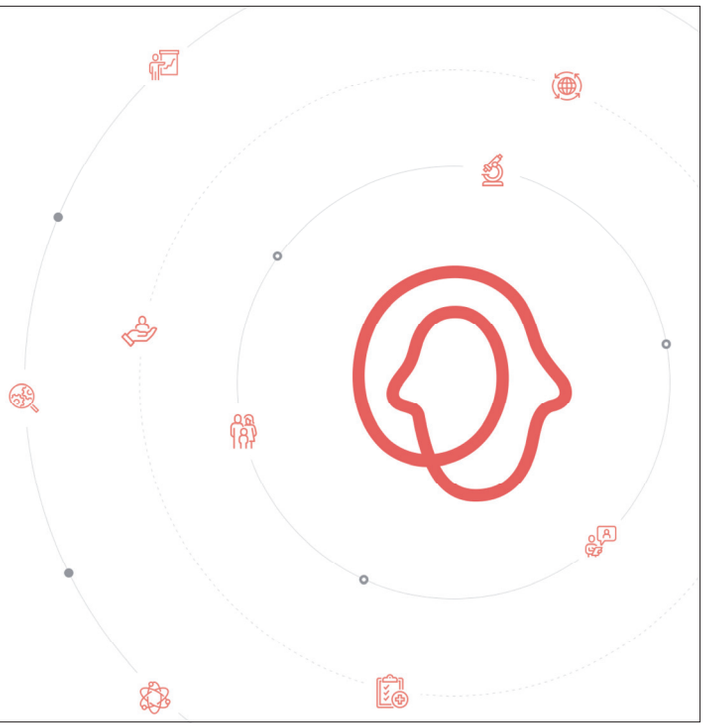
研究の目的

- 本分析では、子育て世帯の居住移動の特徴を把握し、示唆を導き出す
  - 子育て世帯の出産前後の居住移動の実態と動機を分析
  - 現居住地の子育てインフラ（保育・医療・教育）に対する実感としての満足度を把握
  - 子育て環境が定住意向および追加出産意向に及ぼす影響を把握

CONTENT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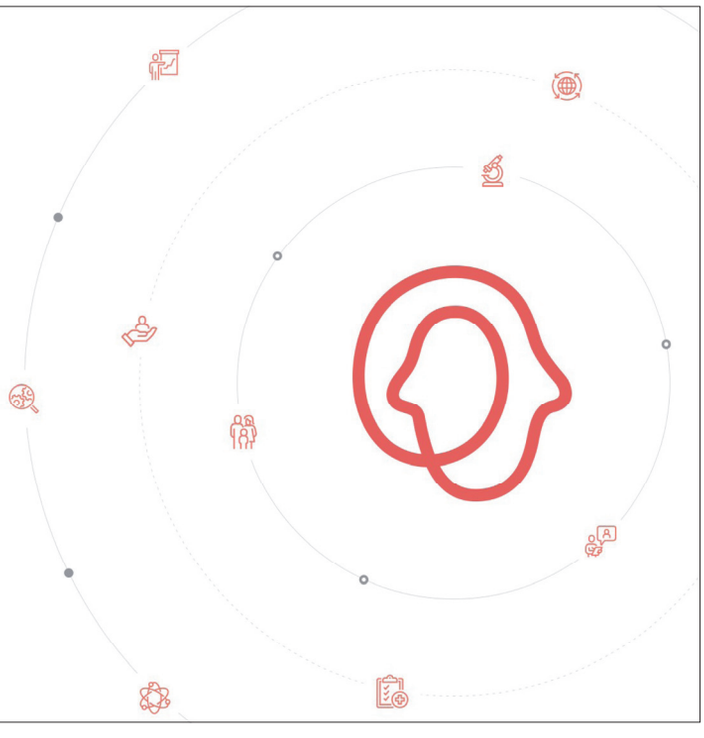
Part.1
출산전후 주거이동 실태와 동기
Part.2
양육환경 만족도 및 격차
Part.3
양육환경과 정주의향 및 추가출산
Part.4
정책 수요 및 제언



CONTENT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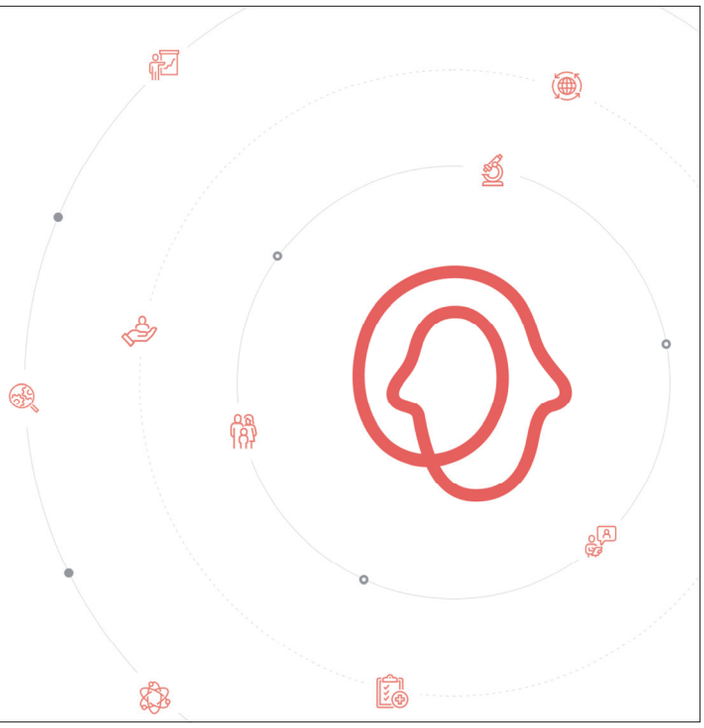
Part.1
出産前後の居住移動の実態と動機
Part.2
子育て環境の満足度と格差
Part.3
子育て環境と定住意向・追加出産
Part.4
政策ニーズと提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art.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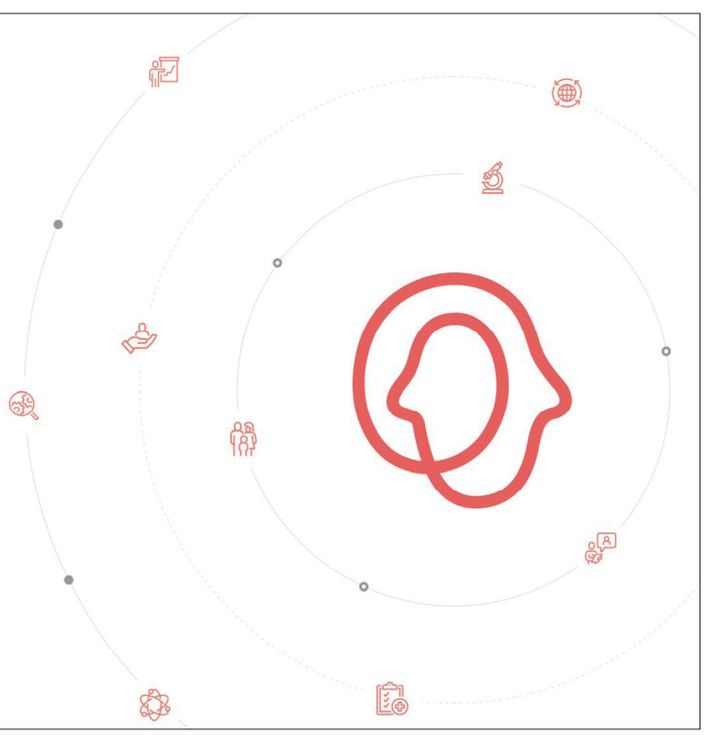
출산전후 주거이동 실태와 동기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art.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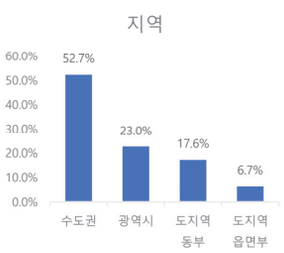
出産前後の居住移動の実態と動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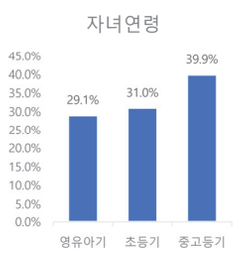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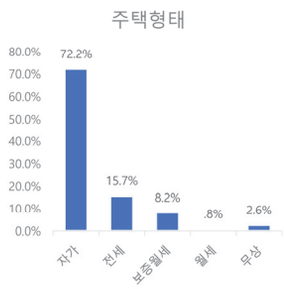
PART.1 출산 전후 주거이동 실태와 동기

1-1. 분석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이동 및 정주 실태조사'(2026년 7월), 막내자녀 연령 만 19세 미만인 응답자 (1,46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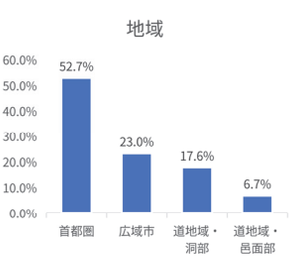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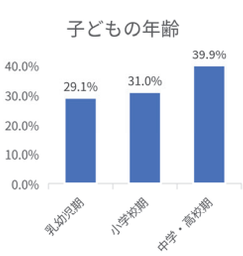
- 분석대상 가구의 52.7% 수도권 거주
- 자녀 생애주기별 분포를 보면 영유아기부터 중고등기까지 고르게 분포
- 72.2% 자가 거주로 양육가구의 주거안정성의 중요성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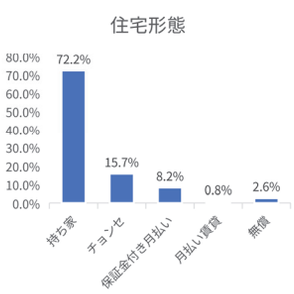
PART.1 出産前後の居住移動の実態と動機

1-1. 分析データ

- 韓国保健社会研究院「人口移動および定住実態調査」（2026 年 7 月）、末子が満 19 歳未満の回答者（1,467 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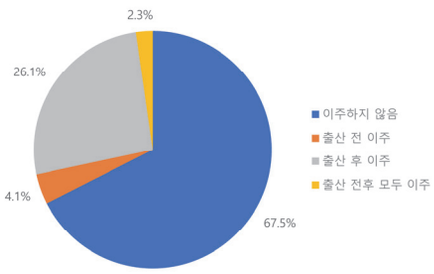
- 分析対象世帯の 52.7% が首都圏に居住
- 子どものライフステージ別では、乳幼児期から中学・高校期まで均等に分布
- 72.2% が持ち家に居住しており、子育て世帯における居住の安定性の重要性を示唆

PART.1 출산 전후 주거이동 실태와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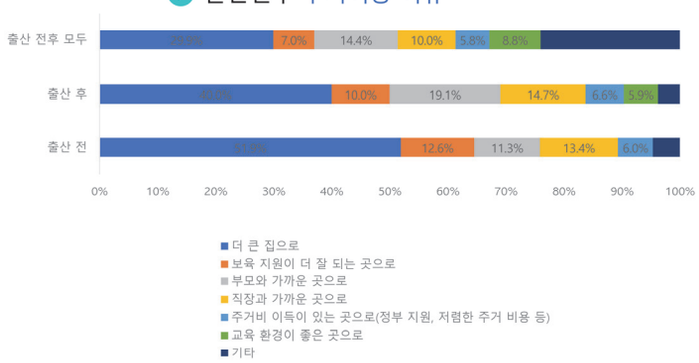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출산 전후 주거 이동 시기 및 이유

출산전후 2년 이내 주거이동 여부



출산전후 주거이동 이유



- 출산 전후 2년 이내 주거이동 가구 32.5%, (26.1% 출산 후, 4.1% 출산 전, 2.3% 출산 전후 모두)
- 출산 전후 주거이동의 주요 이유는 이주 시기와 무관하게 더 큰 집으로의 이사
- 출산 전에는 보육 지원이 더 잘 되는 곳으로는 이사(12.6%), 출산 후에는 부모와 가까운 곳으로는 이동 비율 증가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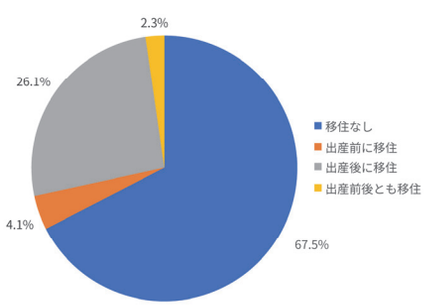
➔ **출산 전후 주거이동은 물리적 공간의 확장과 돌봄지원 확보라는 두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움직임**

PART.1 出産前後の居住移動の実態と動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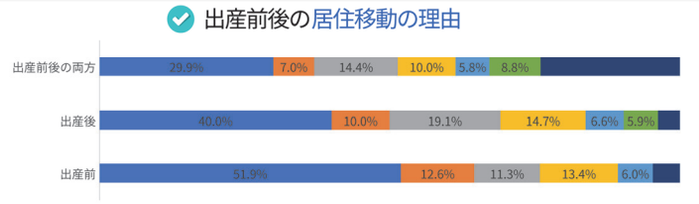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1-2 出産前後の居住移動の時期と理由

出産前後 2 年以内の居住移動の有無



出産前後の居住移動の理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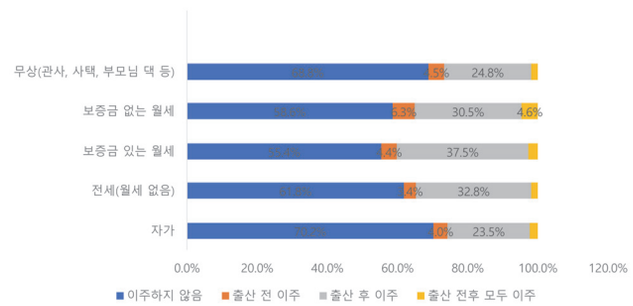
- 出産前後 2 年以内に居住移動した世帯は 32.5% （ 26.1% は出産後、 4.1% は出産前、 2.3% は出産前後の両方）
- 出産前後の居住移動の主な理由は、移住時期を問わずより広い家への転居
- 出産前は保育支援がより充実した地域への転居（ 12.6% ）、出産後は親の近くへの移動割合が増加（ 19.1% ）

→ **出産前後の居住移動は、居住空間の拡大と子育て支援の確保という二つの要因を中心に生じ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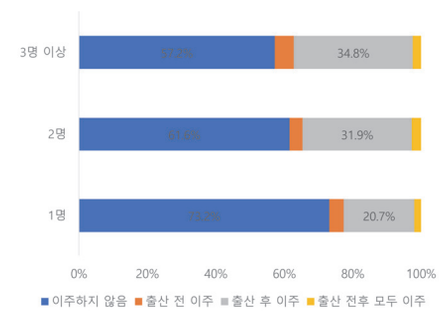
PART.1 출산 전후 주거이동 실태와 동기

1-3 주택 점유 형태와 자녀수에 따른 출산 전후 주거 이동

주택 점유 형태에 따른 출산전후 주거이동



자녀수에 따른 출산전후 주거이동



- 자가 거주 가구는 비이주 비율이 70.2%로 주거 안정성 높다고 해석 가능
- 전세나 월세 등 임차 가구는 자가 가구에 비해 출산 후 주거이동 비율 높음
- 자녀수가 많을수록 주거이동 경험이 증가, 자녀가 3명 이상 가구 비이주 비율 52.7%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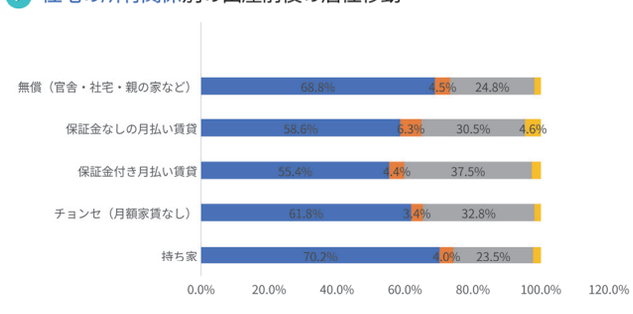
➔ **주거 점유 형태의 안정성과 가구원 수의 변화가 육아 세대의 이동의 주요 변수 중 하나**

출처: 보건복지부(2026).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수정).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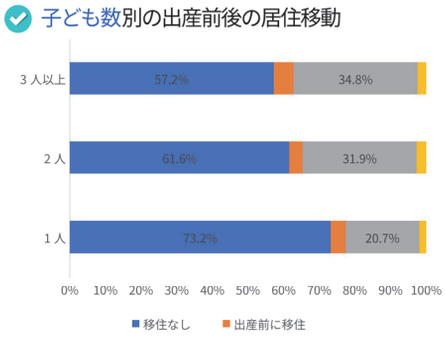
PART.1 出産前後の居住移動の実態と動機

1-3 住宅の所有関係と子ども数別の出産前後の居住移動

住宅の所有関係別の出産前後の居住移動



子ども数別の出産前後の居住移動



- 持ち家世帯では非移住の割合が 70.2% で、居住の安定性が高いと解釈できる
- チョンセや月払い賃貸などの賃借世帯は、持ち家世帯より出産後の居住移動割合が高い
- 子ども数が多いほど居住移動経験が増加。子ども 3 人以上の世帯では非移住の割合が 52.7% と最も低い

→ **住宅の所有関係の安定性と世帯員数の変化は、子育て世帯の移動を左右する主な変数の一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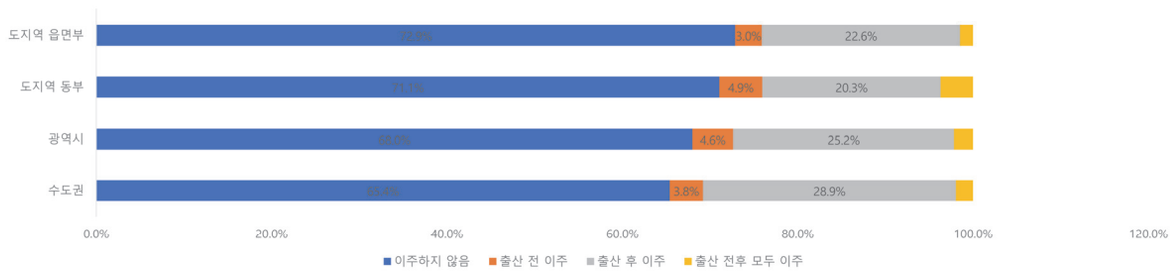
出典：保健福祉部 (2026). 2026 年精神健康事業案内（改訂）. p.6.

PART.1 출산 전후 주거이동 실태와 동기

1-4 거주지역에 따른 출산 전후 주거 이동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거주지역에 따른 출산전후 주거이동



- 수도권 가구의 비이주 비율은 65.4%로 주거이동성이 가장 높음
-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이동 비율이 낮아 한곳에 머무르는 경향이 큼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정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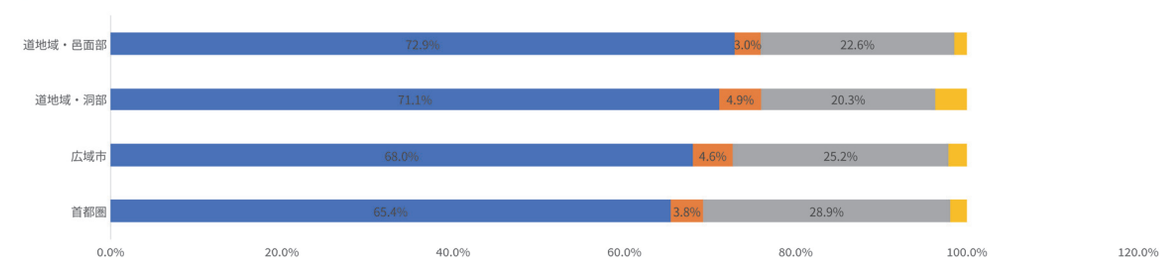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2026).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수정). p.6.

PART.1 出産前後の居住移動の実態と動機

1-4 居住地域別の出産前後の居住移動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居住地域別の出産前後の居住移動



- 首都圏の世帯は非移住の割合が 65.4% で、居住移動性が最も高い
- 地域規模が小さいほど移動割合が低く、同じ場所にとどまる傾向が強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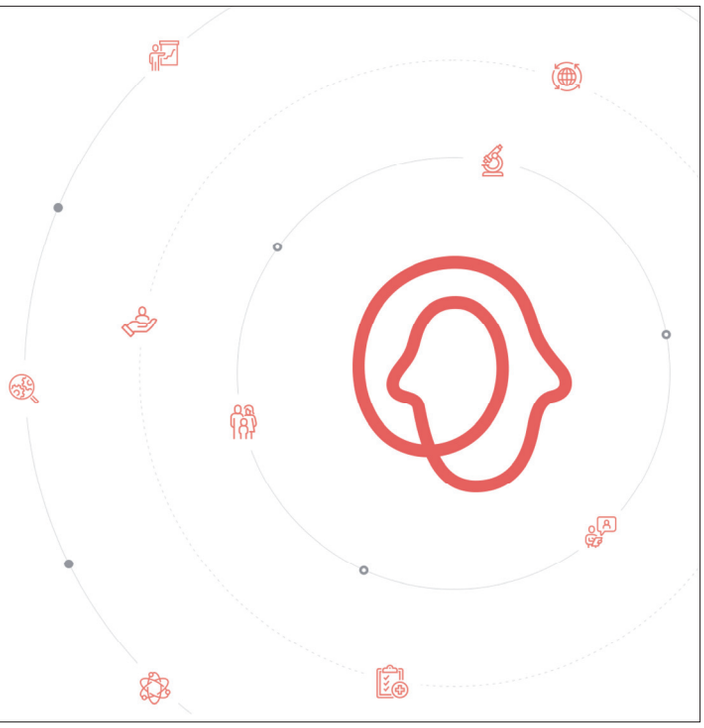
→ **地域ごとの特性に応じた差別化された支援政策が必要**

出典：保健福祉部 (2026). 2026 年精神健康事業案内（改訂）. p.6.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art.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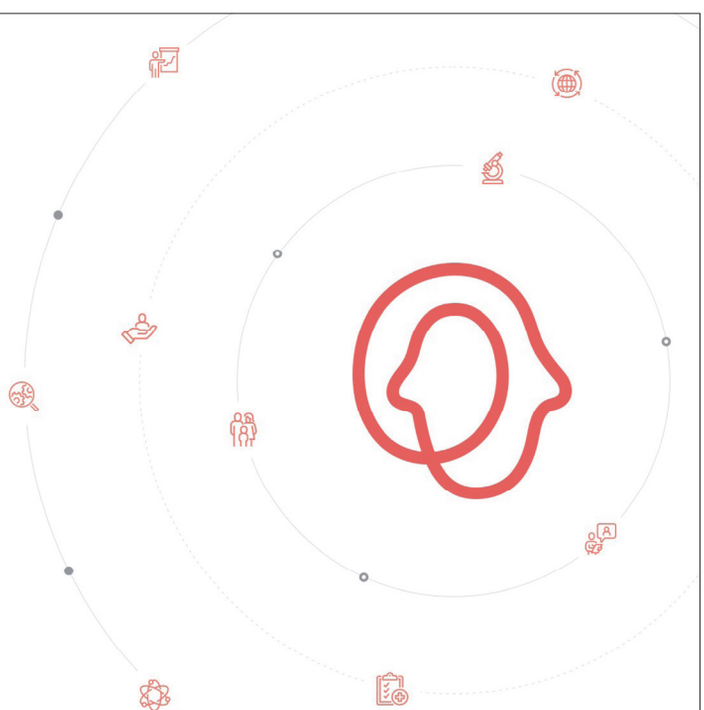
양육환경 만족도 및 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art.2

子育て環境の満足度と格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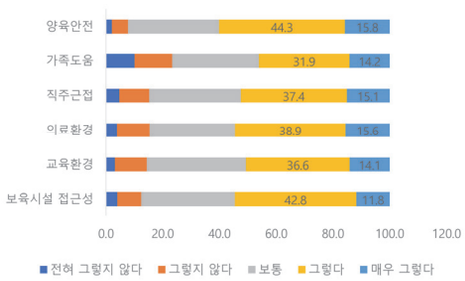


PART.2 양육환경 만족도 및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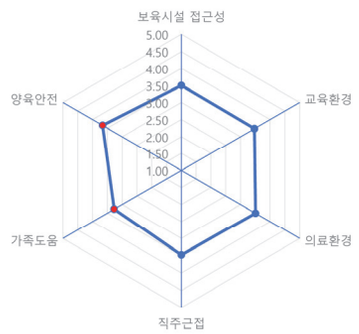
2-1 양육환경 만족도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육환경 만족도 (5점 척도)



양육환경 만족도 평균



- 양육안전(60.1%), 보육시설 접근성(54.6%) 항목 긍정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가족 도움(46.1%)항목 긍정 응답 비율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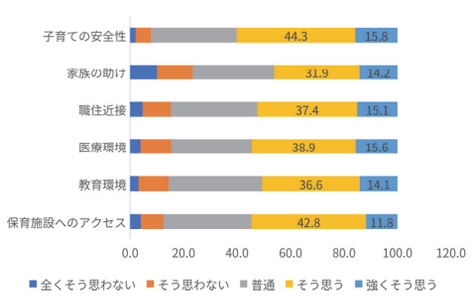
➔ **공적 서비스는 안정적이나 사적 지원망은 취약한 상황**

PART.2 子育て環境の満足度と格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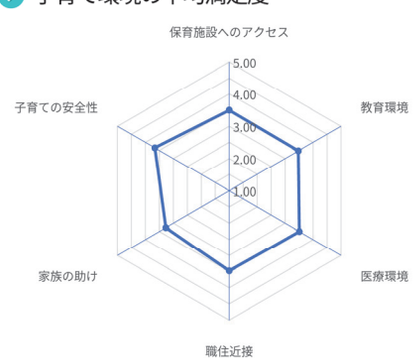
2-1 子育て環境の満足度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子育て環境の満足度（5段階尺度）



子育て環境の平均満足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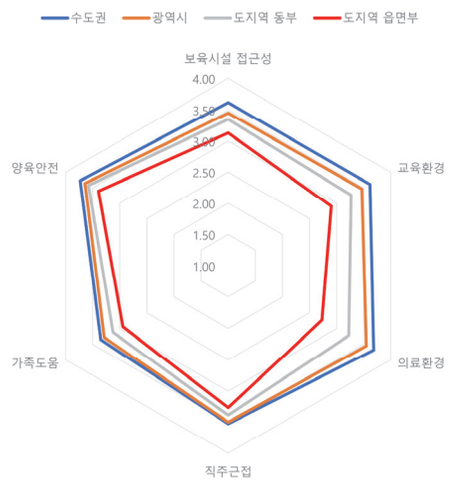


- 子育ての安全性（60.1%）と保育施設へのアクセス（54.6%）で、肯定的回答の割合が最も高い
- 家族の助け（46.1%）は肯定的回答の割合が最も低い

→ **公的サービスは安定しているが、私的な支援ネットワークは脆弱な状況**

PART.2 양육환경 만족도 및 격차

2-2 지역에 따른 양육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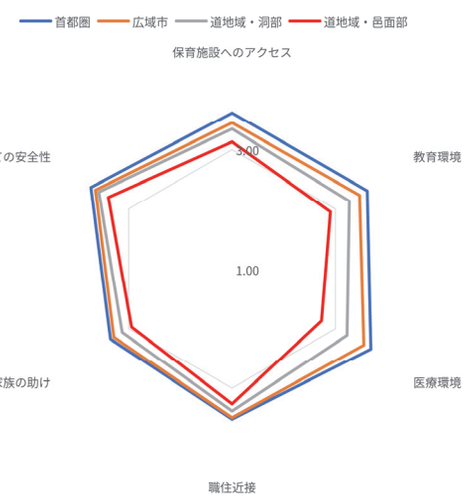


- 수도권(파란색)은 모든 항목에 대해 만족도 가장 높음
- 의료, 교육환경 지역 격차 가장 뚜렷, 읍면지역 인프라 취약
- 보육시설 접근성, 양육안전 전지역 높은 수준

➔ **지역에 따른 양육환경 인프라 수준 불균형, 모든 지역 사적 육아 지원(가족도움) 부족**

PART.2 子育て環境の満足度と格差

2-2 地域別の子育て環境の満足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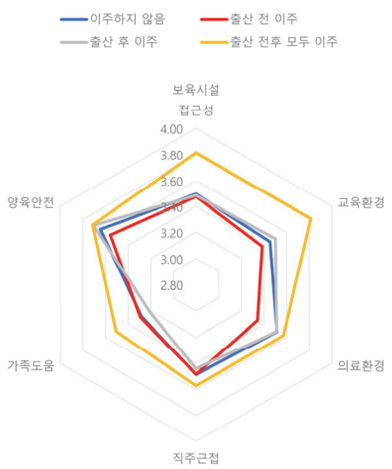


- 首都圏（青色）は全項目で満足度が最も高い
- 医療・教育環境の地域格差が最も顕著で、邑・面地域のインフラが脆弱
- 保育施設へのアクセスと子育ての安全性は、全地域で高い水準

→ **地域による子育てインフラの水準に不均衡があり、全地域で私的な育児支援（家族の助け）が不足**

PART.2 양육환경 만족도 및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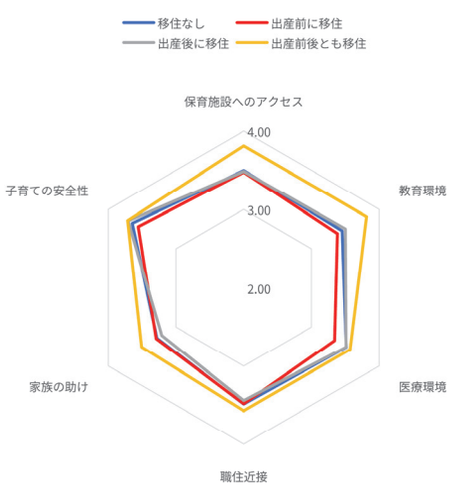
2-3 이주시기에 따른 양육환경 만족도



- 출산 전후 두 번 모두 이주 집단 보육시설 접근성, 교육환경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
- 출산 후 이주 집단은 출산 전 이주 집단 보다 양육안전, 의료환경 항목 만족도 높음
- 출산 전 이주 집단은 양육안전, 교육환경, 만족도가 낮음 (가족도움을 받기 위해 다른 부분 희생 가능성)

PART.2 子育て環境の満足度と格差

2-3 移住時期別の子育て環境の満足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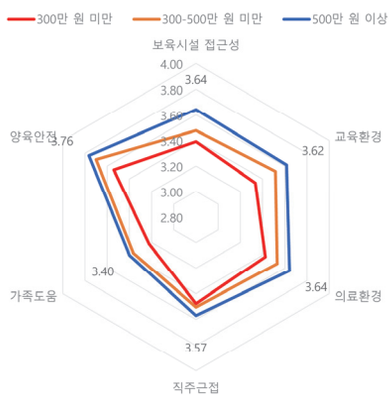


- 出産前後の両方で移住した集団は、保育施設へのアクセスや教育環境など、ほとんどの項目で満足度が最も高い
- 出産後に移住した集団は、出産前に移住した集団より子育ての安全性・医療環境の満足度が高い
- 出産前に移住した集団は、子育ての安全性・教育環境の満足度が低い

（家族の助けを得るため、他の面を犠牲にしている可能性）

PART.2 양육환경 만족도 및 격차

2-4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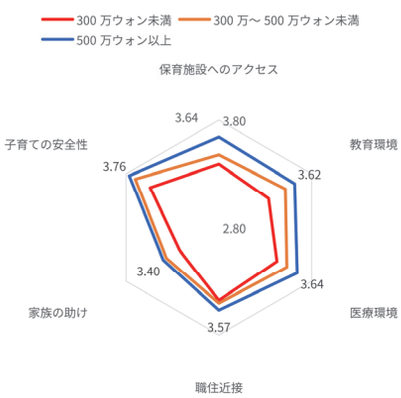


-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모든 항목 만족도 높음
- 소득에 따른 만족도 격차는 교육환경, 의료환경, 보육시설 접근성에서 두드러짐
- 가족도움은 전계층 낮은 만족도, 저소득 층에서 특히 낮음

➔ **경제적 자산이 양육 환경 질적 수준 결정**

PART.2 子育て環境の満足度と格差

2-4 所得水準別の子育て環境の満足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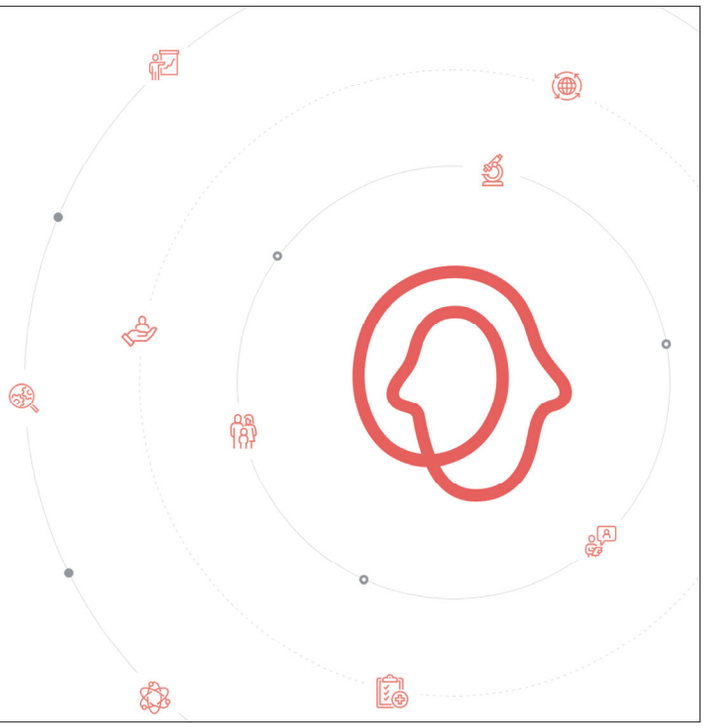
- 所得水準が高いほど、全項目で満足度が高い
- 所得による満足度格差は、教育環境・医療環境・保育施設へのアクセスで顕著
- 家族の助けは全階層で満足度が低く、低所得層で特に低い

→ **経済的資産が子育て環境の質的水準を決定**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art.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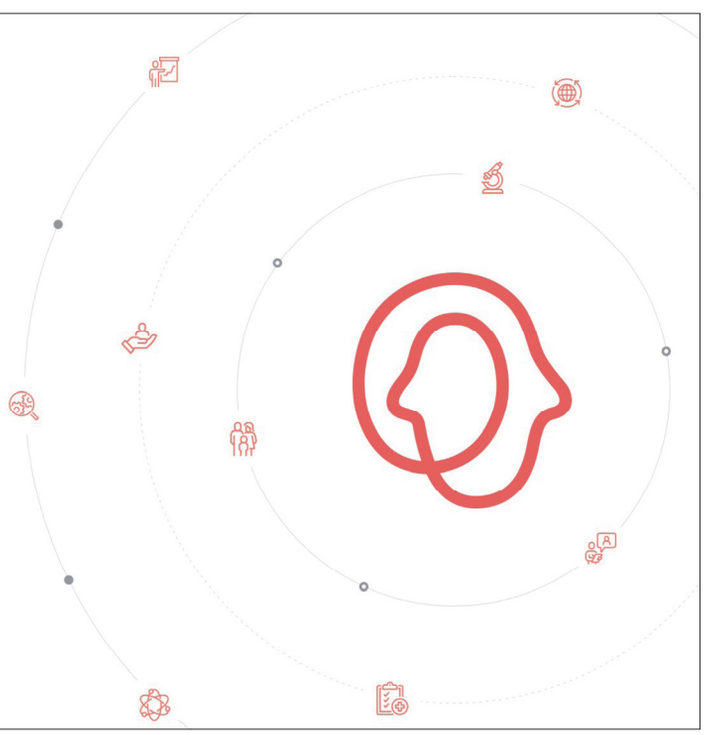
양육환경과 정주의향 및 추가출산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art.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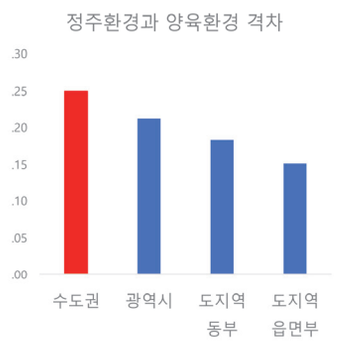
子育て環境と定住意向・追加出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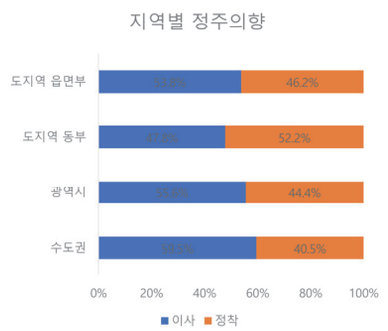


PART.3 양육환경과 정주의향 및 추가출산

3-1 지역별 정주환경과 양육환경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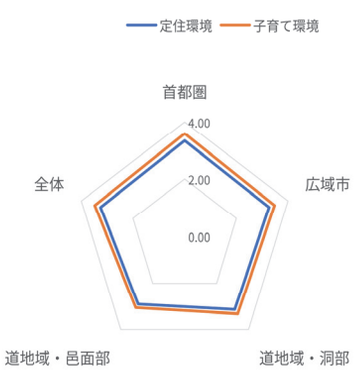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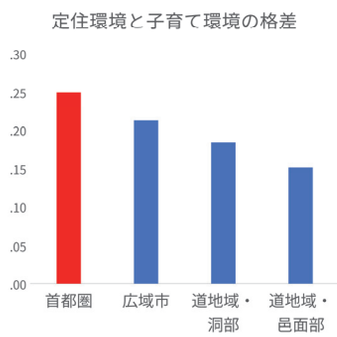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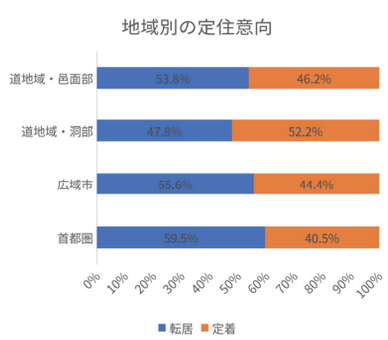
- 수도권 양육환경(3.59) 정주환경(3.34) 가장 높음. 다만, 양육환경과 정주환경에 대한 만족도 격차 가장 큼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갈수록 양육환경, 정주환경 만족도 수준, 격차 낮음
- 수도권 정주의향 가장 낮음(40.5%). **수도권은 더 나은 인프라를 위해 적극적 이동 경향. 수도권은 다양한 선택지 확보**

PART.3 子育て環境と定住意向・追加出産

3-1 地域別の定住環境と子育て環境の格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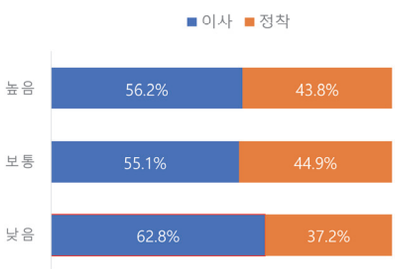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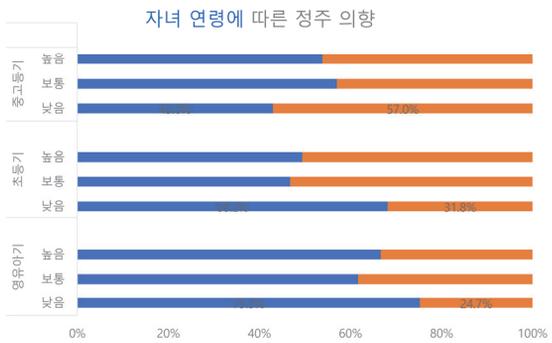


- 首都圏は子育て環境（3.59）・定住環境（3.34）が最も高い。ただし、両環境の満足度の差も最大
- 首都圏から地方に向かうほど、子育て環境・定住環境の満足度の水準と差が低下
- **首都圏は定住意向が最も低い（40.5%）。より良いインフラを求めて積極的に移動する傾向があり、多様な選択肢を確保**

PART.3 양육환경과 정주의향 및 추가출산

3-2 양육환경 만족도와 정주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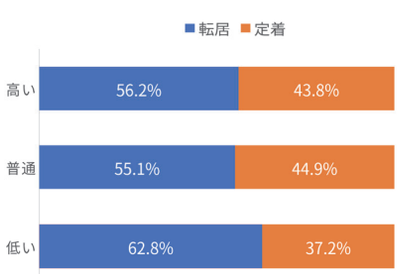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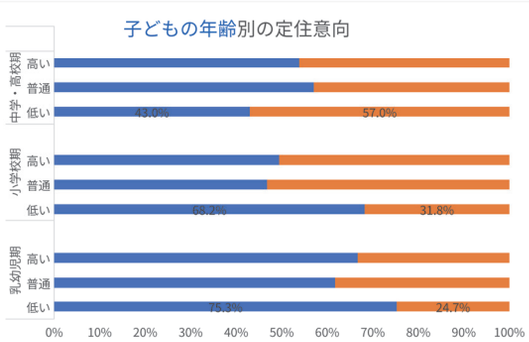
- 양육환경 만족도 낮은 집단 정주의향 낮음(37.2%)
- 양육환경 만족도 높은 집단도 이주의향 56.2%
- 양육환경 만족도 이외의 요인 이주에 영향 미침

- 자녀가 어릴수록 양육환경 만족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
- 영유아기 만족도 낮은 경우 75.3% 이주계획 (초등기 68.2%, 중고등기 43.0%)
- 중고등기 양육환경 만족도 낮아도 정주 경향 (57.0%)

PART.3 子育て環境と定住意向・追加出産

3-2 子育て環境の満足度と定住意向





- 子育て環境の満足度が低い集団は定住意向も低い（37.2%）
- 子育て環境の満足度が高い集団でも移住意向は 56.2%
- 子育て環境の満足度以外の要因も移住に影響

- 子どもが幼いほど、子育て環境の満足度に敏感に反応
- 乳幼児期で満足度が低い場合、 75.3% が移住を計画（小学校期 68.2% 、中学・高校期 43.0% ）
- 中学・高校期では子育て環境の満足度が低くても定住する傾向（57.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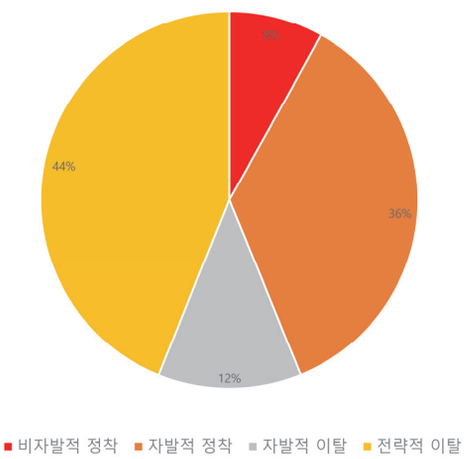
PART.3 양육환경과 정주의향 및 추가출산

3-3 양육환경과 정주 의향에 따른 정주 유형화

- **전략적 이탈 (44%)** : 양육 환경 만족도 높으나, (더 나은 인프라나 교육환경 등의 이유로) 이동 계획
- 자발적 정착 (36%) : 양육환경 만족도 높고, 계속 거주 희망, 안정적 정주 집단
- 자발적 이탈 (12%) : 양육환경 만족도 낮고, 이동 계획
- **비자발적 정착 (8%)** : 양육환경 만족도 낮으나 (경제적 제약 등으로) 계속 거주

➔ **전략적 이탈 비율이 높은 것은 수도권 중심으로 더 나은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욕구**

➔ **비자발적 정착 집단에 대한 고려 필요 (양육인프라 개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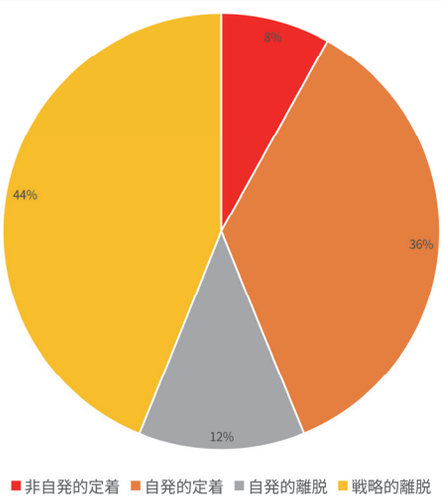
PART.3 子育て環境と定住意向・追加出産

3-3 子育て環境と定住意向に基づく定住の類型化

- **戦略的離脱（44%）**：子育て環境の満足度は高いが、より良いインフラや教育環境などを求めて移動を計画
- 自発的定着（36%）：子育て環境の満足度が高く、継続居住を希望する安定的な定住集団
- 自発的離脱（12%）：子育て環境の満足度が低く、移動を計画
- **非自発的定着（8%）**：子育て環境の満足度は低いが、経済的制約などにより継続居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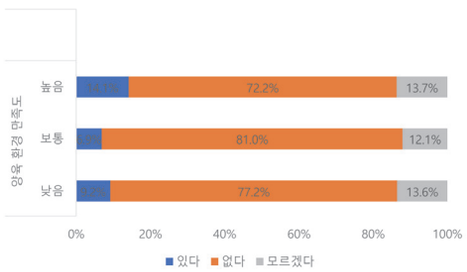
→ **戦略的離脱の割合の高さは、首都圏を中心とする、より良いインフラへの持続的なニーズを反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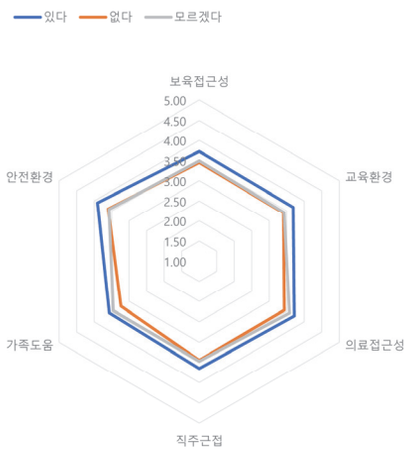
→ **非自発的定着集団への配慮が必要（子育てインフラの改善など）**



PART3 양육환경과 정주의향 및 추가출산

3-4 양육환경 만족도와 추가 출산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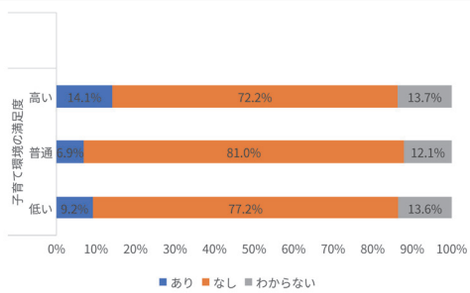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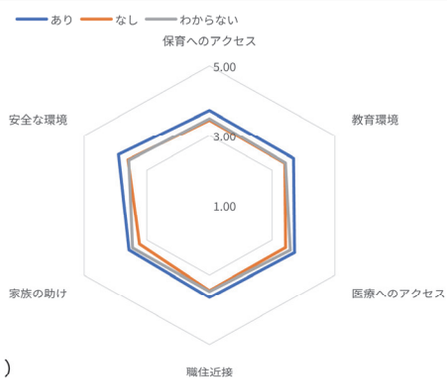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추가출산 의향 낮음 (양육환경 만족도 높은 집단 14.1%)
- 추가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은 양육환경 전 영역에서 높은 만족도 보임
- 추가출산 의향이 없는 집단은 가족도움 만족도, 의료 접근성이 낮음

➔ 출산력 제고를 위해서는 **양육 인프라 확보와 사적 돌봄 지원 함께 고려 필요**

PART3 子育て環境と定住意向・追加出産

3-4 子育て環境の満足度と追加出産意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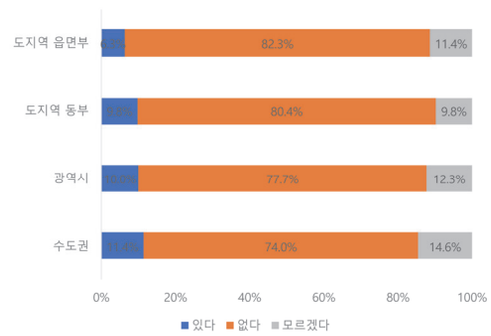


- 全体として追加出産意向は低い（子育て環境の満足度が高い集団で 14.1% ）
- 追加出産意向のある集団は、子育て環境の全領域で高い満足度を示す
- 追加出産意向のない集団は、家族の助けへの満足度と医療へのアクセスが低い

→ 出生力の向上には、**子育てインフラの確保と私的な育児支援の双方を考慮する必要**

PART3 양육환경과 정주의향 및 추가출산

3-5 지역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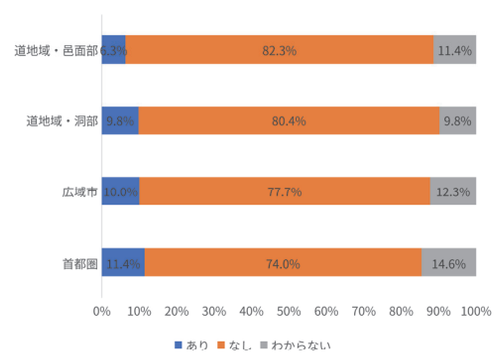


- 수도권의 추가출산 의향(11.4%) 가장 높음
- 수도권 잘 모르겠다 유보적 응답 비율도 높음(14.6%)
- 도지역 읍면부 추가출산의향 없음 비율 82.3% 지방소멸 위기 시사

- **수도권은 실제 출산율은 낮지만 양육 인프라가 우수해 추가 출산 의향은 높게 나타나는 역설**

PART3 子育て環境と定住意向・追加出産

3-5 地域別の追加出産意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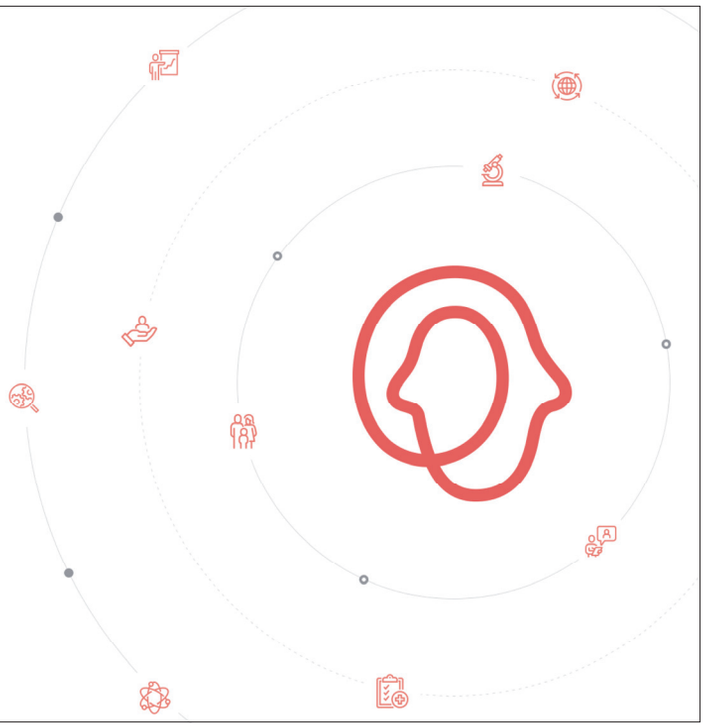
- 首都圏の追加出産意向（11.4%）が最も高い
- 首都圏は「わからない」という判断を留保する回答も多い（14.6%）
- 道地域の邑・面部では、追加出産意向なしが 82.3% を占め、地方消滅の危機を示唆

- **首都圏は実際の出生率が低い一方、子育てインフラが優れているため追加出産意向は高いという逆説**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art.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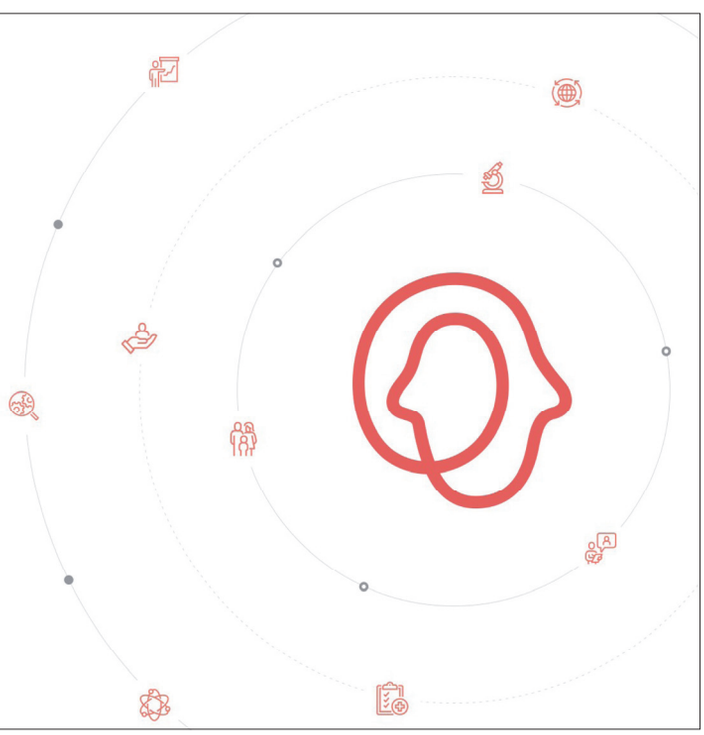
정책수요 및 제언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art.4

政策ニーズと提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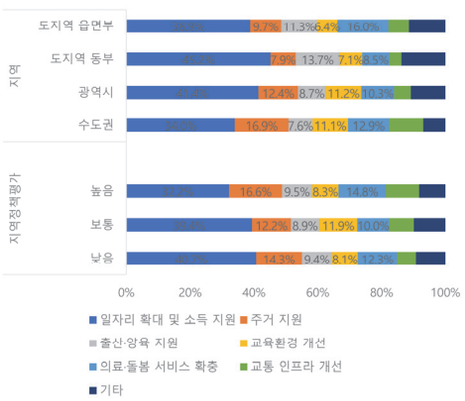


PART.4 정책수요 및 제언

4-1 정책수요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 정책평가 수준에 따른 정책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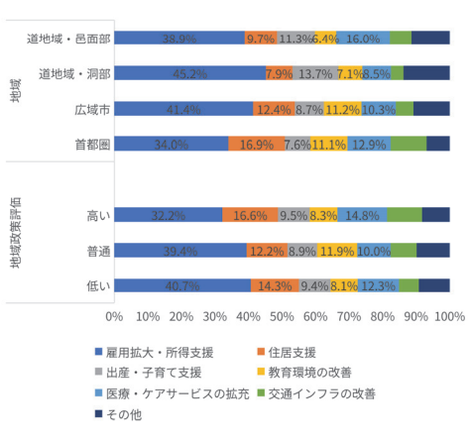
- 일자리 확대 및 소득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 가장 높음 (정책 평가 낮은 집단일수록, 도지역 동부, 광역시 지역 일수록)
- 2순위로 요구도 높은 정책은 주거지원 (정책 평가 높은 집단, 수도권 일수록)
- 도지역 동부, 출산·양육지원 정책 수요 높음
- 도지역 읍면부, 의료·돌봄서비스 정책 수요 높음

PART.4 政策ニーズと提言

4-1 政策ニーズ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地域政策の評価水準別の政策ニー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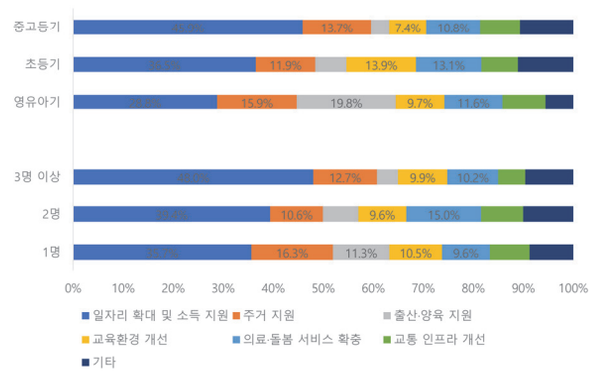


- 雇用拡大・所得支援への政策ニーズが最も高い（政策評価が低い集団ほど、道地域の洞部や広域市ほど高い）
- 2 番目にニーズが高い政策は住居支援（政策評価が高い集団や首都圏ほど高い）
- 道地域の洞部では、出産・子育て支援政策へのニーズが高い
- 道地域の邑・面部では、医療・ケアサービス政策へのニーズが高い

PART.4 정책수요 및 제언

4-1 정책수요

자녀연령, 자녀수에 따른 정책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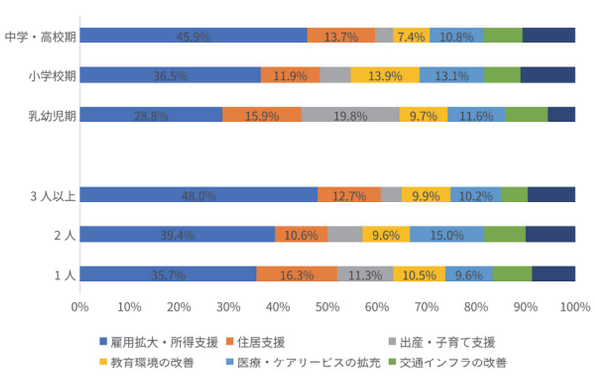


- 자녀가 성장할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일자리 확대 및 소득지원 수요 높음
- 자녀수 1명, 영유아기 가구(가족형성 초기) 주거지원 수요 높음
- 영유아기 출산, 양육지원 수요 높음(19.8%)
- 초등기 교육환경 개선 수요 높음(13.9%)

PART.4 政策ニーズと提言

4-1 政策ニーズ

子どもの年齢・人数別の政策ニーズ



- 子どもの成長が進むほど、子ども数が多いほど、雇用拡大・所得支援へのニーズが高い
- 子ども１人の世帯や乳幼児期の世帯（家族形成初期）は、住居支援へのニーズが高い
- 乳幼児期は出産・子育て支援へのニーズが高い（19.8%）
- 小学校期は教育環境改善へのニーズが高い（13.9%）

PART.4 정책수요 및 제언

4-2 제언

1. 경제적 기반과 주거 지원 결합 필요

- 일자리 확대 및 소득지원을 주거 지원과 연계하여 양육가구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 노력 필요
  (적정 소득의 일자리가 있으면서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 구축 필요)

2. 지역간 양육인프라 격차 해소

- 수도권에 집중된 '양육 및 교육 프리미엄' 지방으로 분산
- 읍면부의 의료·보육 필수 인프라 우선 확충
- 지방에도 수도권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정주여건 개선

3. 사적 돌봄 자원 확보를 위한 지원

- 사적 돌봄 자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돌봄 지원 (조부모 돌봄 수당)
- 영유아기 돌봄 시간 지원 정책 확대 (유연근로, 단축근로, 육아휴직 등)

출처: 보건복지부(2026).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수정). p.6.

PART.4 政策ニーズと提言

4-2 提言

1. 経済的基盤と住居支援の組合せが必要

- 雇用拡大・所得支援と住居支援を連携させ、子育て世帯の実質的な負担軽減を図る必要
  （適正な所得の仕事があり、居住の安定も図れる環境の構築が必要）

2. 地域間の子育てインフラ格差の解消

- 首都圏に集中する「子育て・教育プレミアム」を地方に分散
- 邑・面部の医療・保育の必須インフラを優先的に拡充
- 地方にも首都圏水準の教育環境を整備し、定住条件を改善

3. 私的な育児資源の確保に向けた支援

- 私的な育児資源の確保を支えるため、祖父母による育児を支援（祖父母育児手当）
- 乳幼児期の育児時間を確保する支援政策を拡充（柔軟な勤務、短時間勤務、育児休業など）

出典：保健福祉部 (2026). 2026 年精神健康事業案内（改訂）, p.6.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감사합니다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발표 3

発表 3

중장년층의 이동과 정주 인식
中高年層の移動と定住意識

최경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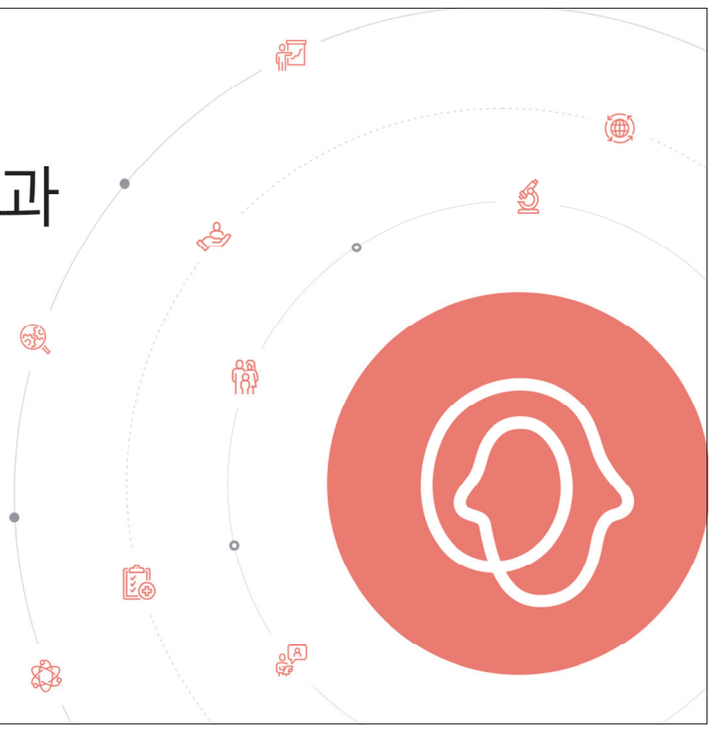
チェ・ギョンドク |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副研究委員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중장년층의 이동과 정주 인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경덕 부연구위원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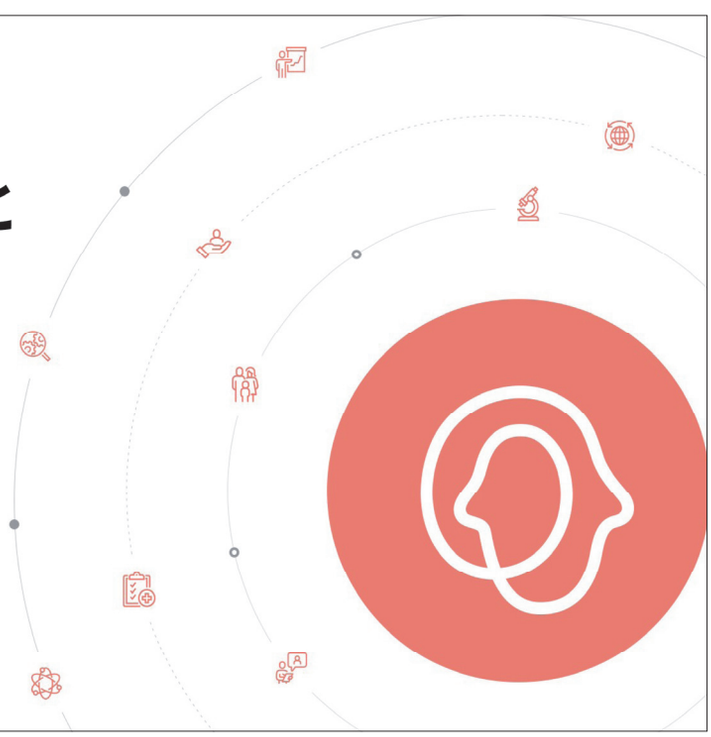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中高年層の移動と定住意識

| 韓国保健社会研究院
| チェ・ギョンドク 副研究委員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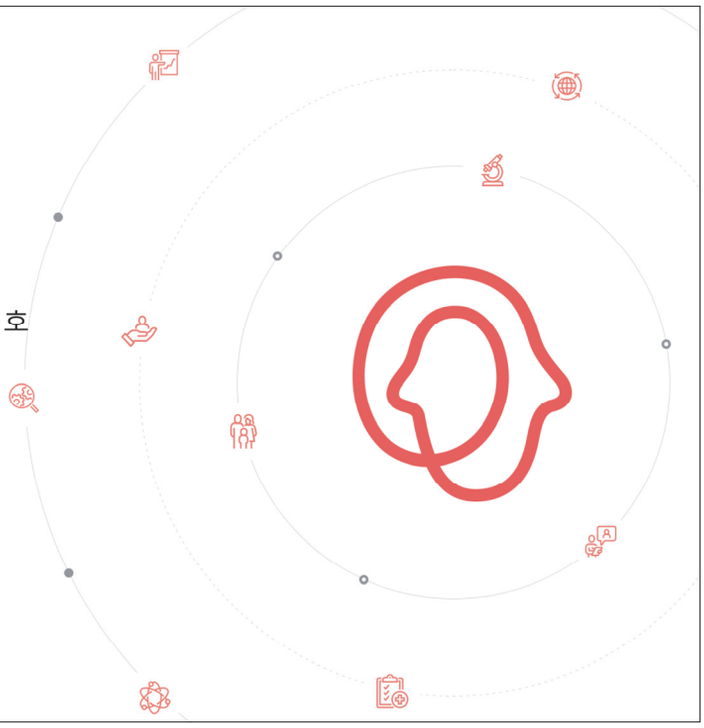
CONTENT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art.1
중장년층의 정주여건과 은퇴 후 거주 선호

Part.2
부모·자녀 근처로의 이동과 거주 선호

Part.3
주요 특징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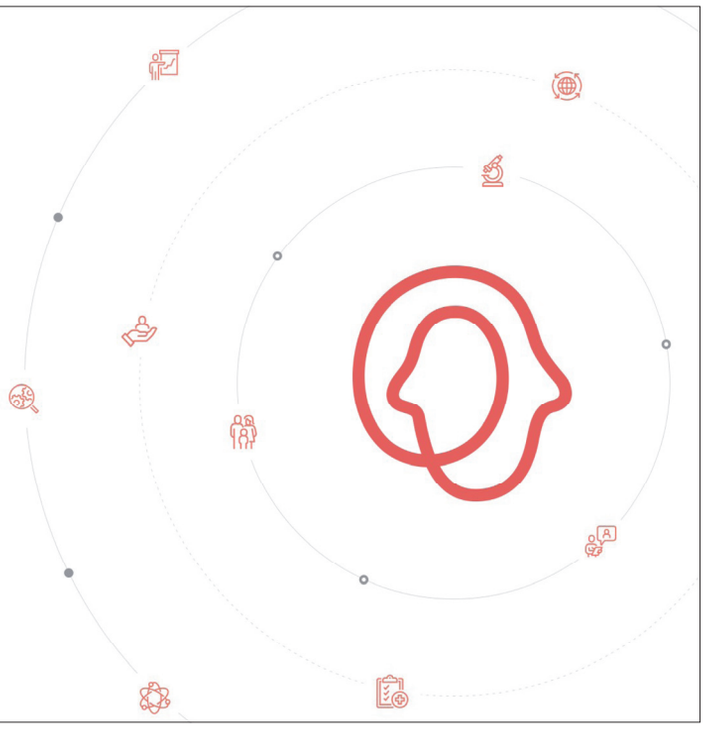
CONTENT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art.1
中高年層の定住環境と引退後の居住選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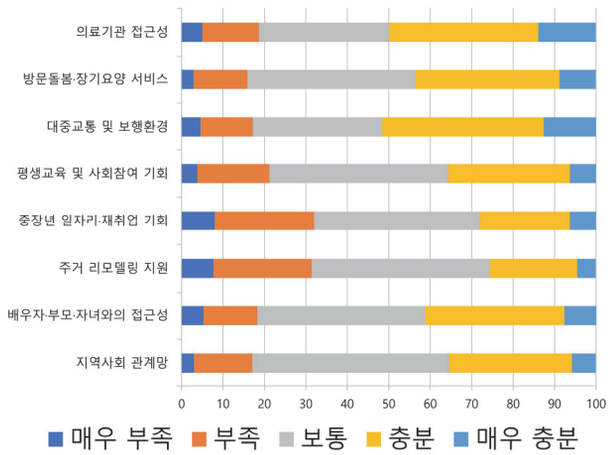
Part.2
親・子どもの近くへの移動と居住選好

Part.3
主な特徴と示唆



PART.1 중장년층의 정주여건과 은퇴 후 거주 선호

현재 지역의 정주여건, 영역별 평가는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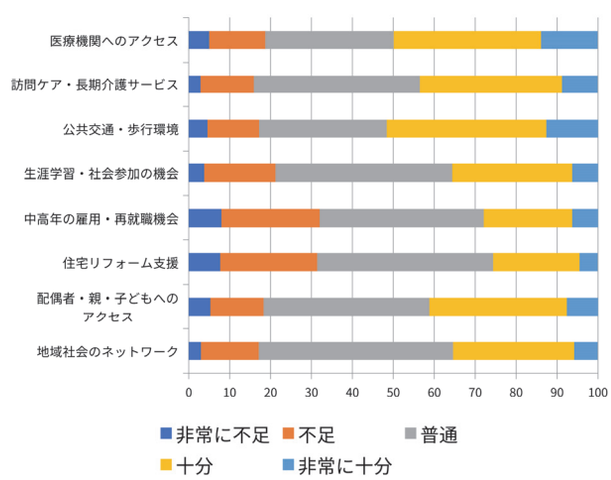


-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51.6%), 의료기관 접근성(49.8%) → 상대적으로 높은 충분성 평가
- 주거 리모델링 지원(25.5%), 중장년 일자리·재취업 기회(27.9%) → 상대적으로 낮은 충분성 평가
- 8개 중 6개 영역에서 '충분 이상(충분+매우 충분)' 응답 비율이 '부족 이하(부족+매우 부족)' 응답 비율보다 높음

▶ 전반적으로 '충분 이상' 응답 비율이 '부족 이하' 응답 비율보다 높으나, 일자리·주거지원 여건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인식

PART.1 中高年層の定住環境と引退後の居住選好

現在の地域の定住環境に対する評価は分野によって異な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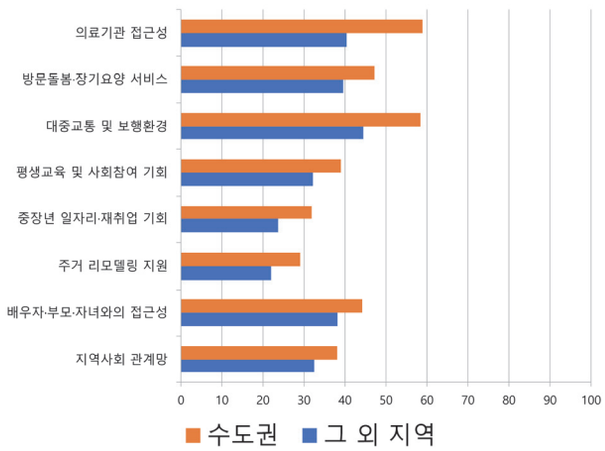
- 公共交通・歩行環境 (51.6%) 、医療機関へのアクセス (49.8%) → 充足度の評価が相対的に高い
- 住宅リフォーム支援 (25.5%) 、中高年の雇用・再就職機会 (27.9%) → 充足度の評価が相対的に低い
- 8 分野中 6 分野で「十分」以上 (十分 + 非常に十分) の回答割合が、「不足」以下 (不足 + 非常に不足) の回答割合を上回る

▶ 全般的に「十分」以上の回答割合が「不足」以下を上回るが、雇用・住宅支援の環境は相対的に脆弱と認識されている

PART.1 중장년층의 정주여건과 은퇴 후 거주 선호

정주여건 평가는 지역에 따라 뚜렷한 차이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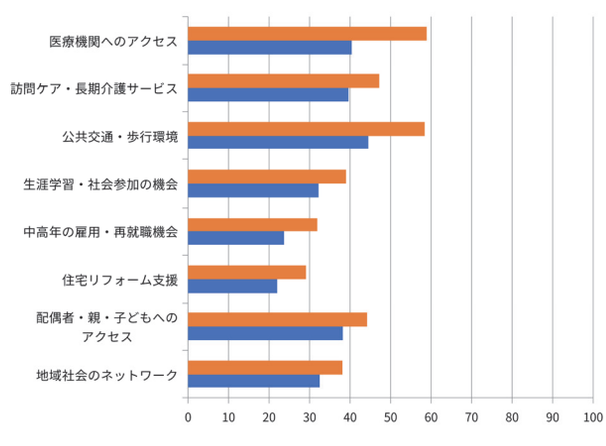
- 8개 항목 모두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충분 이상'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항목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는 5.6~18.5%p
- 의료기관 접근성(18.5%p),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13.9%p)에서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모든 정주여건에서 수도권의 '충분 이상' 응답 비율이 비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남

PART.1 中高年層の定住環境と引退後の居住選好

定住環境の評価には明確な地域差がある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 8 項目すべてで首都圏 (ソウル・京畿・仁川) の「十分」以上の回答割合が相対的に高い
- 項目別の首都圏・非首都圏間の格差は 5.6~18.5%p
- 医療機関へのアクセス (18.5%p) 、公共交通・歩行環境 (13.9%p) で格差が相対的に大き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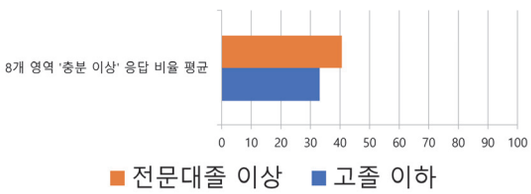
▶ すべての定住環境で、首都圏の「十分」以上の回答割合が非首都圏を上回る

PART.1 중장년층의 정주여건과 은퇴 후 거주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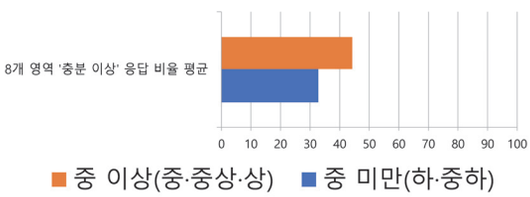
정주여건 평가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과도 연결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력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8개 영역 모두에서 전문대졸 이상 집단의 충분성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음
  - ✓ 8개 영역 '충분 이상' 응답 비율 평균은 전문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보다 7.5%p 높음
- 8개 영역 모두에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중 이상' 집단의 충분성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음
  - ✓ 8개 영역 '충분 이상' 응답 비율 평균은 '중 이상'에서 '중 미만'보다 11.5%p 높음
- 실제 거주환경의 차이 또는 지역의 서비스와 자원에 접근·활용할 수 있는 개인적 여건의 차이가 평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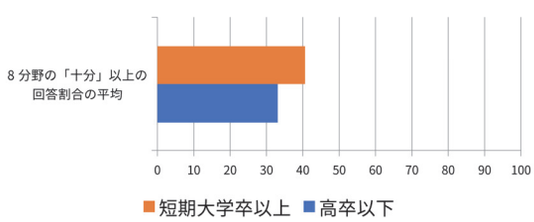
▶ 지역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체감 정주여건의 차이도 확인됨

PART.1 中高年層の定住環境と引退後の居住選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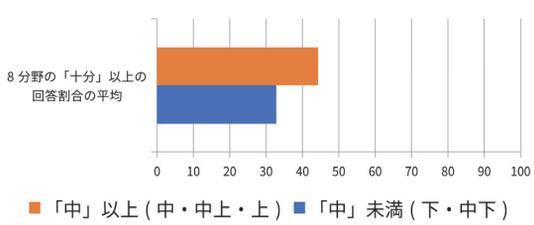
定住環境の評価は個人の社会経済的条件とも関連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学歴



主観的社会経済的地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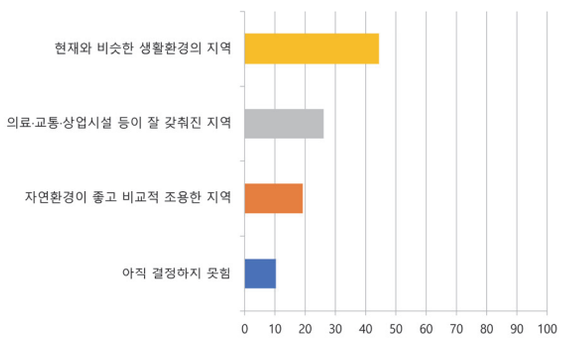
- 8 分野すべてで短期大学卒以上の集団の充足度評価が相対的に高い
  - ✓ 8 分野の「十分」以上の回答割合の平均は、短期大学卒以上が高卒以下を 7.5%p 上回る
- 8 分野すべてで主観的社会経済的地位が「中」以上の集団は、充足度の評価が相対的に高い
  - ✓ 8 分野の「十分」以上の回答割合の平均は、「中」以上が「中」未満を 11.5%p 上回る
- 実際の居住環境の違い、または地域のサービス・資源にアクセスし活用できる個人的条件の違いが、評価に反映されている可能性

▶ 地域だけでなく、社会経済的条件による定住環境の実感の違いも確認される

PART.1 중장년층의 정주여건과 은퇴 후 거주 선호

은퇴 후 '현재와 비슷한 생활환경' 선호가 가장 큼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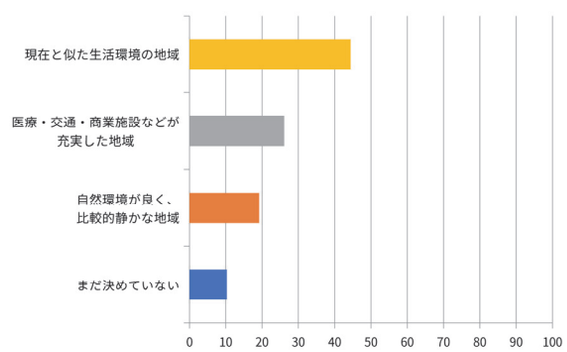
- 전체의 44.4%가 은퇴 후에도 '현재와 비슷한 생활환경의 지역' 희망
- 여성: 남성보다 의료·교통·상업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 선호
- 남성: 여성보다 자연환경이 좋고 비교적 조용한 지역 선호
- 50~64세: 40~49세보다 자연환경이 좋고 비교적 조용한 지역 선호
- 40~49세: 아직 결정하지 못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중 이상': '중 미만'보다 현재와 비슷한 생활환경 선호

▶ 은퇴 후에도 현재와 비슷한 생활환경의 지역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PART.1 中高年層の定住環境と引退後の居住選好

引退後は「現在と似た生活環境」を最も選好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 全体の 44.4% が、引退後も「現在と似た生活環境の地域」を希望
- 女性：男性より医療・交通・商業施設が充実した地域を選好
- 男性：女性より自然環境が良く、比較的静かな地域を選好
- 50~64 歳： 40~49 歳より自然環境が良く、比較的静かな地域を選好
- 40~49 歳：まだ決めていない割合が相対的に高い
- 主観的社会経済的地位が「中」以上：「中」未満より現在と似た生活環境を選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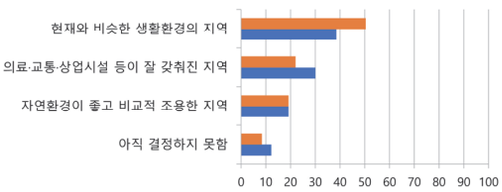
▶ 引退後も現在と似た生活環境の地域を希望する割合が最も高い

PART.1 중장년층의 정주여건과 은퇴 후 거주 선호

현재 의료·교통 여건 평가에 따라 은퇴 후 생활환경 선호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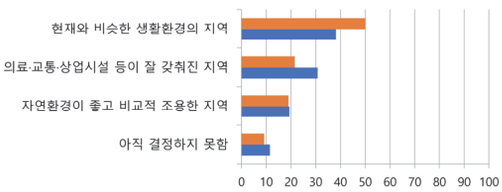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기관 접근성



■ 충분 이상 ■ 보통 이하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 충분 이상 ■ 보통 이하

- 의료기관 접근성과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모두, '충분 이상' 집단은 은퇴 후 '현재와 비슷한 생활환경의 지역'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
  - ✓ 두 경우 모두 '충분 이상' 집단은 약 50%, '보통 이하' 집단은 약 38%
- '보통 이하' 집단은 '의료·교통·상업시설 등이 잘 갖춰진 지역'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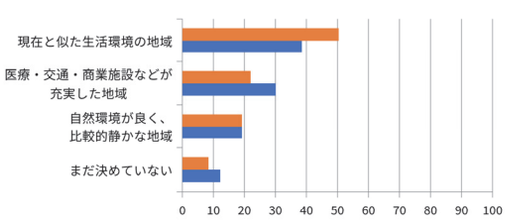
▶ 은퇴 후 거주 선호에는 현재 생활환경을 유지하거나 보완하려는 요구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

PART.1 中高年層の定住環境と引退後の居住選好

現在の医療・交通環境の評価により引退後の生活環境の選好も異な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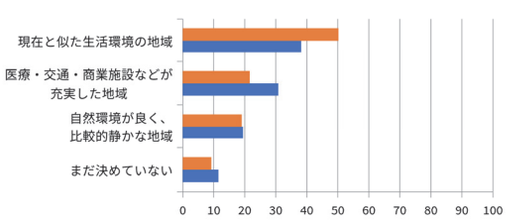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医療機関へのアクセス



■「十分」以上 ■「普通」以下

公共交通・歩行環境



■「十分」以上 ■「普通」以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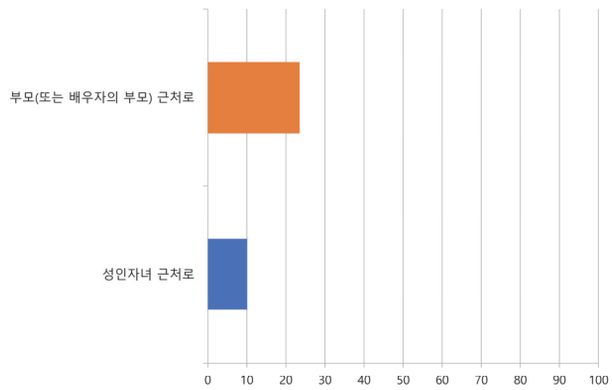
- 医療機関へのアクセスと公共交通・歩行環境のいずれも、「十分」以上の集団は引退後に「現在と似た生活環境の地域」を相対的に強く選好
  - ✓ いずれの場合も「十分」以上の集団は約 50%、「普通」以下の集団は約 38%
- 「普通」以下の集団は「医療・交通・商業施設などが充実した地域」を相対的に強く選好

▶ 引退後の居住選好には、現在の生活環境を維持・補完したいというニーズが反映されている可能性

PART.2 부모·자녀 근처로의 이동과 거주 선호

자녀보다 부모 근처로의 이동 경험 비율이 높음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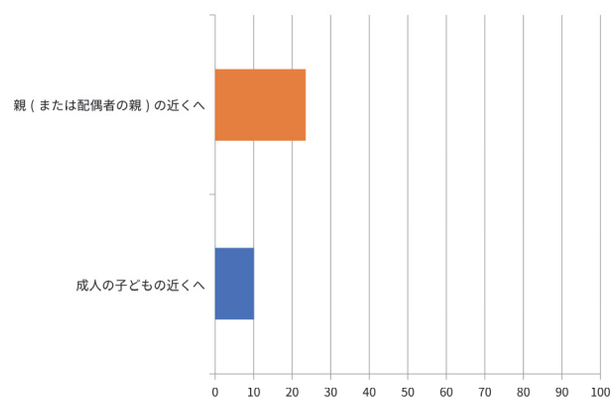
- 전체 중장년의 부모 근처 이동 경험은 23.5%
- 독립한 성인자녀가 있는 중장년의 자녀 근처 이동 경험은 10.1%
- 부모 근처로의 이동 경험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적고, 자녀 근처로의 이동 경험은 고졸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 부모□자녀 근처로의 이동 경험은 일부 지역□학력 집단에서 차이

PART.2 親・子どもの近くへの移動と居住選好

子どもより親の近くへ移動した経験のある割合が高い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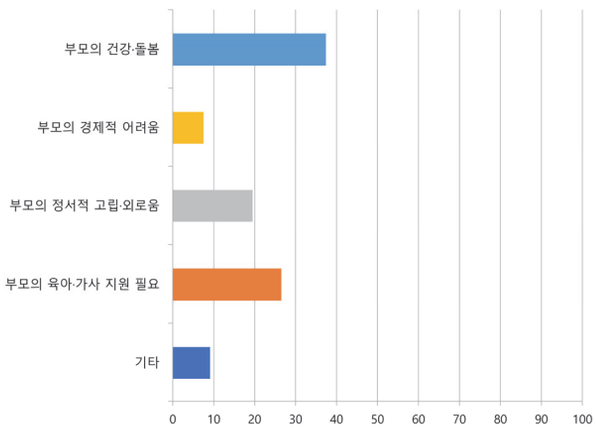


- 中高年全体のうち、親の近くへの移動経験があるのは 23.5%
- 独立した成人の子どもがいる中高年のうち、子どもの近くへの移動経験があるのは 10.1%
- 親の近くへの移動経験は首都圏で相対的に少なく、子どもの近くへの移動経験は高卒以下で相対的に多い

▶ 親・子どもの近くへの移動経験は、一部の地域・学歴集団で異なる

PART.2 부모·자녀 근처로의 이동과 거주 선호

부모 근처로의 이동에는 '지원하기'와 '지원받기'가 모두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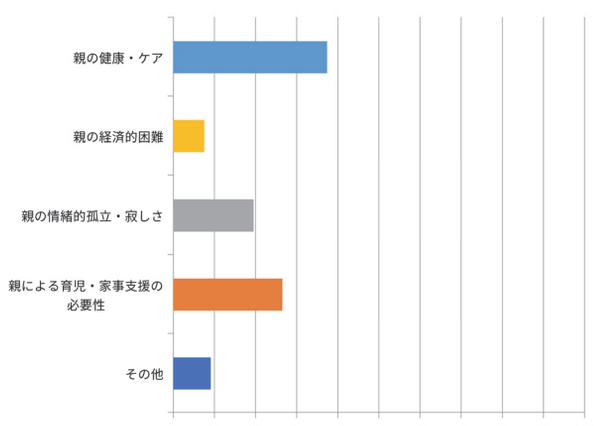


- 부모의 건강·돌봄을 위한 이동이 37.4%로 가장 높은 비중
- 부모로부터 육아·가사 지원을 받기 위한 이동은 26.5%, 부모의 정서적 고립·외로움에 따른 이동은 19.5%
-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이동과 부모의 지원을 받기 위한 이동이 모두 나타남

▶ 부모와의 근접 거주는 '부모 부양'만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

PART.2 親・子どもの近くへの移動と居住選好

親の近くへの移動には「支援する」と「支援を受ける」の両方がみられる



- 親の健康・ケアのための移動が 37.4% で最も高い割合
- 親から育児・家事支援を受けるための移動は 26.5% 、親の情緒的孤立・寂しさに伴う移動は 19.5%
- 親を支援するための移動と、親の支援を受けるための移動の両方がみられる

▶ 親との近居を「親の扶養」だけで説明するには限界がある

PART.2 부모·자녀 근처로의 이동과 거주 선호

부모 근처로 이동한 이유는 연령과 학력에 따라 차이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령

- 부모의 건강·돌봄: 40~49세 31.2%, 50~64세 40.8%
-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40~49세 10.7%, 50~64세 5.8%
- 부모의 육아·가사 지원 필요: 40~49세 29.5%, 50~64세 24.8%
- 연령에 따라 부모 근처로 이동한 이유 상이

학력

- 부모의 건강·돌봄: 전문대졸 이상 35.1%, 고졸 이하 44.0%
-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전문대졸 이상 5.1%, 고졸 이하 14.7%
- 부모의 육아·가사 지원 필요: 전문대졸 이상 30.4%, 고졸 이하 14.8%
- 학력에 따라 부모 근처로 이동한 이유 상이

▶ 부모 근처로 이동한 이유는 연령과 학력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임

PART.2 親・子どもの近くへの移動と居住選好

親の近くへ移動した理由は年齢と学歴によって異なる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年齢

- 親の健康・ケア： 40~49 歳 31.2% 、 50~64 歳 40.8%
- 親の経済的困難： 40~49 歳 10.7% 、 50~64 歳 5.8%
- 親による育児・家事支援の必要性：
  40~49 歳 29.5% 、 50~64 歳 24.8%
- 年齢によって親の近くへ移動した理由が異な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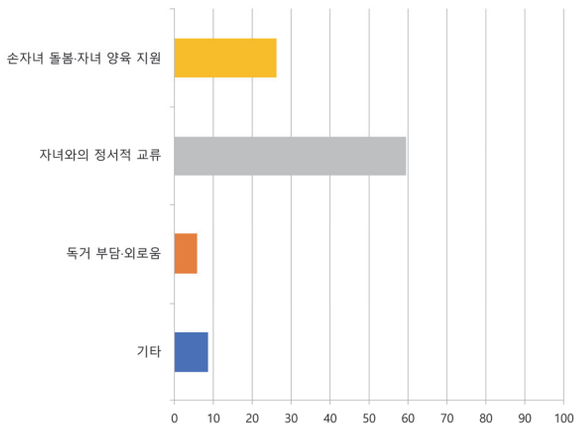
学歴

- 親の健康・ケア：短期大学卒以上 35.1% 、高卒以下 44.0%
- 親の経済的困難：短期大学卒以上 5.1% 、高卒以下 14.7%
- 親による育児・家事支援の必要性：
  短期大学卒以上 30.4% 、高卒以下 14.8%
- 学歴によって親の近くへ移動した理由が異なる

▶ 親の近くへ移動した理由は、年齢と学歴によって異なる様相を示す

PART.2 부모·자녀 근처로의 이동과 거주 선호

자녀 근처로 이동한 가장 큰 이유는 '정서적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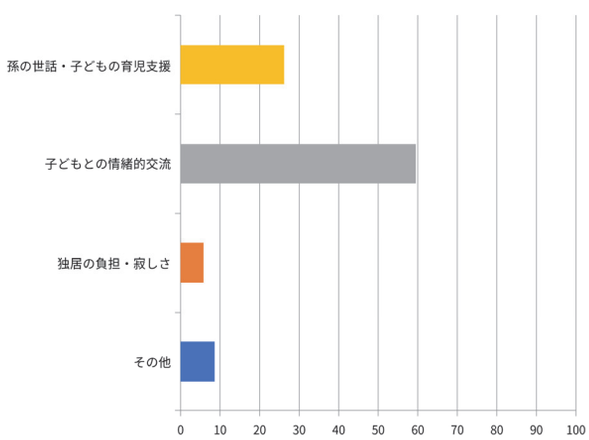


-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가 59.5%로 가장 큰 이동 이유
- 손자녀 돌봄·자녀 양육 지원이 26.2%로 뒤를 이음
- 지역·성별·연령·학력·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자녀 근처로의 이동에서는 정서적 교류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PART.2 親・子どもの近くへの移動と居住選好

子どもの近くへ移動した最大の理由は「情緒的交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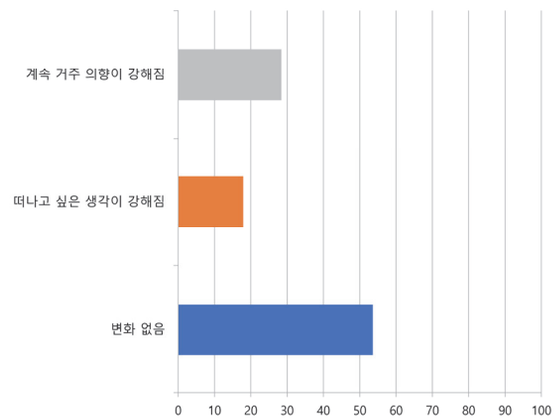
- 子どもとの情緒的交流が 59.5% で、最も大きな移動理由
- 孫の世話・子どもの育児支援が 26.2% でこれに続く
- 地域・性別・年齢・学歴・主観的社会経済的地位による有意な差はみられない

▶ 子どもの近くへの移動では、情緒的交流が最も大きな理由

PART.2 부모·자녀 근처로의 이동과 거주 선호

자녀의 독립이 곧 현재 지역을 떠나려는 의향으로 이어지지는 않음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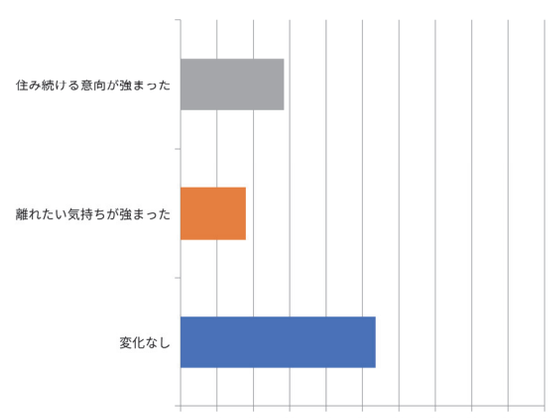
- 자녀 독립 이후 거주지역에 대한 생각은 '변화 없음'이 53.6%로 가장 높음
- 계속 거주 의향 강화(28.4%)가 떠나고 싶은 생각 강화(17.9%)보다 높음
- 여성: 떠나고 싶은 생각이 강해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남성: 변화 없음·계속 거주 의향 강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자녀 독립 이후 현재 거주지역에 대한 생각은 '변화 없음'이 과반

PART.2 親・子どもの近くへの移動と居住選好

子どもの独立が直ちに現在の地域を離れる意向につながるわけではない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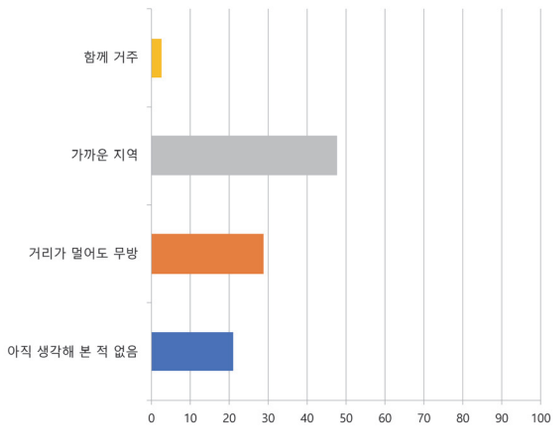


- 子どもの独立後、居住地域に対する考えは「変化なし」が 53.6% で最も多い
- 住み続ける意向の強まり (28.4%) が、離れたい気持ちの強まり (17.9%) を上回る
- 女性：離れたい気持ちが強まった割合が相対的に高い
- 男性：変化なし・住み続ける意向が強まった割合が相対的に高い

▶ 子どもの独立後、現在の居住地域に対する考えは「変化なし」が過半数

PART.2 부모·자녀 근처로의 이동과 거주 선호

노후에 자녀와는 '함께 거주'보다 '가까운 지역' 거주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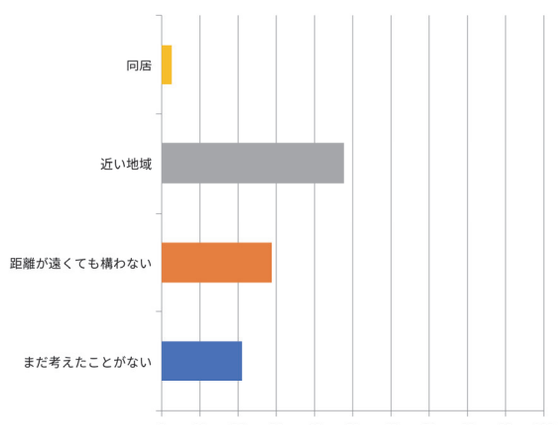


- 자녀와 함께 거주하려는 선호는 2.6%로 매우 낮음
- 가까운 지역에서 거주하려는 선호가 47.7%로 가장 높음
- 거리가 멀어도 무방하다는 응답도 적지 않음(28.8%)

▶ 자녀와의 동거보다는 일정한 물리적 근접성을 확보하려는 거주 선호가 두드러짐

PART.2 親・子どもの近くへの移動と居住選好

老後は子どもとの「同居」より「近い地域」での居住を選好



- 子どもとの同居を希望する割合は 2.6% と非常に低い
- 近い地域での居住を希望する割合が 47.7% で最も高い
- 距離が遠くても構わないという回答も少なくない (28.8%)

▶ 子どもとの同居より、一定の物理的近接性を確保しようとする居住選好が顕著

PART.2 부모·자녀 근처로의 이동과 거주 선호

자녀와의 적정 거리에 대한 선호는 지역과 성별에 따라 차이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

- 수도권: '가까운 지역' 선호가 비수도권에 비해 10%p 이상 높음
- 비수도권: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에 따라 '가까운 지역' 선호와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음' 응답에서
  상반된 양상

성별

- 여성: 자녀와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
  (남성 대비 약 10%p 높음)
- 남성: 거리가 멀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
  (여성 대비 약 10%p 높음)
- 여성이 자녀와의 물리적 근접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

▶ 동거 선호는 전반적으로 낮지만 '얼마나 가까이 살 것인가'에는 집단적 차이가 존재

PART.2 親・子どもの近くへの移動と居住選好

子どもとの適切な距離の選好は地域と性別によって異なる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地域

- 首都圏：「近い地域」の選好が非首都圏より
  10%p 以上高い
- 非首都圏：「まだ考えたことがない」割合が
  相対的に高い
- 「近い地域」の選好と「まだ考えたことがない」の
  回答には、地域によって対照的な傾向がみられ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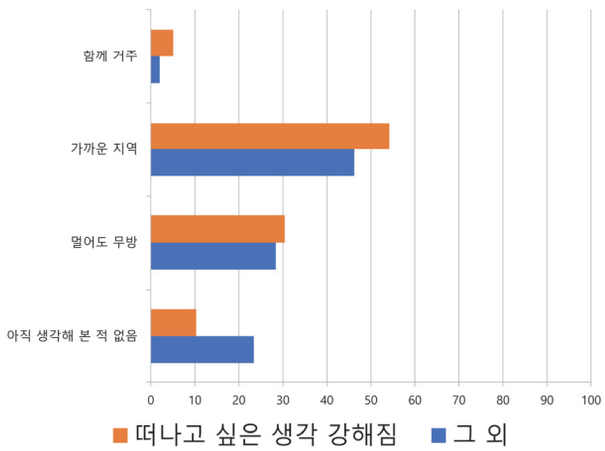
性別

- 女性：子どもに近い地域を選好する傾向
  (男性より約 10%p 高い)
- 男性：距離が遠くても構わないと考える傾向
  (女性より約 10%p 高い)
- 女性は子どもとの物理的近接性を相対的に重視する傾向

▶ 同居の選好は全般的に低いが、「どれほど近くに住むか」には集団間の差がある

PART.2 부모·자녀 근처로의 이동과 거주 선호

자녀 독립 후 거주 의향 변화와 노후 자녀 근접 거주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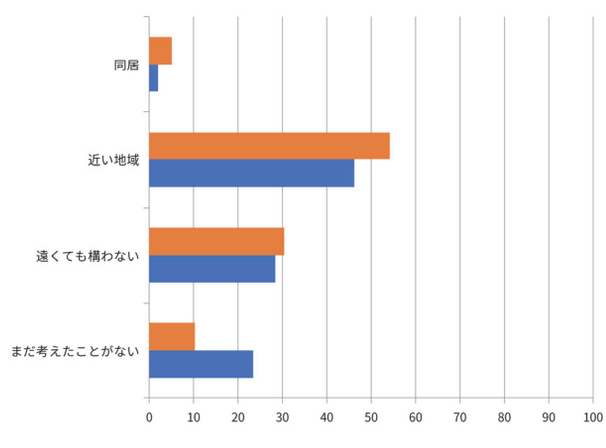


- 자녀 독립 후 '떠나고 싶은 생각이 강해짐' 집단은 그 외 집단보다 노후에 자녀와 가까운 지역에서 살기를 더 선호 (54.2% vs. 46.2%)
- 자녀와 함께 거주하려는 선호도 상대적으로 높음 (5.1% vs. 2.0%)
- 자녀의 독립으로 현재 지역에 남을 이유가 약해지고, 노후에는 자녀 가까이 살고자 하는 의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 다만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음' 비율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 근접 거주 선호의 차이만으로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

▶ 자녀의 독립 이후에도 자녀와의 근접성이 거주지 선택의 고려사항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

PART.2 親・子どもの近くへの移動と居住選好

子どもの独立後の居住意向の変化と老後の子どもとの近居選好



- 子どもの独立後に「離れたい気持ちが強まった」集団は、その他の集団より老後に子どもに近い地域での居住を強く選好 (54.2% vs. 46.2%)
- 子どもとの同居を希望する割合も相対的に高い (5.1% vs. 2.0%)
- 子どもの独立により現在の地域に残る理由が弱まり、老後は子どもの近くに住みたい意向が反映されている可能性
  - ✓ ただし、「まだ考えたことがない」割合にも大きな差があり、近居選好の差だけで解釈することには注意が必要

▶ 子どもの独立後も、子どもとの近接性が居住地選択の考慮事項であり続ける可能性

PART.3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주요 특징 및 시사점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주여건의 충분성 인식에는 격차가 존재

- 수도권에서 모든 정주여건의 충분성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학력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도 일관된 차이
- 중장년층의 정주여건을 살필 때 지역뿐 아니라 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체감 차이도 함께 고려할 필요

은퇴 후 거주 선호는 현재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와 연결

- 은퇴 후 현재와 비슷한 생활환경의 지역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의료·교통 여건에 대한 평가가 충분 이상인 집단은 현재와 비슷한 환경을,
  보통 이하 집단은 의료·교통·상업시설 등이 잘 갖춰진 환경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
- 은퇴 후 거주 선호를 이해할 때 현재 생활환경의 유지·보완에 대한 요구를 함께 고려할 필요

가족 근접이동은 일방향적인 부양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움

- 부모의 건강·돌봄을 위한 이동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육아·가사 지원을 받기 위한 이동이 나타남
- 가족과의 근접 거주를 '부모 부양'이라는 단일한 틀보다 세대 간 지원이 오가는 다양한 관계로
  볼 필요



PART.3 主な特徴と示唆

主な特徴と示唆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定住環境の充足度に対する認識には格差が存在

- 首都圏ではすべての定住環境の充足度評価が相対的に高く、学歴・主観的社会経済的地位によっても一貫した差
- 中高年層の定住環境を検討する際は、地域だけでなく個人の社会経済的条件による実感の違いも考慮する必要

引退後の居住選好は現在の生活環境に対する評価と関連

- 引退後は現在と似た生活環境の地域を希望する割合が最も高い
- 医療・交通環境の評価が「十分」以上の集団は現在と似た環境を、
  「普通」以下の集団は医療・交通・商業施設などが充実した環境を相対的に強く選好
- 引退後の居住選好を理解する際は、現在の生活環境の
  維持・補完に対するニーズも考慮する必要

家族の近くへの移動は一方向の扶養だけでは説明しにくい

- 親の健康・ケアのための移動だけでなく、親から育児・家事支援を受けるための移動もみられる
- 家族との近居を「親の扶養」という単一の枠組みではなく、
  世代間で支援をやり取りする多様な関係として捉える必要



PART.3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주요 특징 및 시사점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와의 동거보다 가까운 지역에서의 거주를 선호

-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 선호는 매우 낮은 반면, 가까운 지역에서의 거주 선호가 가장 높음
- 노후의 가족관계를 동거 여부만으로 보기보다 독립된 거주와 가족 간 물리적 접근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

자녀 독립 후 거주 의향 변화에 따라 노후 거주 선호의 응답 양상 차이

- 자녀 독립 후 현재 지역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강해진 집단은 노후의 자녀 근접 거주 선호가 높은 경향
- 거주 의향 변화와 노후 자녀와의 거주 거리에 대한 선호를 함께 살펴볼 필요

▶ 중장년층의 이동과 정주 인식은 현재의 생활기반, 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 생애단계에 따른 가족관계 및 거주 선호와 복합적으로 연결



PART.3 主な特徴と示唆

主な特徴と示唆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子どもとの同居より近い地域での居住を選好

- 老後に子どもとの同居を希望する割合は非常に低い一方、近い地域での居住を希望する割合が最も高い
- 老後の家族関係は同居の有無だけでなく、独立した居住と家族間の物理的アクセスを併せて考慮する必要

子どもの独立後の居住意向の変化により、老後の居住選好の回答傾向が異なる

- 子どもの独立後、現在の地域を離れたい気持ちが強まった集団は、老後の子どもとの近居選好が高い傾向
- 居住意向の変化と、老後の子どもとの居住距離に関する選好を併せて検討する必要

▶ 中高年層の移動と定住意識は、現在の生活基盤、個人の社会経済的条件、ライフステージに応じた家族関係・居住選好と複合的に関連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감사합니다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ありがとう
ございます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발표 4

発表 4

일본 「인구이동조사」의 설계와 실시

「人口移動調査」の設計と実施

NAKAGAWA, Masataka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국제관계부 제1실장

中川 雅貴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国際関係部第1室長

「인구이동조사」의 설계와 실시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Survey of Migration* in Japan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국제관계부 나카가와 마사타카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search and Cooperation
Masataka NAKAGAWA

The 7th KIHASA-IPSS Annual Policy Forum
- Foundations of Life in Demographic Transition: Mobility, Family, and Care -

3rd November 2026, Sejong, Korea

「人口移動調査」の設計と実施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Survey of Migration* in Japan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国際関係部 中川 雅貴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search and Cooperation
Masataka NAKAGAWA

The 7th KIHASA-IPSS Annual Policy Forum
- Foundations of Life in Demographic Transition: Mobility, Family, and Care -

3rd November 2026, Sejong, Korea

목차

- 조사 개요
- 조사 설계와 실시 방법
- 향후 전망과 과제

2

アウトライン

- 調査の概要
- 調査の設計と実施方法
- 今後の展望と課題

2

조사 개요

◘ 목적과 경과

- 일본의 **인구이동 동향과 배경**을 밝히고, **향후 인구이동 추세를 전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표본조사**
  - **다른 공적 통계(국세조사, 주민기본대장 인구이동보고)로는 파악할 수 없는** 생애사건별 거주지, 현 거주지로의 이동 사유와 향후 이동 가능성, 별도 가구에 속한 부모·자녀의 거주지 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

- 인구이동에 관한 지속적인 조사로서는 유일한 전국 표본조사
  - 정부 통계조사로 실시(총무성 승인)
  - ***인구이동 및 지역인구 관련 시책****과* ***지역별 장래인구추계의 정교화****에 기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1976년 최초의 전국 표본조사 실시(구 후생성 인구문제연구소)
  - 1991년(제3회 조사)부터「인구이동조사」로 실시
  - 2023년 7월 **제9회 조사** 실시

3

調査の概要

◘ 目的と経緯

- 日本における**人口移動の動向と背景**を明らかにし、**将来の人口移動の傾向を見通す**ための基礎データを得ることを目的とした**全国標本調査**
  - **他の公的統計（国勢調査、住民基本台帳人口移動報告）では把握することのできない**ライフイベントごとの居住地、現住地への移動理由や将来の移動可能性、別の世帯にいる親や子の居住地などに関する情報を**継続的に調査**

- 人口移動に関する継続的な調査としては唯一の全国標本調査
  - 政府統計調査として実施（総務省による承認）
  - **人口移動ならびに地域人口に関連する諸施策**や、**地域別将来人口推計の精緻化**に資する基礎資料として活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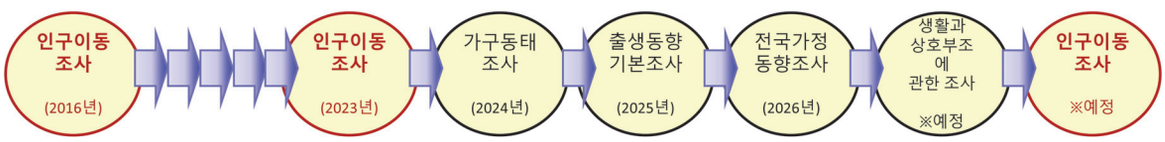
- 1976年に初の全国標本調査を実施（旧厚生省人口問題研究所）
  - 1991年（第3回調査）からは「人口移動調査」として実施
  - 2023年7月に**第9回調査**を実施

3

◘ 조사 체계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정부 통계(일반통계조사)**로 실시하는 「**사회보장·인구문제기본조사**」 중 하나

  - 후생노동성 「국민생활기초조사」(Comprehensive Survey of Living Conditions, MHLW)의 후속 조사로 실시
    ⇒ **표본추출**, **조사 경유기관** 활용



  - 2020년 「국민생활기초조사」 중단·「사회보장·인구문제기본조사」 실시 일정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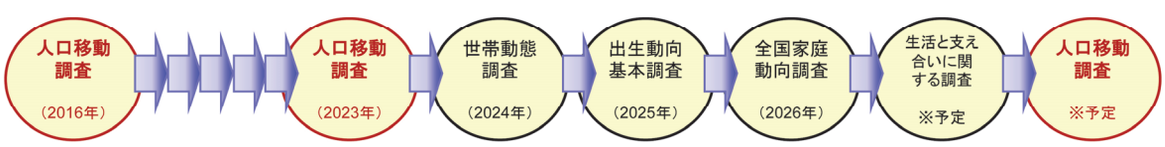
지난 조사로부터 7년 후인 2023년 7월 「제9회 인구이동조사」 실시 ※통상 5년 간격

4

◘ 調査の体系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が**政府統計（一般統計調査）**として実施する**「社会保障・人口問題基本調査」**の一つ

  - 厚生労働省「国民生活基礎調査」（*Comprehensive Survey of Living Conditions*, MHLW）の後続調査として実施 ⇒ **標本抽出**、**調査の経由機関**の活用



  - 2020年「国民生活基礎調査」の中止・「社会保障・人口問題基本調査」の実施スケジュール変更

⇓

前回調査から７年後の2023年7月に「第9回人口移動調査」を実施　※通常は５年間隔

4

◘ 조사의 특징 (다른 공적 통계와의 비교)

	국세조사	주민기본대장 이동보고	주민기본대장에 기초한 인구·인구동태 및 가구 수 조사	**인구이동조사**
실시기관	총무성 통계국	총무성 통계국	총무성 자치행정국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조사 방법	전수조사	주민표 등록 (행정기록 정보)	주민표 등록 (행정기록 정보)	**표본조사**
이동 측정 방법	「5년 전 상주지」·「거주기간」에 관한 문항	전입·전출 신고에 따른 주민표 기재·말소	전입·전출 신고에 따른 주민표 기재·말소	**생애사건(출생·진학·취업·결혼 등)별 거주지, 현 거주지로의 이동 사유, 향후 이동 가능성 등에 관한 문항**
대상	·국내이동 ·국외로부터의 이동	·국내이동 ·국외로부터의 이동 * ·국외로의 이동 *	·국내이동 ·국외로부터의 이동 ·국외로의 이동	**·국내이동 ·국외로부터의 이동**
기타 특징 등	10년에 한 번 실시하는 대규모 조사 연도에만 포함된 문항(단, 2015년·2025년 조사에는 문항 포함)	1954년분부터 시구정촌 간 이동 집계결과 이용 가능 *국외로부터의 이동·국외로의 이동은 2020년 집계결과부터 「참고표」로 공표	인구이동 외에 인구·가구 수, 출생·사망 등 동태 건수를 시구정촌 단위로 일본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제시	1976년 제1회 조사 실시 1986년 제2회 조사 이후 5년마다 실시 *단, 제9회 조사는 이전 조사로부터 7년 후인 2023년에 실시)

출처: 나카가와(2026)

5

◘ 調査の特徴（他の公的統計との比較）

	国勢調査	住民基本台帳移動報告	住民基本台帳に基づく人口、人口動態及び世帯数調査	**人口移動調査**
実施機関	総務省統計局	総務省統計局	総務省自治行政局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調査の方法	悉皆調査	住民票登録 （行政記録情報）	住民票登録 （行政記録情報）	**標本調査**
移動の測定方法	「5年前の常住地」「居住期間」に関する設問	転入・転出の届け出による住民票の記載・消除	転入・転出の届け出による住民票の記載・消除	**ライフイベント（出生・進学・就職・結婚等）ごとの居住地、現住地への移動理由、将来の移動可能性等に関する設問**
対象	・国内移動 ・国外からの移動	・国内移動 ・国外からの移動 * ・国外への移動 *	・国内移動 ・国外からの移動 ・国外への移動	**・国内移動 ・国外からの移動**
その他の特徴等	10年に一度の大規模調査年のみの設問（ただし、2015年・2025年調査では設問あり）	1954年分より市区町村間移動に関する集計結果を利用可能 * 国外からの移動・国外への移動は2020年の集計結果より「参考表 I」として公表	人口移動のほか、人口・世帯数、出生・死亡等の動態数を市区町村単位で日本人と外国人の別に表章	**1976年に第1回調査を実施 1986年の第2回調査以降は5年ごとに実施** * ただし第9回調査は、前回調査から7年後の2023年に実施）

出所：中川（2026）

5

조사 설계와 실시 방법

ㅁ 표본 설계

- 「국민생활기초조사」를 모표본으로 하는 도도부현별 무작위 추출
  - **국세조사 조사구**(대략 50가구를 기준으로 설정)를 단위로 추출
  -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 등의 가구(병원·개호시설 등)는 제외

- **제8회 조사**(2016년)에서 대상 지역 수를 기존 **300개에서 1,300개로 확대**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관련 시책**에 대한 활용 수요
    (인구감소 가속화, 도쿄 일극집중 등을 배경으로 지역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
  - 주요 조사결과의 **도도부현별 집계**가 가능한 표본 설계
    ※기존에는 지역 블록 단위
  - **도도부현별 추출률 설정 ⇒ 가중치(확대승수)를 적용한 복원 집계**
  - **제9회 조사**(2023년)의 표본 설계에서는 **대도시 지역의 회수율 저하**와 **청년층 대상 상세 분석**의 필요성 고려

조사대상 지역 수
가구 수

- 제1회 1976년: 140개 지역 7,952가구
- 제2회 1986년: 175개 지역 8,323가구
- 제3회 1991년: 265개 지역 13,999가구
- 제4회 1996년: 300개 지역 16,286가구
- 제5회 2001년: 300개 지역 16,140가구
- 제6회 2006년: 300개 지역 16,997가구
- 제7회 2011년: 300개 지역 15,449가구
- 제8회 2016년: 1,300개 지역 67,098가구
- 제9회 2023년: 1,000개 지역 45,844가구

6

調査の設計と実施方法

ㅁ 標本設計

- 「国民生活基礎調査」を親標本とする都道府県別無作為抽出
  - **国勢調査調査区**（概ね50世帯を基準に設定）を単位とする抽出
  - **一般世帯のみ**を対象とし、施設等の世帯（病院・介護施設等）は対象外

- **第8回調査**（2016年）において、対象地区数を従来の**300地区から1,300地区に拡大**
  - 国や地方自治体による**「まち・ひと・しごと創生」関連施策**への利活用ニーズ
    （人口減少の加速、東京一極集中等を背景とした地域の人口問題への関心の高まり）
  - 主要調査結果に関する**都道府県別集計**を可能にする標本設計
    ※従来は地域ブロック単位
  - **都道府県別抽出率の設定 ⇒ ウェイト（拡大乗数）を用いた復元集計**
  - **第9回調査**（2023年）の標本設計では、**大都市部における回収率の低下**や、**若年層を対象とする詳細な分析**の必要性を考慮

調査対象地区数
世帯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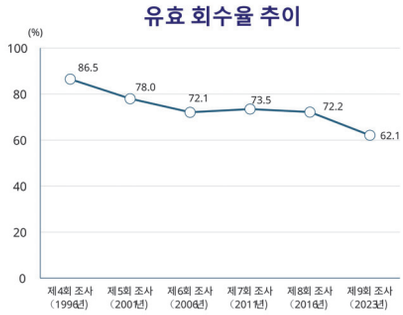
- 第1回 1976年: 140地区 7,952世帯
- 第2回 1986年: 175地区 8,323世帯
- 第3回 1991年: 265地区 13,999世帯
- 第4回 1996年: 300地区 16,286世帯
- 第5回 2001年: 300地区 16,140世帯
- 第6回 2006年: 300地区 16,997世帯
- 第7回 2011年: 300地区 15,449世帯
- 第8回 2016年: 1,300地区 67,098世帯
- 第9回 2023年: 1,000地区 45,844世帯

6

◘ 조사 실시 방법

- 조사 실시 경유기관
  - 후생노동성(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 도도부현(정령지정도시·중핵시·보건소 설치시) ― 보건소 ― 조사원
- 조사원이 조사표 배부(대면)
  - **제9회 조사**(2023년)부터 일정 조건하에 우편함 투입 방식의 배부 허용
- **제8회 조사**(2016년)부터 온라인 응답 도입
  - **제9회 조사**부터 정부통계 공동이용시스템 활용
  - 온라인 응답 or 조사표 기입 중 대상자가 선택
- **제9회 조사**부터 우편 회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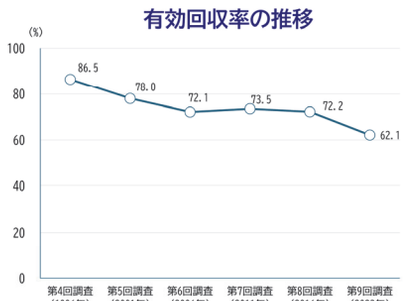
유효 회수율 추이



◘ 調査の実施方法

- 調査の実施経由機関
  - 厚生労働省（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都道府県（政令指定都市・中核市・保健所設置市）― 保健所 ― 調査員
- 調査員による調査票の配布（対面）
  - **第9回調査**（2023年）より、一定の条件付きでポスティングによる配布を容認
- **第8回調査**（2016年）より、オンライン回答の導入
  - **第9回調査**より、政府統計共同利用システムを活用
  - オンライン回答 or 調査票への記入を対象者が選択
- **第9回調査**より、郵送による回収を導入

有効回収率の推移



□ 조사항목의 변천

조사 회차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제9회
실시 연도		1976	1986	1991	1995	2001	2006	2011	2016	2023
조사대상		가구주	가구주/전체 가구원	전체 가구원	전체 가구원	전체 가구원	전체 가구원	전체 가구원	전체 가구원	전체 가구원
유효 가구 수		7,691	7,825	11,387	14,083	12,594	12,262	11,353	48,477	28,461
유효 가구원 수		7,691 1)	25,672	34,781	40,400	35,288	32,205	29,320	122,640	63,786
거주지	출생 시	○	○ 3)	○	○	○	○	○	○	○
	초등학교 졸업 시	○	-	-	-	-	-	-	-	-
	중학교 졸업 시	○	○	-	○	○	○	○	○	○
	최종학교 졸업 시	○	○	○	○	○	○	○	○	○
	첫 취업 시	○	○	○	○	○	○	○	○	○
	초혼 전	-	○	-	○	○	○	○	○	○
	초혼 후	○	○	○ 5)	○	○	○	○	○	○
	퇴직 후	-	-	○	-	-	-	-	-	-
	5년 전	-	-	○	○	○	○	○	○	○
	1년 전	○	-	○	○	○	○	○	○	○
	최근 이사 전	-	○	○	○	○	○	○	○	○
거주한 적 있는 도도부현		△ 2)	-	-	○ 6)	○ 6)	○	○	○	○
현 거주지 거주기간		○	○	○	○	○	○	○	○	○
생애 이사 횟수		-	△ 4)	-	○	-	-	-	○	○
최근 이사 사유		○	○	○	○	○	○	○	○	○
향후 이동 가능성		○	-	-	○	○	○	○	○	○

주:
1) 가구주 수. 2) 3대 도시권의 거주 이력. 3)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항목은 출생 시 거주지만 해당. 4) 결혼 후 이사 횟수.
5) 현재의 결혼 이후 거주지. 6) 가구주와 배우자만 해당.

자료: 하야시(2013), 표 1을 바탕으로 작성.

8

□ 調査項目の変遷

調査回		第1回	第2回	第3回	第4回	第5回	第6回	第7回	第8回	第9回
実施年		1976	1986	1991	1995	2001	2006	2011	2016	2023
調査対象		世帯主	世帯主／全世帯員	全世帯員	全世帯員	全世帯員	全世帯員	全世帯員	全世帯員	全世帯員
有効世帯数		7,691	7,825	11,387	14,083	12,594	12,262	11,353	48,477	28,461
有効世帯員数		7,691 1)	25,672	34,781	40,400	35,288	32,205	29,320	122,640	63,786
居住地	出生時	○	○ 3)	○	○	○	○	○	○	○
	小学校卒業時	○	-	-	-	-	-	-	-	-
	中学校卒業時	○	○	-	○	○	○	○	○	○
	最終校卒業時	○	○	○	○	○	○	○	○	○
	初職時	○	○	○	○	○	○	○	○	○
	初婚前	-	○	-	○	○	○	○	○	○
	初婚後	○	○	○ 5)	○	○	○	○	○	○
	退職後	-	-	○	-	-	-	-	-	-
	５年前	-	-	○	○	○	○	○	○	○
	１年前	○	-	○	○	○	○	○	○	○
	直近の引っ越し前	-	○	○	○	○	○	○	○	○
住んだことのある都道府県		△ 2)	-	-	○ 6)	○ 6)	○	○	○	○
現住地での居住期間		○	○	○	○	○	○	○	○	○
生涯の引っ越し回数		-	△ 4)	-	○	-	-	-	○	○
直近の引っ越しの理由		○	○	○	○	○	○	○	○	○
将来の移動可能性		○	-	-	○	○	○	○	○	○

注：
1) 世帯主数．2) 三大都市圏の居住歴．3) 全世帯員を対象とする項目は出生時の居住地のみ．4) 結婚後の転居回数．5) 現在の結婚後の居住地．6) 世帯主と配偶者のみ

資料：林（2013），表1をもとに作成.

8

◘ 조사표 설계의 특징과 최근의 확충

- **지역 특성**(거시)과 **생애과정**(미시)의 **양 측면**에서 인구이동 파악(나카가와 2023)
  - 주요 조사결과의 **도도부현별 집계**가 가능한 표본 설계.
  - **생애사건의 발생**과 이동의 연관성에 기초한 **생애과정 접근**에 따른 조사표 설계.

- **가족**을 단위로 하는 이동 분석의 새로운 전개에 대응
  - 2000년대 이후 구미에서의 재구성(e.g., Mulder 2007 , Cooke 2008)
  - **가족 관련 요인**과 **세대 간 이동 이력**에 주목한 분석(치토세 2013; 2026, 고이케·시미즈 2020)

  ⇒ **별도 가구의 부모**(예: 출생지, 건강상태)와 **자녀** 관련 문항 확충

- **국제인구이동 확대·외국인 인구 증가**를 고려한 대응
  - **「국적」**에 관한 문항 추가(제8회 조사)

  ⇒ **「출생지」**(국외 출생/국내 출생)와 **국적**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전국조사

  - 대상자용 **조사자료의 다국어화**(예: 조사표 작성 예시)

9

◘ 調査票設計の特徴と近年の拡充

- **地域特性**（マクロ）と**ライフコース**（ミクロ）の**両面**から人口移動を捉える（中川 2023）
  - 主要調査結果の**都道府県別集計**を可能にする標本設計.
  - **ライフイベントの発生**と移動の関連に基づく**ライフコース・アプローチ**による調査票設計.

- **家族**を単位とする移動分析の新展開への対応
  - 2000年代以降の欧米における再構築（e.g., Mulder 2007, Cooke 2008）
  - **家族に関連する要因**や**世代間の移動歴**に着目した分析（千年 2013; 2026, 小池・清水 2020）

  ⇒ **別の世帯の親**（例．出生地、健康状態）や**子**に関する設問の拡充

- **国際人口移動の拡大・外国人人口の増加**を踏まえた対応
  - **「国籍」**関する設問を追加（第8回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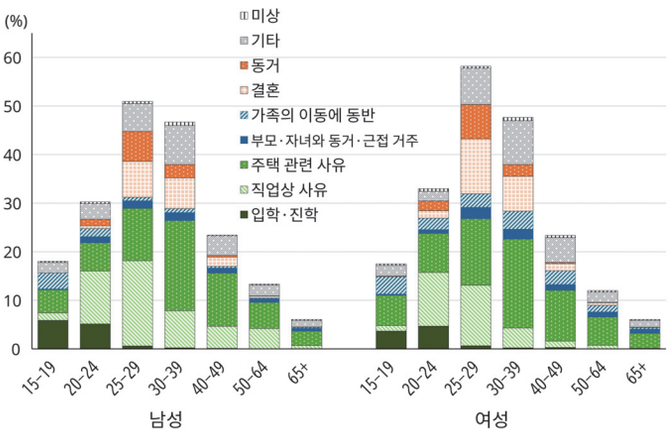
  ⇒ **「出生地」**（国外生まれ／国内生まれ）と**国籍**を把握できる唯一の全国調査

  - 対象者向け**調査資料の多言語化**（例．調査票記入例）

9

분석 예시①

◘ 이동 사유별 이동자 비율의 구성 (지난 5년간, 성·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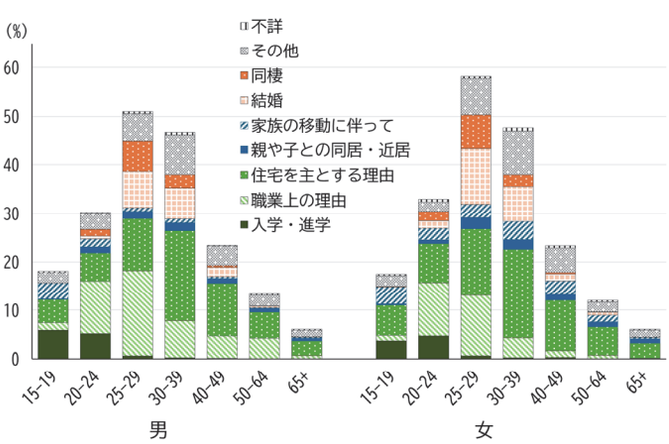
- **제9회 조사**(2023년)부터 최근 이사의 **이동 사유** 선택지에 「**동거**」 추가.
- 「**동거**」를 이유로 한 이동자 비율은 25-29세에서 남녀 모두 「**결혼**」 **다음으로 높음**을 확인.
  - 남성: 6%(전체 이동 사유 중 비율은 12%)
  - 여성: 7%(동일 기준 12%)
- 「**결혼**」을 이유로 한 이동 비율에 비해 성별 차이는 축소.

출처: 나카가와(2026)

10

分析例①

◘ 移動理由で見た移動者割合の内訳（過去5年間、男女・年齢別）



- **第9回調査**（2023年）より、直近の引っ越しの**移動理由**の選択肢に**「同棲」**を追加。
- **「同棲」**を理由とする移動者の割合は、25-29歳で男女ともに**「結婚」に次いで多い**ことが明らかに.
  - 男性：6%（移動理由全体に占める割合は12%）
  - 女性：7%（同 12%）
- **「結婚」**を理由とする移動の割合と比較して男女差は縮小.

出所：中川（2026）

10

◘ 지난 5년간 도도부현 간 이동자 비율과 이동 사유 (20-44세)

(%)	남성			여성		
	제7회 (2011년)	제8회 (2016년)	제9회 (2023년)	제7회 (2011년)	제8회 (2016년)	제9회 (2023년)
입학·진학	1.5	0.9	0.6	1.4	1.5	0.6
직업상 사유	5.9	4.9	5.8	2.4	1.8	3.2
주택 관련 사유	1.0	1.2	1.5	0.9	0.8	1.7
가족의 이동	0.1	0.1	0.1	1.9	1.5	1.3
결혼	0.6	0.6	0.8	1.8	1.6	1.3
기타	1.3	1.4	2.0	1.0	1.4	2.3
미상	0.2	0.1	0.1	0.3	0.1	0.1
전체	10.8	9.3	10.9	9.7	8.7	10.5

출처: 나카가와(2026)

- 「**입학·진학**」을 이유로 한 **도도부현 간 이동**은 감소 추세.

출생지 분포 변화 = 대도시권 출생자 비율 상승(e.g. 고이케·시미즈 2020)

11

◘ 過去５年間の都道府県間移動者の割合および移動理由（20-44歳）

(%)	男			女		
	第7回 (2011年)	第8回 (2016年)	第9回 (2023年)	第7回 (2011年)	第8回 (2016年)	第9回 (2023年)
入学・進学	1.5	0.9	0.6	1.4	1.5	0.6
職業上の理由	5.9	4.9	5.8	2.4	1.8	3.2
住宅を主とする理由	1.0	1.2	1.5	0.9	0.8	1.7
家族の移動	0.1	0.1	0.1	1.9	1.5	1.3
結婚	0.6	0.6	0.8	1.8	1.6	1.3
その他	1.3	1.4	2.0	1.0	1.4	2.3
不詳	0.2	0.1	0.1	0.3	0.1	0.1
総数	10.8	9.3	10.9	9.7	8.7	10.5

出所：中川（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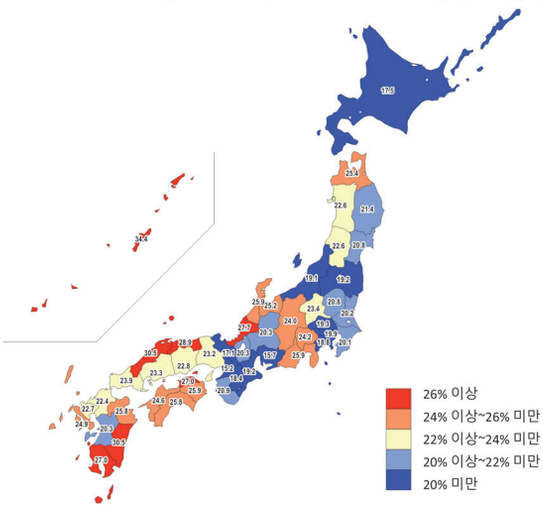
- **「入学・進学」**を理由とする**都道府県間移動**は低下傾向.

出生地分布の変化 = 大都市圏出生者割合の上昇（e.g. 小池・清水 2020）

11

분석 예시②

ㅁ 출생 도도부현별 U턴 이동자(*) 비율



출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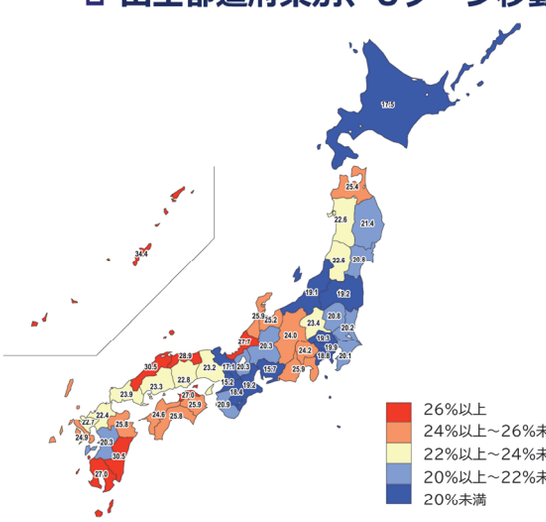
*출생 도도부현에서 다른 도도부현으로 이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현 거주지(조사 당시 거주지)가 출생 도도부현 내인 사람.
각 도도부현 출생자 대비 비율.

- **출생지**를 지속적으로 묻는 유일한 전국조사.
  - **U턴 이동** 등 **다양한 이동 유형** 식별 가능.
- **제8회 조사**(2016년)부터 **도도부현별 집계** 가능.
- 「**서고동저**」 경향 확인
  - 대도시권은 다른 도도부현으로 이동한 경험자의 비율 자체가 낮아 주의가 필요.
- 「비대도시권으로의 이동 대부분은 U턴 이동」이라는 기존 가설 재검토(시미즈 2019, 나카가와 2019)

12

分析例②

ㅁ 出生都道府県別、Uターン移動者（*）割合



出所：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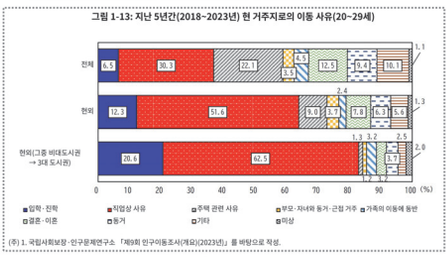
*出生都道府県から県外に移動した経験のある人のうち、
現住地（調査時の居住地）が出生都道府県内であった人.
各都道府県の出生者に対する割合.

- **出生地**を継続的に尋ねている唯一の全国調査.
  - **Uターン移動**等の**多様な移動類型**を識別可能.
- **第8回調査**（2016年）より**都道府県別集計**が可能に.
- **「西高東低」**の傾向を確認
  - 大都市圏では、県外移動経験者の割合そのものが少ないので注意が必要.
- 「非大都市圏への移動の大部分はUターン移動による」とする従来の仮説の見直し（清水 2019, 中川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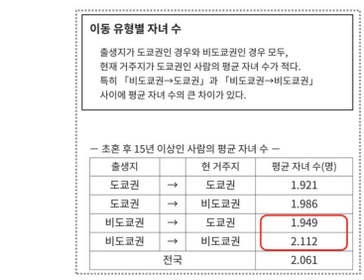
12

인구이동조사 결과의 사회적·정책적 활용

지방창생 관련 시책의 자료 활용 사례



내각부 정책총괄관(경제재정분석 담당)「지역과제 분석보고서(2024년 가을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의 지역 선택과 인구이동」(2024년 12월), p.11.



이동 유형별 자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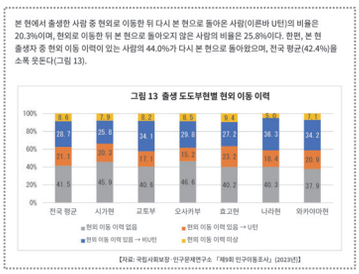
출생지가 도쿄권인 경우와 비도쿄권인 경우 모두,
현재 거주지가 도쿄권인 사람의 평균 자녀 수가 적다.
특히 「비도쿄권→도쿄권」과 「비도쿄권→비도쿄권」
사이에 평균 자녀 수의 큰 차이가 있다.

－ 초혼 후 15년 이상인 사람의 평균 자녀 수 －

출생지		현 거주지	평균 자녀 수(명)
도쿄권	→	도쿄권	1.921
도쿄권	→	비도쿄권	1.986
비도쿄권	→	도쿄권	1.949
비도쿄권	→	비도쿄권	2.112
전국			2.061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사무국, 지방대학 진흥 및 청년 고용 등에 관한
전문가회의(제12회)(2017년 10월 30일),「논점에 관한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의 활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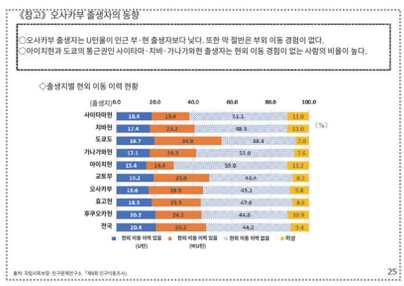


본 현에서 출생한 사람 중 현외로 이동한 뒤 다시 본 현으로 돌아온 사람(이른바 U턴)의 비율은 20.3%이며, 현외로 이동한 뒤 본 현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25.8%이다. 한편, 본 현 출생자 중 현외 이동 이력이 있는 사람의 44.0%가 다시 본 현으로 돌아왔으며, 전국 평균(42.4%)을 소폭 웃돈다(그림 13).

그림 13 출생 도도부현별 현외 이동 이력

【자료: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제9회 인구이동조사」(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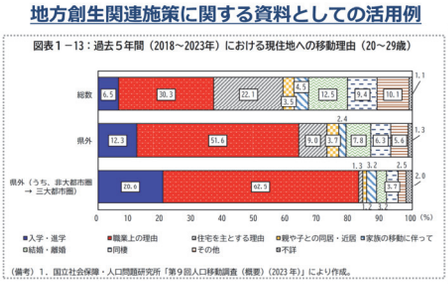
시가현「2024년 시가현 인구비전」(2025년 12월 갱신),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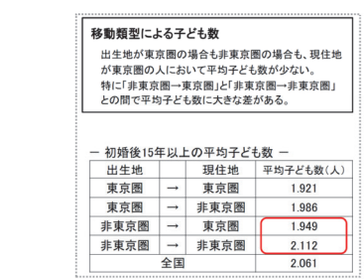
오사카부「오사카부 인구비전 수립 이후의 인구동향 등 정리」자료(2019년 8월), p.25.

人口移動調査の結果の社会的・政策的利活用

地方創生関連施策に関する資料としての活用例



内閣府政策統括官（経済財政分析担当）「地域課題分析レポート（2024年秋号）
ポストコロナ禍の若者の地域選択と人口移動」（令和6年12月），p.11.



移動類型による子ども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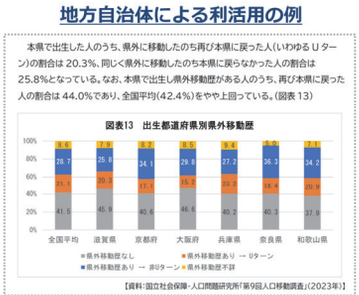
出生地が東京圏の場合も非東京圏の場合も、現住地が東京圏の人において平均子ども数が少ない。
特に「非東京圏→東京圏」と「非東京圏→非東京圏」との間で平均子ども数に大きな差がある。

－ 初婚後15年以上の平均子ども数 －

出生地		現住地	平均子ども数（人）
東京圏	→	東京圏	1.921
東京圏	→	非東京圏	1.986
非東京圏	→	東京圏	1.949
非東京圏	→	非東京圏	2.112
全国			2.061

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地方大学の振興及び若者雇用等に関する有識者会議（第12回）（平成29年10月30日），「論点に関する参考資料」

地方自治体による利活用の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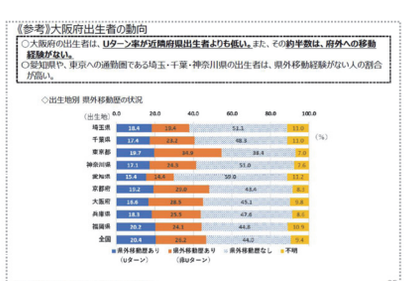


本県で出生した人のうち、県外に移動したのち再び本県に戻った人（いわゆるUターン）の割合は20.3%、同じく県外に移動したのち本県に戻らなかった人の割合は25.8%となっている。なお、本県で出生し県外移動歴がある人のうち、再び本県に戻った人の割合は44.0%であり、全国平均（42.4%）をやや上回っている。（図表13）

図表13　出生都道府県別県外移動歴

【資料：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第9回人口移動調査」(2023年)】

滋賀県「令和6年 滋賀県人口ビジョン」（令和7年12月更新），p.11.



大阪府「大阪府人口ビジョン策定後の人口動向等の整理」資料（令和元年8月），p.25.

향후 전망과 과제

- **다음 조사는 2028년 7월 실시 예정**
- **생애과정 접근에 기초한 조사표 설계**
  - 생애사건 발생과 이동의 연관성
  - 생애과정의 다양화·경력 형성의 비정형화를 고려한 재검토 필요
- **"가족" 단위 분석의 확충과 응용**
  - 거주형태 변화·미혼자 비율 상승 / 저출산에 따른「친족 자원의 축소」
  - 돌봄·지원에 관한 정책적 관점에서의 분석 수요 증대
  - 분석 결과를 사회보장·복지를 포함한 더 넓은 영역에서 활용
- **인구이동에 관한「표본조사」로서의 희소성과 이점 유지**
- **국제비교 분석에 활용**

14

今後の展望と課題

- **次回調査は2028年7月実施予定**
- **ライフコース・アプローチに基づく調査票設計**
  - ライフイベントの発生と移動の関連
  - ライフコースの多様化・キャリア形成の非定型化を踏まえた見直しの必要性
- **"家族"を単位とする分析の拡充と応用**
  - 居住形態の変化・未婚者割合の上昇 ／少子化に伴う「親族資源の縮減」
  - ケアやサポートに関する政策的観点からの分析ニーズの高まり
  - 分析による知見を社会保障や福祉を含むより幅広い領域において活用
- **人口移動に関する「標本調査」としての稀少性・利点の維持**
- **国際比較分析への活用**

14

참고문헌

·**고이케 시로·시미즈 마사토**(2020)「도쿄권 일극집중은 지속되는가? ―출생지 분포 변화에 기초한 검증―」『인구문제연구』76(1): 80-97.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25)**『2023년 사회보장·인구문제기본조사 제9회 인구이동조사 보고서』(조사연구보고자료 제43호).
·**시미즈 마사토(2019)**「비대도시권에 거주하는 대도시권 출신자의 특성」『인구문제연구』75(3), pp.169-191.
·**치토세 요시미(2013)**「최근 세대 간 거주관계의 변화」『인구문제연구』69(4), pp.4-24.
·**치토세 요시미(2026)**「부부가구·1인가구의 고령 부모가 바라본 별거 자녀의 거주지」『인구문제연구』82(2), pp.195-211.
·**나카가와 마사타카(2019)**「비대도시권 출생자의 U턴 이동 변화에 관한 분석」『인구문제연구』75(4), pp.381-400.
·**나카가와 마사타카(2023)**「인구이동 연구의 다층분석 적용 ―미시분석과 지역분석을 연결하는 시도―」『인구학연구』제59호, pp.89-104.
·**나카가와 마사타카(2026)**「국내인구이동」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편저·하야시 레이코 감수,『인구와 사회: 데이터로 읽는 세계와 일본』닛케이인쇄, pp.117-136.
·**하야시 레이코(2013)**「특집에 부쳐」『인구문제연구』69(4), pp.1-3.
・**Mulder, C.H. (2007)** "The Family Context and Residential Choice: a Challenge for New Research", *Population, Space and Place*, 13(4), pp. 265-278.
・**Cooke, T.J. (2008)** "Migration in a Family Way", *Population, Space and Place*, 14(4), pp. 255-265.

参照文献

・**小池司朗・清水昌人**（2020）「東京圏一極集中は継続するか？―出生地分布変化からの検証―」『人口問題研究』76(1): 80-97.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25）**『2023年社会保障・人口問題基本調査 第9回人口移動調査報告書』（調査研究報告資料第43号）.
・**清水昌人（2019）**「非大都市圏に居住する大都市圏出身者の特性」『人口問題研究』75(3), pp.169-191.
・**千年よしみ（2013）**「近年における世代間居住関係の変化」『人口問題研究』69(4), pp.4-24.
・**千年よしみ（2026）**「夫婦のみ・単独世帯の高齢親からみた別居子の居住地」『人口問題研究』82(2), pp.195-211.
・**中川雅貴（2019）**「非大都市圏出生者におけるUターン移動の変化に関する分析」『人口問題研究』75(4), pp.381-400.
・**中川雅貴（2023）**「人口移動研究におけるマルチレベル分析の適用―ミクロ分析と地域分析をリンクさせる試み―」『人口学研究』第59号, pp.89-104.
・**中川雅貴（2026）**「国内人口移動」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編著・林玲子 監修『人口と社会：データで読み解く世界と日本』日経印刷, pp.117-136.
・**林玲子（2013）**「特集によせて」『人口問題研究』69(4), pp.1-3.
・**Mulder, C.H. (2007)** "The Family Context and Residential Choice: a Challenge for New Research", *Population, Space and Place*, 13(4), pp. 265-278.
・**Cooke, T.J. (2008)** "Migration in a Family Way", *Population, Space and Place*, 14(4), pp. 255-265.

발표 5

発表 5

인구이동조사의 분석 사례:
국내이동의 국제비교, 고령자의 이동, 다지역 거주, 외국 배경 인구

人口移動調査の分析例:
国内移動の国際比較、高齢者の移動、多地域居住、外国ルーツ人口

HAYASHI, Reiko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소장

林 玲子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所長

제7회 한일 사회정책 정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실(5층)
Session 2 인구이동
2026년 11월 3일(화) 14:10 ~ 15:50

인구이동조사의 분석 사례

국내이동의 국제비교, 고령자의 이동,
다지역 거주, 외국 배경 인구

하야시 레이코 Reiko Hayashi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Tokyo, Japan

1

第7回 日韓社会政策定例フォーラム
韓国保健社会研究院 世宗室（5階）
Session 2 人口移動
2026年11月3日（火）14:10～15:50

人口移動調査の分析例

国内移動の国際比較、高齢者の移動、
多地域居住、外国ルーツ人口

林玲子 Reiko Hayashi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Tokyo,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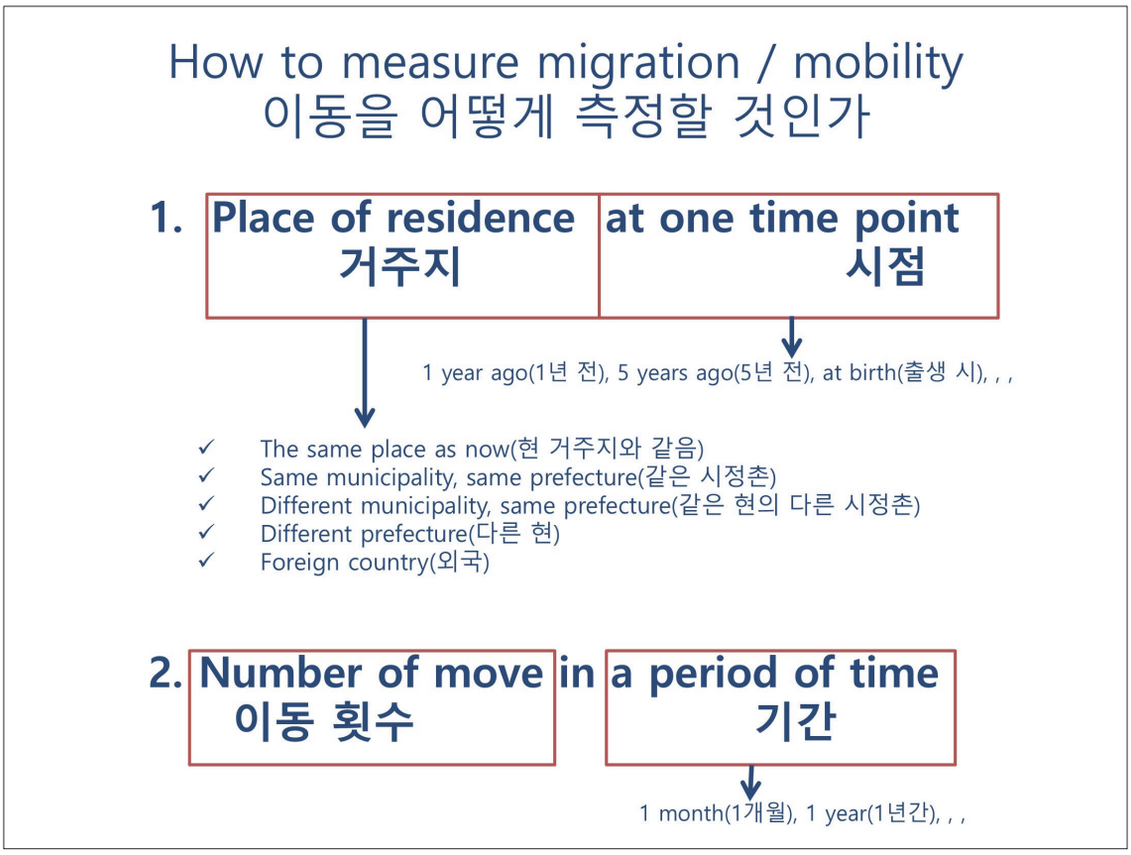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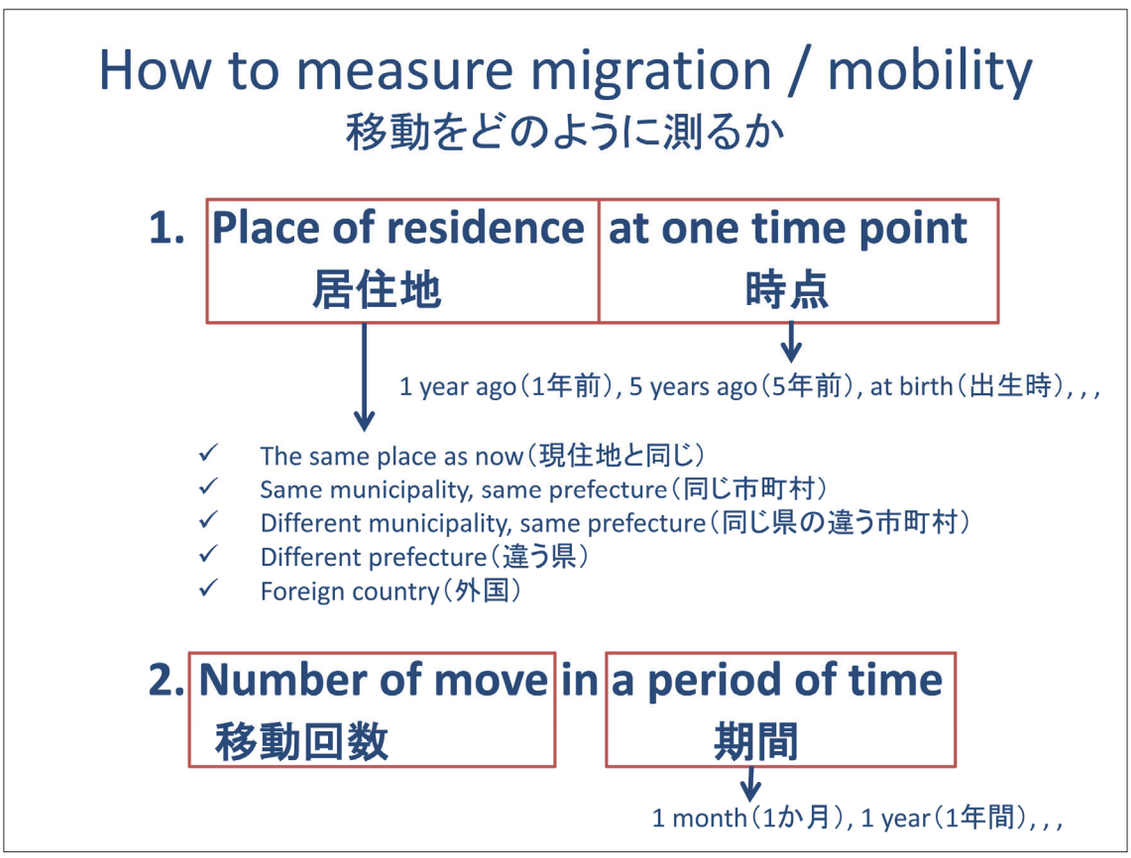
국내이동의 국제비교

2

国内移動の国際比較

2


How to measure migration / mobility
이동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1. Place of residence 거주지
at one time point 시점
1 year ago(1년 전), 5 years ago(5년 전), at birth(출생 시), , ,
✓ The same place as now(현 거주지와 같음)
✓ Same municipality, same prefecture(같은 시정촌)
✓ Different municipality, same prefecture(같은 현의 다른 시정촌)
✓ Different prefecture(다른 현)
✓ Foreign country(외국)
2. Number of move 이동 횟수
in a period of time 기간
1 month(1개월), 1 year(1년간), , ,


How to measure migration / mobility
移動をどのように測るか
1. Place of residence 居住地
at one time point 時点
1 year ago(1年前), 5 years ago(5年前), at birth(出生時), , ,
✓ The same place as now(現住地と同じ)
✓ Same municipality, same prefecture(同じ市町村)
✓ Different municipality, same prefecture(同じ県の違う市町村)
✓ Different prefecture(違う県)
✓ Foreign country(外国)
2. Number of move 移動回数
in a period of time 期間
1 month(1か月), 1 year(1年間), , ,

인구이동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이동률

조사 회차	국적	최근 이사 전①	출생 시②	중학교 졸업 시③	최종학교 졸업 시④	첫 취업 시⑤	초혼 전⑥	초혼 후⑦	5년 전⑧	1년 전⑨	거주 경험	복수 생활거점	5년 후	부모집 독립 직후	첫째 자녀 입학 직후	부모의 거주지	부모의 출생지	자녀의 거주지
1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주: - 는 조사 항목 없음. ○는 국가명 없음, △는 가구주와 배우자만, ▲는 국가명 없음·가구주와 배우자만, ◎는 국가명 포함. 각 조사 실시연도는 제1회 1976년, 제2회 1886년, 제3회 1991년, 제4회 1996년, 제5회 2001년, 제6회 2006년, 제7회 2011년, 제8회 2016년, 제9회 2023년임.
출처: 하야시(2026), 「일본의 외국과 연관된 인구 추계」, 『인구문제연구』 제82권 제2호, https://ipss.repo.nii.ac.jp/records/2000807

4

人口移動調査で得られる移動率

調査回	国籍	直近の引越前①	出生時②	中学校卒業時③	最終学校卒業時④	初職時⑤	初婚前⑥	初婚後⑦	5年前⑧	1年前⑨	居住経験	複数の生活拠点	5年後	離家直後	長子入学直後	両親の居住地	両親の出生地	こどもの居住地
1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注: ―は調査項目なし。○は国名なし、△は世帯主と配偶者のみ、▲は国名なし・世帯主と配偶者のみ、◎は国名を含む。各調査の実施年は、第1回1976年、第2回1886年、第3回1991年、第4回1996年、第5回2001年、第6回2006年、第7回2011年、第8回2016年、第9回2023年である。
出典:林(2026)「日本における外国とつながりのある人口の推計」『人口問題研究』第82巻第2号, https://ipss.repo.nii.ac.jp/records/2000807

4

Assumption 가정

Migration rate change according to the level of mobility
이동 성향에 따라 각 지표는 일률적으로 변화함

For example, if 5 year migration rate is high, then 1 year migration rate is high
예를 들어, 5년 이동률이 높으면 1년 이동률도 높음

Method 방법

Using a dataset of a country where all the migration rates are available, and measure the level of mobility of another country in calculating the ratio against the reference country's corresponding migration rate
모든 이동 지표가 있는 국가(기준국)의 지표를 이용하여, 각국에서 얻을 수 있는 지표와 기준국의 해당 지표 간 비율을 각국의 이동 성향 지표로 삼음.

Assumption 仮定

Migration rate change according to the level of mobility
移動性向により、各指標は一様に変化する

For example, if 5 year migration rate is high, then 1 year migration rate is high
例えば、もし5年移動率が高ければ1年移動率も高い

Method 方法

Using a dataset of a country where all the migration rates are available, and measure the level of mobility of another country in calculating the ratio against the reference country's corresponding migration rate
すべての移動指標がある国(基準国)の指標を用いて、各国の得られる指標と基準国のその指標の比を用いて、各国の移動性向指標とする。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
일본·중국·한국의 행정구역 일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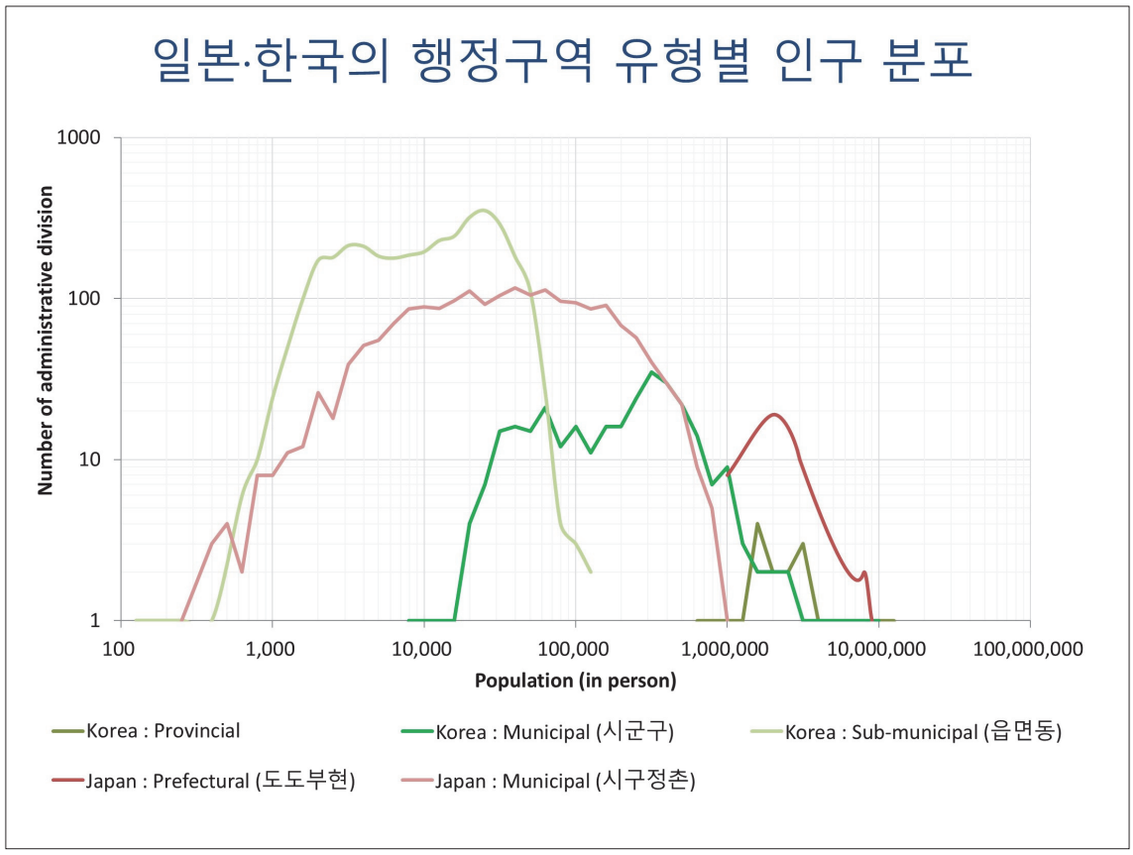
	China	Japan	South Korea
Name	**Province (省级:省市)**		
Number	34		
Median pop.	37,327,378		
Max.pop.	104,303,132		
Min.pop.	3,002,166		
Name	Prefecture (地级: 市州盟)	**Prefecture (도도부현)**	**Province (시도)**
Number	333	47	17
Median pop.	3,151,810	1,706,242	1,902,611
Max.pop.	14,047,625	13,159,388	11,379,459
Min.pop.	95,465	588,667	531,905
Name	**County (县级:县市区)**		**Municipality (시군구)**
Number	2,856		302
Median pop.	379,869		201,070
Max.pop.	2,226,017		9,417,766
Min.pop.	251		7,764
Name	Township* (乡级:乡镇街道)	**Municipality (시구정촌)**	Sub-municipality (읍면동)
Number	40,906	1,901	3,472
Median pop.	40,577*	30,498	10,311
Max.pop.	373,094*	877,138	121,301
Min.pop.	2,705*	201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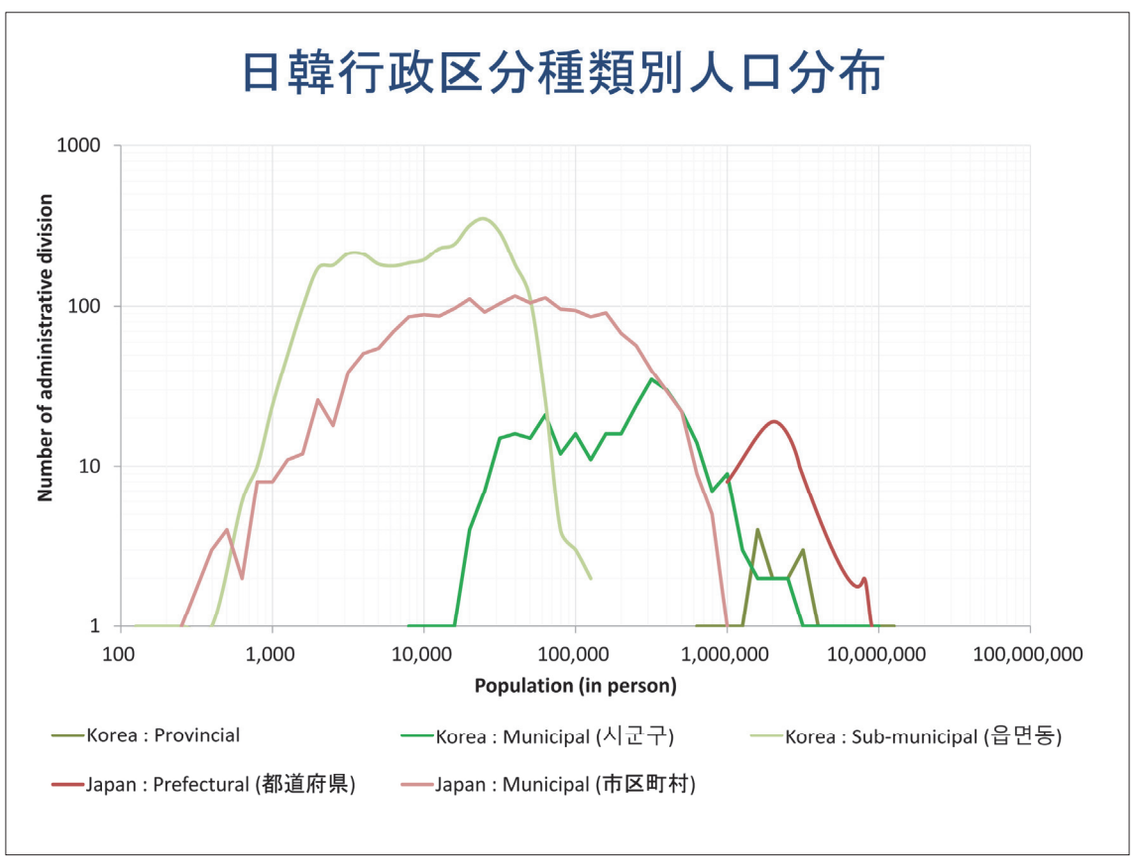
* Due to the data limitation, median, max and min population of Township level of China is that of Jiangsu Province.
Source : Population census statistics of 2010 for Provincial level of China, population census statistics of 2010 compiled by www.citypopulation.de for Prefectural level of China, statistics of 2007 of Ministry of Public Security (2008) and compiled by www.datatang.com for County level of China, statistics of 2004 by Statistics Bureau of Jiangsu Province (2005) for Township level of Jiangsu Province, China; population census statistics of 2010 for Japan and South Korea

異なった行政区分の調整が必要
日中韓行政区分一覧

	China	Japan	South Korea
Name	**Province (省级:省市)**		
Number	34		
Median pop.	37,327,378		
Max.pop.	104,303,132		
Min.pop.	3,002,166		
Name	Prefecture (地级: 市州盟)	**Prefecture (都道府県)**	**Province (시도)**
Number	333	47	17
Median pop.	3,151,810	1,706,242	1,902,611
Max.pop.	14,047,625	13,159,388	11,379,459
Min.pop.	95,465	588,667	531,905
Name	**County (县级:县市区)**		**Municipality (시군구)**
Number	2,856		302
Median pop.	379,869		201,070
Max.pop.	2,226,017		9,417,766
Min.pop.	251		7,764
Name	Township* (乡级:乡镇街道)	**Municipality (市区町村)**	Sub-municipality (읍면동)
Number	40,906	1,901	3,472
Median pop.	40,577*	30,498	10,311
Max.pop.	373,094*	877,138	121,301
Min.pop.	2,705*	201	101

* Due to the data limitation, median, max and min population of Township level of China is that of Jiangsu Province.
Source : Population census statistics of 2010 for Provincial level of China, population census statistics of 2010 compiled by www.citypopulation.de for Prefectural level of China, statistics of 2007 of Ministry of Public Security (2008) and compiled by www.datatang.com for County level of China, statistics of 2004 by Statistics Bureau of Jiangsu Province (2005) for Township level of Jiangsu Province, China; population census statistics of 2010 for Japan and South Korea


일본·한국의 행정구역 유형별 인구 분포
Number of administrative division
1000
100
10
1
100
1,000
10,000
100,000
1,000,000
10,000,000
100,000,000
Population (in person)
Korea : Provincial
Korea : Municipal (시군구)
Korea : Sub-municipal (읍면동)
Japan : Prefectural (도도부현)
Japan : Municipal (시구정촌)


日韓行政区分種類別人口分布
Number of administrative division
1000
100
10
1
100
1,000
10,000
100,000
1,000,000
10,000,000
100,000,000
Population (in person)
Korea : Provincial
Korea : Municipal (시군구)
Korea : Sub-municipal (읍면동)
Japan : Prefectural (都道府県)
Japan : Municipal (市区町村)

Courgeau (1973)에 따른 행정구역 규모를 조정한 이동률 K

$$K = \frac{M}{\log N}$$

M : 이동률(이동자÷인구)
N : 행정구역 수

이동률은 행정구역 수의 로그에 비례함

Reference: Courgeau, Daniel (1973) Migrations et découpages du territoire. *Population*, 28(3), pp.511-537
https://www.jstor.org/stable/1530704

Courgeau (1973)による 行政区分サイズを調整した移動率 K

$$K = \frac{M}{\log N}$$

M : 移動率（移動者÷人口）
N : 行政区分数

移動率は行政区分数の対数に比例する

Reference: Courgeau, Daniel (1973) Migrations et découpages du territoire. *Population*, 28(3), pp.511-537
https://www.jstor.org/stable/1530704

지표명	Country	China	Japan		South Korea
	Source	2010 Census	2010 Census	2011NSM-J	2010 Census
출생지가 다른 장소(집)	rate (%)			77.9	92.2
	vs.Japan			1.000	1.184
출생지가 다른 소행정구역	rate (%)	17.0		52.5	59.4
	K	2.14		6.96	10.40
	vs.Japan	0.307		1.000	1.495
출생지가 다른 대행정구역	rate (%)	8.0		28.3	53.4
	K	2.28		7.36	18.85
	vs.Japan	0.310		1.000	2.562
5년 전 다른 장소(집) 거주	rate (%)		22.8		51.0
	vs.Japan		1.000		2.236
5년 전 다른 소행정구역 거주	rate (%)		12.8		18.9
	K		1.69		3.32
	vs.Japan		1.000		1.961
5년 전 다른 대행정구역 거주	rate (%)	4.6	6.2		12.0
	K	1.31	1.62		4.25
	vs.Japan	0.809	1.000		2.632
1년 전 다른 장소(집) 거주	rate (%)			9.4	18.1
	vs.Japan			1.000	1.930
1년 전 다른 소행정구역 거주	rate (%)			4.0	6.5
	K			0.53	1.14
	vs.Japan			1.000	2.139
1년 전 다른 대행정구역 거주	rate (%)			1.7	4.2
	K			0.45	1.49
	vs.Japan			1.000	3.330
이동 성향 지표 Mobility Index		0.475	1.000		2.163

2010	중국		일본		한국	
대행정구역	성·성급시	34	도도부현	47	시도	17
소행정구역	현·현급시·구	2,856	시구정촌	1,901	시군구	302

일본·중국·한국의 이동 성향 지표 (2010년 전후)

한국의 이동 성향은 일본의 2배, 중국의 이동 성향은 일본의 절반

자료:
하야시(2014),「인구이동의 국제비교」,『인구문제연구』제70권 제1호, pp.1-20.
https://www.ipss.go.jp/syoushika/bunken/data/pdf/19917901.pdf
하야시(2014),「동아시아 인구이동의 국제비교와 지역 인구분포 변동」,
중일 인구·사회보장 검토회 자료

指標名	Country	China	Japan		South Korea
	Source	2010 Census	2010 Census	2011NSM-J	2010 Census
出生地が違う場所（家）	rate (%)			77.9	92.2
	vs.Japan			1.000	1.184
出生地が別の小行政区分	rate (%)	17.0		52.5	59.4
	K	2.14		6.96	10.40
	vs.Japan	0.307		1.000	1.495
出生地が別の大行政区分	rate (%)	8.0		28.3	53.4
	K	2.28		7.36	18.85
	vs.Japan	0.310		1.000	2.562
5年前が違う場所（家）	rate (%)		22.8		51.0
	vs.Japan		1.000		2.236
5年前が別の小行政区分	rate (%)		12.8		18.9
	K		1.69		3.32
	vs.Japan		1.000		1.961
5年前が別の大行政区分	rate (%)	4.6	6.2		12.0
	K	1.31	1.62		4.25
	vs.Japan	0.809	1.000		2.632
1年前が違う場所（家）	rate (%)			9.4	18.1
	vs.Japan			1.000	1.930
1年前が別の小行政区分	rate (%)			4.0	6.5
	K			0.53	1.14
	vs.Japan			1.000	2.139
1年前が別の大行政区分	rate (%)			1.7	4.2
	K			0.45	1.49
	vs.Japan			1.000	3.330
移動性向指標 Mobility Index		0.475	1.000		2.163

2010	中国		日本		韓国	
大行政区	省・省級市	34	都道府県	47	市道 시도	17
小行政区	県・県級市・区	2,856	市区町村	1,901	市郡区시군구	302

日中韓の移動性向指標（2010年前後）

韓国の移動性向は日本の2倍、中国の移動性向は日本の半分

資料:
林（2014）「人口移動の国際比較」『人口問題研究』第70巻第1号、pp.1-20.
https://www.ipss.go.jp/syoushika/bunken/data/pdf/19917901.pdf
林（2014）「東アジアにおける人口移動の国際比較と地域人口分布変動」中日人口与社会保障検討会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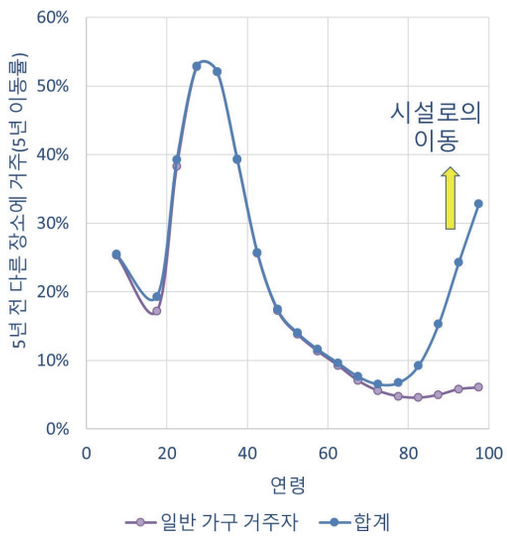
고령자의 이동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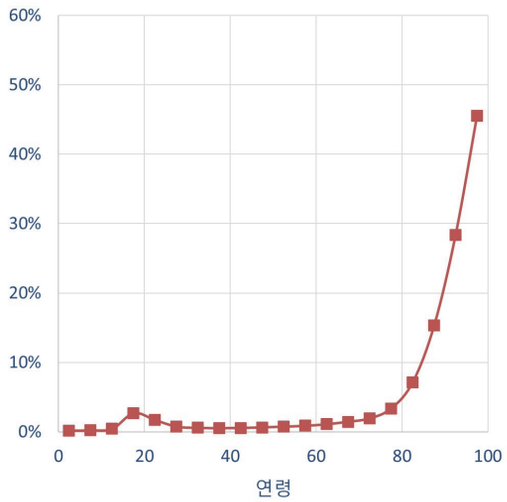
高齢者の移動

10

5년 전 다른 장소에 거주 (5년 이동률,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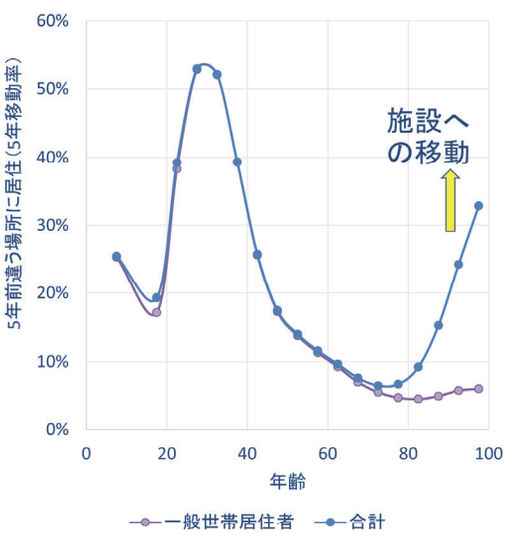


시설 거주 비율(%)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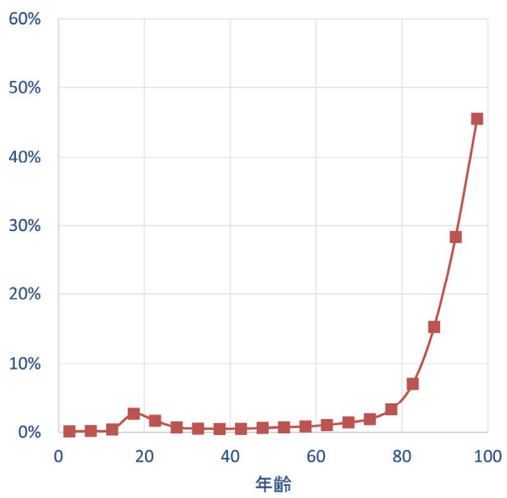


출처: 국세조사

5年前は違う場所に居住 （5年移動率、%）2020



施設居住割合(%) 2020



出典: 国勢調査

인구이동조사의 표본 조사구는 후치번호 1과 8인 조사구만 해당
고령자 시설은 포함되지 않음

후치번호별·가구 유형별 인구(65세 이상, 2015년)

후치번호	일반 가구	시설 등 가구							합계	구성비%
		기숙사	병원·요양소	사회시설	기타	자위대 병영	교정시설	소계		
1.일반	31,307,370	8	94,660	407,038	9,879	0	0	511,585	31,818,955	95.1%
2.산림	119,552	0	746	3,069	88	0	0	3,903	123,455	0.4%
3.공장	6,043	1	364	564	225	0	0	1,154	7,197	0.0%
4.시설	28,482	0	312,656	1,160,051	189	0	0	1,472,896	1,501,378	4.5%
5.교도소	7	0	0	0	0	0	6,752	6,752	6,759	0.0%
6.자위대	13	0	0	0	3	0	0	3	16	0.0%
7.주둔군	4	0	0	0	0	0	0	0	4	0.0%
8.기숙사	5,301	9	104	1,167	1,095	0	0	2,375	7,676	0.0%
9.수면	0	0	0	0	1	0	0	1	1	0.0%
합계	31,466,772	18	408,530	1,571,889	11,480	0	6,752	1,998,669	33,465,441	100.0%

자료: 국세조사 개별자료, In: 하야시(2020),「고령자의 이동—국세조사, 국민생활기초조사와 인구이동조사를 통한 파악」,『인구문제연구』제76권 제3호, pp.394-415.
https://www.ipss.go.jp/syoushika/bunken/sakuin/jinko/314.html

12

人口移動調査による抽出調査区は後置番号1と8の調査区のみ
高齢者施設は含まれていない

後置番号別·世帯の種類別人口（65歳以上、2015年）

後置番号	一般の世帯	施設等の世帯							合計	構成%
		寮·寄宿舎	病院·療養所	社会施設	その他	自衛隊営舎	矯正施設	小計		
1.一般	31,307,370	8	94,660	407,038	9,879	0	0	511,585	31,818,955	95.1%
2.森林	119,552	0	746	3,069	88	0	0	3,903	123,455	0.4%
3.工場	6,043	1	364	564	225	0	0	1,154	7,197	0.0%
4.施設	28,482	0	312,656	1,160,051	189	0	0	1,472,896	1,501,378	4.5%
5.刑務所	7	0	0	0	0	0	6,752	6,752	6,759	0.0%
6.自衛隊	13	0	0	0	3	0	0	3	16	0.0%
7.駐留軍	4	0	0	0	0	0	0	0	4	0.0%
8.寮	5,301	9	104	1,167	1,095	0	0	2,375	7,676	0.0%
9.水面	0	0	0	0	1	0	0	1	1	0.0%
合計	31,466,772	18	408,530	1,571,889	11,480	0	6,752	1,998,669	33,465,441	100.0%

資料: 国勢調査個票、In: 林（2020）「高齢者の移動—国勢調査，国民生活基礎調査と人口移動調査からの把握」『人口問題研究』第76巻第3号，pp.394-415.
https://www.ipss.go.jp/syoushika/bunken/sakuin/jinko/314.html

12

데이터 매칭과 합성

	인구이동 조사		국민생활기초조사		국세조사
조사 기준연월	2016년 7월	⇔ 개별자료의 매칭으로 이동 이유 결정	2016년 6월	⇐ 시설 인구의 이동 비율 적용	2015년 10월
조사구 수	1,271		5,410		약 100만
후치번호	1+8		1+8		전체(4=시설 인구 포함)
조사 항목	이동 이유(일, 정년퇴직, 주거환경, 가구 변화, 건강, 기타)		-도움·안부 확인 필요 여부 -요개호 인정		시설 인구의 이동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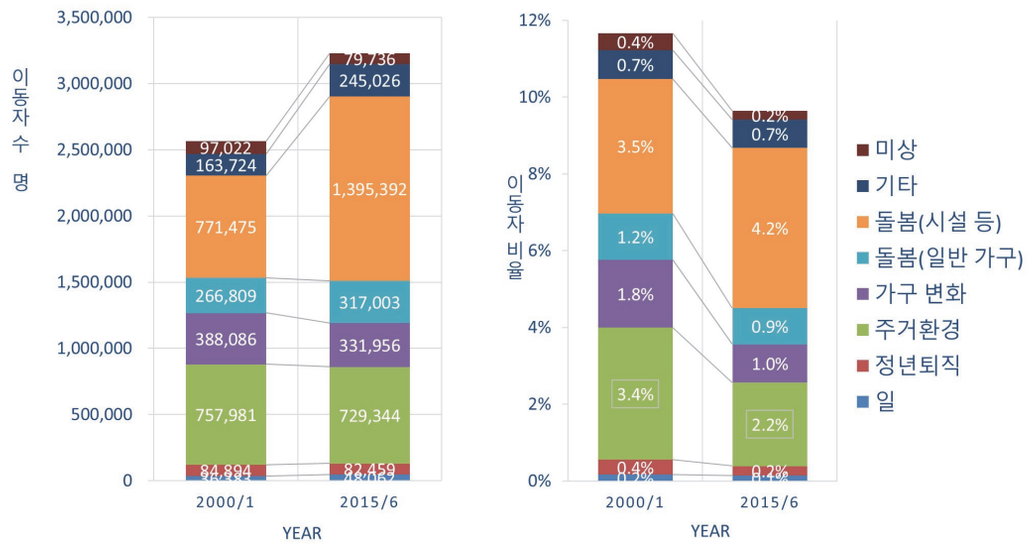
13

データマッチングと合成

	人口移動調査		国民生活基礎調査		国勢調査
調査基準年月	2016年7月	⇔ 個票データのマッチングにより移動理由を決定	2016年6月	⇐ 施設人口の移動割合を適用	2015年10月
調査区数	1,271		5,410		約100万
後置番号	1+8		1+8		すべて（4=施設人口を含む）
調査項目	移動理由（仕事、定年退職、住宅環境、世帯変化、健康、その他）		-手助けや見守りの要否 -要介護認定		施設人口の移動状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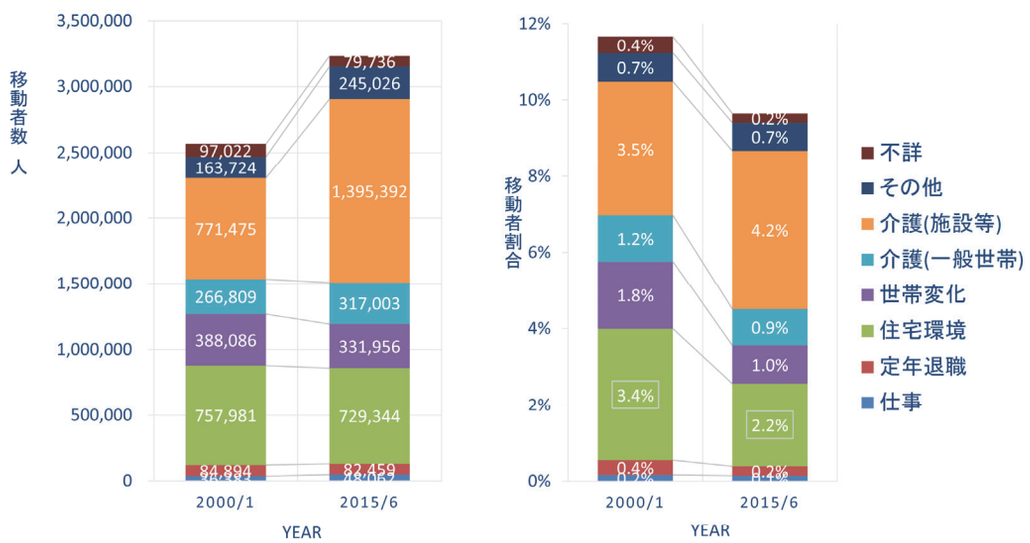
13

유형별 이동자 수·이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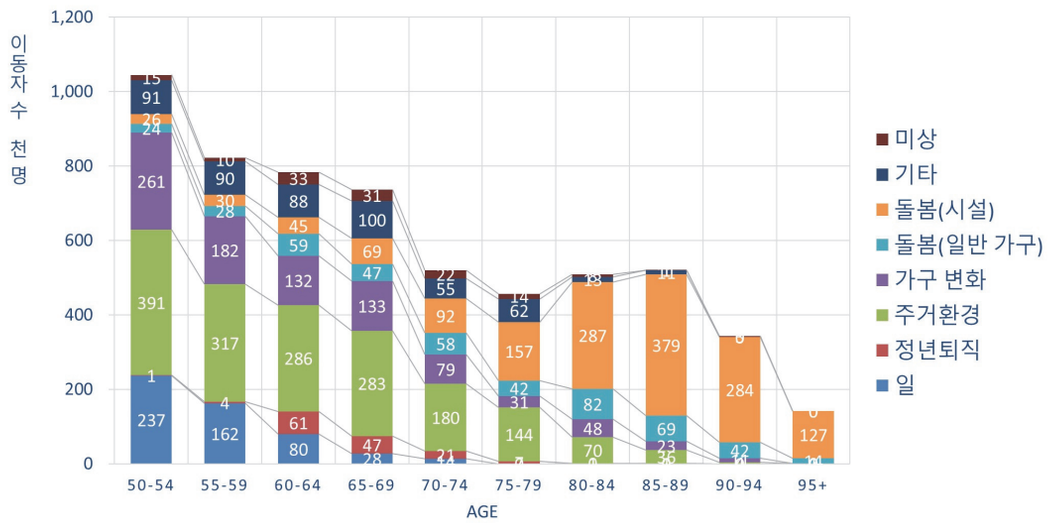
출처: 하야시(2020),「고령자의 이동—국세조사, 국민생활기초조사와 인구이동조사를 통한 파악」,『인구문제연구』제76권 제3호, pp.394-415.
https://www.ipss.go.jp/syoushika/bunken/sakuin/jinko/314.html

類型別移動者数・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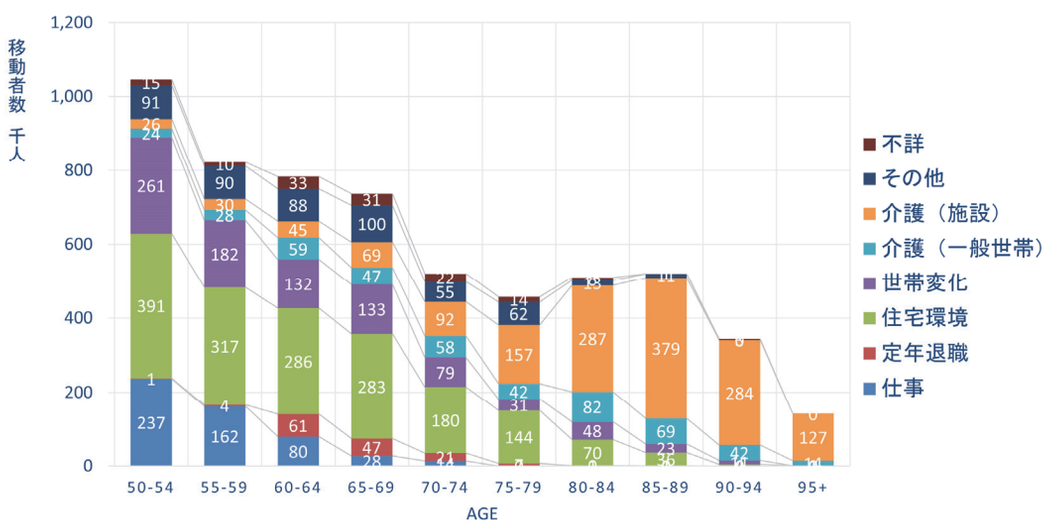
出典: 林(2020)「高齢者の移動—国勢調査, 国民生活基礎調査と人口移動調査からの把握」『人口問題研究』第76巻第3号, pp.394-415.
https://www.ipss.go.jp/syoushika/bunken/sakuin/jinko/314.html

연령별·유형별 이동자 수
2015/6



출처: 하야시(2020),「고령자의 이동—국세조사, 국민생활기초조사와 인구이동조사를 통한 파악」,『인구문제연구』제76권 제3호, pp.394-415.
https://www.ipss.go.jp/syoushika/bunken/sakuin/jinko/314.html

年齢別類型別移動者数
2015/6



出典: 林(2020)「高齢者の移動—国勢調査, 国民生活基礎調査と人口移動調査からの把握」『人口問題研究』第76巻第3号, pp.394-415.
https://www.ipss.go.jp/syoushika/bunken/sakuin/jinko/314.html

다지역 거주

16

多地域居住

16

다거점 거주에 관한 기존 연구·추진 활동

- 「2지역 거주 인구 연구회」(2004～)
  - 국토교통성「국토시책 창발조사비」(국토계획 등 추진조사)에 의함
  - 기토 선생, 에사키 선생이 위원으로 참여
  - 도시주민 설문조사 실시(2004년 12월) → 현재 2지역 거주를 하는 사람은 2.5%(15～79세)
  - 보고서(2005년 3월), 심포지엄(2005년 3월 15일)
  - 「4가지 인구(정보교류인구, 교류인구, 2지역 거주 인구, 정주인구)의 상호 연관과 시너지 효과를 지향하는 '지역계획' 수립 촉진」
- 부동산유통경영협회「복수 거점 생활에 관한 기초조사」(2020년 3월 인터넷 조사, 20-79세 남녀, 15만 명 선별조사, 5,200명 본조사)
  - 현재 복수 거점 생활을 하는 사람은 6.6%(추계 약 617만 명)
  - 향후 복수 거점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은 7.1%(추계 약 661만 명)
- 전국 2지역 거주 등 촉진협의회(2021년 3월 9일 설립) → 2024년 10월 전국 2지역 거주 등 촉진 민관협력 플랫폼으로 개편
- 「2지역 거주 추진법」(2024년 11월 시행)
- 고향 주민등록제도 시작(2026년)

인구감소 속에서 다지역 거주를 통해 교류인구를 늘림

17

多拠点居住に関する既存研究・取り組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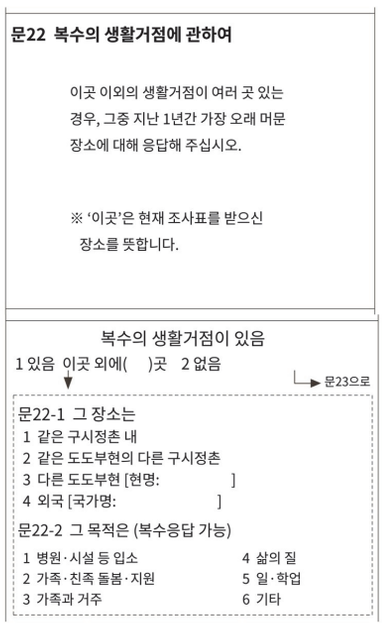
- 「二地域居住人口研究会」(2004～)
  - 国土交通省「国土施策創発調査費」（国土計画等推進調査）による
  - 鬼頭先生、江崎先生メンバー
  - 都市住民アンケート調査実施（2004年12月）→二地域居住を現在行っている人は2.5%（15～79歳）
  - 報告書（2005年3月）、シンポジウム（2005年3月15日）
  - 「4つの人口（情報交流人口、交流人口、二地域居住人口、定住人口）の相互連関と相乗効果を意図した「地域計画」の策定促進」
- 不動産流通経営協会「複数拠点生活に関する基礎調査」（2020年3月にインターネット調査、20-79歳男女、15万人スクリーニング調査、5,200人本調査）
  - 現在複数拠点生活を行っている人は、6.6%（推計約617万人）
  - 今後複数拠点生活を行いたい人は、7.1%（推計約661万人）
- 全国二地域居住等促進協議会（2021年3月9日設立）→2024年10月に全国二地域居住等促進官民連携プラットフォームへ改組
- 「二地域居住推進法」（2024年11月施行）
- ふるさと住民登録制度の開始（2026年）

人口減少のなか、多地域居住により交流人口を増やす

17

제9회 인구이동조사

- 조사 개요는 나카가와 발표에서 소개됨
- 다거점 거주에 관한 문항 도입
- 제8회 조사(2016년 실시)에서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조사구 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문항 추가를 보류한 경위가 있음
- 도입 시 논점 1: 2지역인가, 3지역 이상도 포함할 것인가? → 2지역이 아닌 다지역, 복수의 생활거점으로 설정
- 다른 생활거점의 거주 빈도로 정의할 것인가? → 정의하면 오히려 혼란을 주므로 따로 명시하지 않기로 함
- 복수 거점?)



문22 복수의 생활거점에 관하여

이곳 이외의 생활거점이 여러 곳 있는 경우, 그중 지난 1년간 가장 오래 머문 장소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이곳'은 현재 조사표를 받으신 장소를 뜻합니다.

복수의 생활거점이 있음
1 있음 이곳 외에(　)곳　2 없음 → 문23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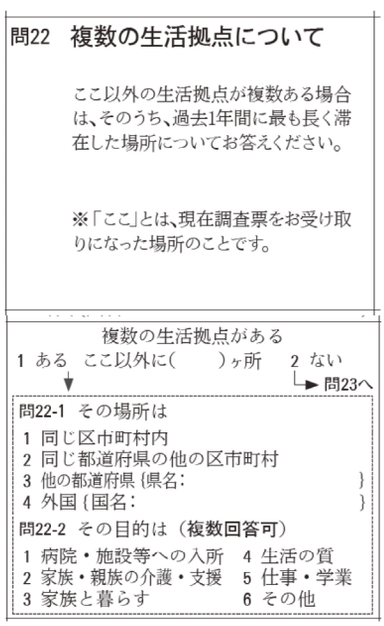
문22-1 그 장소는
1 같은 구시정촌 내
2 같은 도도부현의 다른 구시정촌
3 다른 도도부현 [현명:　　]
4 외국 [국가명:　　]

문22-2 그 목적은 (복수응답 가능)
1 병원·시설 등 입소
2 가족·친족 돌봄·지원
3 가족과 거주
4 삶의 질
5 일·학업
6 기타

18

第9回人口移動調査

- 調査概要は中川報告にて紹介済
- 多拠点居住についての設問を導入
- 第8回調査（2016年実施）の際にも導入を検討したが、調査区数拡大対応のため設問の追加は控えたという経緯
- 導入時の議論点1:二地域か三以上も含めるか？→二地域ではなく多地域、複数の生活拠点とした
- 別の生活拠点の居住頻度で定義するか？→定義すると逆に混乱するので特に明記しないこととした
- 複数拠点？）



問22　複数の生活拠点について

ここ以外の生活拠点が複数ある場合は、そのうち、過去1年間に最も長く滞在した場所についてお答えください。

※「ここ」とは、現在調査票をお受け取りになった場所のことで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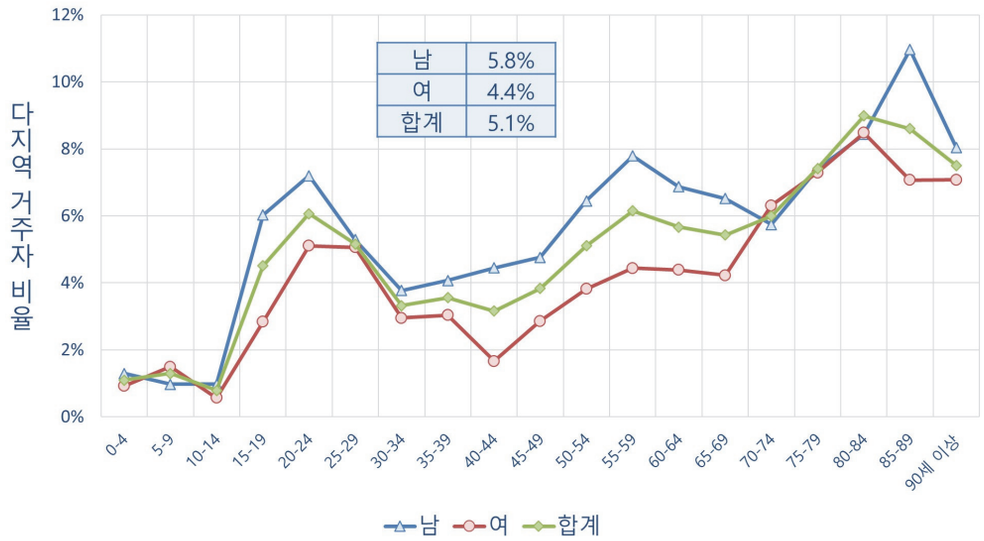
複数の生活拠点がある
1 ある　ここ以外に(　　)ヶ所　2 ない → 問23へ

問22-1 その場所は
1 同じ区市町村内
2 同じ都道府県の他の区市町村
3 他の都道府県 {県名:　　}
4 外国 {国名:　　}

問22-2 その目的は（**複数回答可**）
1 病院・施設等への入所
2 家族・親族の介護・支援
3 家族と暮らす
4 生活の質
5 仕事・学業
6 その他

18

성별·연령별 다지역 거주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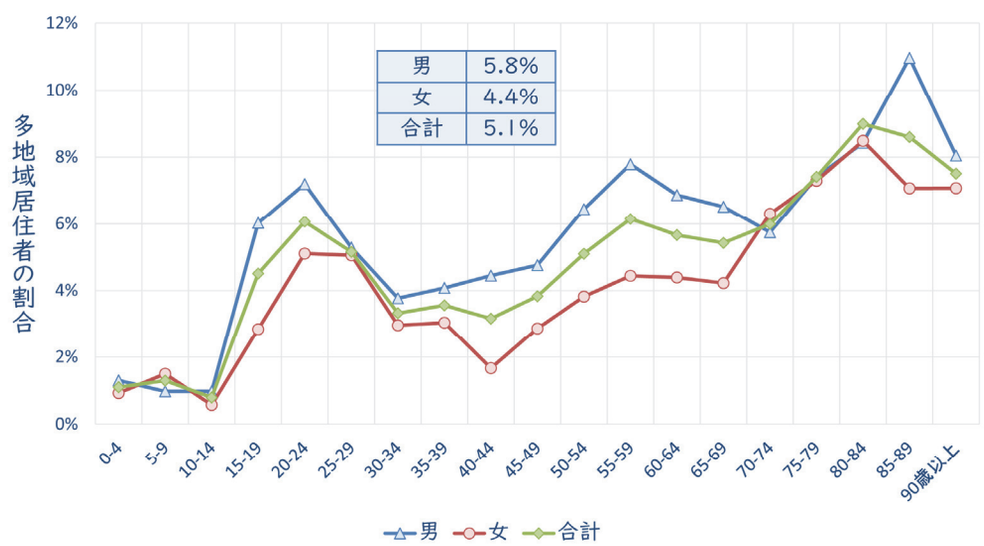


복수의 생활거점이 있는 사람의 평균 이동 횟수는 4.8회로, 없는 사람(4.1회)보다 많음

자료: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25), 「제9회 인구이동조사」 보고서

19

性年齢別多地域居住者の割合



複数の生活拠点がある人は、平均移動回数が4.8回と、ない人（4.1回）よりも多い

資料: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25）「第9回人口移動調査」報告書

19

거점은 몇 곳인가(조사지 이외의 거점 수)

거점 수	n	명	구성비%
1	2,028	3,454,208	82.2%
2	232	438,451	10.4%
3	105	196,189	4.7%
4	25	52,130	1.2%
5	15	30,392	0.7%
6	4	7,107	0.2%
7	6	11,226	0.3%
8	1	2,336	0.1%
9	2	3,805	0.1%
10	1	1,595	0.0%
12	1	1,595	0.0%
13	2	3,719	0.1%
미상	869	1,694,104	
합계	3,291	5,896,859	100.0%

- 2지역 거주는 80%
- 3지역 거주는 10%
- 다른 거점이 8~13곳인 경우는 고령자이며, 가족과 거주/일·학업 목적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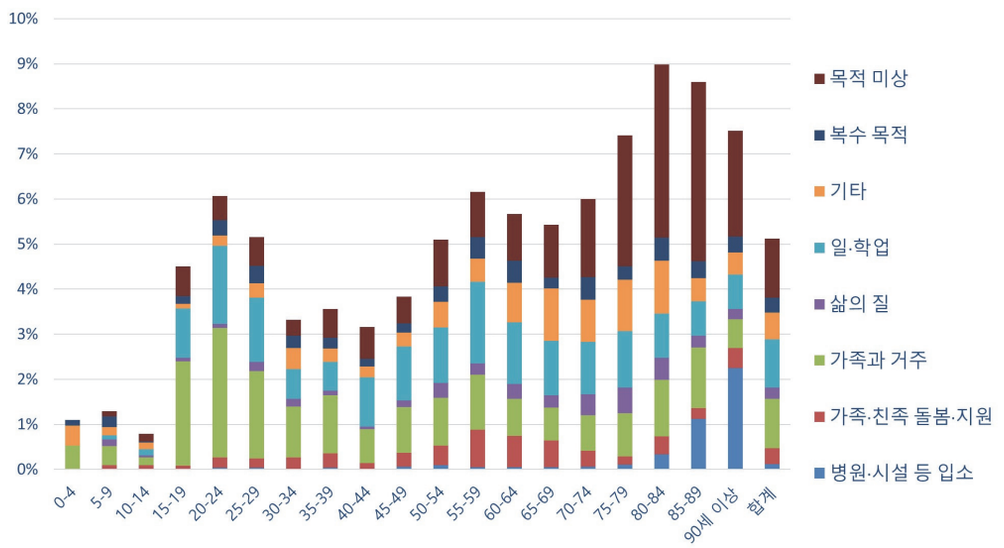
何か所の拠点があるか（調査地以外の拠点数）

拠点数	n	人	構成比%
1	2,028	3,454,208	82.2%
2	232	438,451	10.4%
3	105	196,189	4.7%
4	25	52,130	1.2%
5	15	30,392	0.7%
6	4	7,107	0.2%
7	6	11,226	0.3%
8	1	2,336	0.1%
9	2	3,805	0.1%
10	1	1,595	0.0%
12	1	1,595	0.0%
13	2	3,719	0.1%
不詳	869	1,694,104	
合計	3,291	5,896,859	100.0%

- 二地域居住は8割
- 三地域居住は1割
- 他拠点が8～13は高齢者、家族と暮らす/仕事・学業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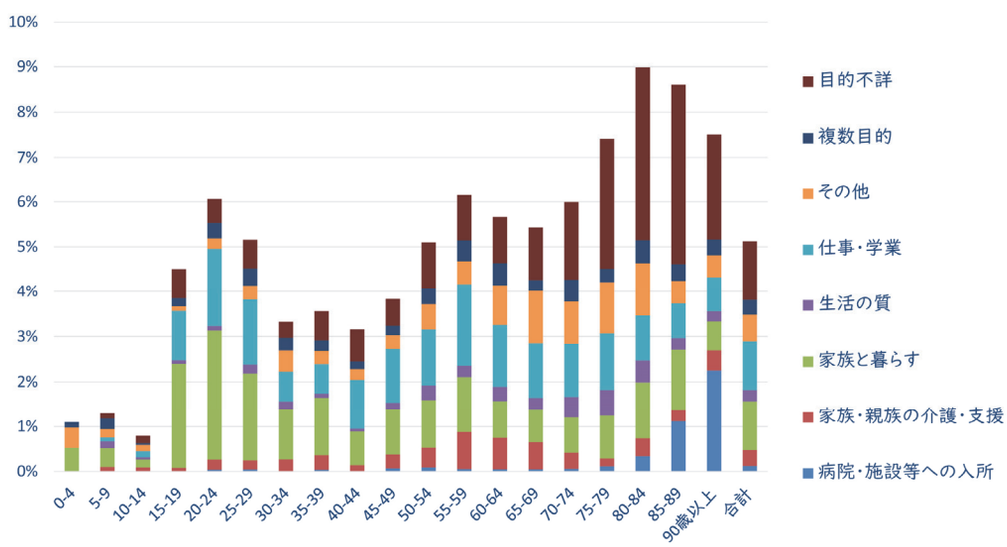
다지역 거주의 목적



자료: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25),「제9회 인구이동조사」보고서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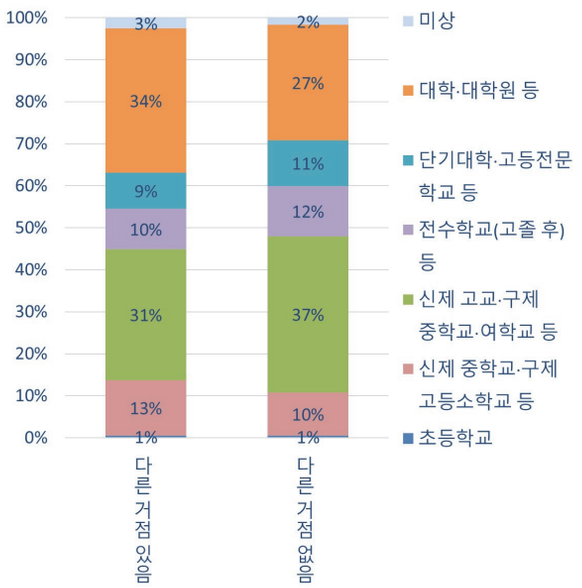
多地域居住の目的



資料: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25)「第9回人口移動調査」報告書

21

학력별로 본 다지역 거주
고학력자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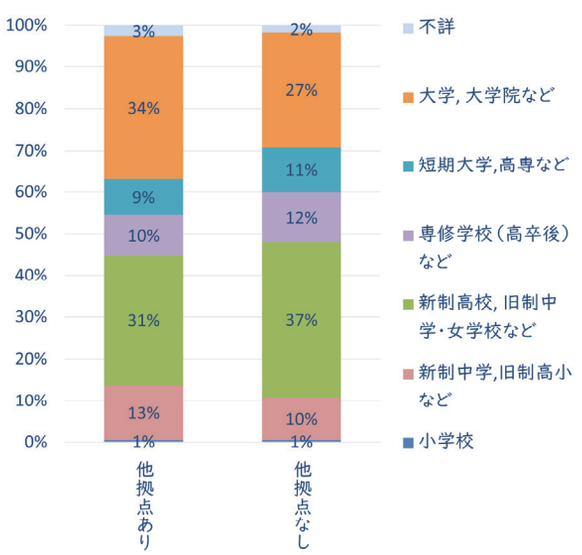


- 다거점 거주자의 대졸 비율은 33%로, 1거점 거주자의 25%보다 높음
- 향후 세대효과로 대졸자가 늘면 다거점 거주가 증가할 가능성

자료: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25), 「제9회 인구이동조사」

22

学歴別にみた多地域居住
高学歴が多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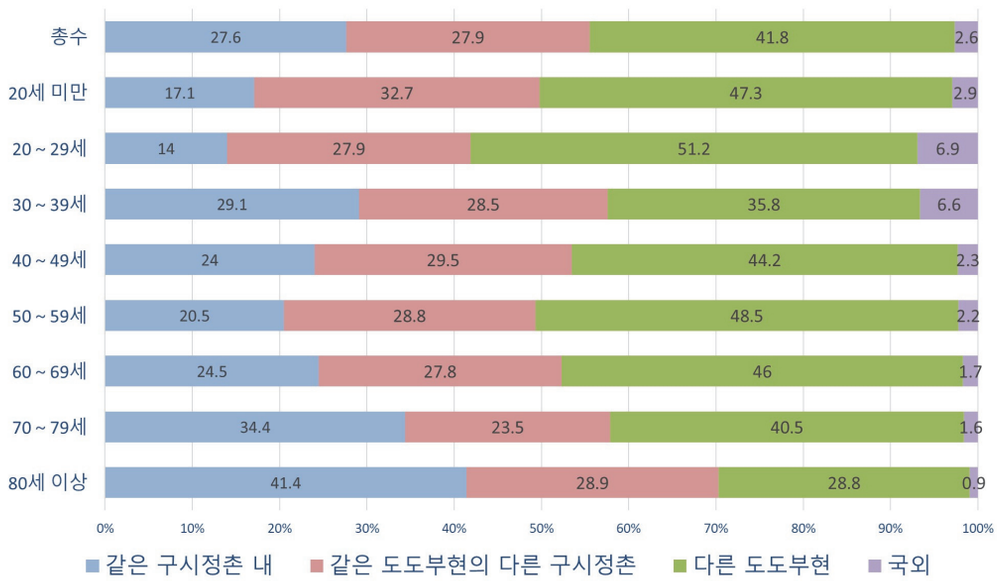


- 多拠点居住者は大学卒の割合が33%で、1拠点居住者の25%よりも高い
- 今後世代効果により大卒が増えると多拠点居住が増える可能性

資料: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25）「第9回人口移動調査」

22

다른 거점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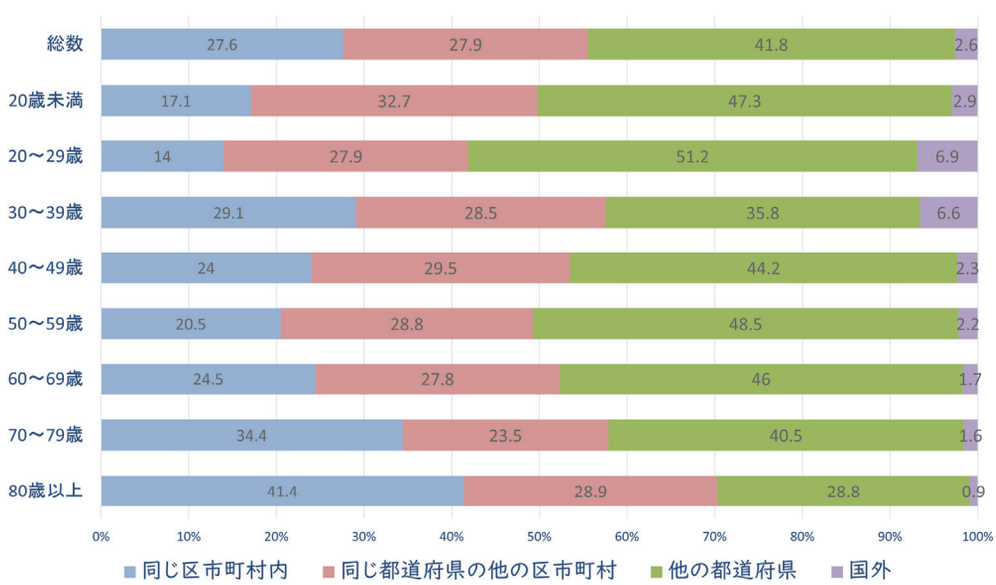
고령일수록 가까운 곳이 많음(30 ~ 40대 제외)

주: 다른 거점이 여러 곳이면, 지난 1년간 가장 오래 머문 거점을 기준으로 함

자료: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25), 「제9회 인구이동조사」 보고서

23

他拠点の場所



高齢になるほど近くが多い（30〜40歳代を除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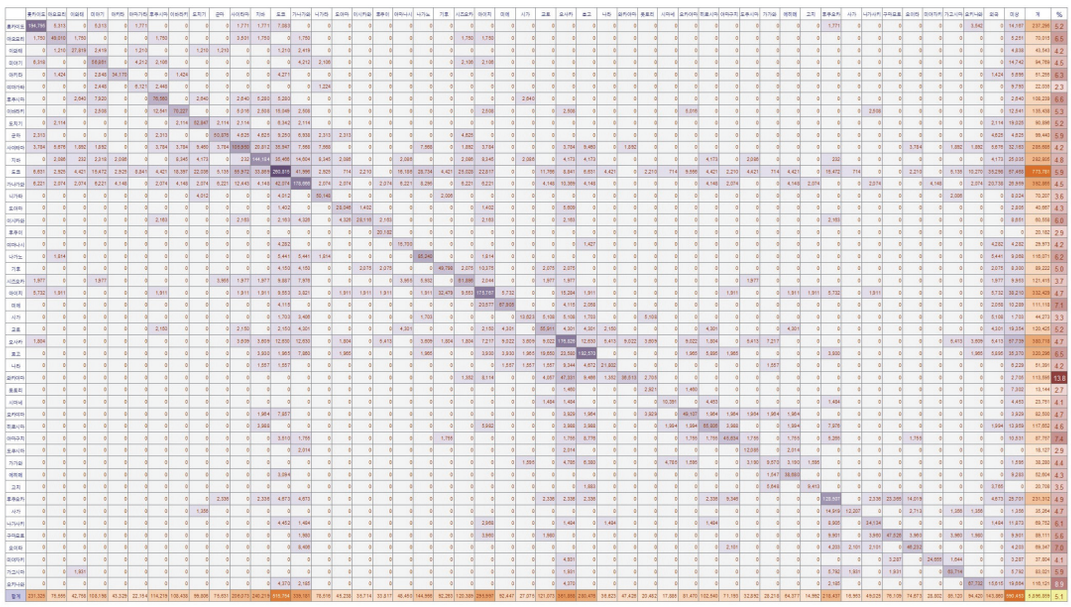
注: 複数の多拠点がある場合は、過去1年間に最も長くいる拠点について

資料: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25）「第9回人口移動調査」報告書

23

거주 현과 다른 거점이 있는 현

다른 거점 소재 도도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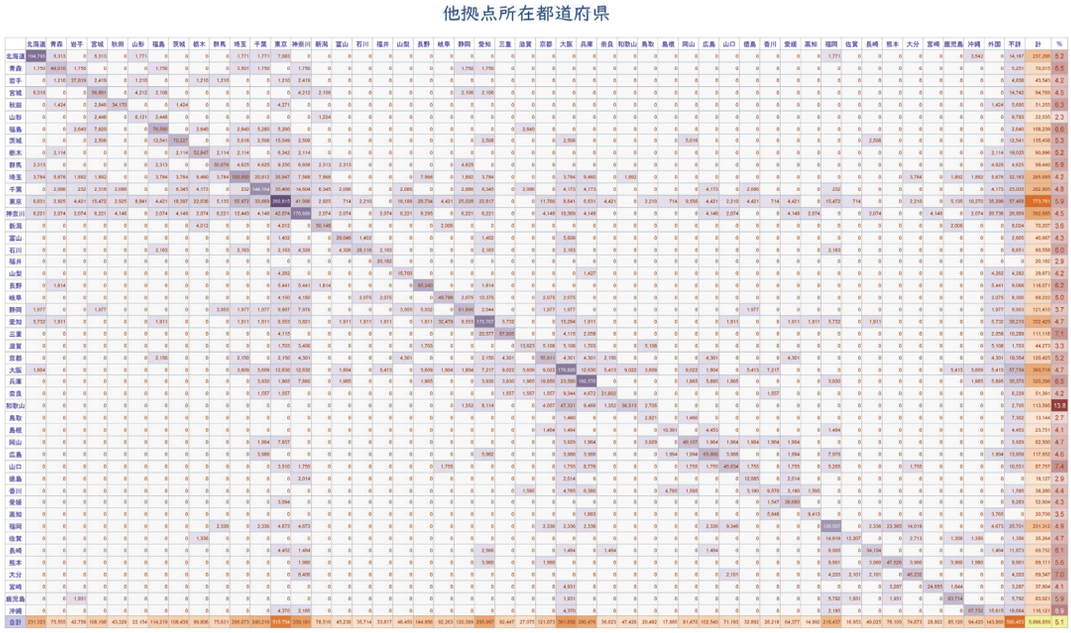


도쿄권·오사카권의 군집 / 도쿄권 거주자는 다른 거점이 많고, 다른 지역 거주자의 거점도 도쿄권에 많음
주: 거주(조사)지가 부차적인 거점일 가능성도 있음.

24

居住県と他拠点がある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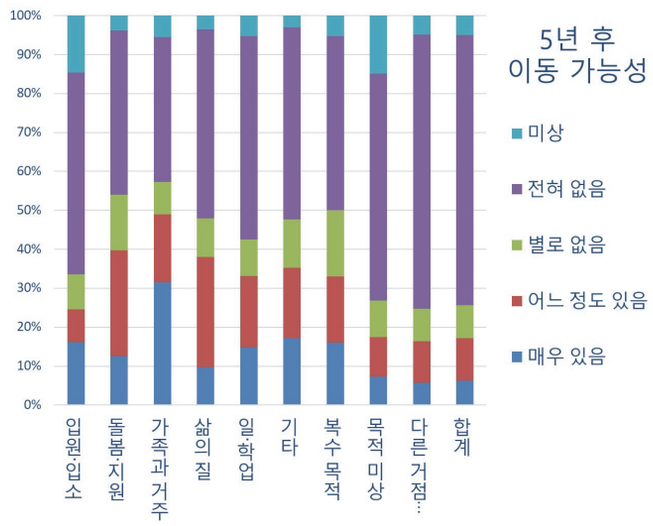
他拠点所在都道府県



東京圏、大阪圏のクラスター/東京圏居住者は他拠点が多く、他地域居住者の他拠点も多い
注:居住(調査)地が二次的な拠点である可能性もある。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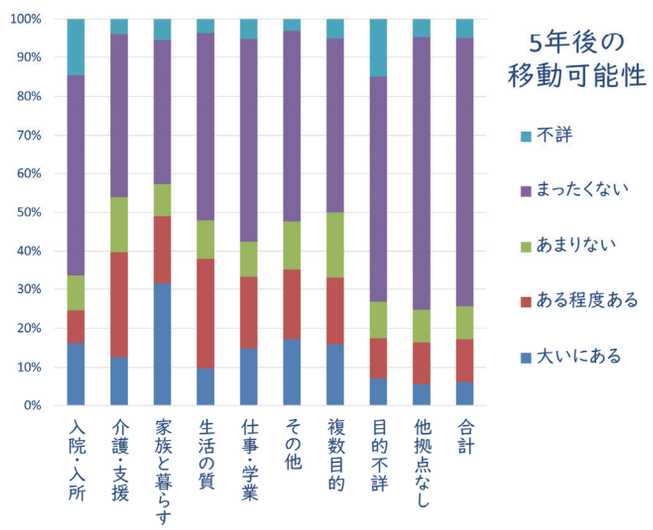
다거점 거주는 이동·이사의 첫걸음



- 5년 후 이동 가능성은 다거점 거주자에게서 높음
- 그러나 다거점 거주자도 절반 정도는 이동 가능성이 없음

25

多拠点居住は移動の引っ越しの第一歩



- 5年後の移動可能性は多拠点居住者で高い
- しかし多拠点居住者でも半分程度は移動の可能性がない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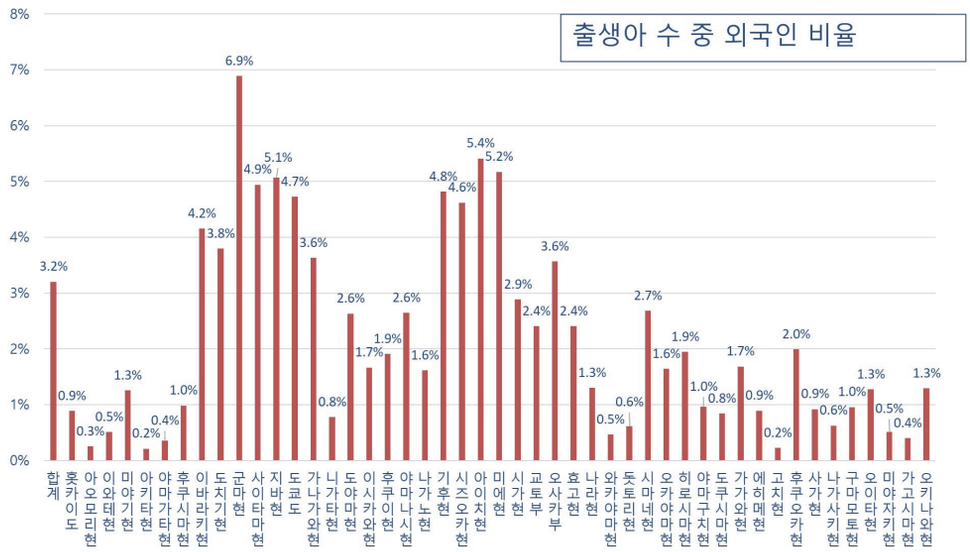
외국 배경 인구

26

外国ルーツ人口

26

지역창생과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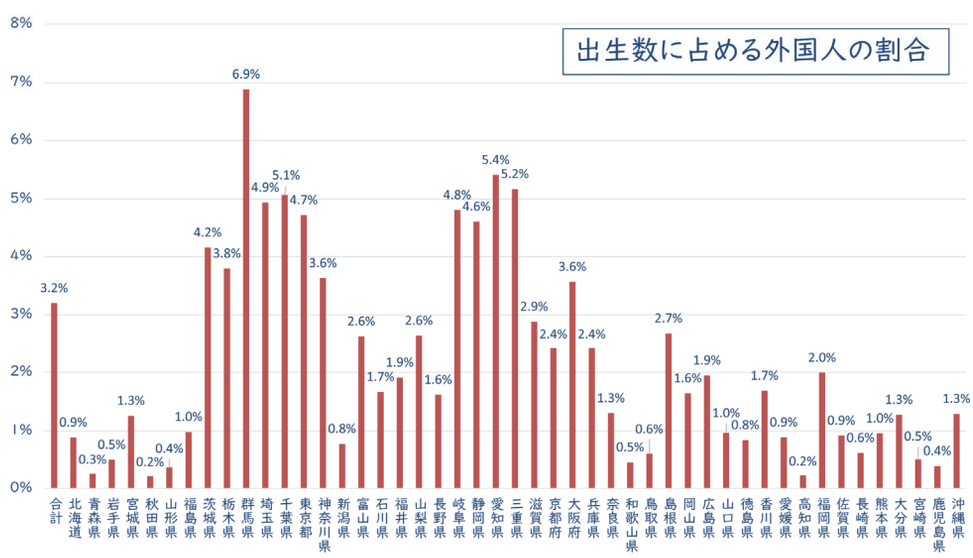


외국인 및 외국 배경 아동의 교육·행정서비스 수요 증가

주: 분모는 레이와 7년 1월 1일 주민기본대장 인구, 분자는 레이와 6년(1월 1일~12월 31일) 출생아 수.
이중국적자는 일본인으로 집계되므로, 외국 배경을 가진 아동의 비율은 이보다 높음.
자료: 주민기본대장에 기초한 인구·인구동태 및 가구 수 조사(총무성 자치행정국)

27

地域創生と外国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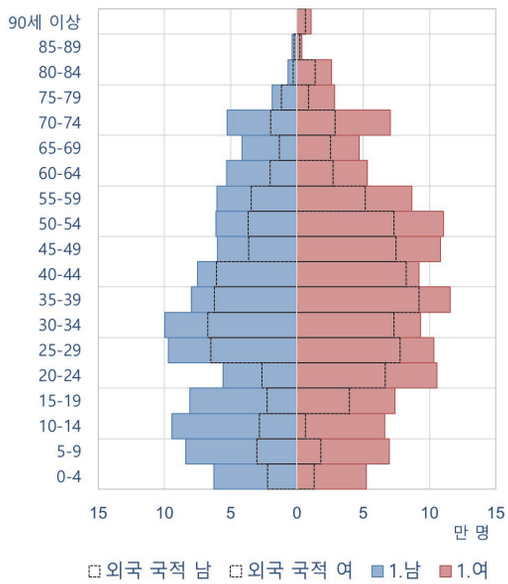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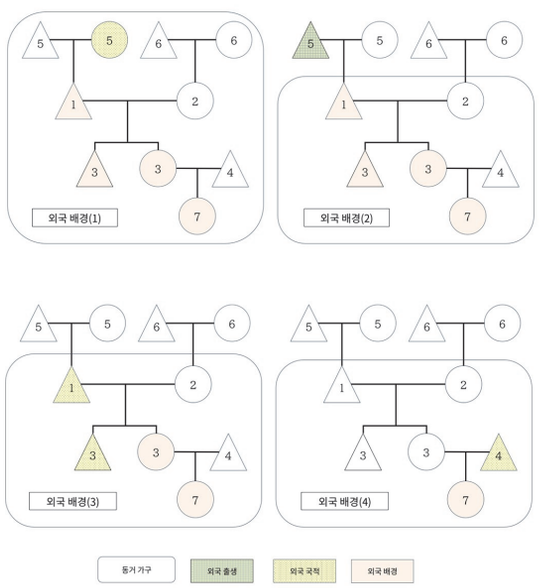
外国人、外国にルーツを持つ子どもの教育、行政サービスのニーズが増加

注: 分母は令和7年1月1日住民基本台帳人口、分子は令和6年(1月1日から同年12月31日まで)出生数。
二重国籍の場合は日本人に計上されるため、外国ルーツを持つ子どもの割合はこれよりも多いということになる。
資料: 住民基本台帳に基づく人口、人口動態及び世帯数調査(総務省自治行政局)

27

IPSS「인구이동조사」(2023년)를 이용한 결과 외국 배경 인구는 외국 국적 인구의 1.76배로 추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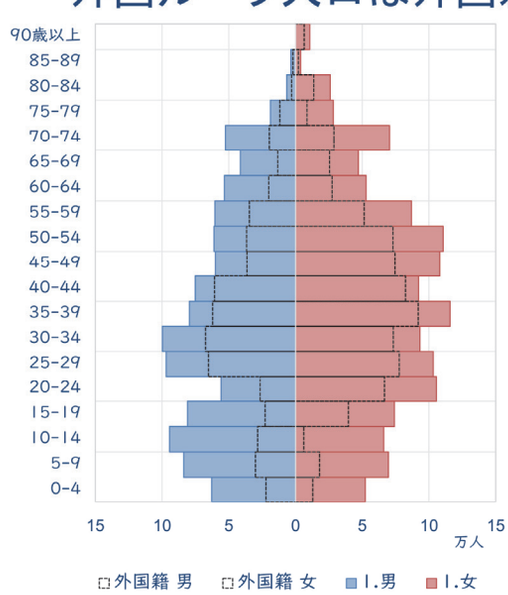
	조사 응답 n	환산 인구	%
외국 국적 인구	936	3,223,858	2.6%
외국 배경 인구	1,484	5,664,436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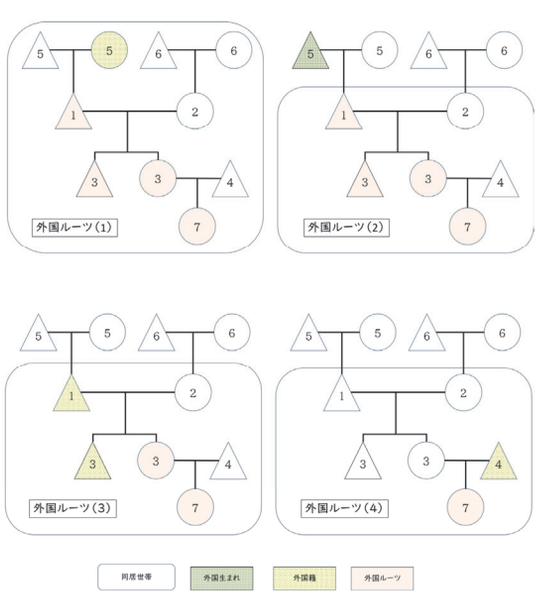
다른 방법으로 1.5배(2015년)라는 추계도 있음(고레카와 2018)

출처: 하야시(2026),「일본의 외국과 연관된 인구 추계」,『인구문제연구』제82권 제2호, https://ipss.repo.nii.ac.jp/records/2000807

28

社人研「人口移動調査」(2023年)を用いると 外国ルーツ人口は外国籍人口の1.76倍と推計された





	調査回答n	換算人口	%
外国籍人口	936	3,223,858	2.6%
外国ルーツ人口	1,484	5,664,436	4.5%

別の手法による1.5倍(2015年)という推計も(是川2018)

出典: 林(2026)「日本における外国とつながりのある人口の推計」『人口問題研究』第82巻第2号, https://ipss.repo.nii.ac.jp/records/2000807

28

발표 6

発表 6

지역별 부모-자녀 동거율은 동거 선택 경향을 나타내는가
- 인구이동에 의한 선택적 재배치에 착목하여 -

地域別の親子同居率は同居選択傾向を表すのか
- 人口移動による選択的再配置に着目して -

MARUYAMA, Yohei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구조연구부 제2실장

丸山 洋平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構造研究部第2室長

지역별 부모-자녀 동거율은 동거 선택 경향을 나타내는가 —인구이동에 의한 선택적 재배치에 착목하여—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마루야마 요헤이

제7차 한일 사회정책 정례포럼
2026년 11월 3일(화)

자료: 국세조사

1

地域別の親子同居率は同居選択傾向を表すのか —人口移動による選択的再配置に着目し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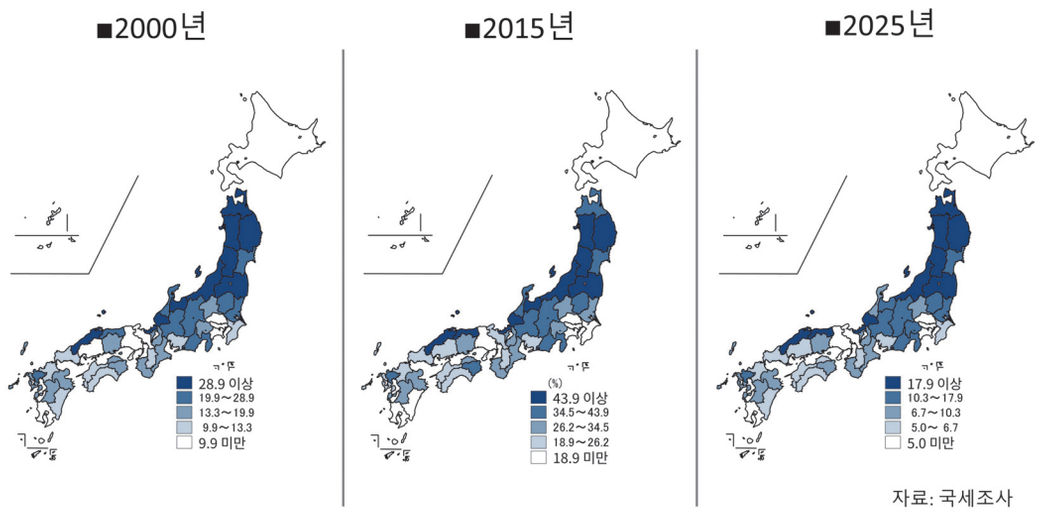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丸山洋平

第7回 日韓社会政策定例フォーラム
2026年11月3日（火）

資料：国勢調査

1

30~49세 유배우자의 부모와의 동거율 (범례: 5분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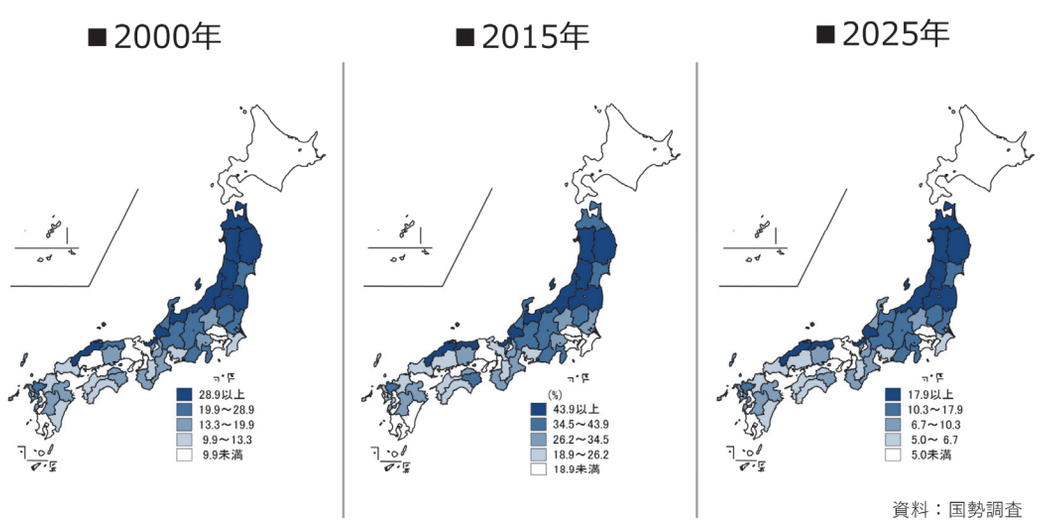


자료: 국세조사

- 잠재적인 경우도 포함한 생식가족 형성기의 3세대 가구 형성률.
-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역적 차이가 유지되고 있음.

2

30～49歳有配偶者の親との同居率（凡例は5分位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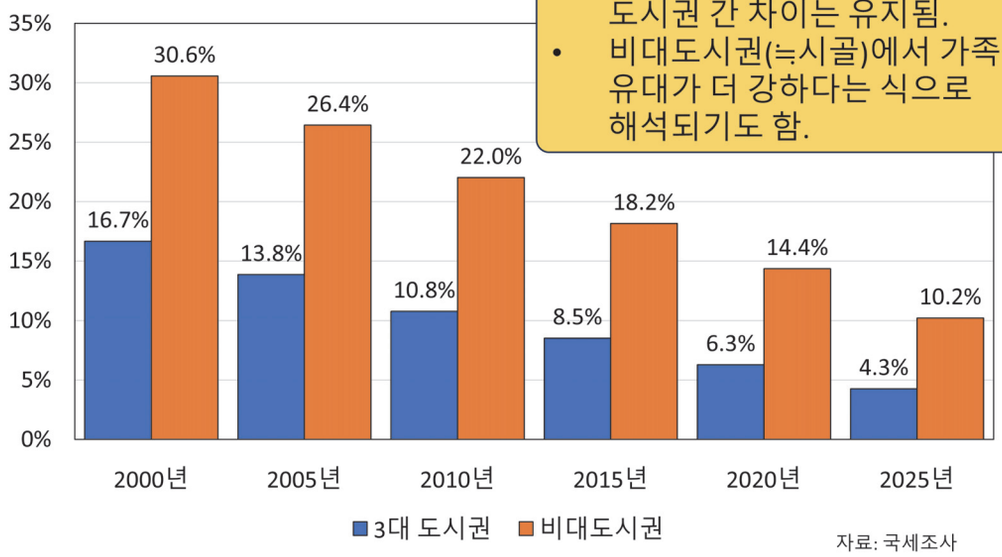
資料：国勢調査

- 潜在的なものも含めた生殖家族形成期における3世代世帯形成率。
- 東高西低の地域的差異が維持されている。

2

30~49세 유배우자의 부모와의 동거율

- 뚜렷하게 하락하는 가운데 도시권 간 차이는 유지됨.
- 비대도시권(≒시골)에서 가족 간 유대가 더 강하다는 식으로 해석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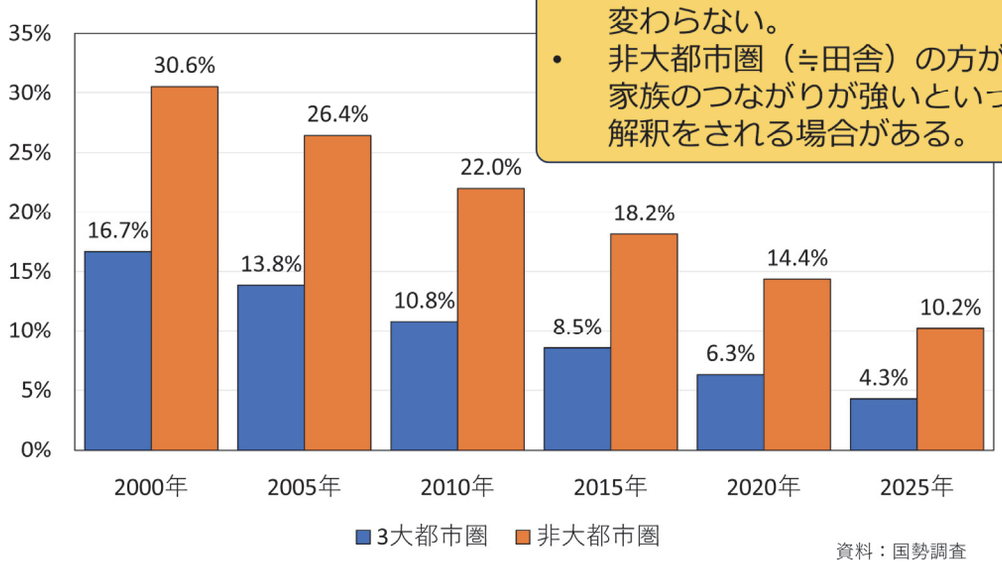
자료: 국세조사

3대 도시권 도쿄권: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나고야권: 기후현, 아이치현, 미에현
오사카권: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나라현

3

30～49歳有配偶者の親との同居率

- 明確に低下しつつ、圏間差異は変わらない。
- 非大都市圏（≒田舎）の方が、家族のつながりが強いといった解釈をされる場合が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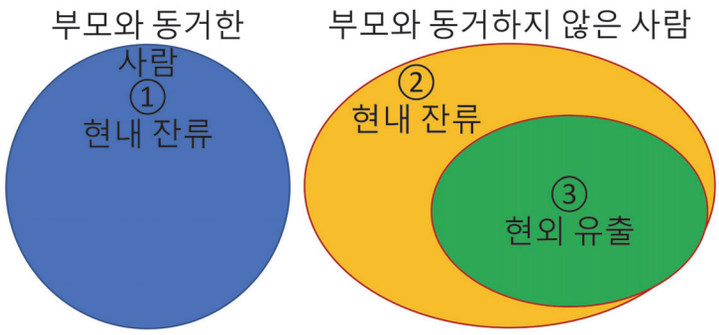
資料：国勢調査

3大都市圏 東京圏：埼玉県、千葉県、東京都、神奈川県
名古屋圏：岐阜県、愛知県、三重県
大阪圏：京都府、大阪府、兵庫県、奈良県

3

인구이동에 따른 선택적 재배치와 지역별 동거율

지방권 지역에서 인구 유입이 없는 상황을 가정



■특정 시점의 부모·자녀 동거율 = ①÷(① +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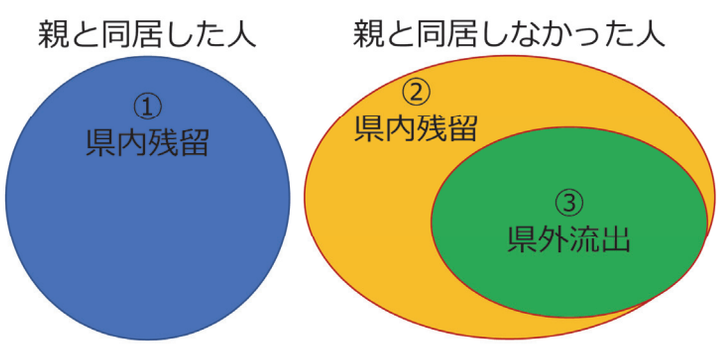
- ③이 많아질수록 ②는 감소하고, 현내 잔류자의 동거율은 높아짐.
- 그 결과, 임의 시점의 동거율은 해당 지역 출신자의 동거율보다 높아질 수 있음.

관찰된 동거율의 지역 차이 ≠ 출신자의 동거 선택 경향의 지역 차이?

4

人口移動による選択的再配置と地域別同居率

地方圏の地域で、人口流入がない状況を想定



■ある時点の親子同居率＝①÷（①＋②）

- ③が多くなるほど②は減少し、県内残留者の同居率は高まる。
- その結果、任意の時点での同居率は、当該地域出身者の同居率より高くなる可能性がある。

観察された同居率の地域差 ≠ 出身者の同居選択傾向の地域差？

4

연구 목적과 내용

■ 부모·자녀 동거율의 지역 차이를 동거 규범의 지역 차이(≒동거 선택 경향의 강약)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

■ 실제로 관찰되는 부모와의 동거율의 지역 차이가 각 지역 출신자의 동거 선택 경향 차이를 어느 정도 나타내는지 검토함.

□ 제8회 인구이동조사(2016)를 이용하여,
① 현외 이동 경험 유무에 따른 부모와의 동거율 차이를 확인함【전국】
② 출신지별로 집계한 동거율과 현 거주지별로 집계한 동거율을 비교함【도도부현】
③ ②에서 얻은 두 동거율의 차이를 통해 인구이동에 따른 선택적 재배치가 지역별 동거율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분석함.

□ 분석 대상은 30~49세 유배우자, 지역 단위는 도도부현

□ 구마모토현은 2016년 지진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5

研究の目的と内容

■ 親子同居率の地域差が、同居規範の地域差（≒同居選択傾向の強弱）を表すものとして解釈される向きがある。

■ 実際に観察される親との同居率の地域差が、各地域出身者の同居選択傾向の違いをどの程度表しているのかを検討する。

□ 第8回人口移動調査（2016）を用いて、
① 県外移動経験の有無による親との同居率の差異を確認する【全国】
② 出身地別に集計した同居率と、現住地別に集計した同居率を比較する【都道府県】
③ ②で得られる2つの同居率の差から、人口移動に伴う選択的再配置が地域別同居率にどの程度反映されているかを分析する。

□ 分析対象は30～49歳有配偶者、地域スケールは都道府県

□ 熊本県は2016年の震災のため、調査対象外となっている。

5

부모·자녀 동거에 관한 선행연구

■ 부모·자녀 동거의 지역 차이와 가족 규범

- 시미즈(1992)
  - 홋카이도, **남부 간토, 서부 긴키, 시코쿠, 규슈**에서 핵가족 지향이 강함.
- 시미즈(1996)
  - 75세 이상 고령자의 자녀와의 동거율은 **도호쿠·호쿠리쿠**에서 높고, **남부 간토** 및 **서부 긴키 이서 지역**에서 비교적 낮음.
  - **서남부 일본(특히 남부 규슈)**에서는 부부가족제를, **도호쿠·호쿠리쿠**에서는 직계가족제를 바람직한 가족으로 보는 인식이 강함.
- 다부치·나카자토(2004), 다부치(2006)
  - **서남부 일본**에 거주하면 동거에 비해 근거리 거주의 가능성이 높아짐.
- 지토세(2013)
  - **직계가족 우세 지역(도호쿠·호쿠리쿠)**은 별거 확률이 낮고, **핵가족 우세 지역(시코쿠·규슈)**은 별거 확률이 높음.

6

親子同居の既往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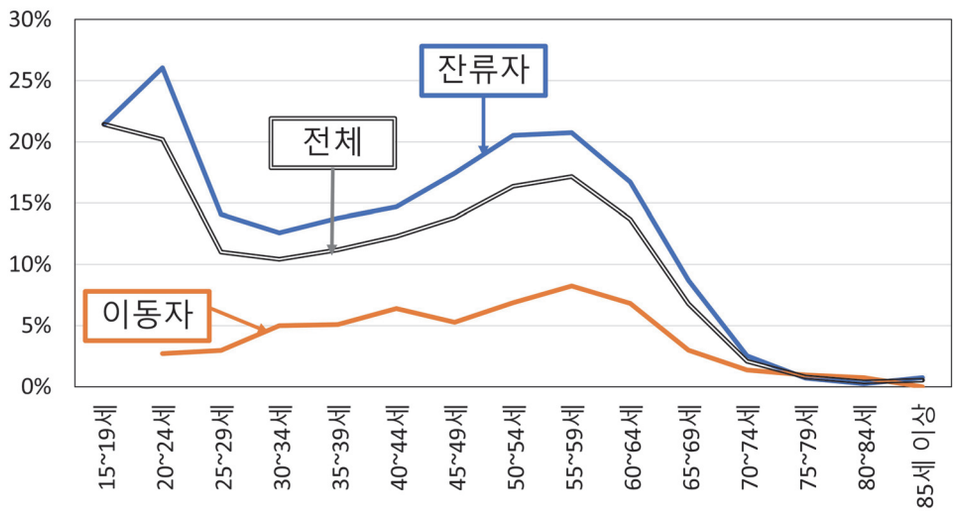
■ 親子同居の地域差と家族規範

- 清水（1992）
  - 北海道、**南関東、西近畿、四国、九州**で核家族志向が強い。
- 清水（1996）
  - 75歳以上高齢者の子どもとの同居率は**東北・北陸**で高く、**南関東**および**西近畿以西の地域**で比較的低い。
  - **西南日本（特に南九州）**では夫婦家族制、**東北・北陸**では直系家族制を望ましい家族であるとする考え方が強い。
- 田渕・中里（2004）、田渕（2006）
  - **西南日本**に居住していることは同居に対して近居の可能性を高める。
- 千年（2013）
  - **直系家族優位地域（東北・北陸）**は別居確率が低く、**核家族優位地域（四国・九州）**は別居確率が高い。

6

전국: 이동 이력에 따른 부모와의 동거율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와의 동거율(유배우, 남녀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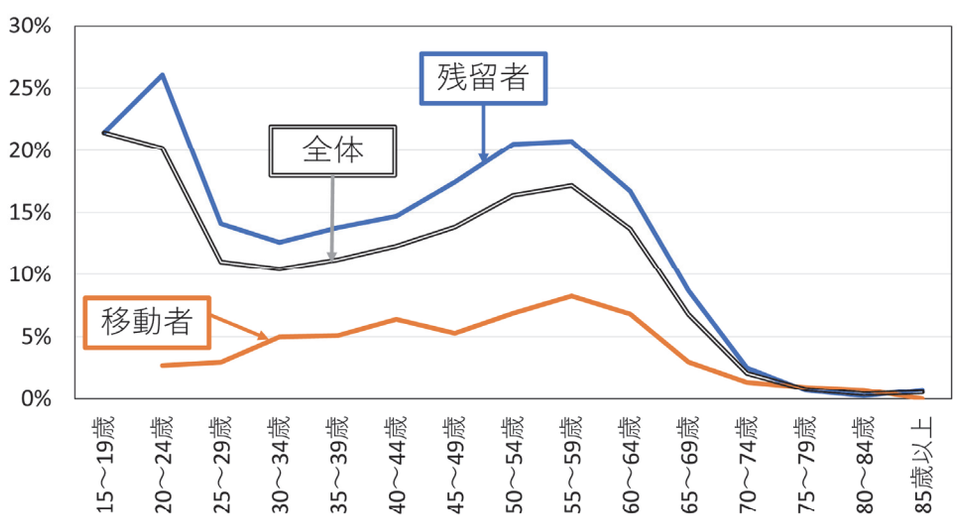
잔류자: 중학교 졸업 당시 거주 도도부현 = 현 거주 도도부현
이동자: 중학교 졸업 당시 거주 도도부현 ≠ 현 거주 도도부현

자료: 제8회 인구이동조사

7

全国：移動歴による親との同居率

いずれかの親との同居率（有配偶、男女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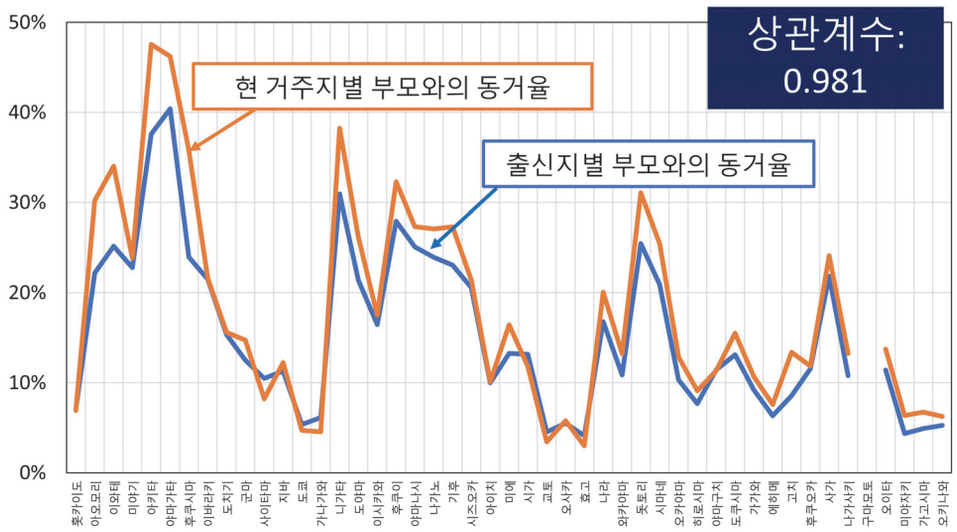
残留者：中学卒業時居住都道府県＝現住都道府県
移動者：中学卒業時居住都道府県≠現住都道府県

資料：第8回人口移動調査

7

출신지와 현 거주지에 따른 부모와의 동거율 차이(1)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와의 동거율(30~49세, 유배우, 남녀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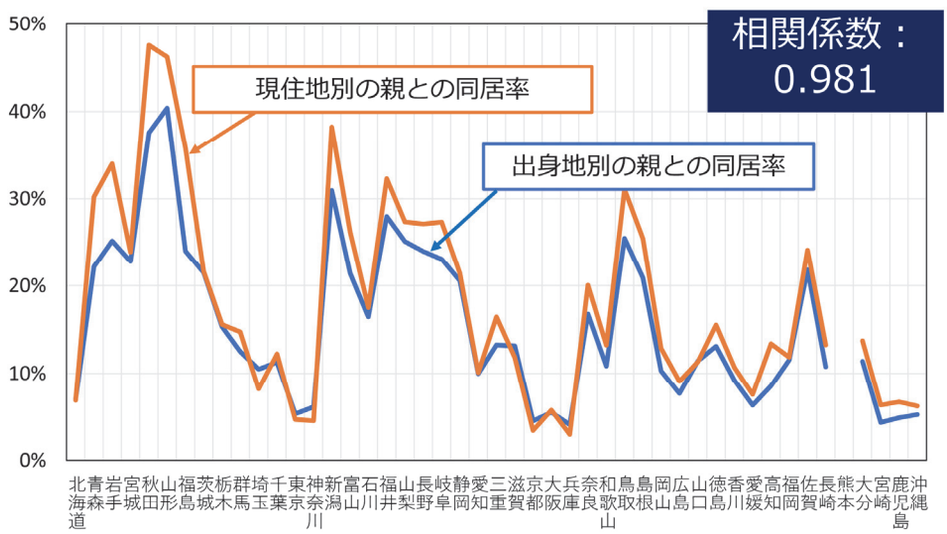
※출신지는 중학교 졸업 당시 거주 도도부현으로 파악

자료: 제8회 인구이동조사

8

出身地と現住地による親との同居率の違い（1）

いずれかの親との同居率（30～49歳、有配偶、男女計）



※出身地は中学卒業時居住都道府県で把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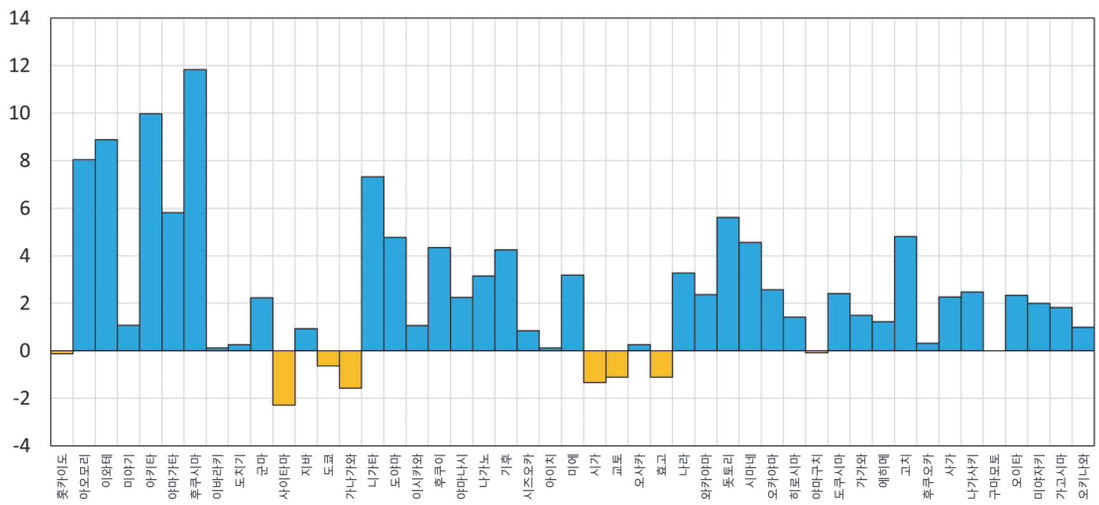
資料：第8回人口移動調査

8

출신지와 현 거주지에 따른 부모와의 동거율 차이(2)

선택적 재배치에 따른 동거율 차이(%포인트)

【현 거주지별 동거율－출신지별 동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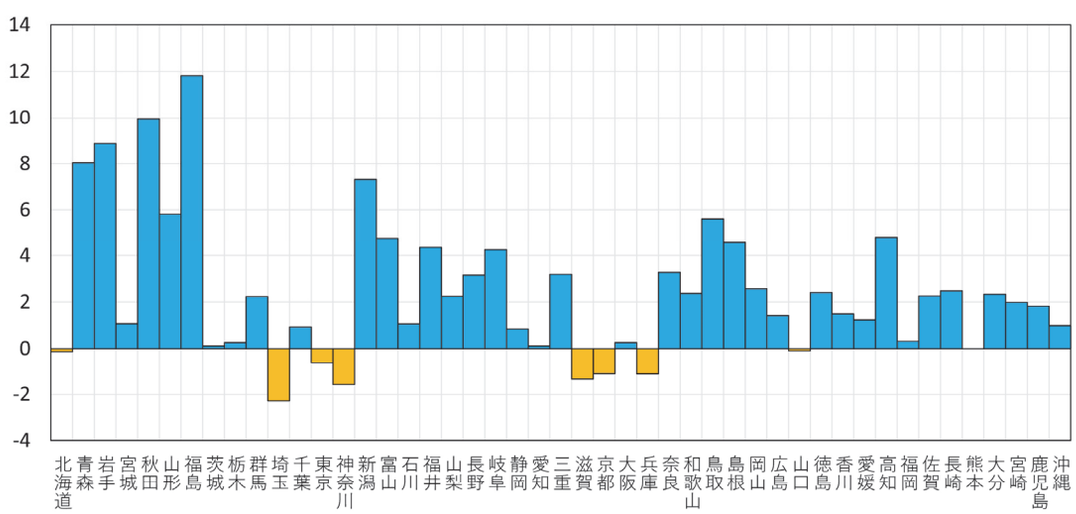
자료: 제8회 인구이동조사

9

出身地と現住地による親との同居率の違い（2）

選択的再配置に伴う同居率の差（%ポイント）

【現住地別同居率－出身地別同居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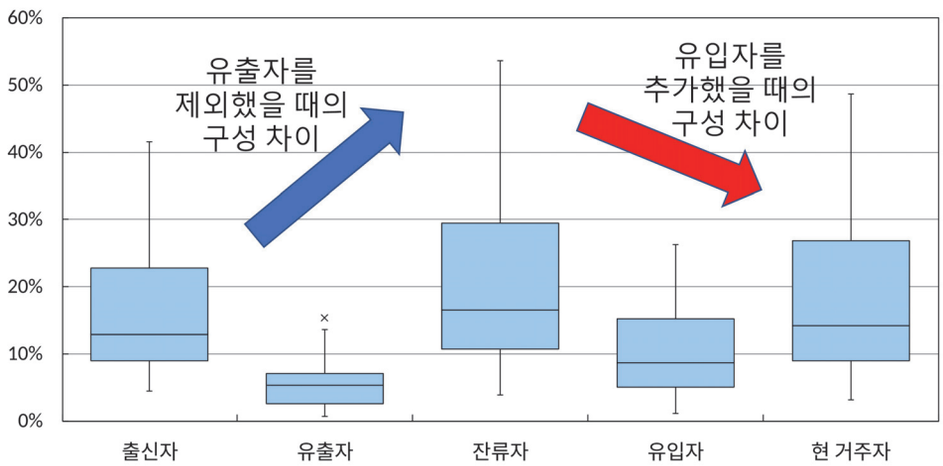


資料：第8回人口移動調査

9

이동 이력별 부모와의 동거율 비교(도도부현)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와의 동거율(30~49세, 유배우, 남녀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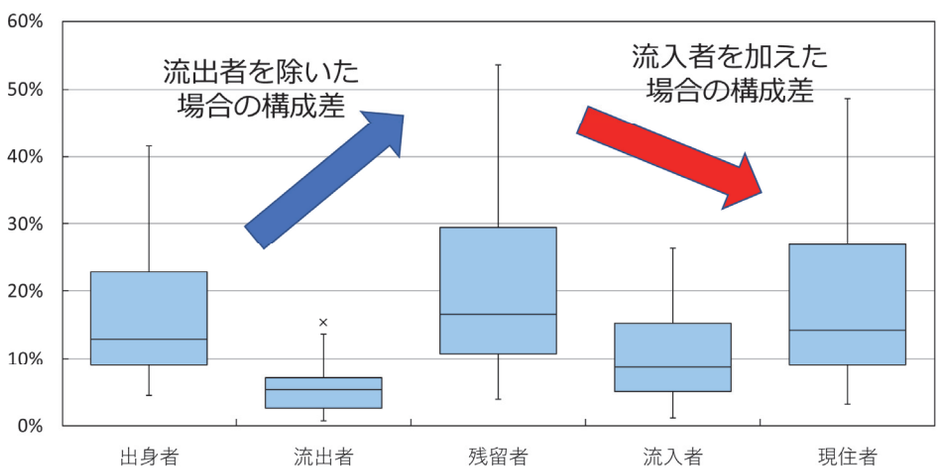
자료: 제8회 인구이동조사

※ 상자수염그림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90백분위수, 75백분위수, 중앙값, 25백분위수, 10백분위수를 나타냄

10

移動歴別親との同居率の比較（都道府県）

いずれかの親との同居率（30～49歳、有配偶、男女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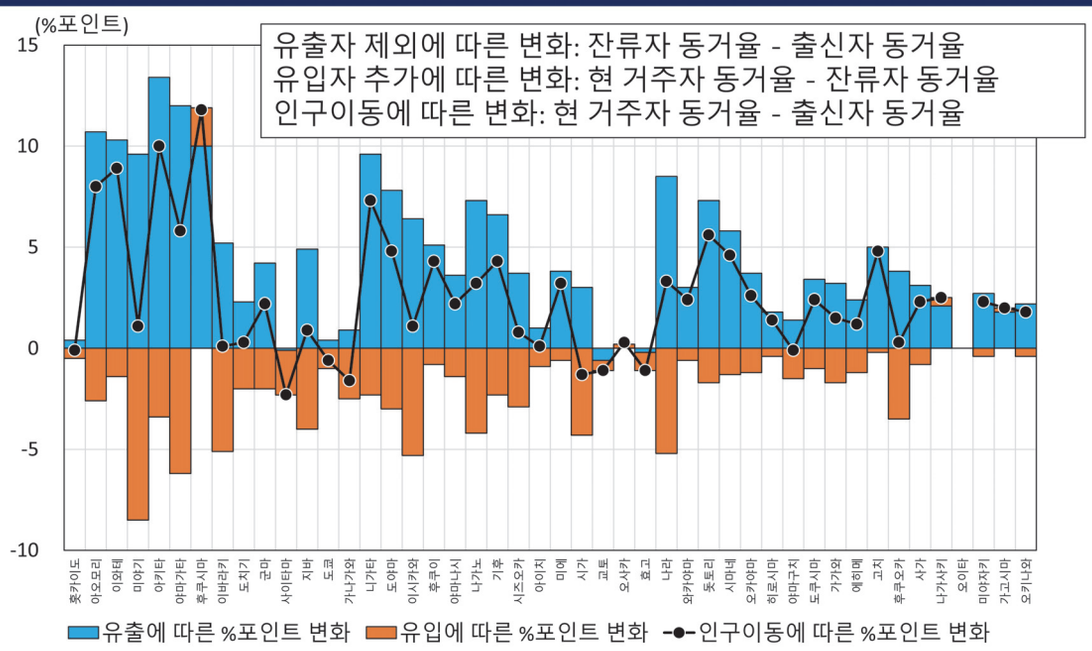


資料：第8回人口移動調査

※ 箱ひげ図は上から順に90パーセンタイル値、75パーセンタイル値、中央値、25パーセンタイル値、10パーセンタイル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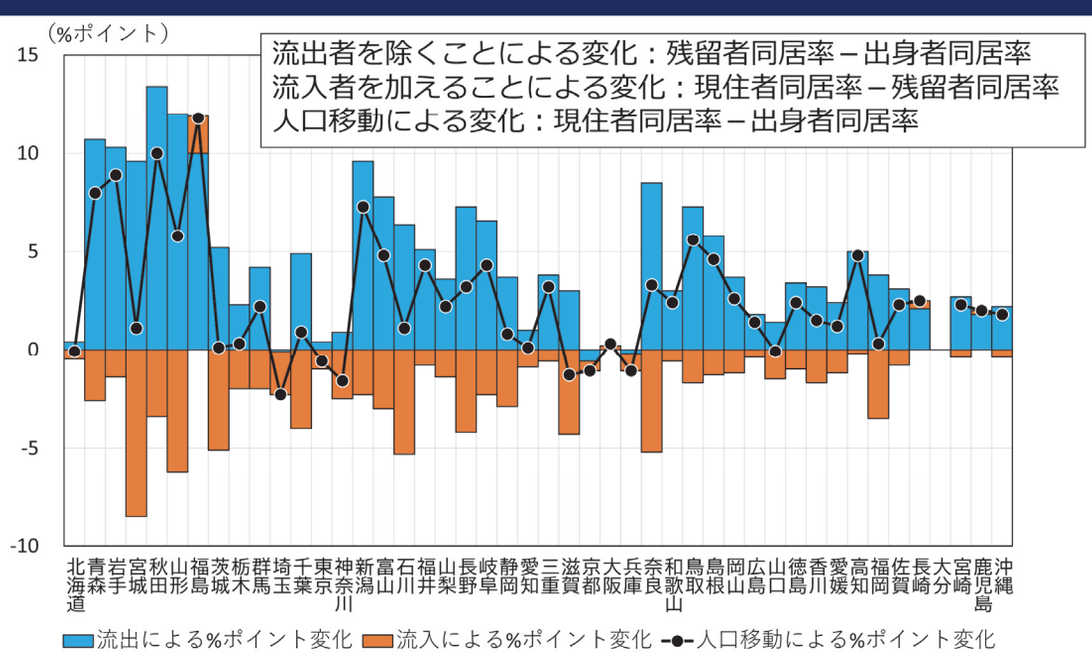
10

인구이동에 따른 부모와의 동거율 변화



자료: 제8회 인구이동조사 11

人口移動による親との同居率の変化



資料：第8回人口移動調査 11

결론

① 현외 이동자는 출신 도도부현에 현재도 거주하는 사람보다 부모와의 동거율이 낮음.

② 이러한 선택적 재배치를 반영하여, 인구 유출이 큰 비대도시권에서는 현 거주지별 동거율이 출신지별 동거율보다 높은 경향이 나타남.

③ 따라서 지역별 동거율을 그대로 '동거 선택 경향'으로 해석하기보다 인구이동에 따른 선택적 재배치의 실태를 고려해야 함.

④ 다만 현 거주지별 동거율과 출신지별 동거율 간 상관은 매우 높음.

➢ 인구이동은 지역 차이의 수준을 변화시키지만, 지역 간 상대적인 높고 낮음의 관계를 크게 바꾸지는 않음.

□ 지역별 부모와의 동거율은 부모와의 동거 선택 경향을 완전히 나타내지는 않지만, 상대적인 지역 간 차이를 파악하는 대리지표로서 일정한 유용성이 있음을 시사함.

12

結論

① 県外移動者は、出身都道府県に現在も居住する者よりも親との同居率が低い。

② このような選択的再配置を反映し、人口流出の大きい非大都市圏では、現住地別同居率が出身地別同居率を上回る傾向が見られる。

③ したがって、地域別同居率をそのまま「同居選択傾向」として解釈するのではなく、人口移動による選択的再配置の実態を考慮する必要がある。

④ ただし、現住地別同居率と出身地別同居率との相関は極めて高い。

➢ 人口移動は地域差の水準を変化させるものの、地域間の相対的な高低関係は大きく変えていない。

□ 地域別の親との同居率は、親との同居選択傾向を完全には表さないが、相対的な地域間差異を把握する代理指標としては一定の有用性を持つことが示唆される。

12

고찰과 전망

◆이번 결과를 일반화하여 생각해 보면

- 동거율뿐 아니라 특정 인구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의 지역 차이를 '그 상태가 될 확률이나 경향의 지역 차이'로 해석하기 쉬움.
- 그러나 조사 시점에 관측되는 지역인구는 과거의 인구이동을 거쳐 형성되었으며, 이동에 어떤 형태로든 선택성이 있다면 관측된 지역 차이에는 인구의 선택적 재배치 영향이 포함됨.
- 따라서 지역별 인구지표를 지역 고유의 행동 경향이나 특성으로 해석할 때는 '누가 그 지역에 남고, 누가 유출되고, 누가 유입된 결과로 그 값이 관측되는가'를 고려해야 함.

□ 지역통계는 해당 지역에서 관측된 상태·행동의 집계일 뿐 아니라, 인구이동을 거쳐 '어떤 속성의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가'라는 인구구성의 결과이기도 함.

13

考察と展望

◆今回の結果を一般化して考えると

- 同居率に限らず、ある人口学的状態を表す指標の地域差を、「その状態になる確率や傾向の地域差」として解釈しがちである。
- しかし、調査時点で観測される地域人口は、過去の人口移動を経て形成されており、移動に何らかの選択性があれば、観測される地域差には人口の選択的再配置の影響が含まれる。
- したがって、地域別人口指標を地域固有の行動傾向や特性として解釈する際には、「誰がその地域に残り、誰が流出し、誰が流入した結果として、その値が観測されているのか」を考慮する必要がある。

□ 地域統計は、その地域で観測された状態・行動の集計であるだけでなく、人口移動を経て「どのような属性の人々がそこに居住しているか」という人口構成の結果でもある。

13

인용문헌

- 시미즈 히로아키(1992),『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지역성』, 지초샤.
- 시미즈 히로아키(1996),「가족구조의 지역성—인구변동과의 관련에서—」, 요제프 크라이너 편,『지역성으로 본 일본—다원적 이해를 위하여—』, pp.65-91.
- 다부치 로쿠로·나카자토 히데키(2004),「노부모와 성인 자녀의 거주 관계 - 동거·인접 거주·근거리 거주·원거리 거주를 중심으로」, 와타나베 히데키 외 편,『현대 가족의 구조와 변용』, 도쿄대학출판회, pp.121-148.
- 다부치 로쿠로(2006),「고령기의 부모·자녀 관계」,『계간 가계경제연구』, No.70, pp19-27.
- 지토세 요시미(2013),「최근 세대 간 거주 관계의 변화」,『인구문제연구』, 69-4, pp.4-24.

14

引用文献

- 清水浩昭（1992）『高齢化社会と家族構造の地域性』時潮社
- 清水浩昭（1996）「家族構造の地域性―人口変動との関連で―」ヨーゼフ・クライナー編『地域性から見た日本―多元的理解のために―』，pp.65-91.
- 田渕六郎・中里秀樹（2004）「老親と成人子の居住関係－同居・隣居・近居・遠居をめぐって」渡辺秀樹他編『現代家族の構造と変容』東京大学出版会，pp.121-148.
- 田渕六郎（2006）「高齢期の親子関係」『季刊家計経済研究』No.70, pp19-27.
- 千年よしみ（2013）「近年における世代間居住関係の変化」『人口問題研究』69-4，pp.4-24.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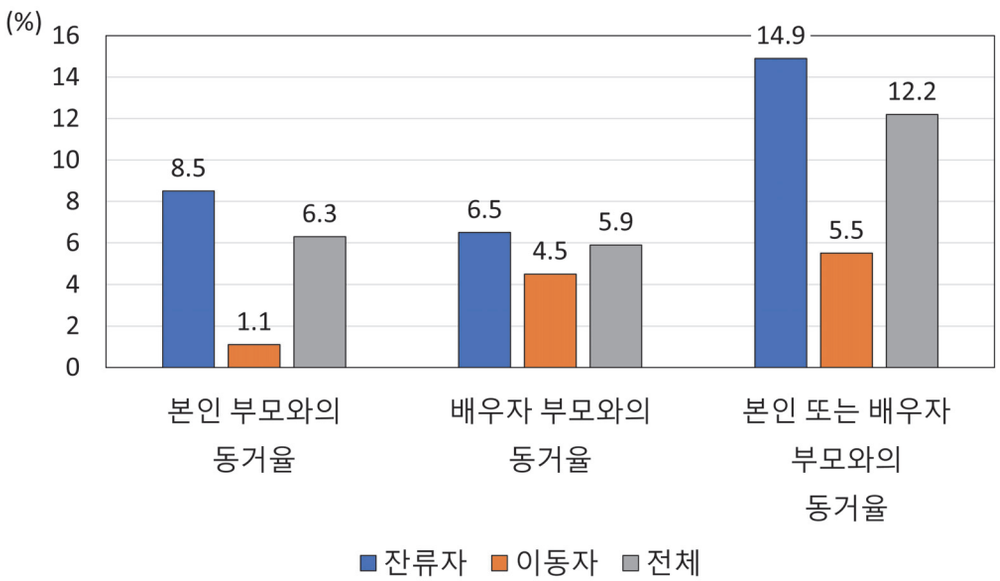
- 이하 참고자료

15

- 以下、参考資料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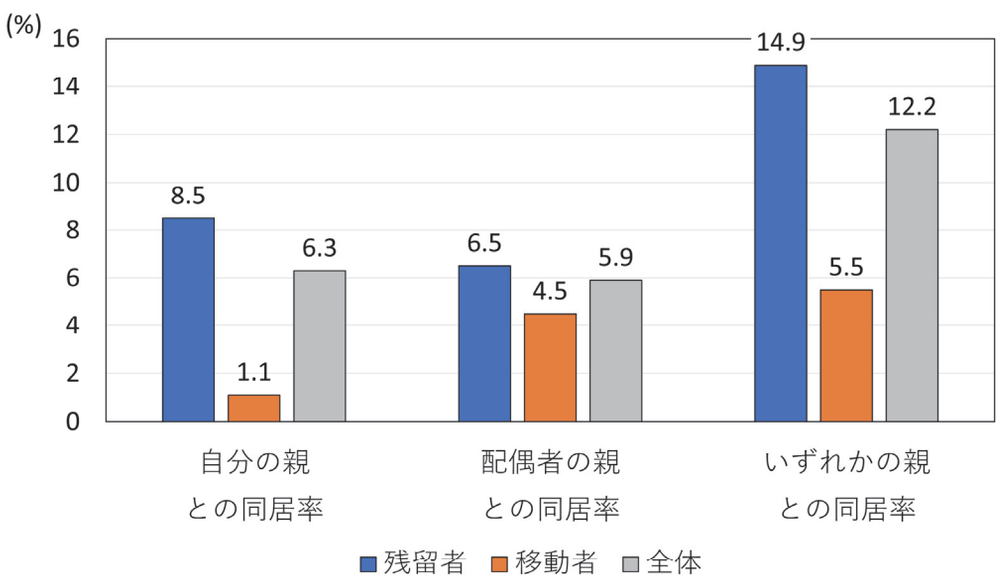
전국: 부모와의 동거율 (남녀 전체, 30~49세, 유배우)



자료: 제8회 인구이동조사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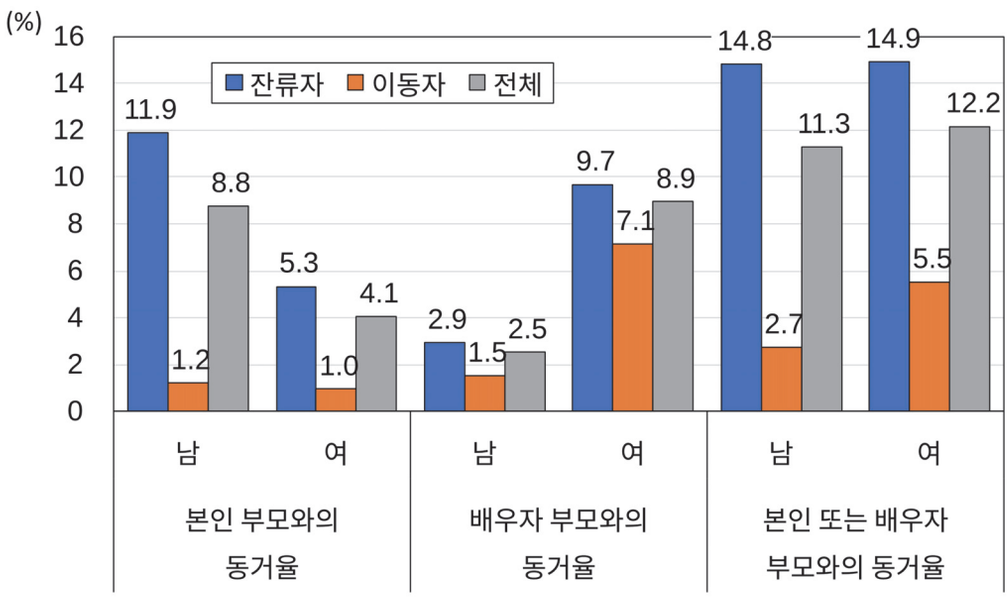
全国：親との同居率 （男女計、30～49歳、有配偶）



資料：第8回人口移動調査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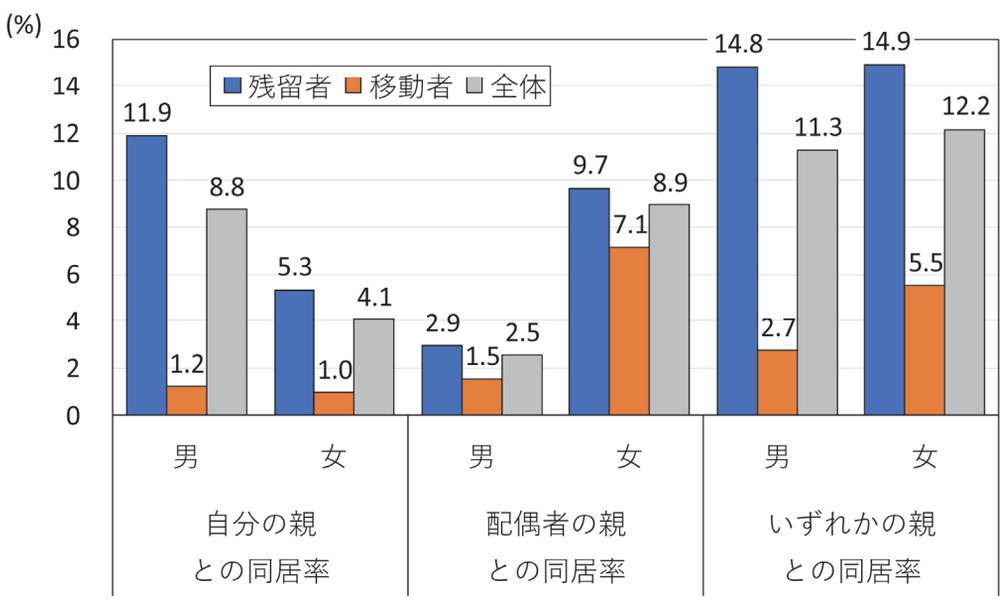
전국: 부모와의 동거율 (남녀별, 30~49세, 유배우)



자료: 제8회 인구이동조사

17

全国：親との同居率 （男女別、30～49歳、有配偶）



資料：第8回人口移動調査

17

세션. 3

Session. 3

결혼·출산
結婚・出産(日韓共同研究)

발표 1

発表 1

미혼인구의 결혼·출산 가치관과 이성교제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未婚人口の結婚・出産観と異性交際に関する韓日比較研究

조성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チョ・ソンホ | 韓国保健社会研究院 研究委員

SUGA, Keita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구조연구부 제1실장

菅 桂太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構造研究部第1室長

제7차 한·일 사회정책 정례포럼
2026년 11월 4일(수) 10:00~12:00
세션 3. 결혼·출산

미혼인구의 결혼 · 출산 가치관과 이성교제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조성호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uga Keita 인구구조연구부 제1실장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이 연구는 日韓文化交流基金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IPSS

1

第 7 回 韓・日社会政策定例フォーラム
2026 年 11 月 4 日 (水) 10:00~12:00
セッション 3. 結婚・出産

未婚人口の結婚・出産観と異性交際に関する韓日比較研究

チョ・ソンホ 研究委員（韓国保健社会研究院）
Suga Keita 人口構造研究部 第 1 室長（日本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KIHASA 韓国保健社会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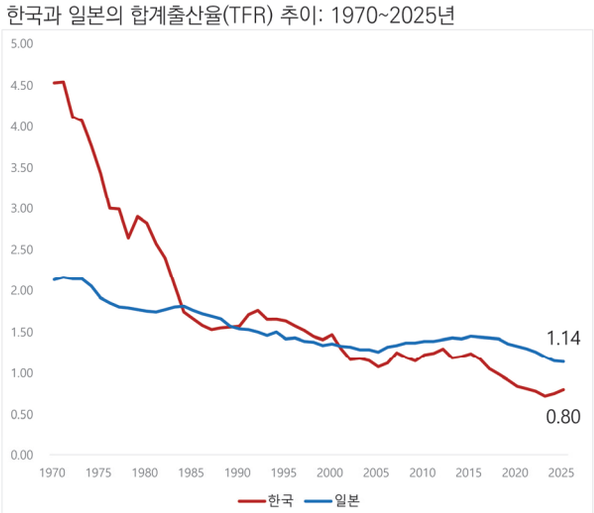
本研究は日韓文化交流基金の助成を受けて実施された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IPS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과 일본의 합계출산율(TFR) 추이: 1970~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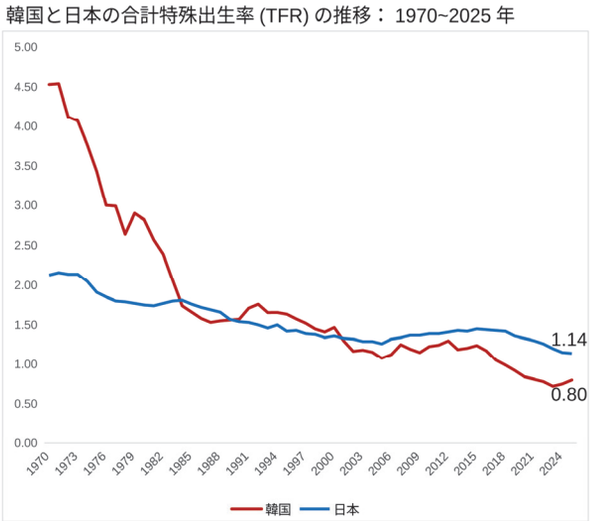
자료: 한국-통계청「인구동향조사」, 일본-厚生労働省「人口動態統計」

- 양국은 유교적 배경, 산업·노동시장 구조, 가족 형성 규범을 공유 ⇒ 비교의 정당성. 그럼에도 **TFR 격차**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 혼외출산 비율이 총출생의 5% 내외 이하로 OECD 최저 수준(OECD, 2025) ⇒ 만혼화·미혼화 ⇒ 결혼 감소 ⇒ 출산 감소. **결혼은 출산의 선행지표**
- 결혼 이전 단계인 **이성교제**는 가족 형성의 출발점이지만 학술적·정책적 관심이 적고 실증연구도 소수
- 경제적 요인은 가족 형성 단계에 따라 방향이 다를 수 있음: 출산 단계에서는 기회비용(Becker, 1991), 이성교제 단계에서는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자원**일 가능성
- 이성교제는 결혼·출산 가치관과 밀접(茂木・石田, 2019) ⇒ **가치관도 함께 분석**

2

研究の背景と目的

韓国と日本の合計特殊出生率 (TFR) の推移： 1970~2025 年



資料：韓国 - 統計庁「人口動向調査」、日本 - 厚生労働省「人口動態統計」

- 両国は儒教的背景、産業・労働市場構造、家族形成規範を共有 ⇒ 比較の妥当性。それでも **TFR の格差**はどこから生じるのか？
- 婚外出生の割合は総出生の 5% 前後以下で OECD 最低水準 (OECD, 2025) ⇒ 晩婚化・未婚化 ⇒ 結婚の減少 ⇒ 出生の減少。**結婚は出生の先行指標**
- 結婚に先立つ**異性交際**は家族形成の出発点だが、学術的・政策的関心は低く、実証研究も少ない
- 経済的要因の作用方向は家族形成の段階で異なりうる：出産段階では機会費用 (Becker, 1991) 、異性交際段階では関係形成を**促す資源**である可能性
- 異性交際は結婚・出産観と密接 (茂木・石田 , 2019) ⇒ **価値観も併せて分析**

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과 일본의 미혼 인구 비율 추이: 1990~2020년

		한국							일본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남성	20 – 24세	96.4	96.3	97.5	98.2	98.8	98.8	99.2	93.6	93.3	92.9	93.5	94.0	95.3	95.7
	25 – 29세	57.3	64.4	71.0	81.8	85.4	90.0	92.2	65.1	67.4	69.4	71.4	71.8	74.6	76.4
	30 – 34세	13.9	19.4	28.1	41.3	50.2	55.8	65.9	32.8	37.5	42.9	47.1	47.3	49.8	51.8
	35 – 39세	3.8	6.6	10.6	18.4	26.7	33.0	37.8	19.1	22.7	26.2	31.2	35.6	37.3	38.5
	40 – 44세	1.5	2.7	4.9	8.5	14.4	22.5	27.2	11.8	16.5	18.7	22.7	28.6	31.9	32.2
	45 – 49세	0.8	1.3	2.4	4.5	7.5	13.9	20.5	6.8	11.3	14.8	17.6	22.5	27.4	29.9
여성	20 – 24세	80.5	83.3	89.1	93.7	96.0	96.8	98.0	86.0	86.8	88.0	88.7	89.6	91.8	93.0
	25 – 29세	22.1	29.6	40.1	59.1	69.3	77.3	82.0	40.4	48.2	54.0	59.1	60.3	63.2	65.8
	30 – 34세	5.3	6.7	10.7	19.0	29.1	37.5	46.0	13.9	19.7	26.6	32.0	34.5	36.6	38.5
	35 – 39세	2.4	3.3	4.3	7.6	12.6	19.2	23.3	7.5	10.1	13.9	18.7	23.1	25.5	26.2
	40 – 44세	1.1	1.9	2.6	3.6	6.2	11.3	14.7	5.8	6.8	8.6	12.2	17.4	20.5	21.3
	45 – 49세	0.6	1.0	1.7	2.4	3.3	6.4	9.8	4.6	5.6	6.3	8.3	12.6	17.1	19.2

자료: 한국–인구주택총조사, 일본–국세조사

3

研究の背景と目的

韓国と日本の未婚人口割合の推移： 1990~2020 年

		韓国							日本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男性	20 - 24 歳	96.4	96.3	97.5	98.2	98.8	98.8	99.2	93.6	93.3	92.9	93.5	94.0	95.3	95.7
	25 - 29 歳	57.3	64.4	71.0	81.8	85.4	90.0	92.2	65.1	67.4	69.4	71.4	71.8	74.6	76.4
	30 - 34 歳	13.9	19.4	28.1	41.3	50.2	55.8	65.9	32.8	37.5	42.9	47.1	47.3	49.8	51.8
	35 - 39 歳	3.8	6.6	10.6	18.4	26.7	33.0	37.8	19.1	22.7	26.2	31.2	35.6	37.3	38.5
	40 - 44 歳	1.5	2.7	4.9	8.5	14.4	22.5	27.2	11.8	16.5	18.7	22.7	28.6	31.9	32.2
	45 - 49 歳	0.8	1.3	2.4	4.5	7.5	13.9	20.5	6.8	11.3	14.8	17.6	22.5	27.4	29.9
女性	20 - 24 歳	80.5	83.3	89.1	93.7	96.0	96.8	98.0	86.0	86.8	88.0	88.7	89.6	91.8	93.0
	25 - 29 歳	22.1	29.6	40.1	59.1	69.3	77.3	82.0	40.4	48.2	54.0	59.1	60.3	63.2	65.8
	30 - 34 歳	5.3	6.7	10.7	19.0	29.1	37.5	46.0	13.9	19.7	26.6	32.0	34.5	36.6	38.5
	35 - 39 歳	2.4	3.3	4.3	7.6	12.6	19.2	23.3	7.5	10.1	13.9	18.7	23.1	25.5	26.2
	40 - 44 歳	1.1	1.9	2.6	3.6	6.2	11.3	14.7	5.8	6.8	8.6	12.2	17.4	20.5	21.3
	45 - 49 歳	0.6	1.0	1.7	2.4	3.3	6.4	9.8	4.6	5.6	6.3	8.3	12.6	17.1	19.2

資料：韓国 - 人口住宅総調査、日本 - 国勢調査

3

이론적 배경

- **경제학적 이론(Becker, 1973)**
  - 결혼은 개인의 감정뿐 아니라 서로의 자원과 생산성을 결합하여 효용을 최대화하려는 경제적 선택
  - 남녀 간 시장·비시장 생산성의 비교우위에 따른 분업으로 결혼의 이득(gains from marriage)이 최대화되는 조합에서 결혼이 형성
  - 외모(beauty), 지능(intelligence), 교육(education) ⇒ 비시장 생산성 ⇒ 결혼으로부터의 이득 증대
  - 결혼시장의 성비(sex ratio) 불균형 ⇒ 결혼의 분배구조와 혼인율이 변화. 남성 초과 시장에서는 여성의 희소성(scarcity)으로 여성의 결혼지위가 상승
  - Abramitzky et al.(2011): 1차 대전 후 프랑스에서 남성 사망자 증가 ⇒ 여성의 결혼연령 상승, 남성이 본인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여성과 결혼 ⇒ 성비 변화가 **협상력(bargaining power)의 분배**를 변화시킴. 이 효과는 결혼 이전 단계인 이성교제의 기회 구조에도 적용 가능

  ⇒ 조성호 외(2023): 결혼시장의 인구구조(성비)가 **한일 모두 여성에게 유리한 구조**임을 밝힘

4

理論的背景

- **経済学的理論 (Becker, 1973)**
  - 結婚は個人の感情だけでなく、互いの資源と生産性を結びつけ、効用の最大化を図る経済的選択
  - 男女間の市場・非市場生産性の比較優位に基づく分業により、結婚の利益 (gains from marriage) を最大化する組合せで結婚が成立
  - 容姿 (beauty) 、知能 (intelligence) 、教育 (education) ⇒ 非市場生産性 ⇒ 結婚から得られる利益の増大
  - 結婚市場の性比 (sex ratio) の不均衡 ⇒ 結婚の分配構造と婚姻率が変化。男性過剰の市場では女性の希少性 (scarcity) により女性の結婚上の地位が上昇
  - Abramitzky et al.(2011) ：第 1 次大戦後のフランスで男性の死者が増加 ⇒ 女性の結婚年齢が上昇し、男性は自分より社会的地位の高い女性と結婚 ⇒ 性比の変化が**交渉力 (bargaining power) の分配**を変える。この効果は結婚に先立つ異性交際の機会構造にも適用可能

  ⇒ チョ・ソンホほか (2023) ：結婚市場の人口構造 (性比) は**韓日ともに女性に有利な構造**であることを示す

4

이론적 배경

- **사회학적 이론(Oppenheimer, 1988)**
  - Becker(1973, 1974)의 이론은 1980년대 이후 남녀 초혼 연령의 상승과 동거의 증가를 설명하지 못함 ⇒ 결혼 상대를 찾는 탐색 비용(search costs)과 탐색 마찰(search frictions)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
  - 결혼은 '좋은 짝을 찾는 과정'이며 불완전 정보와 탐색 비용에 좌우됨 ⇒ 결혼 시기는 ① 상대의 장기적 속성을 언제 충분히 알 수 있는가(**불확실성의 감소**), ② 얼마나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가(**탐색 마찰**)에 의해 결정
- **이성교제 = 결혼 이전의 탐색 단계**
  - Becker(1974): 이성교제(dating)는 결혼 매칭 과정에서 서로를 탐색하는 단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결혼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킴
  - Fisman et al.(2006), Belot & Francesconi(2013): 결혼 이전 단계의 탐색과 단기적 선택에 초점 ⇒ 이성교제는 장기적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 상대에 대한 정보 획득과 탐색의 장
  - 진화심리학: 단기(교제)와 장기(결혼) 관계는 연속적이며 상대 선택의 속성이 유사(Buss & Schmitt, 1993) ⇒ 이성교제 분석은 결혼 연구의 기초

5

理論的背景

- **社会学的理論 (Oppenheimer, 1988)**
  - Becker(1973, 1974) の理論は 1980 年代以降の男女の初婚年齢上昇と同棲増加を説明できない ⇒ 結婚相手を探す探索費用 (search costs) と探索摩擦 (search frictions) を全く考慮していないためと批判
  - 結婚は「よい相手を探す過程」であり、不完全情報と探索費用に左右される ⇒ 結婚時期は①相手の長期的属性をいつ十分に知りうるか (**不確実性の減少**) 、②どれほど効率的に探索できるか (**探索摩擦**) によって決まる
- **異性交際 = 結婚に先立つ探索段階**
  - Becker(1974) ：異性交際 (dating) は結婚のマッチング過程で互いを探索する段階。情報の非対称性を解消し、結婚の不確実性を減らす
  - Fisman et al.(2006), Belot & Francesconi(2013) ：結婚に先立つ探索と短期的選択に着目 ⇒ 異性交際は長期的関係に発展しうる相手についての情報獲得と探索の場
  - 進化心理学：短期 (交際) と長期 (結婚) の関係は連続的で、相手選択の属性も類似 (Buss & Schmitt, 1993) ⇒ 異性交際の分析は結婚研究の基礎

5

이론적 배경

- **이성교제 상대 선택의 실증: 스피드 데이팅 자료**
  - Fisman et al.(2006): 남성은 외모(attractiveness) 등 매력도에 민감하게 반응, 여성은 지능(intelligence)·야망(ambition) 등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시. 특히 **남성은 지능·야망이 본인보다 높은 여성을 선택할 확률이 낮음**
  - Belot & Francesconi(2013): 남녀 모두 연령·학력·신장이 유사한 상대를 선택하는 동질적 선호(assortative preference). 그러나 선호보다 중요한 것은 **만남의 기회(meeting opportunity)** ⇒ 선호는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안에서만 작동

- **이론적 정리: 이성교제를 결정하는 세 가지 측면**
  - ① **경제적 자원**: 취업, 소득, 고용의 안정성
  - ② **만남의 기회 구조**: 거주지, 결혼시장의 성비, 부모와의 동거
  - ③ **가치관**: 결혼 의향, 결혼·출산 규범

6

理論的背景

- **交際相手選択の実証：スピードデーティングのデータ**
  - Fisman et al.(2006) ：男性は容姿 (attractiveness) などの魅力に敏感に反応し、女性は知能 (intelligence) ・野心 (ambition) など社会経済的背景を重視。特に**男性は知能・野心が自分より高い女性を選ぶ確率が低い**
  - Belot & Francesconi(2013) ：男女とも年齢・学歴・身長が似た相手を選ぶ同類選好 (assortative preference) 。しかし選好より重要なのは**出会いの機会 (meeting opportunity)** ⇒ 選好は出会える人々の範囲内でしか働かない

- **理論的整理：異性交際を決定する三つの側面**
  - ① **経済的資源**：就業、所得、雇用の安定性
  - ② **出会いの機会構造**：居住地、結婚市場の性比、親との同居
  - ③ **価値観**：結婚意向、結婚・出産規範

6

선행연구

- **한국**
  - 조성호(2014): 독자 조사 자료의 기술통계 분석. 조성호(2018): 한일 비교(한국「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일본 2012년 JGGS). 조성호·변수정(2020): 독자 조사 자료
  - 정규직 유무·소득 등 경제적 요인이 교제를 활성화. 주로 **남성에서 유의**, 여성은 비유의 ⇒ 최근 연구(조성호·변수정, 2020)에서는 여성에서도 유의. **수도권 거주는 양(+)**(지역 간 삶의 질 차이: 임채홍·김정렬, 2013), **부모와의 동거는 음(−)**의 영향
- **일본**
  - 中村・佐藤(2010): 20대. 남성은 고소득, 직장 내 이성 수, 친구와 만나는 빈도 ↑ ⇒ 교제 ↑, 대기업·전문관리직은 ↓(이성과의 접점이 적은 경로를 거쳤기 때문으로 설명, 단 선택 효과 가능성). 여성은 정규직 ↑, 휴일 출근 빈도 ↓
  - 桶川(2013): 20~30대. 남성 소득은 20대 비유의·30대 이상 유의, 여성은 소득 30대 이상·정규직 20대 유의. 직장 밖 이성 접촉 기회, 취미·레저 활동에서 만나는 이성 수는 성별·연령과 무관하게 유의
  - 茂木・石田(2019): JLPS. 고용·소득 등 사회경제적 요인 비유의, 결혼 의향은 매우 강한 유의성
  - Yu & Kuo(2016): 부모와의 동기가 결혼을 줄이는 경로는 결혼 의향의 감소가 아니라 **교제 관계로 정착하려는 동기의 약화** ⇒ 부모 동거는 통제변수가 아닌 핵심 설명변수
- **종합**: 일본은 경제적 요인의 효과에 일관된 결론이 없고(비유의: 조성호 2018, 茂木・石田 2019, Yu & Kuo 2016 vs 유의: 中村・佐藤 2010, 桶川 2013), 한국도 여성의 경제적 요인 효과가 연구마다 상이 ⇒ 자료의 대표성 부족 가능성 ⇒ **전국 대표 자료로 재검토**

7

先行研究

- **韓国**
  - チョ・ソンホ (2014) ：独自調査データの記述統計分析。チョ・ソンホ (2018) ：韓日比較 (韓国「 2012 年全国結婚・出産動向調査」、日本 2012 年 JGGS) 。チョ・ソンホ、ピョン・スジョン (2020) ：独自調査データ
  - 正規雇用の有無・所得などの経済的要因が交際を活性化。主に**男性で有意**、女性では非有意 ⇒ 近年の研究 (チョ・ソンホ、ピョン・スジョン , 2020) では女性でも有意。**首都圏居住は正 (+)**(地域間の生活の質の差：イム・チェホン、キム・ジョンリョル , 2013) 、**親との同居は負 (-)** の影響
- **日本**
  - 中村・佐藤 (2010) ： 20 代。男性は高所得、職場内の異性の数、友人に会う頻度 ↑ ⇒ 交際 ↑、大企業・専門管理職は ↓ (異性との接点が少ない経路を経たためと説明。ただし選択効果の可能性) 。女性は正規雇用 ↑、休日出勤の頻度 ↓
  - 桶川 (2013) ： 20~30 代。男性の所得は 20 代で非有意・ 30 代以上で有意。女性は所得が 30 代以上、正規雇用が 20 代で有意。職場外で異性と接触する機会、趣味・レジャー活動で出会う異性の数は性別・年齢を問わず有意
  - 茂木・石田 (2019) ： JLPS 。雇用・所得など社会経済的要因は非有意、結婚意向は極めて強い有意性
  - Yu & Kuo(2016) ：親との同居が結婚を減らす経路は結婚意向の低下ではなく、**交際関係に落ち着こうとする動機の弱まり** ⇒ 親との同居は統制変数ではなく中心的な説明変数
- **総括**：日本では経済的要因の効果に一貫した結論がなく (非有意：チョ・ソンホ 2018 、茂木・石田 2019 、 Yu & Kuo 2016 vs 有意：中村・佐藤 2010 、桶川 2013) 、韓国も女性の経済的要因の効果は研究により異なる ⇒ データの代表性不足の可能性 ⇒ **全国代表データで再検討**

7

연구문제 및 가설

- **연구 질문**
  - ① 한국과 일본 미혼 청년의 결혼·출산 가치관과 이성교제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 ② 사회경제적 요인은 이성교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가설**
  - **H1** 취업·소득·고용 안정성 등 결혼(교제) 시장에서의 경제적 자원이 많을수록 이성교제 확률 ↑
  - **H2** 부모와의 동거 ⇒ ↓(정착 동기 약화), 수도권 거주 ⇒ ↑(만남의 기회), 지역 결혼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과잉인 성별 ⇒ ↓
  - **H3** 결혼 의향이 있을수록 ↑, 결혼·출산 규범이 보수적일수록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교제에 신중 ⇒ ↓
  - **H4** 경제적 자원 중 어떤 측면이 이성교제와 결부되는지는 양국 노동시장 구조의 차이를 반영하여 국가 간에 다르게 나타남

8

研究課題と仮説

- **研究の問い**
  - ① 韓国と日本の未婚若者の結婚・出産観と異性交際には、どのような共通点と相違点があるか？
  - ② 社会経済的要因は異性交際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るか？

- **仮説**
  - **H1** 就業・所得・雇用安定性など、結婚 (交際) 市場での経済的資源が多いほど異性交際の確率 ↑
  - **H2** 親との同居 ⇒ ↓ (関係に落ち着く動機の弱まり) 、首都圏居住 ⇒ ↑ (出会いの機会) 、地域の結婚市場で相対的に過剰な性別 ⇒ ↓
  - **H3** 結婚意向があるほど ↑、結婚・出産規範が保守的なほど結婚を前提としない交際に慎重 ⇒ ↓
  - **H4** 経済的資源のどの側面が異性交際と結びつくかは、両国の労働市場構造の違いを反映し、国によって異なる

8

자료 설명

- **한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표본틀로 추출한 표본 조사구 내 가구의 가임기(15~49세) 기혼 여성과 20~44세 미혼 남녀를 조사한 전국 대표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분석 대상: 45세 미만 **미혼 남성 1,139명, 미혼 여성 1,325명**
  - 2021년에는「가족과 출산 조사」로 조사명·대상이 크게 바뀌었고, 2018년 조사가 일본 조사와 동일한 문항이 많아 2018년 자료를 사용
- **일본**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21년 출생동향기본조사(결혼과 출산에 관한 전국조사)」 원자료
  - 전국의 55세 미만 기혼 여성, 18~55세 미만 미혼 남녀를 모집단으로 다단확률표본추출한 전국 대표 자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23)
  - 분석 대상: 45세 미만 **미혼 남성 2,794명, 미혼 여성 2,778명**
- **분석 대상·방법**: 양국 모두 45세 미만의 미혼 남녀. 이성교제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 분석, 계수는 승산비(odds ratio)로 제시

9

データの説明

- **韓国**
  - 韓国保健社会研究院「 2018 年全国出生力および家族保健・福祉実態調査」の個票データ
  - 2016 年人口住宅総調査の調査区を標本枠として抽出した標本調査区内の世帯の、妊娠可能年齢 (15~49 歳) の既婚女性と 20~44 歳の未婚男女を調査した全国代表データ (韓国保健社会研究院 , 2018)
  - 分析対象： 45 歳未満の**未婚男性 1,139 人、未婚女性 1,325 人**
  - 2021 年には「家族と出産調査」へ調査名・対象が大きく変更。 2018 年調査は日本調査と共通の設問が多いため、 2018 年データを使用
- **日本**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21 年出生動向基本調査 (結婚と出産に関する全国調査) 」の個票データ
  - 全国の 55 歳未満の既婚女性、 18 歳以上 55 歳未満の未婚男女を母集団とし、多段確率標本抽出した全国代表データ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 2023)
  - 分析対象： 45 歳未満の**未婚男性 2,794 人、未婚女性 2,778 人**
- **分析対象・方法**：両国とも 45 歳未満の未婚男女。異性交際の有無を従属変数とするロジット分析。係数はオッズ比 (odds ratio) で提示

9

변수 설명

- **종속변수**
  -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가:「하고 있는 경우 = 1」
- **독립변수 ① 일반 속성**
  - 연령(회귀분석: 연속 + 연령 2승; 기술통계: 25세 미만, 25~29, 30~34, 35~39, 40~44세, 단 한국은 35세 이상 통합), 학력(회귀분석: 연속; 기술통계: 한국–고졸 이하·대졸 이상, 일본–고졸 이하·대학 재학·2년제 대졸·4년제 대졸 이상)
  - 부모와의 동거(=1), 수도권 거주(=1)
  - **지역별 S지표**: 조성호 외(2023)의 결혼 압박(marriage squeeze) 지표. 절대값이 클수록 성비 불균형, 양(+)=여성 과잉, 음(–)=남성 과잉 ⇒ 성비 불균형은 협상력과 만남의 기회에 영향 (Abramitzky et al., 2011) ⇒ 개인이 직면하는 지역의 기회 구조를 대리
- **독립변수 ② 취업 관련 속성**
  - 취업 여부(=1), 소득(회귀분석: 연속, 한국 만원·일본 만엔; 기술통계: 4분위), 임금률(시간당 임금), 노동시간(주당 평균)

10

変数の説明

- **従属変数**
  - 現在、異性交際をしているか：「している場合 = 1」
- **独立変数 ① 一般的属性**
  - 年齢 (回帰分析：連続値 + 年齢の 2 乗；記述統計： 25 歳未満、 25~29 、 30~34 、 35~39 、 40~44 歳。ただし韓国は 35 歳以上を統合) 、学歴 (回帰分析：連続値；記述統計：韓国 - 高卒以下・大卒以上、日本 - 高卒以下・大学在学・ 2 年制大学卒・ 4 年制大学卒以上)
  - 親との同居 (=1) 、首都圏居住 (=1)
  - **地域別 S 指標**：チョ・ソンホほか (2023) の結婚スクイーズ (marriage squeeze) 指標。絶対値が大きいほど性比が不均衡、正 (+)= 女性過剰、負 (-)= 男性過剰 ⇒ 性比の不均衡は交渉力と出会いの機会に影響 (Abramitzky et al., 2011) ⇒ 個人が直面する地域の機会構造を代理
- **独立変数 ② 就業関連属性**
  - 就業の有無 (=1) 、所得 (回帰分析：連続値、韓国は万ウォン・日本は万円；記述統計： 4 分位) 、賃金率 (時間当たり賃金) 、労働時間 (週平均)

10

변수 설명(계속) & 분석 방법

- **독립변수 ② 취업 관련 속성(계속)**
  - 직종: 전문·관리, 사무, 판매·서비스, 기타(한국: 농림어업·장치·기능·단순노무, 일본: 농림어업·농림어업 이외의 자영업·공장 등의 현장 노동)
  - 종사상 지위: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가족종사자 ⇒ 불안정 고용이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연결되어 관계 형성을 지연시킬 가능성(Oppenheimer, 1988)을 보기 위해 소득 수준과 구별되는 **안정성 변수**로 도입
- **독립변수 ③ 가치관**
  - **결혼 의향(=1)**: 한국은 5개 선택지(①결혼할 생각이 있다 ②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다 ③과거에도 현재도 없다 ④생각해 본 적 없다 ⑤모르겠다) 중 ①만 '있음', 일본은 '일생에 결혼할 의향 있음/없음'의 이분
  - **결혼·출산 가치관**(5문항, 4점 척도 → 25/50/75/100점 환산, **보수적일수록 높은 점수**): ①남녀가 함께 살거라면 결혼해야 한다 ②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③자녀는 결혼한 부부가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남편의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의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⑤2살 미만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 ⇒ 다중공선성을 피하기 위해 요인분석으로 지수화(슬라이드 14)
- **분석 방법**
  - 로짓 모델(계수는 승산비로 표시). 국가 × 성별로 전체 표본을 분석한 뒤, 취업자 표본에서 경제적 자원의 수준·성격의 영향을 분석

11

変数の説明 (続き) & 分析方法

- **独立変数 ② 就業関連属性 (続き)**
  - 職種：専門・管理、事務、販売・サービス、その他 (韓国：農林漁業・装置操作・技能・単純労務、日本：農林漁業・農林漁業以外の自営業・工場などの現場労働)
  - 従業上の地位：正規雇用、非正規雇用、自営業・家族従業者 ⇒ 不安定雇用が将来の不確実性につながり、関係形成を遅らせる可能性 (Oppenheimer, 1988) を検討するため、所得水準とは区別される**安定性の変数**として導入
- **独立変数 ③ 価値観**
  - **結婚意向 (=1)** ：韓国は 5 選択肢 (① 結婚するつもりがある ②以前はあったが現在はない ③以前も現在もない ④考えたことがない ⑤わからない) のうち①のみ「あり」。日本は「一生のうちに結婚する意向あり／なし」の二分
  - **結婚・出産観** (5 項目、 4 件法 → 25/50/75/100 点に換算、**保守的なほど高得点**) ：①男女が一緒に暮らすなら結婚すべき ②結婚したら子どもを持つべき ③子どもは結婚した夫婦が持つのが望ましい ④夫の役割はお金を稼ぐことで、妻の役割は家庭と家族の世話をすること ⑤ 2 歳未満の子どもは母親が直接育てるのがよい ⇒ 多重共線性を避けるため、因子分析で指標化 (スライド 14)
- **分析方法**
  - ロジットモデル (係数はオッズ比で表示) 。国 × 性別に全標本を分析した後、就業者標本で経済的資源の水準・性質の影響を分析

11

결혼·출산에 관한 가치관

한국과 일본의 결혼 의향: 한국(2018년), 일본(2021)

	남성		여성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합계	58.8	77.5	45.3	78.3

결혼 상대에게 바라는 조건: 한국(2018년), 일본(2021)

	남성		여성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학력	8	8	8	8
직업(직종 및 직위)	7	7	6	5
경제력(소득 및 자산 등)	6	6	4	4
성격	1	1	1	1
외모 등 신체적 조건	5	4	7	6
공통의 취미 유무	4	5	5	7
자신의 일에 대한 이해와 협조	2	3	3	3
가사·육아에 대한 태도	3	2	2	2

주) 조건은 한국 4점 척도, 일본 3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순위를 정한 것이며, 척도가 달라 각국 내의 상대적 순위만 비교함.

⇒ 성격 1위·학력 8위는 공통. 여성은 경제력을, 남성은 외모를 더 중시 ⇒ Fisman et al.(2006)과 일관된 성별 선호 차이

結婚・出産に関する価値観

韓国と日本の結婚意向：韓国 (2018 年) 、日本 (2021)

	男性		女性	
	韓国	日本	韓国	日本
合計	58.8	77.5	45.3	78.3

結婚相手に求める条件：韓国 (2018 年) 、日本 (2021)

	男性		女性	
	韓国	日本	韓国	日本
学歴	8	8	8	8
職業 (職種・職位)	7	7	6	5
経済力 (所得・資産など)	6	6	4	4
性格	1	1	1	1
容姿などの身体的条件	5	4	7	6
共通の趣味の有無	4	5	5	7
自分の仕事への理解と協力	2	3	3	3
家事・育児への姿勢	3	2	2	2

注）条件は韓国 4 件法、日本 3 件法の平均値で順位づけた。尺度が異なるため、各国内の相対的順位のみ比較する。

⇒ 性格 1 位・学歴 8 位は共通。女性は経済力、男性は容姿をより重視 ⇒ Fisman et al.(2006) と整合的な男女の選好差

12

결혼·출산에 관한 가치관

다양한 가치관에 대한 찬성도(점): 한국(2018년), 일본(2021)

	남성		여성	
	한국	일본	한국	일본
남녀가 함께 살거라면 결혼해야 한다	60.1	66.6	63.8	59.1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57.1	62.8	49.1	52.0
자녀는 결혼한 부부가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57.0	63.5	48.4	58.9
남편의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의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46.9	47.8	40.7	41.7
2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	70.7	64.7	70.4	60.7

주) 양국 모두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나,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고, 수치가 높을수록 보수적인 의미를 갖도록 코딩함.

⇒ 결혼·출산 규범(①~③)은 **일본 남성이 가장 보수적**, **한국 여성이 가장 비보수적**. 반면 성역할 분업(④)과 영아기 모성 양육(⑤)은 **한국 남성이 가장 보수적**

13

結婚・出産に関する価値観

多様な価値観への賛成度 (点) ：韓国 (2018 年) 、日本 (2021)

	男性		女性	
	韓国	日本	韓国	日本
男女が一緒に暮らすなら結婚すべきである	60.1	66.6	63.8	59.1
結婚したら子どもを持つべきである	57.1	62.8	49.1	52.0
子どもは結婚した夫婦が持つことが望ましい	57.0	63.5	48.4	58.9
夫の役割はお金を稼ぐことで、妻の役割は家庭と家族の世話をすることである	46.9	47.8	40.7	41.7
2 歳未満の子どもは母親が直接育てるのがよい	70.7	64.7	70.4	60.7

注）両国とも 4 件法で測定したが、比較の便宜上 100 点満点に換算し、値が高いほど保守的な意味を持つよう符号化した。

⇒ 結婚・出産規範 (①~③) は**日本男性が最も保守的、韓国女性が最も非保守的**。一方、性別役割分業 (④) と乳児期の母親による養育 (⑤) は**韓国男性が最も保守的**

13

결혼·출산에 관한 가치관의 요인 분석(factor analysis)

	한국		일본
남녀가 함께 살거라면 결혼해야 한다	**0.74**	0.04	**0.78**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0.77**	0.26	**0.83**
자녀는 결혼한 부부가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0.75**	0.01	0.44
남편의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의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0.20	**0.80**	**0.80**
2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다	0.04	**0.85**	**0.75**
Cronbach α	0.56	0.46	0.72
Observations		2,464	5,970

방법: 순서형 문항이므로 Polychoric 상관(장승민, 2015)에 기초, 주성분 추출 후 오블리민(oblimin) 회전. 45세 미만 미혼 남녀 전체를 국가별로 분석(성별 미구분)
고유값: 한국 2.04 / 1.12 / 0.79 ⇒ 2요인, 일본 2.68 / 0.92 ⇒ 1요인. 각 지표는 해당 문항의 평균값
한국: 「전통적 결혼·출산 규범 가치관」(①~③), 「전통적 성역할·양육 규범 가치관」(④⑤). 요인2의 α=0.46은 낮으나 회귀분석에서 비유의 ⇒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본: 「전통적 가족 규범 가치관」(①~⑤). ③의 적재량(0.44)은 낮지만 기준(0.4)을 상회하며 한국과의 비교 가능성을 위해 포함

14

結婚・出産観の因子分析 (factor analysis)

	韓国		日本
男女が一緒に暮らすなら結婚すべきである	**0.74**	0.04	**0.78**
結婚したら子どもを持つべきである	**0.77**	0.26	**0.83**
子どもは結婚した夫婦が持つことが望ましい	**0.75**	0.01	0.44
夫の役割はお金を稼ぐことで、妻の役割は家庭と家族の世話をすることである	0.20	**0.80**	**0.80**
2 歳未満の子どもは母親が直接育てるのがよい	0.04	**0.85**	**0.75**
Cronbach α	0.56	0.46	0.72
Observations		2,464	5,970

方法：順序尺度の設問のため Polychoric 相関 (チャン・スンミン , 2015) に基づき、主成分抽出後にオブリミン (oblimin) 回転。 45 歳未満の未婚男女全体を国別に分析 (男女の区分なし)
固有値：韓国 2.04 / 1.12 / 0.79 ⇒ 2 因子、日本 2.68 / 0.92 ⇒ 1 因子。各指標は該当項目の平均値
韓国：「伝統的な結婚・出産規範に関する価値観」 (①~③) 、「伝統的な性別役割・養育規範に関する価値観」 (④⑤) 。因子 2 の α=0.46 は低いが回帰分析では非有意 ⇒ 結論への影響は限定的
日本：「伝統的な家族規範に関する価値観」 (①~⑤) 。③の負荷量 (0.44) は低いが基準 (0.4) を上回り、韓国との比較可能性のために含める

14

이성교제의 경향

개인 특성에 따른 이성교제 경향1): 한국(2018년), 일본(2021년)

		남성		여성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합계		25.8	17.9	31.7	24.7
연령2)	25세 미만	21.8	21.6	31.9	27.7
	25-29세	32.1	24.1	37.8	30.8
	30-34세	29.6	14.7	36.0	18.0
	35-39세	20.6	11.7	18.0	19.6
	40-44세		10.3		19.1
	표본수	1,139	2,794	1,325	2,778
학력3)	고졸 이하	24.9	15.9	32.9	22.5
	대학 재학중		17.9		22.6
	2년제 대졸	26.8	14.6	30.5	26.1
	4년제 대졸		21.6		27.6
	표본수	1,139	2,730	1,325	2,729
월평균 소득	1분위	27.7	10.4	28.5	21.5
	2분위	22.2	21.7	32.8	27.6
	3분위	32.3	19.0	43.0	31.7
	4분위	35.4	22.7	31.5	31.2
	표본수	684	1,937	834	1,861
직종	전문·관리	37.4	21.9	36.1	28.3
	사무	28.2	21.1	31.1	25.0
	판매·서비스	35.1	19.1	35.4	30.7
	기타	25.7	16.0	30.1	15.2
	표본수	684	1,962	834	1,904
종사상 지위	정규직	31.4	22.3	34.8	29.8
	비정규직	24.6	9.8	31.4	19.1
	자영업·가족종사자	44.0	13.1	35.8	27.4
	표본수	685	1,993	834	1,935

주: 1) 조사 시점에 이성과 교제 중인 사람의 비율임. 2) 한국은 '35~39세'를 '35~44세'로 통합. 3) 한국은 '대학 재학 이상'으로 통합.

교제 상대와 만나게 된 계기: 한국(2018년), 일본(2021년)

	남성		여성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학교에서	24.4	25.5	23.0	22.9
직장 및 일 관계로	14.1	21.1	15.2	22.8
어릴 적부터 친구 및 가까이 살아서	3.0	2.7	7.1	1.4
학교 이외의 동아리 및 학원에서	6.4	6.5	8.3	4.9
친구나 형제자매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37.5	18.9	34.9	16.7
선을 봐서(친척이나 직장 상사의 소개 포함)	1.7	0.3	1.4	0.5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0.3	1.3	0.0	3.0
길거리나 여행 중에 알게 되어서	10.0	6.0	6.7	4.4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1.0	5.0	1.2	5.7
기타	1.7	12.8	2.1	17.8
표본수	299	635	421	843

15

異性交際の傾向

個人特性別の異性交際の傾向 1) ：韓国 (2018 年) 、日本 (2021 年)

		男性		女性	
		韓国	日本	韓国	日本
合計		25.8	17.9	31.7	24.7
年齢 2)	25 歳未満	21.8	21.6	31.9	27.7
	25 - 29 歳	32.1	24.1	37.8	30.8
	30 - 34 歳	29.6	14.7	36.0	18.0
	35 - 39 歳	20.6	11.7	18.0	19.6
	40 - 44 歳		10.3		19.1
	標本数	1,139	2,794	1,325	2,778
学歴 3)	高卒以下	24.9	15.9	32.9	22.5
	大学在学中		17.9		22.6
	2 年制大学卒	26.8	14.6	30.5	26.1
	4 年制大学卒		21.6		27.6
	標本数	1,139	2,730	1,325	2,729
月平均 所得	第 1 四分位	27.7	10.4	28.5	21.5
	第 2 四分位	22.2	21.7	32.8	27.6
	第 3 四分位	32.3	19.0	43.0	31.7
	第 4 四分位	35.4	22.7	31.5	31.2
	標本数	684	1,937	834	1,861
職種	専門・管理	37.4	21.9	36.1	28.3
	事務	28.2	21.1	31.1	25.0
	販売・サービス	35.1	19.1	35.4	30.7
	その他	25.7	16.0	30.1	15.2
	標本数	684	1,962	834	1,904
従業上の 地位	正規雇用	31.4	22.3	34.8	29.8
	非正規雇用	24.6	9.8	31.4	19.1
	自営業・家族従業者	44.0	13.1	35.8	27.4
	標本数	685	1,993	834	1,935

注： 1) 調査時点で異性と交際中の人の割合。 2) 韓国は「 35~39 歳」を「 35~44 歳」に統合。
3) 韓国は「大学在学以上」に統合。

交際相手と出会ったきっかけ：韓国 (2018 年) 、日本 (2021 年)

	男性		女性	
	韓国	日本	韓国	日本
学校で	24.4	25.5	23.0	22.9
職場や仕事の関係で	14.1	21.1	15.2	22.8
幼なじみ、近所で	3.0	2.7	7.1	1.4
学校以外のサークル・塾で	6.4	6.5	8.3	4.9
友人・兄弟姉妹の紹介で	37.5	18.9	34.9	16.7
見合いで (親戚・上司の紹介を含む)	1.7	0.3	1.4	0.5
結婚相談所の紹介で	0.3	1.3	0.0	3.0
街なかや旅先で	10.0	6.0	6.7	4.4
アルバイト先で	1.0	5.0	1.2	5.7
その他	1.7	12.8	2.1	17.8
標本数	299	635	421	843

15

이성교제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전체)

	남성		여성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연령	1.341*	0.950***	1.430**	0.975***
	(0.164)	(0.008)	(0.160)	(0.007)
연령 2승	0.995**		0.993***	
	(0.002)		(0.002)	
학력	1.023	1.031	0.956#	1.019
	(0.027)	(0.026)	(0.023)	(0.026)
부모와의 동거(=1)	0.958	0.591***	0.494***	0.558***
	(0.170)	(0.064)	(0.088)	(0.055)
취업 여부(=1)	2.055***	1.835***	1.204	1.523**
	(0.360)	(0.266)	(0.181)	(0.190)
결혼 의향(=1)	3.839***	5.012***	6.473***	4.062***
	(0.659)	(1.044)	(0.957)	(0.651)

- 모형: 한국은 연령 2승항과 2개 가치관 지표, 일본은 연령 선형항과 1개 지표(연령 2승은 비유의로 제외)
- **(연령)** 한국: 비선형으로 감소(최대점 남 28.7세, 여 26.8세), 일본: 선형으로 감소
- **(학력)** 한국 여성만 10% 수준의 음(−). 가치관을 통제한 결과이므로 가치관 차이로는 설명 불가
- **(부모와의 동거)** 한국 남성 외 모두 강한 음(−) ⇒ 교제 관계로 정착하려는 동기의 약화(Yu & Kuo, 2016). 경제적 토대 마련 준비?
- **(취업 여부)** 한국 여성 외 모두 양(+), 1.5~2.1배. 남성에서 두드러짐 ⇒ 남성의 경제력이 교제 시장의 진입 조건. 일본 여성은 직장이 만남의 기회(조성호, 2018)
- **(결혼 의향)** 4집단 모두 3.8~6.5배의 강한 양(+), 한국 여성(6.5배)이 최대

16

異性交際に関する回帰分析結果 (全体)

	男性		女性	
	韓国	日本	韓国	日本
年齢	1.341*	0.950***	1.430**	0.975***
	(0.164)	(0.008)	(0.160)	(0.007)
年齢の 2 乗	0.995**		0.993***	
	(0.002)		(0.002)	
学歴	1.023	1.031	0.956#	1.019
	(0.027)	(0.026)	(0.023)	(0.026)
親との同居 (=1)	0.958	0.591***	0.494***	0.558***
	(0.170)	(0.064)	(0.088)	(0.055)
就業の有無 (=1)	2.055***	1.835***	1.204	1.523**
	(0.360)	(0.266)	(0.181)	(0.190)
結婚意向 (=1)	3.839***	5.012***	6.473***	4.062***
	(0.659)	(1.044)	(0.957)	(0.651)

- モデル：韓国は年齢の 2 乗項と 2 つの価値観指標、日本は年齢の線形項と 1 つの指標 (年齢の 2 乗項は非有意のため除外)
- **(年齢)** 韓国：非線形に減少 (最大点は男性 28.7 歳、女性 26.8 歳) 、日本：線形に減少
- **(学歴)** 韓国女性のみ 10% 水準で負 (-) 。価値観を統制した結果のため、価値観の違いでは説明できない
- **(親との同居)** 韓国男性を除き全て強い負 (-) ⇒ 交際関係に落ち着こうとする動機の弱まり (Yu & Kuo, 2016) 。経済的基盤を築く準備？
- **(就業の有無)** 韓国女性を除き全て正 (+) 、1.5~2.1 倍。男性で顕著 ⇒ 男性の経済力が交際市場への参入条件。日本女性では職場が出会いの機会 (チョ・ソンホ , 2018)
- **(結婚意向)** 4 集団全てで 3.8~6.5 倍の強い正 (+) 、韓国女性 (6.5 倍) が最大

16

이성교제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전체)

수도권 거주(=1)	0.781	1.108	1.618**	1.168
	(0.155)	(0.128)	(0.282)	(0.117)
지역별 S 지표	2.902	1.479	0.149#	0.354
	(3.568)	(1.371)	(0.160)	(0.286)
전통적 결혼·출산 규범 가치관	0.996		0.985**	
	(0.005)		(0.005)	
전통적 가족 규범 가치관[1)]	0.996	0.998	0.998	1.001
	(0.004)	(0.004)	(0.004)	(0.003)
상수항	0.003**	0.150***	0.008**	0.139***
	(0.005)	(0.074)	(0.013)	(0.062)
LR chi2(d.f.)	115.3(10)	199.6(8)	249.9(10)	186.7(8)
Log Likelihood	−597.92	−1184.52	−703.36	−1436.46
Pseudo R2	0.0881	0.0777	0.1509	0.0610
Observations	1,139	2,720	1,325	2,717

주: 1) 한국은「전통적 성역할·양육 가치관」임.
2) 로짓 모델로 분석하였고, 계수는 오즈비(odds ratio)임.
3) *** p<0.001, ** p<0.01, * p<0.05, # p<0.1, ( )는 표준오차.

- **(수도권 거주)** 한국 여성에서만 양(+) ⇒ 인프라 등 삶의 질 차이가 교제 확률의 차이로 나타날 가능성. 한국 여성이 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 **(지역별 S지표)** 한국 여성에서만 10% 수준의 약한 음(−) ⇒ 여성이 과잉인 지역일수록 여성의 교제 확률 ↓ ⇒ 결혼시장의 성비가 이성교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가치관)**「전통적 결혼·출산 규범 가치관」은 한국 여성에서만 음(−) ⇒ 보수적일수록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추구하여 신중. 강한 결혼 의향 효과와 함께 **한국 여성의 교제가 결혼과 가장 밀접**. 한국의 성역할·양육 규범, 일본의 가족 규범은 모두 비유의

17

異性交際に関する回帰分析結果 (全体)

首都圏居住 (=1)	0.781	1.108	1.618**	1.168
	(0.155)	(0.128)	(0.282)	(0.117)
地域別 S 指標	2.902	1.479	0.149#	0.354
	(3.568)	(1.371)	(0.160)	(0.286)
伝統的結婚・出産規範の価値観	0.996		0.985**	
	(0.005)		(0.005)	
伝統的家族規範の価値観１)	0.996	0.998	0.998	1.001
	(0.004)	(0.004)	(0.004)	(0.003)
定数項	0.003**	0.150***	0.008**	0.139***
	(0.005)	(0.074)	(0.013)	(0.062)
LR chi2(d.f.)	115.3(10)	199.6(8)	249.9(10)	186.7(8)
Log Likelihood	-597.92	-1184.52	-703.36	-1436.46
Pseudo R2	0.0881	0.0777	0.1509	0.0610
Observations	1,139	2,720	1,325	2,717

注： 1) 韓国は「伝統的性別役割・養育の価値観」。
2) ロジットモデルで分析し、係数はオッズ比 (odds ratio)。
3)*** p<0.001, ** p<0.01, * p<0.05, # p<0.1, ( ) 内は標準誤差。

- **(首都圏居住)** 韓国女性のみ正 (+) ⇒ インフラなど生活の質の差が交際確率の差として表れる可能性。韓国女性はこれに敏感に反応するものとみられる
- **(地域別 S 指標)** 韓国女性のみ 10% 水準の弱い負 (-) ⇒ 女性過剰の地域ほど女性の交際確率 ↓ ⇒ 結婚市場の性比が異性交際にも影響する可能性
- **(価値観)**「伝統的な結婚・出産規範に関する価値観」は韓国女性のみ負 (-) ⇒ 保守的なほど結婚を前提にした交際を求めるため慎重。強い結婚意向の効果と併せ、**韓国女性の交際が結婚と最も密接**。韓国の性別役割・養育規範、日本の家族規範はいずれも非有意

17

이성교제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취업자 남성)

	한국						일본					
	M1	M2	M3	M4	M5	M6	M1	M2	M3	M4	M5	M6
소득	1.002**				1.002*		1.007**				1.003	
	(0.001)				(0.001)		(0.003)				(0.004)	
임금률		1.450**				1.350#		3.247*				1.985
		(0.208)				(0.208)		(1.687)				(1.284)
노동시간		1.006				1.002		1.009				1.000
		(0.008)				(0.009)		(0.006)				(0.007)
직종 (Ref.사무직)												
전문·관리직			1.784*		1.639#	1.591			0.897		0.876	0.900
			(0.512)		(0.480)	(0.469)			(0.193)		(0.193)	(0.201)
판매·서비스직			1.561#		1.498	1.542			0.886		1.010	1.052
			(0.417)		(0.423)	(0.439)			(0.199)		(0.234)	(0.247)
기타			1.088		1.095	1.125			0.774		0.826	0.859
			(0.280)		(0.284)	(0.294)			(0.182)		(0.200)	(0.210)
종사상 지위 (Ref. 정규직)												
비정규직				0.822	0.906	0.867				0.503**	0.493**	0.487**
				(0.175)	(0.204)	(0.198)				(0.100)	(0.106)	(0.110)
자영업·가족종사자				1.680#	1.286	1.337				0.938	0.998	1.028
				(0.494)	(0.409)	(0.428)				(0.259)	(0.295)	(0.304)

주) *** p<0.001, ** p<0.01, * p<0.05, # p<0.1, ( )는 표준오차. 로짓 모델로 분석, 수치는 오즈비(odds ratio). 모든 모델에 전체 모델의 변수를 통제함.

- **한국**: 소득·임금률·전문관리직 양(+), 판매서비스직·자영업은 10% 수준. 전체 모델(M5·M6)에서 직종·종사상 지위는 유의성 상실(전문관리직은 M5에서만 10%), 소득·임금률 효과는 유지(소득이 더 강함)
- **일본**: 소득·임금률 양(+), 비정규직 강한 음(−). 전체 모델에서 소득·임금률은 비유의, 비정규직 효과는 유지

⇒ **한국 남성 = 소득(보상의 수준), 일본 남성 = 정규직(고용의 안정성)**

18

異性交際に関する回帰分析結果 (就業男性)

	韓国						日本					
	M1	M2	M3	M4	M5	M6	M1	M2	M3	M4	M5	M6
所得	1.002**				1.002*		1.007**				1.003	
	(0.001)				(0.001)		(0.003)				(0.004)	
賃金率		1.450**				1.350#		3.247*				1.985
		(0.208)				(0.208)		(1.687)				(1.284)
労働時間		1.006				1.002		1.009				1.000
		(0.008)				(0.009)		(0.006)				(0.007)
職種 (Ref. 事務職)												
専門・管理職			1.784*		1.639#	1.591			0.897		0.876	0.900
			(0.512)		(0.480)	(0.469)			(0.193)		(0.193)	(0.201)
販売・サービス職			1.561#		1.498	1.542			0.886		1.010	1.052
			(0.417)		(0.423)	(0.439)			(0.199)		(0.234)	(0.247)
その他			1.088		1.095	1.125			0.774		0.826	0.859
			(0.280)		(0.284)	(0.294)			(0.182)		(0.200)	(0.210)
従業上の地位 (Ref. 正規雇用)												
非正規雇用				0.822	0.906	0.867				0.503**	0.493**	0.487**
				(0.175)	(0.204)	(0.198)				(0.100)	(0.106)	(0.110)
自営業・家族従業者				1.680#	1.286	1.337				0.938	0.998	1.028
				(0.494)	(0.409)	(0.428)				(0.259)	(0.295)	(0.304)

注） *** p<0.001, ** p<0.01, * p<0.05, # p<0.1, ( ) 内は標準誤差。ロジットモデルで分析、数値はオッズ比 (odds ratio) 。全モデルで全体モデルの変数を統制。

- **韓国**：所得・賃金率・専門管理職は正 (+) 、販売サービス職・自営業は 10% 水準。全変数投入モデル (M5 ・ M6) では職種・従業上の地位の有意性が消失 (専門管理職は M5 のみ 10%) 。所得・賃金率の効果は維持 (所得の方が強い)
- **日本**：所得・賃金率は正 (+) 、非正規雇用は強い負 (-) 。
  全変数投入モデルでは所得・賃金率は非有意、非正規雇用の効果は維持

⇒ 韓国男性 = 所得 (報酬の水準) 、日本男性 = 正規雇用 (雇用の安定性)

18

이성교제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취업자 여성)

	한국						일본					
	M1	M2	M3	M4	M5	M6	M1	M2	M3	M4	M5	M6
소득	1.003**				1.003**		0.999				1.000	
	(0.001)				(0.001)		(0.003)				(0.003)	
임금률		1.253				1.279		0.731				0.737
		(0.206)				(0.227)		(0.326)				(0.383)
노동시간		1.027**				1.027**		1.016**				1.018*
		(0.009)				(0.010)		(0.006)				(0.007)
직종 (Ref.사무직)												
전문·관리직			1.199		1.117	1.152			1.046		1.030	1.004
			(0.238)		(0.227)	(0.235)			(0.148)		(0.151)	(0.148)
판매·서비스직			1.247		1.387	1.328			1.225		1.417*	1.465*
			(0.274)		(0.326)	(0.315)			(0.179)		(0.222)	(0.230)
기타			1.685		1.776	1.640			0.576*		0.614*	0.606*
			(0.696)		(0.753)	(0.694)			(0.130)		(0.146)	(0.144)
종사상 지위 (Ref. 정규직)												
비정규직				0.863	0.970	1.019				0.656**	0.612**	0.706*
				(0.166)	(0.205)	(0.218)				(0.087)	(0.090)	(0.109)
자영업·가족종사자				1.538	1.342	1.400				1.141	0.926	1.086
				(0.502)	(0.458)	(0.480)				(0.327)	(0.315)	(0.377)

주) *** p<0.001, ** p<0.01, * p<0.05, # p<0.1, ( )는 표준오차. 로짓 모델로 분석, 수치는 오즈비(odds ratio). 모든 모델에 전체 모델의 변수를 통제함.

- **한국**: 소득과 노동시간 양(+), 전체 모델에서도 유지. 직종·종사상 지위는 비유의
- **일본**: 노동시간 양(+), 판매·서비스직 양(+), 기타직 음(−), 비정규직 음(−) ⇒ 기타직(농림어업·자영업·현장 노동)은 정적, 판매·서비스는 대면·동적인 일 ⇒ 이성과 접촉할 기회의 차이(中村・佐藤, 2010; 桶川, 2013)
- **노동시간 = 안정적 일자리의 대리 가능성**

19

異性交際に関する回帰分析結果 (就業女性)

	韓国						日本					
	M1	M2	M3	M4	M5	M6	M1	M2	M3	M4	M5	M6
所得	1.003**				1.003**		0.999				1.000	
	(0.001)				(0.001)		(0.003)				(0.003)	
賃金率		1.253				1.279		0.731				0.737
		(0.206)				(0.227)		(0.326)				(0.383)
労働時間		1.027**				1.027**		1.016**				1.018*
		(0.009)				(0.010)		(0.006)				(0.007)
職種 (Ref. 事務職)												
専門・管理職			1.199		1.117	1.152			1.046		1.030	1.004
			(0.238)		(0.227)	(0.235)			(0.148)		(0.151)	(0.148)
販売・サービス職			1.247		1.387	1.328			1.225		1.417*	1.465*
			(0.274)		(0.326)	(0.315)			(0.179)		(0.222)	(0.230)
その他			1.685		1.776	1.640			0.576*		0.614*	0.606*
			(0.696)		(0.753)	(0.694)			(0.130)		(0.146)	(0.144)
従業上の地位 (Ref. 正規雇用)												
非正規雇用				0.863	0.970	1.019				0.656**	0.612**	0.706*
				(0.166)	(0.205)	(0.218)				(0.087)	(0.090)	(0.109)
自営業・家族従業者				1.538	1.342	1.400				1.141	0.926	1.086
				(0.502)	(0.458)	(0.480)				(0.327)	(0.315)	(0.377)

注) *** p<0.001, ** p<0.01, * p<0.05, # p<0.1, ( ) 内は標準誤差。ロジットモデルで分析、数値はオッズ比 (odds ratio) 。全モデルで全体モデルの変数を統制。

- **韓国**：所得・労働時間は正 (+) 、全変数投入モデルでも維持。職種・従業上の地位は非有意
- **日本**：労働時間は正 (+) 、販売・サービス職は正 (+) 、その他の職種は負 (-) 、非正規雇用は負 (-) ⇒ その他 (農林漁業・自営業・現場労働) は静的、販売・サービスは対面・動的な仕事 ⇒ 異性との接触機会の違い (中村・佐藤 , 2010; 桶川 , 2013)
- **労働時間 = 安定した仕事の代理指標である可能性**

19

분석 결과 정리

- **한국 남성**: 결혼 의향 + 경제적 기반(소득)
- **일본 남성**: 결혼 의향 + 경제적 기반(고용 안정성) + 부모와의 동거
- **한국 여성**: 결혼 의향 + 경제적 기반(소득) + 부모와의 동거 + 수도권 거주 + 결혼시장 성비(약함) + 결혼·출산 규범 가치관
- **일본 여성**: 결혼 의향 + 경제적 기반(고용 안정성) + 부모와의 동거 + 직종

⇒ **결혼 의향**이 양국 남녀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 이성교제는 결혼을 염두에 두는 경우에 매우 활발

⇒ **경제적 요인**도 성별과 관계없이 중요하나 그 측면이 다름: 한국은 남녀 모두 **소득(보상의 수준)**, 일본은 남녀 모두 **고용의 안정성**(일본 여성은 직종도)

⇒ **부모와의 동거**는 교제 확률을 낮추나 한국 남성만 비유의 ⇒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 과정의 일부일 가능성

⇒ **결혼·출산 가치관**의 영향은 한국 여성에서만 확인 ⇒ 한국 여성의 교제가 결혼과 가장 밀접하게 결부

20

分析結果のまとめ

- **韓国男性**：結婚意向 + 経済的基盤 (所得)
- **日本男性**：結婚意向 + 経済的基盤 (雇用安定性) + 親との同居
- **韓国女性**：結婚意向 + 経済的基盤 (所得) + 親との同居 + 首都圏居住 + 結婚市場の性比 (弱い) + 結婚・出産規範の価値観
- **日本女性**：結婚意向 + 経済的基盤 (雇用安定性) + 親との同居 + 職種

⇒ **結婚意向**は両国の男女全てで最も重要な要因 ⇒ 異性交際は結婚を念頭に置く場合に非常に活発

⇒ **経済的要因**も性別を問わず重要だが、その側面は異なる：韓国は男女とも**所得 (報酬の水準)** 、日本は男女とも**雇用の安定性** (日本女性は職種も)

⇒ **親との同居**は交際確率を低下させるが、韓国男性のみ非有意 ⇒ 経済的基盤を築くための準備過程の一部である可能性

⇒ **結婚・出産観**の影響は韓国女性のみで確認
⇒ 韓国女性の交際が結婚と最も密接に結びつく

20

가설의 평가

- **가설 1(경제적 자원): 부분적으로 지지**
  - 취업 여부는 한국 여성을 제외한 3집단, 소득은 한국 남녀 취업자, 정규직 여부는 일본 남녀 취업자에서 유의 ⇒ 경제적 자원의 어떤 측면이 중요한지는 집단에 따라 다름
- **가설 2(만남의 기회 구조): 요인에 따라 지지 정도가 상이**
  - 부모와의 동거 ○(한국 남성 제외 3집단), 수도권 거주 ○(한국 여성만), 지역 결혼시장 성비(S지표) △(한국 여성에서 10% 수준의 약한 유의성)
- **가설 3(결혼 의향·가치관): 결혼 의향은 4집단 모두 강한 지지, 가치관은 한국 여성만 ⇒ 부분적으로 지지**
- **가설 4(국가 간 차이): 한국 = 소득, 일본 = 고용 안정성이라는 대비는 가설의 방향과 일치**

21

仮説の評価

- **仮説 1(経済的資源) ：部分的に支持**
  - 就業の有無は韓国女性を除く 3 集団、所得は韓国の男女就業者、正規雇用の有無は日本の男女就業者で有意 ⇒ 経済的資源のどの側面が重要かは集団によって異なる
- **仮説 2(出会いの機会構造) ：要因により支持の程度が異なる**
  - 親との同居 ○ (韓国男性を除く 3 集団) 、首都圏居住 ○ (韓国女性のみ) 、地域の結婚市場の性比 (S 指標) △(韓国女性で 10% 水準の弱い有意性)
- **仮説 3(結婚意向・価値観) ：結婚意向は 4 集団全てで強く支持、価値観は韓国女性のみ ⇒ 部分的に支持**
- **仮説 4(国家間の差) ：韓国 = 所得、**
  日本 = 雇用安定性という対比は仮説の方向と一致

21

정책적 시사점

- **양국 공통: 경제적 요인이 이성교제에 매우 중요**
  - 청년층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 지원, 이중 노동시장의 완화,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적 기반 마련이 요구됨
- **한국: 결혼·교제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
  - 지역 결혼시장 성비의 효과는 제한적이었으나, 현재 한국은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전국적으로 약 20% 많은 인구 구조**(조성호 외, 2023) ⇒ 모두 일부일처제로 결혼한다 하더라도 남성의 20%는 남음
  - 남성은 본인보다 높은 속성을 가진 여성과의 만남을 선호하지 않으므로(Fisman et al., 2006)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인 만남이 될 가능성 ⇒ 예: 남성이 본인보다 고학력인 여성을 선호하지 않으면 고학력 여성과 저학력 남성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남게 됨
  - 미혼 인구의 구조적 불균형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더욱 교란시켜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들 가능성이 큼

⇒ 결혼·교제 시장의 탐색 마찰(search frictions)을 완화하여 만남의 기회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관심의 전환이 요구됨

22

政策的示唆

- **両国共通：経済的要因は異性交際に非常に重要**
  - 若者の安定した労働市場参入の支援、労働市場の二重構造の緩和、雇用拡大を通じた経済的基盤の整備が求められる
- **韓国：結婚・交際市場の構造的不均衡**
  - 地域の結婚市場の性比の効果は限定的だったが、現在の韓国は**全国で未婚男性が未婚女性より約 20% 多い人口構造** (チョ・ソンホほか , 2023) ⇒ 全員が一夫一婦制で結婚しても男性の 20% は残る
  - 男性は自分より高い属性を持つ女性との出会いを好まないため (Fisman et al., 2006) 、基本的に非効率な出会いとなる可能性 ⇒ 例：男性が自分より高学歴の女性を好まなければ、高学歴女性と低学歴男性は出会いが成立せずに残る
  - 未婚人口の構造的不均衡は、こうしたメカニズムをさらに乱し、非効率に働かせる可能性が高い

⇒ 結婚・交際市場の探索摩擦 (search frictions) を緩和し、出会いの機会構造を改善する方向へ政策的関心の転換が求められる

22

참고문헌

임채홍, 김정렬. (2013). 거주지역간 차이가 소득과 삶의 질에 미치는 동태적 변화패턴 분석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 205-248.
장승민. (2015). 리커트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사용.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4), 1079-1100.
조성호. (2014). 최근 미혼 인구의 특성과 동향: 이성교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13호, 14-23.
_____. (2018).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보건사회연구 38(4), 398-430.
_____, 변수정. (2020). 미혼인구의 이성교제와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보건사회연구 40(4), 82-114.
_____, Suga Keita, 문승현. (2023). 출생성비 불균형에 따른 혼인 특성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연구보고서 2018-37).
桶川泰. (2013).「異性との交際が不活発な男性・女性はどのような人々か: 未婚者調査を用いたロジスティック回帰分析の結果から」『国際文化学』26巻, 49-65. 神戸大学国際文化学研究科紀要.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7).『2015年 社会保障・人口問題基本調査(結婚と出産に関する全国調査) 現代日本の結婚と出産-第15回出生動向基本調査(独身者調査ならびに夫婦調査)報告書-』.
_____. (2023).『現代日本の結婚と出産-第16回出生動向基本調査(独身者調査ならびに夫婦調査)報告書』.
中村真由美・佐藤博樹. (2010).「なぜ恋人にめぐりあえないのか？-経済的要因・出会いの経路・対人関係能力の側面から」佐藤博樹・永井暁子・三輪哲編『結婚の壁-非婚・晩婚の構造』勁草書房, pp.54-73.
茂木暁・石田浩. (2019).「結婚への道のり-出会いから交際そして結婚へ」佐藤博樹・石田浩編『出会いと結婚』勁草書房, 44-75.

参考文献

イム・チェホン、キム・ジョンリョル . (2013). 居住地域間の差が所得と生活の質に及ぼす動態的変化パターンの分析 - 盧武鉉政権期と李明博政権期の比較を中心に -. 韓国ガバナンス学会報 20(1), 205-248.
チャン・スンミン . (2015). リッカート尺度開発のための探索的因子分析の使用 .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4), 1079-1100.
チョ・ソンホ . (2014). 近年の未婚人口の特徴と動向：異性交際を中心に . 保健福祉フォーラム 213 号 , 14-23.
_____. (2018). 若者の経済的自立と異性交際に関する韓日比較研究 . 保健社会研究 38(4), 398-430.
_____, ピョン・スジョン . (2020). 未婚人口の異性交際と結婚意向に影響する要因の分析 . 保健社会研究 40(4), 82-114.
_____, Suga Keita, ムン・スンヒョン . (2023). 出生性比の不均衡に伴う婚姻の特徴と政策的示唆 . 韓国保健社会研究院 .
韓国保健社会研究院 . (2018). 『 2018 年全国出生力および家族保健・福祉実態調査』 (研究報告書 2018-37).
桶川泰 . (2013). 「異性との交際が不活発な男性・女性はどのような人々か : 未婚者調査を用いたロジスティック回帰分析の結果から」『国際文化学』 26 巻 , 49-65. 神戸大学国際文化学研究科紀要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 (2017). 『 2015 年 社会保障・人口問題基本調査 (結婚と出産に関する全国調査) 現代日本の結婚と出産 - 第 15 回出生動向基本調査 (独身者調査ならびに夫婦調査) 報告書 - 』 .
_____. (2023). 『現代日本の結婚と出産 - 第 16 回出生動向基本調査 (独身者調査ならびに夫婦調査) 報告書』 .
中村真由美・佐藤博樹 . (2010). 「なぜ恋人にめぐりあえないのか？ - 経済的要因・出会いの経路・対人関係能力の側面から」佐藤博樹・永井暁子・三輪哲編『結婚の壁 - 非婚・晩婚の構造』勁草書房 , pp.54-73.
茂木暁・石田浩 . (2019). 「結婚への道のり - 出会いから交際そして結婚へ」佐藤博樹・石田浩編『出会いと結婚』勁草書房 , 44-75.

참고문헌

Abramitzky, R., Delavande, A., & Vasconcelos, L. (2011). Marrying Up: The Role of Sex Ratio in Assortative Matching.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3(3), 124–157.

Becker, G. (1973). "A Theory of Marriage: Part 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4), 813–846.

_____. (1974). "A Theory of Marriage: Part I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2, Part 2), S11–S26.

_____. (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Enlarged 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elot, M., & Francesconi, M. (2013). Dating Preferences and Meeting Opportunities in Mate Choice Decisions. Journal of Human Resources, 48(2), 474–508.

Buss, D. M., & Schmitt, D. P. (1993). Sexual Strategies Theory: An Evolutionary Perspective on Human Mating. Psychological Review, 100(2), 204–232.

Fisman, R., Iyengar, S. S., Kamenica, E., & Simonson, I. (2006). Gender Differences in Mate Selection: Evidence from a Speed Dating Experi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1(2), 673–697.

OECD. (2025). SF2.4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OECD Family Database. https://webfs.oecd.org/Els-com/Family_Database/SF_2_4_Share_births_outside_marriage.pdf

Oppenheimer, V. (1988). A Theory of Marriage Tim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3), 563–591.

Yu, W., & Kuo, J. (2016). Explaining the Effect of Parent-Child Coresidence on Marriage Formation: The Case of Japan. Demography, 53(5), 1283–1318.

参考文献

Abramitzky, R., Delavande, A., & Vasconcelos, L. (2011). Marrying Up: The Role of Sex Ratio in Assortative Matching.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3(3), 124-157.

Becker, G. (1973). "A Theory of Marriage: Part 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4), 813-846.

_____. (1974). "A Theory of Marriage: Part I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2, Part 2), S11-S26.

_____. (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Enlarged 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elot, M., & Francesconi, M. (2013). Dating Preferences and Meeting Opportunities in Mate Choice Decisions. Journal of Human Resources, 48(2), 474-508.

Buss, D. M., & Schmitt, D. P. (1993). Sexual Strategies Theory: An Evolutionary Perspective on Human Mating. Psychological Review, 100(2), 204-232.

Fisman, R., Iyengar, S. S., Kamenica, E., & Simonson, I. (2006). Gender Differences in Mate Selection: Evidence from a Speed Dating Experi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1(2), 673-697.

OECD. (2025). SF2.4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OECD Family Database. https://webfs.oecd.org/Els-com/Family_Database/SF_2_4_Share_births_outside_marriage.pdf

Oppenheimer, V. (1988). A Theory of Marriage Tim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3), 563-591.

Yu, W., & Kuo, J. (2016). Explaining the Effect of Parent-Child Coresidence on Marriage Formation: The Case of Japan. Demography, 53(5), 1283-1318.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한국(2018년), 일본(2021년)

	남성						여성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연령	1,139	27.926	6.139	3,003	29.249	7.817	1,325	26.691	6.297	2,967	28.628	7.856
학력	1,139	13.185	2.885	2,949	13.578	2.224	1,325	13.371	2.914	2,915	13.526	1.997
부모와의 동거(=1)	1,139	0.701	0.458	3,003	0.643	0.479	1,325	0.781	0.414	2,967	0.675	0.469
취업 여부(=1)	1,139	0.601	0.490	3,003	0.734	0.442	1,325	0.629	0.483	2,967	0.721	0.449
소득	684	247.580	122.922	2,035	23.677	17.884	834	202.925	100.629	1,963	19.646	22.365
임금률	684	1.366	0.677	2,024	0.129	0.098	834	1.243	0.584	1,949	0.121	0.226
노동시간	685	43.889	11.374	2,128	44.181	11.176	834	39.230	10.691	2,085	40.549	9.815
직종												
전문·관리직	685	0.162	0.369	2,082	0.313	0.464	834	0.345	0.476	2,029	0.320	0.467
사무직	685	0.185	0.389	2,082	0.096	0.294	834	0.347	0.476	2,029	0.277	0.448
판매·서비스직	685	0.244	0.430	2,082	0.278	0.448	834	0.258	0.438	2,029	0.286	0.452
기타	685	0.409	0.492	2,082	0.314	0.464	834	0.050	0.219	2,029	0.117	0.321
종사상 지위												
정규직	685	0.610	0.488	2,119	0.746	0.435	834	0.597	0.491	2,070	0.666	0.472
비정규직	685	0.299	0.458	2,119	0.186	0.389	834	0.329	0.470	2,070	0.296	0.457
자영업·가족종사자	685	0.091	0.287	2,119	0.068	0.252	834	0.074	0.262	2,070	0.038	0.192
결혼 의향(=1)	1,139	0.606	0.489	2,884	0.775	0.417	1,325	0.455	0.498	2,873	0.783	0.412
수도권 거주(=1)	1,139	0.346	0.476	3,003	0.286	0.452	1,325	0.376	0.485	2,967	0.291	0.454
지역별 S지표	1,139	−0.171	0.077	3,003	−0.138	0.058	1,325	−0.160	0.079	−	−	−
전통적 결혼·출산 규범 가치관	1,139	58.136	15.368	−	−	−	1,325	53.491	15.344	−	−	−
전통적 성역할·양육 가치관	1,139	58.582	16.250	−	−	−	1,325	54.821	16.983	−	−	−
전통적 가족 규범 가치관	−	−	−	2,889	60.643	14.755	−	−	−	2,878	54.311	15.588

25

独立変数の記述統計量：韓国 (2018 年) 、日本 (2021 年)

	男性						女性					
	韓国			日本			韓国			日本		
	標本数	平均	標準偏差	標本数	平均	標準偏差	標本数	平均	標準偏差	標本数	平均	標準偏差
年齢	1,139	27.926	6.139	3,003	29.249	7.817	1,325	26.691	6.297	2,967	28.628	7.856
学歴	1,139	13.185	2.885	2,949	13.578	2.224	1,325	13.371	2.914	2,915	13.526	1.997
親との同居 (=1)	1,139	0.701	0.458	3,003	0.643	0.479	1,325	0.781	0.414	2,967	0.675	0.469
就業の有無 (=1)	1,139	0.601	0.490	3,003	0.734	0.442	1,325	0.629	0.483	2,967	0.721	0.449
所得	684	247.580	122.922	2,035	23.677	17.884	834	202.925	100.629	1,963	19.646	22.365
賃金率	684	1.366	0.677	2,024	0.129	0.098	834	1.243	0.584	1,949	0.121	0.226
労働時間	685	43.889	11.374	2,128	44.181	11.176	834	39.230	10.691	2,085	40.549	9.815
職種												
専門・管理職	685	0.162	0.369	2,082	0.313	0.464	834	0.345	0.476	2,029	0.320	0.467
事務職	685	0.185	0.389	2,082	0.096	0.294	834	0.347	0.476	2,029	0.277	0.448
販売・サービス職	685	0.244	0.430	2,082	0.278	0.448	834	0.258	0.438	2,029	0.286	0.452
その他	685	0.409	0.492	2,082	0.314	0.464	834	0.050	0.219	2,029	0.117	0.321
従業上の地位												
正規雇用	685	0.610	0.488	2,119	0.746	0.435	834	0.597	0.491	2,070	0.666	0.472
非正規雇用	685	0.299	0.458	2,119	0.186	0.389	834	0.329	0.470	2,070	0.296	0.457
自営業・家族従業者	685	0.091	0.287	2,119	0.068	0.252	834	0.074	0.262	2,070	0.038	0.192
結婚意向 (=1)	1,139	0.606	0.489	2,884	0.775	0.417	1,325	0.455	0.498	2,873	0.783	0.412
首都圏居住 (=1)	1,139	0.346	0.476	3,003	0.286	0.452	1,325	0.376	0.485	2,967	0.291	0.454
地域別 S 指標	1,139	-0.171	0.077	3,003	-0.138	0.058	1,325	-0.160	0.079	-	-	-
伝統的結婚・出産規範の価値観	1,139	58.136	15.368	-	-	-	1,325	53.491	15.344	-	-	-
伝統的性別役割・養育の価値観	1,139	58.582	16.250	-	-	-	1,325	54.821	16.983	-	-	-
伝統的家族規範の価値観	-	-	-	2,889	60.643	14.755	-	-	-	2,878	54.311	15.588

25

발표 2

発表 2

일본과 한국의 결혼력과 출산력 비교:
핵심이 되는 템포 효과와 압축적 인구변천

日本と韓国の結婚力と出生力の比較:
鍵となるテンポ効果と圧縮人口転換

IWASAWA, Miho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동향연구부장

岩澤 美帆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動向研究部長

조성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チョ・ソンホ | 韓国保健社会研究院 研究委員

MINAMI, Takuma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동향연구부 주임연구관

南 拓磨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動向研究部主任研究官

일본과 한국의 결혼력과 출산력 비교: 핵심이 되는 템포 효과와 압축적 인구변천

Nuptiality and Fertility in Japan and Korea: Tempo Effect and Compressed Demographic Transition as Key Factors

이와사와 미호[1].조성호[2].미나미 다쿠마[1]
IWASAWA Miho, CHO Sungho, MINAMI Takuma
1.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6년 11월 4일(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세종실(5층)

日本と韓国の結婚力と出生力の比較：鍵となるテンポ効果と圧縮人口転換

Nuptiality and Fertility in Japan and Korea: Tempo Effect and Compressed Demographic Transition as Key Factors

岩澤 美帆[1]・曺成虎[2]・南拓磨[1]
IWASAWA Miho, CHO Sungho, MINAMI Takuma
1.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 韓国保健社会研究院

2026年11月4日（水）
韓国保健社会研究院（KIHASA）、世宗室（5階）

Outline

- 결혼·출산 관련 인구학적 지표를 일본과 한국 간에 비교하여, 한국의 초혼율과 출산율 상승 배경에 템포 효과의 종식이 있음을 제시
- A comparison of demographic indicators related to marriage and fertility in Japan and South Korea demonstrates that the end of the “tempo effect” lies behind the rise in South Korea’s first-marriage rate and birth rate.
- 한국의 저출산 배경으로, 또 하나의 압축적 근대성이라 할 수 있는 압축적 인구전환과 유스 벌지를 지적
- To point out that, as factors behind South Korea’s fertility decline, the “compressed demographic transition”, which can be described as another form of “compressed modernization”, and a youth bulge.

2

Outline

- 結婚、出生に関する人口学的指標を日韓で比較し、韓国の初婚率、出生率上昇の背景にテンポ効果の終焉があることを示す
- A comparison of demographic indicators related to marriage and fertility in Japan and South Korea demonstrates that the end of the “tempo effect” lies behind the rise in South Korea’s first-marriage rate and birth rate.
- 韓国の少子化の背景として、もう一つの圧縮近代といえる、圧縮人口転換とユースバルジを指摘
- To point out that, as factors behind South Korea’s fertility decline, the “compressed demographic transition”, which can be described as another form of “compressed modernization”, and a youth bulge.

2

다양한 인구학적 지표 관찰 Demographic indicatoors

- 초혼 First marriage
  - 초혼율, 초혼 해저드 First marriage rate/hazard
  - 생애과정 지표, 연령별 패턴 Life-course indicators and Age pattern
- 출산
  - 출산율 Fertility rate
- 생애과정 지표, 연령별 패턴 Life-course indicators and Age
  - 출산진도 지표(≈ 혼인 내 출산력) Parity progression measures, Marital fertility

3

様々な人口学的指標を観察 Demographic indicatoors

- 初婚 First marriage
  - 初婚率、初婚ハザード First marriage rate/hazard
  - ライフコース指標、年齢別パターン Life-course indicators and Age pattern
- 出生
  - 出生率 Fertility rate
- ライフコース指標、年齢別パターン Life-course indicators and Age
  - パリティ拡大指標(≈ 結婚出生力) Parity progression measures, Marital fertility

3

자료

- 일본
  - 총무성 통계국「국세조사」「인구추계」(총인구, 일본인 인구, 10월 1일) Japanese Census
  - 「일본판 사망 데이터베이스」(총 생존인년) Japanese Mortality Database
  - 사인연「일본의 장래추계인구(레이와 5년 추계)」Population projection for Japan
  - 후생노동성「인구동태통계」(공표치, 2차 이용) Vital Statistics of Japan

- 한국
- 국가데이터처 MODS, KOSIS,「인구동향조사」(총인구, 7월 1일) Vital Statistics of Korea
  - UN 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총인구, 7월 1일)(UN 202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조사」KIHASA,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Family Health and Welfare

※ 그 밖에 공표치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의 추계 및 기존 통계를 활용한 자체 추계치를 사용.

4

データ

- 日本
  - 総務省統計局「国勢調査」「人口推計」（総人口、日本人人口、10月1日）Japanese Census
  - 「日本版死亡データベース」（生存述べ年数） Japanese Mortality Database
  - 社人研「日本の将来推計人口（令和5年推計）」Population projection for Japan
  - 厚労省「人口動態統計」(公表値、二次利用）Vital Statistics of Japan

- 韓国
- 国家データ処 MODS、KOSIS、「人口動向調査」（総人口、7月1日） Vital Statistics of Korea
  - UN DESA,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総人口、7月1日）(UN 2024)
  - 韓国保健社会研究院「全国出産力及び家族保険福祉調査」KIHASA,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Family Health and Welfare

※　その他、公表値がない場合は、研究者による推計、既存統計を用いた独自推計値を用いる。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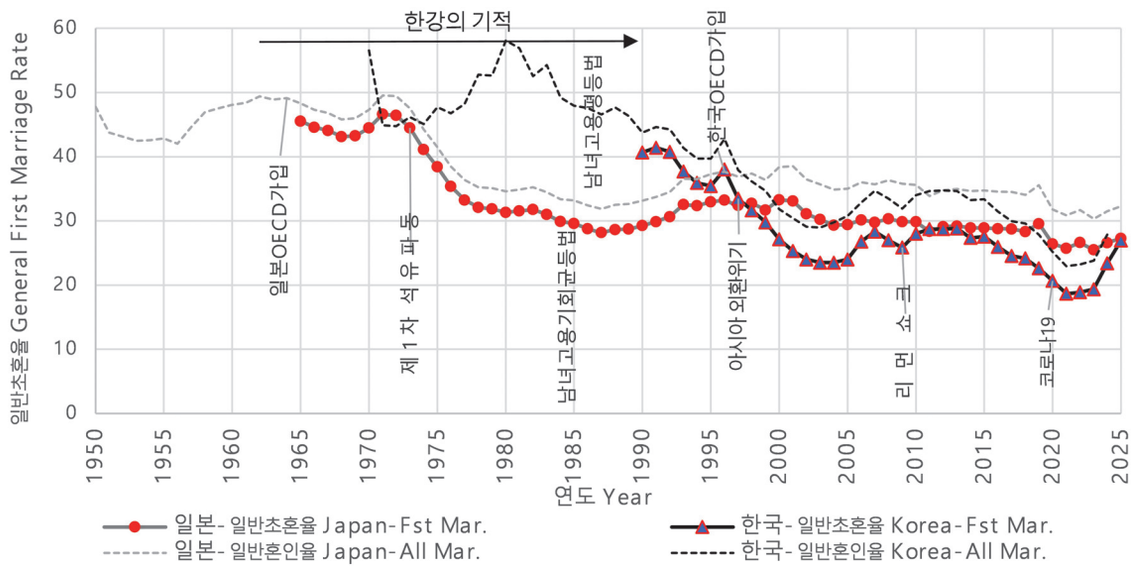
초혼 과정 First marriage behavior

5

初婚過程 First marriage behavior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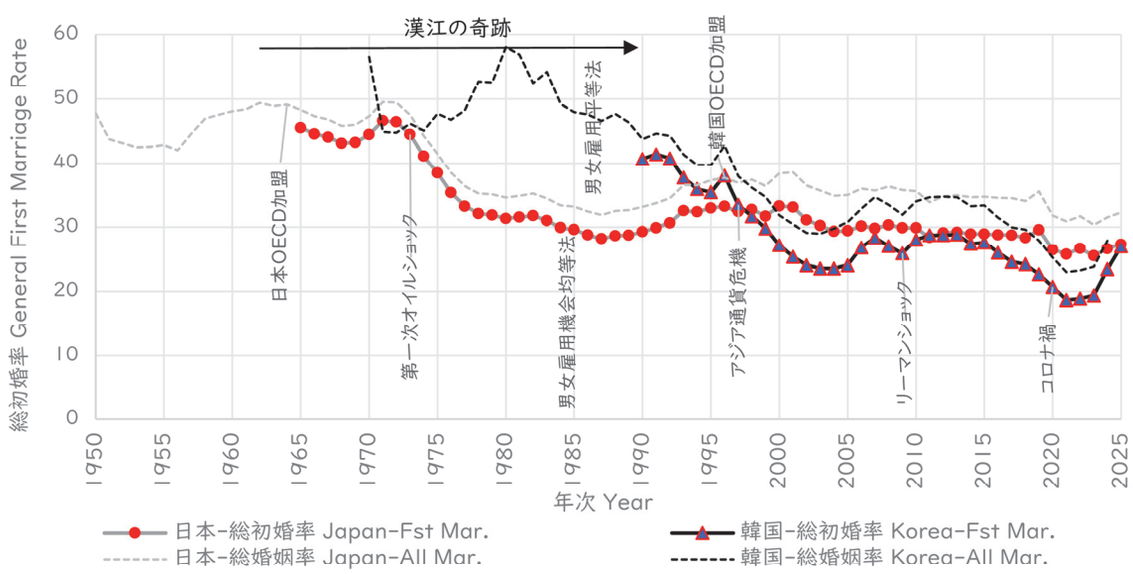
중장기 혼인: 일반초혼율 General First Marriage Rate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Vital Statistics, 국가데이터처, KOSIS MODS, KOSIS, UN, WPP 202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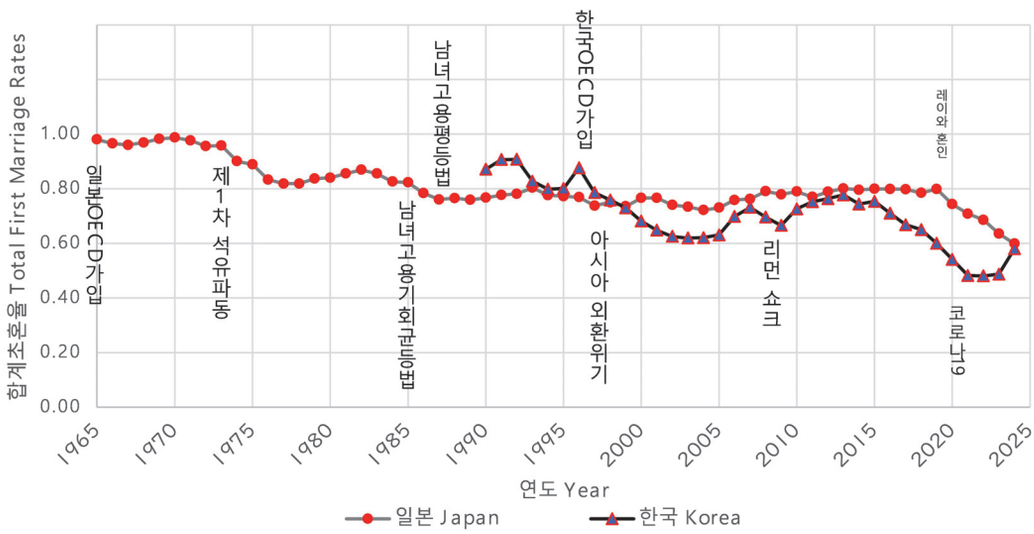
中長期の婚姻：総初婚率 General First Marriage Rate



厚労省「人口動態統計」 Vital Statistics, 国家データ処, KOSIS MODS, KOSIS, UN, WPP 202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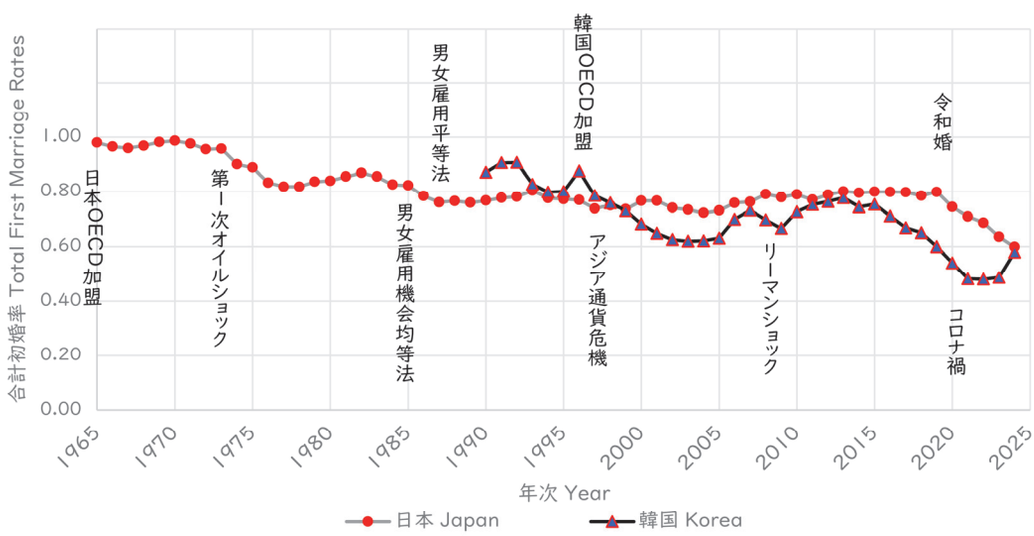
1965년 이후 합계초혼율(연령구조 통제)
Total First Marriage Rate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신고 지연 보정) Vital Statistics, 국가데이터처, KOSIS MODS,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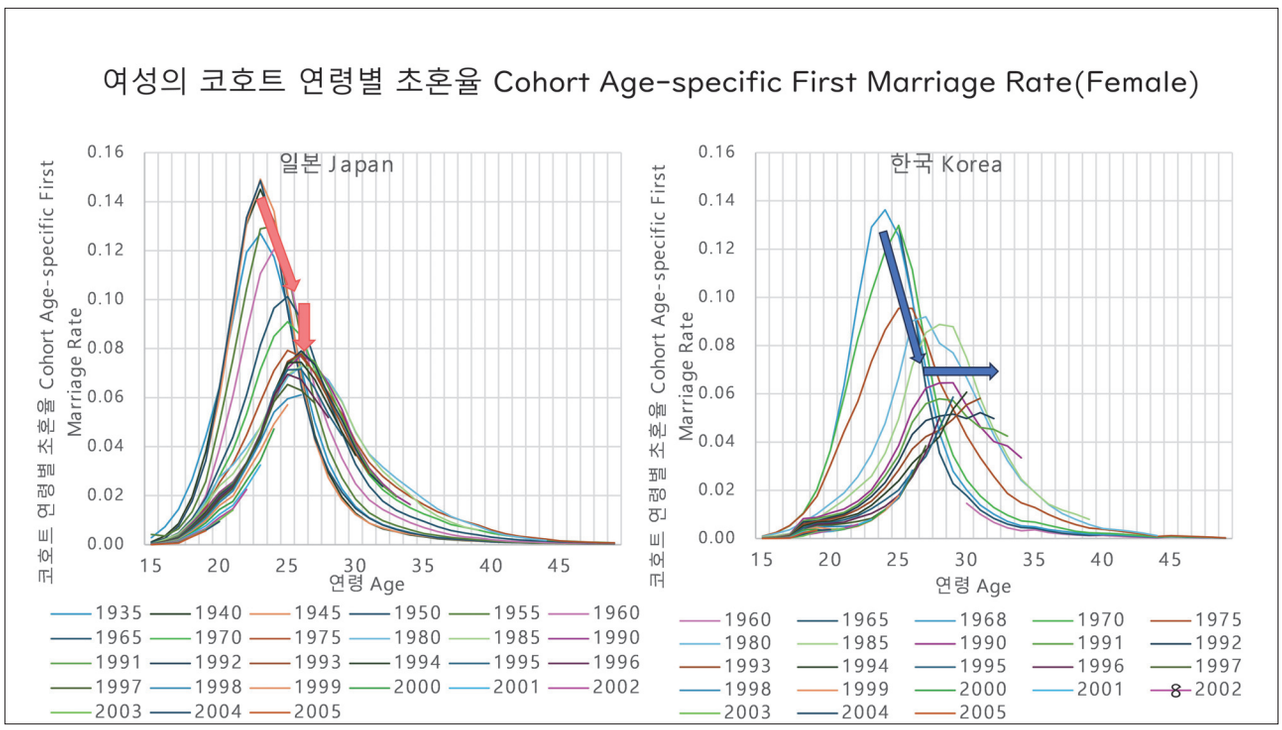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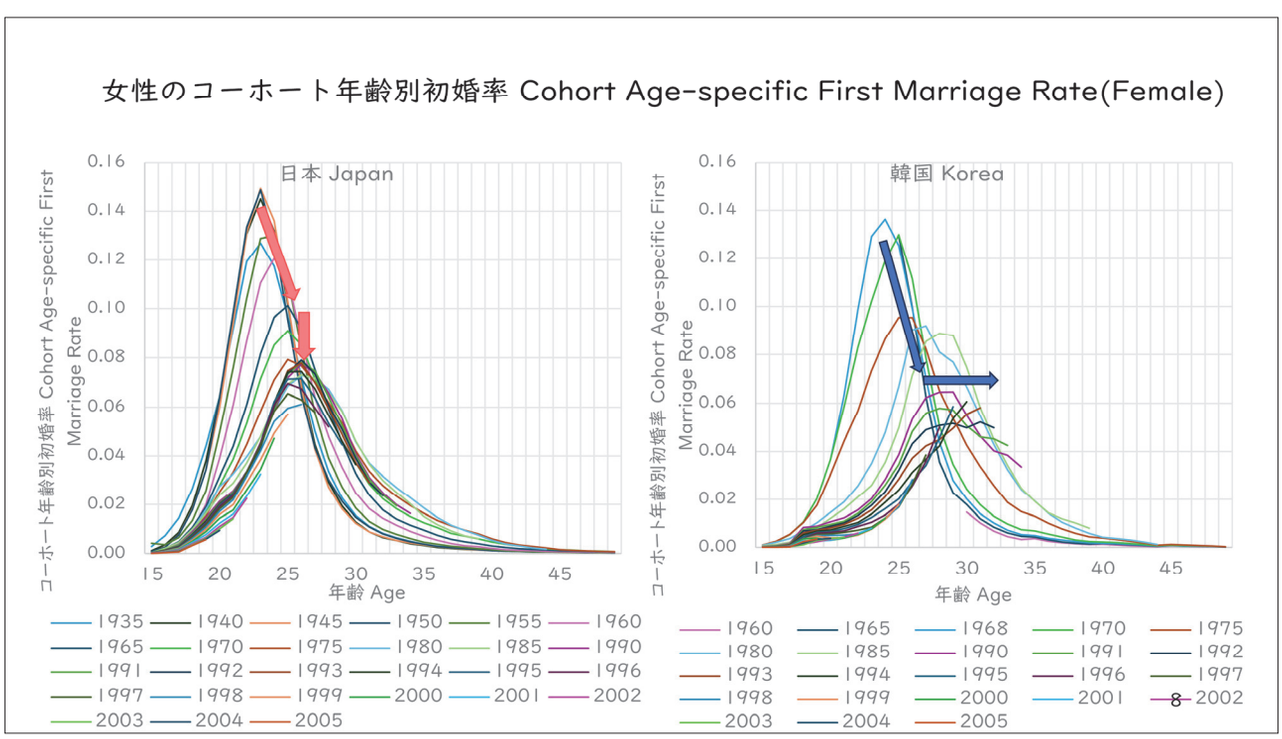
1965～ 合計初婚率（年齢構成を統制）
Total First Marriage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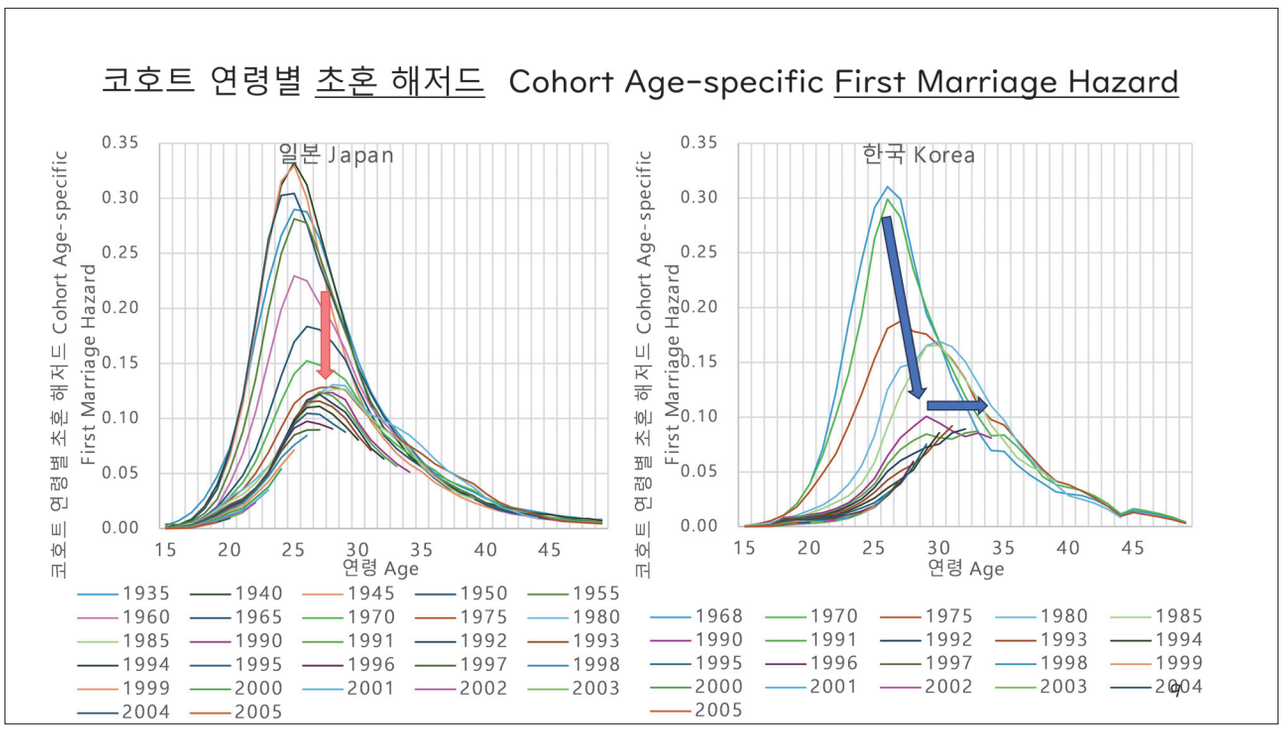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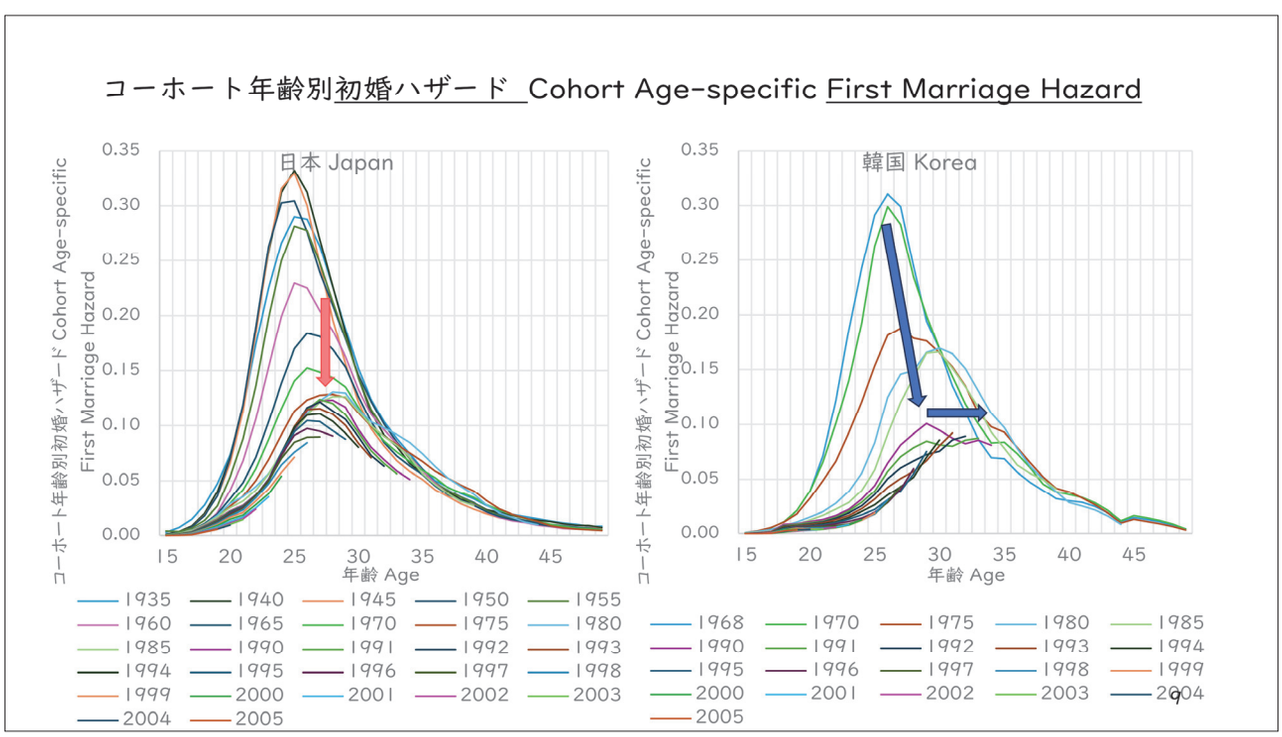
厚労省「人口動態統計」(届出遅れ補正) Vital Statistics, 国家データ処, KOSIS MODS, KOSIS

7


여성의 코호트 연령별 초혼율 Cohort Age-specific First Marriage Rate(Female)
일본 Japan
한국 Korea
코호트 연령별 초혼율 Cohort Age-specific First Marriage Rate
연령 Age
0.16
0.14
0.12
0.10
0.08
0.06
0.04
0.02
0.00
15 20 25 30 35 40 45
1935 1940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960 1965 1968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女性のコーホート年齢別初婚率 Cohort Age-specific First Marriage Rate(Female)
日本 Japan
韓国 Korea
コーホート年齢別初婚率 Cohort Age-specific First Marriage Rate
年齢 Age
0.16
0.14
0.12
0.10
0.08
0.06
0.04
0.02
0.00
15 20 25 30 35 40 45
1935 1940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960 1965 1968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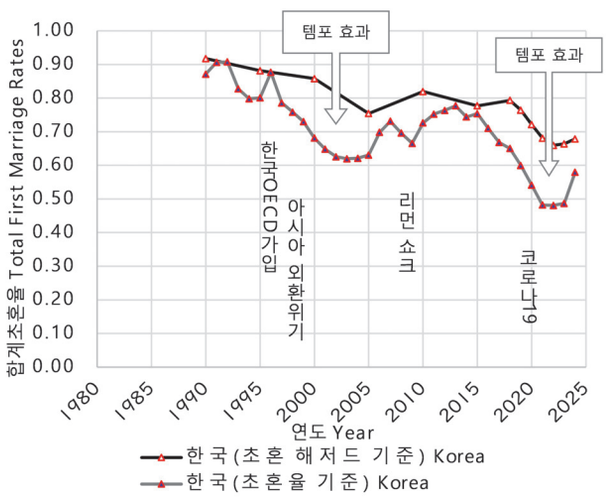

코호트 연령별 초혼 해저드 Cohort Age-specific First Marriage Hazard
일본 Japan
한국 Korea
코호트 연령별 초혼 해저드 Cohort Age-specific First Marriage Hazard
First Marriage Hazard
연령 Age
0.35
0.30
0.25
0.20
0.15
0.10
0.05
0.00
15 20 25 30 35 40 45
1935 1940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968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コーホート年齢別初婚ハザード Cohort Age-specific First Marriage Hazard
日本 Japan
韓国 Korea
コーホート年齢別初婚ハザード Cohort Age-specific First Marriage Hazard
First Marriage Hazard
年齢 Age
0.35
0.30
0.25
0.20
0.15
0.10
0.05
0.00
15 20 25 30 35 40 45
1935 1940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968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초혼율에 기초한 합계초혼율(TFMR)과 초혼 해저드에 기초한 초혼표 합계초혼율(TFMR by marriage hazard and marriage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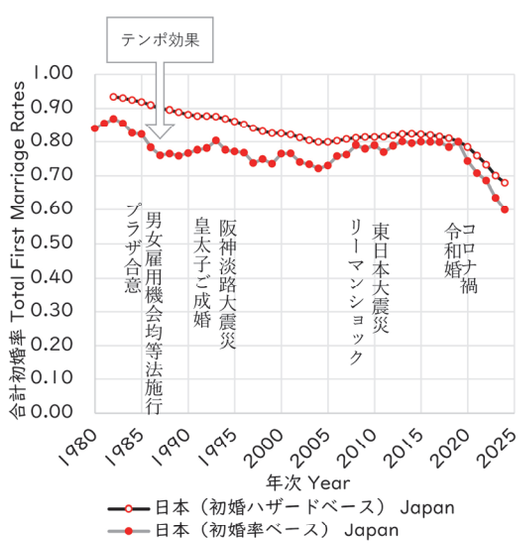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신고 지연 보정) Vital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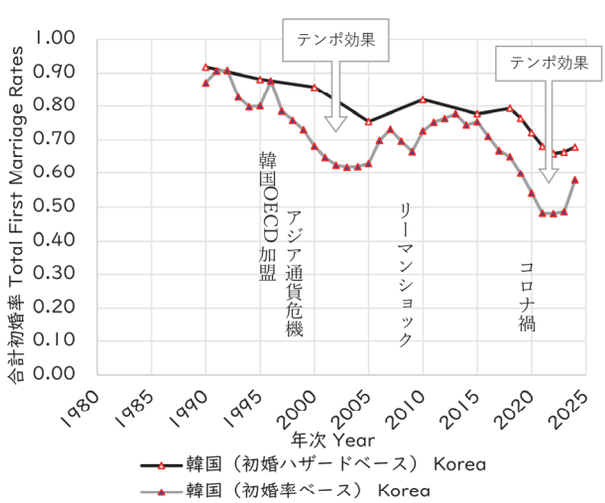
국가데이터처, KOSIS MODS, KOSIS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조사 The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10

初婚率にもとづく合計初婚率(TFMR)と初婚ハザードにもとづく初婚表合計初婚率 (TFMR by marriage hazard and marriage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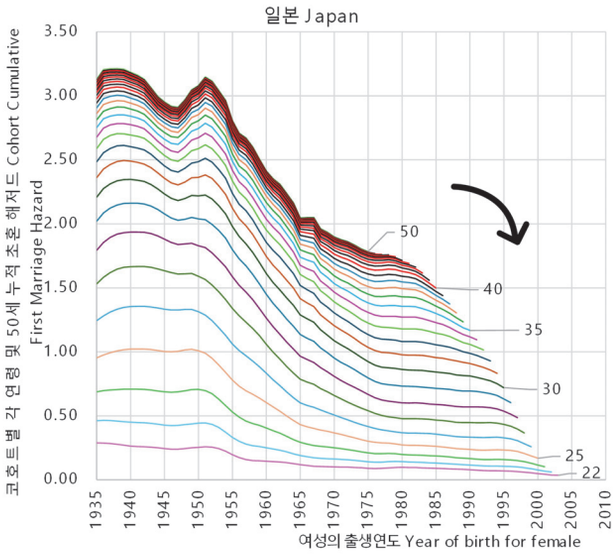
厚労省「人口動態統計」(届出遅れ補正) Vital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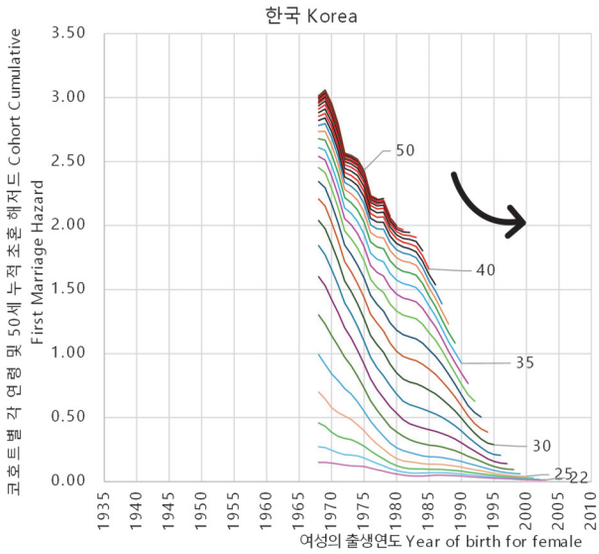
国家データ処, KOSIS MODS, KOSIS 全国出産力及び家族保健福祉調査 The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10

초혼 과정의 진행 상황: 코호트 각 연령별 누적 초혼 해저드 Cohort cumulative FM haz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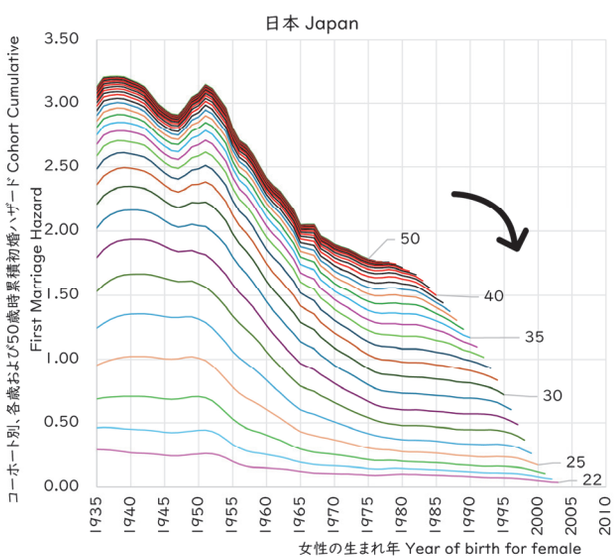


후생노동성「인구동태통계」(신고 지연 보정) Vital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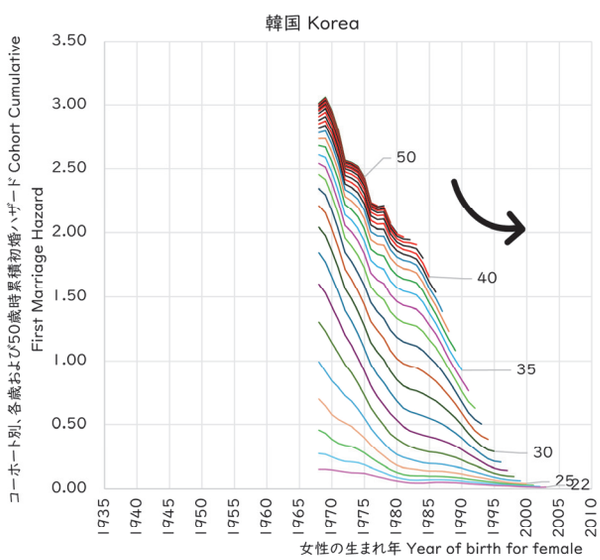


국가데이터처, KOSIS MODS, KOSIS

初婚過程途上の状況：コーホート各年齢累積初婚ハザード Cohort cumulative FM haz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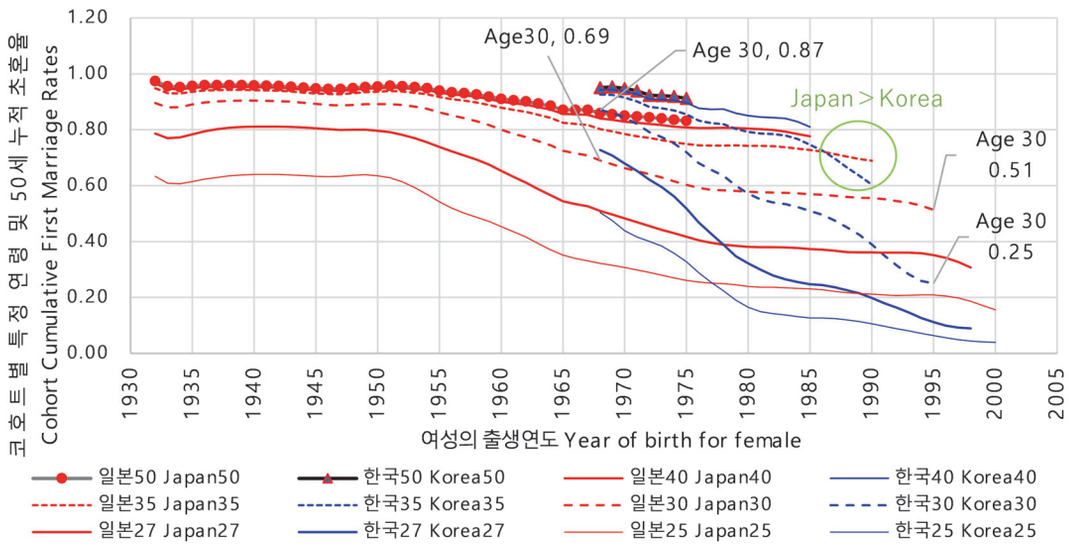


厚労省「人口動態統計」(届出遅れ補正) Vital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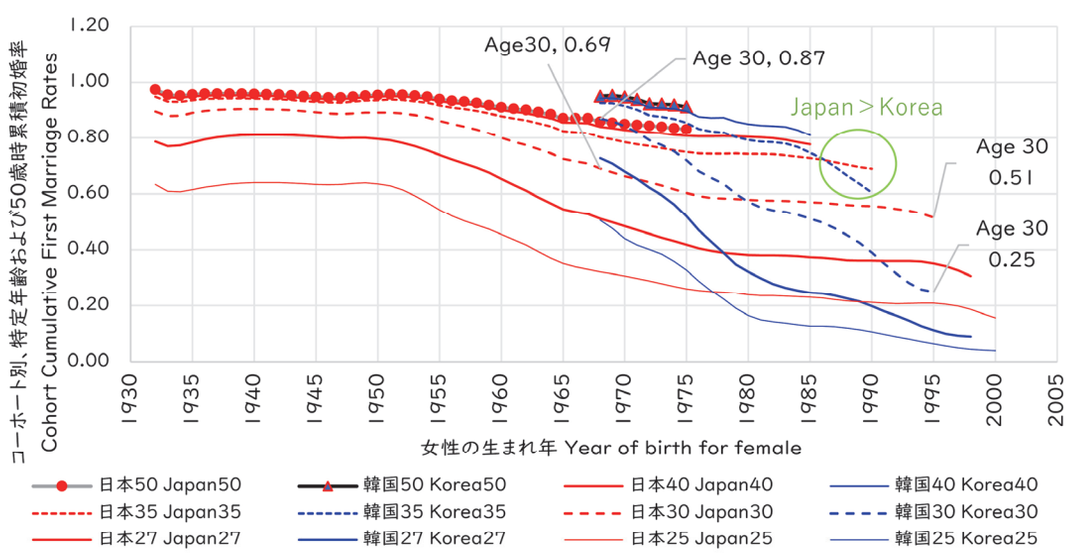
国家データ処, KOSIS MODS, KOSIS

코호트 특정 연령까지의 누적 초혼율 Cohort Cumulative First Marriage Rates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신고 지연 보정) Vital Statistics, 국가데이터처, KOSIS MODS, KOSIS 12

コーホート特定年齢累積初婚率 Cohort Cumulative First Marriage R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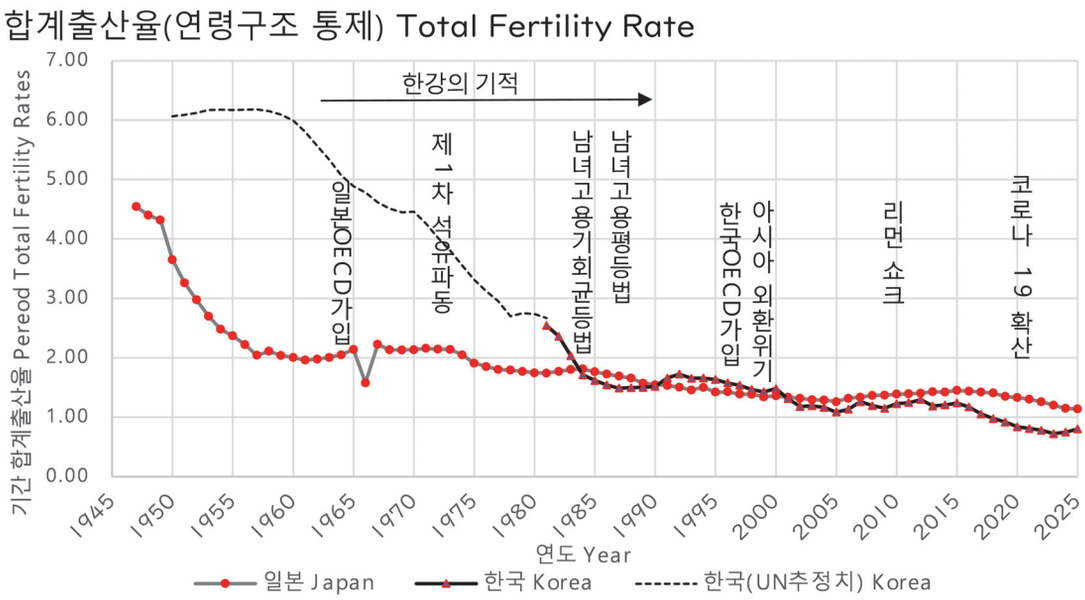
厚労省「人口動態統計」(届出遅れ補正) Vital Statistics, 国家データ処, KOSIS MODS, KOSIS 12

출산 과정 Reproductive Behavior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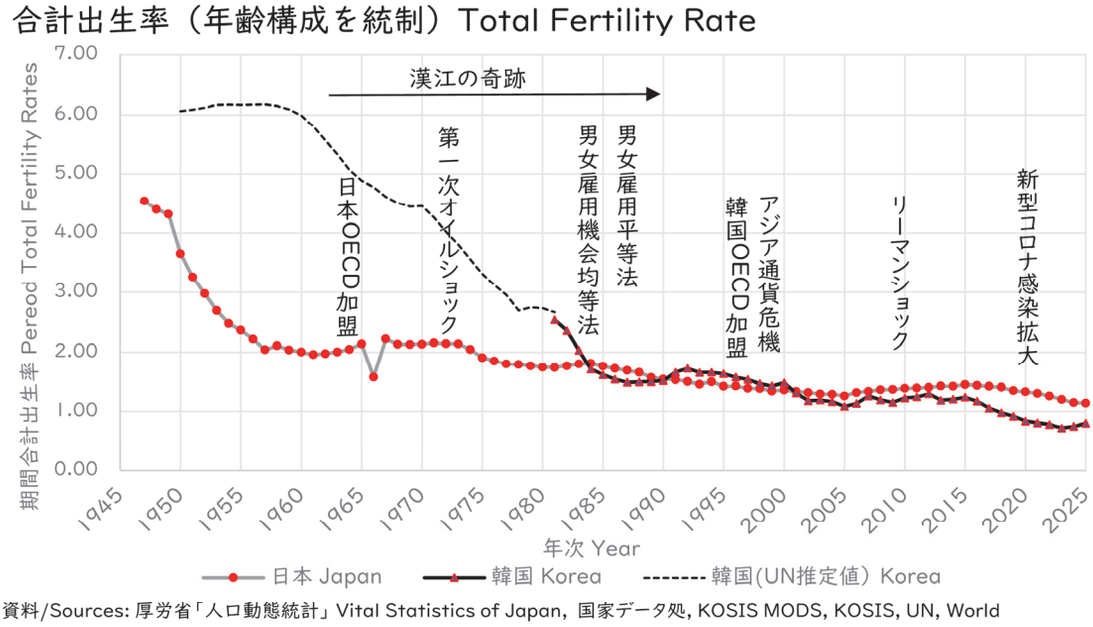
出生過程 Reproductive Behavior

13



자료/Sources: 후생노동성「인구동태통계」Vital Statistics of Japan, 국가데이터처, KOSIS MODS, KOSIS,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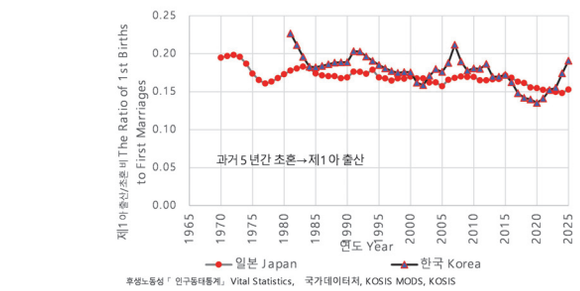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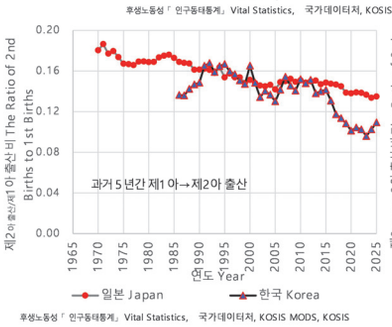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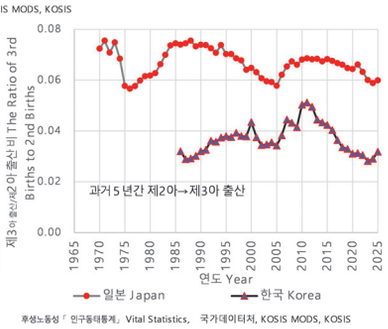
資料/Sources: 厚労省「人口動態統計」Vital Statistics of Japan, 国家データ処, KOSIS MODS, KOSIS,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14

출산진도(초혼→첫째아, 첫째아→둘째아, 둘째아→셋째아) Parity Prog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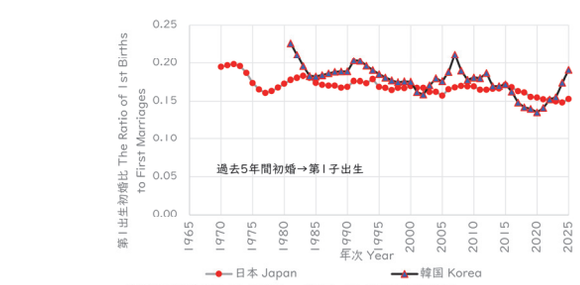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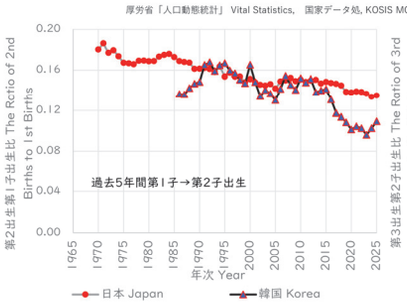


자녀를 1명만 낳는 사회가 되어 가는 한국

15

パリティ拡大（初婚→第1子、第1子→第2子、第2子→第3子） Parity Prog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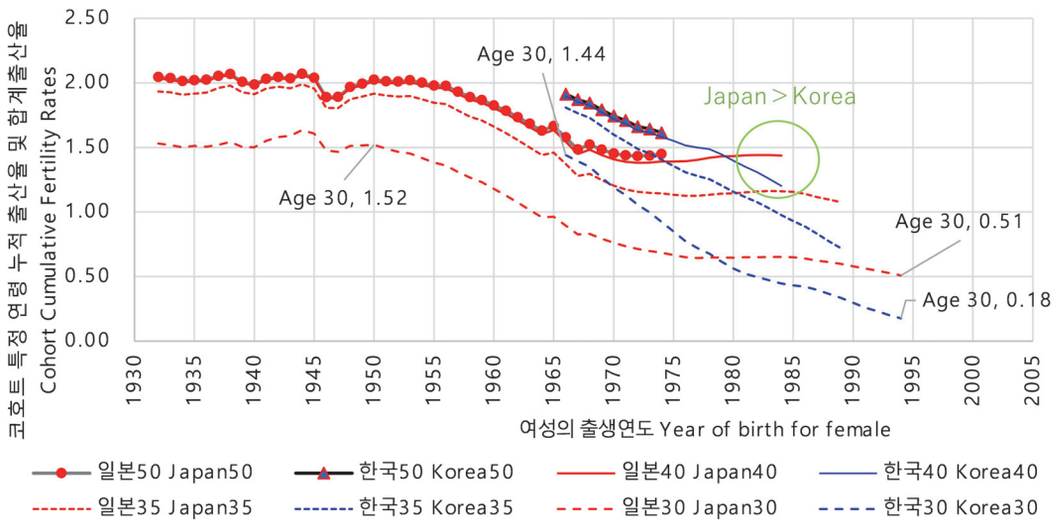




子どもは1人という社会になりつつある韓国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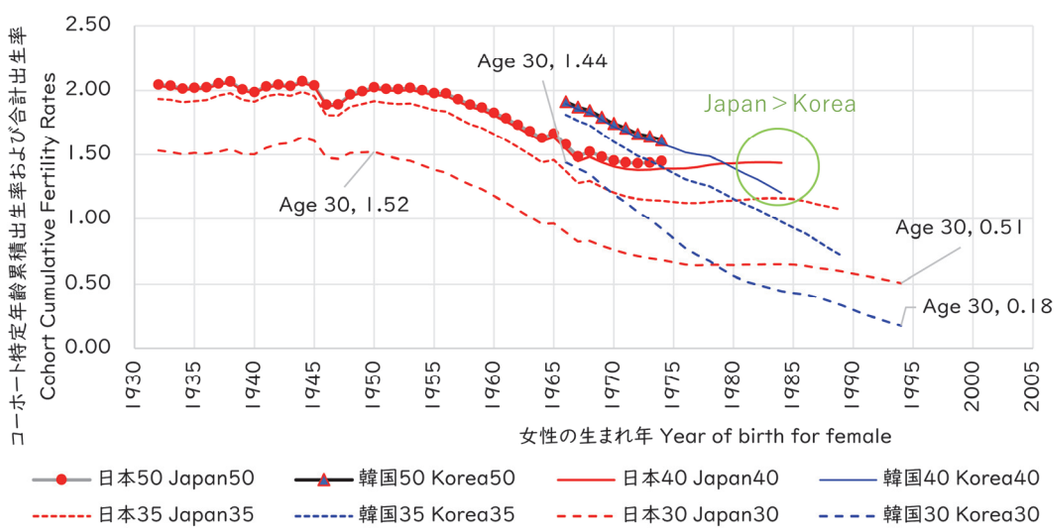
코호트 특정 연령까지의 누적 출산율 Cohort cumulative fertility rates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Vital Statistics, 국가데이터처, KOSIS MODS, KOSIS

16

コーホート特定年例累積出生率 Cohort cumulative fertility rates



厚労省「人口動態統計」 Vital Statistics, 国家データ処, KOSIS MODS, KOSIS

16

또 하나의 압축적 근대성:
한국의 압축적 인구전환에 따른 유스 벌지와 저출산

Another compressed modernity:
A youth bulge led by compressed demographic transition and fertility decline

17

もう一つの圧縮近代：
韓国の圧縮人口転換によるユースバルジと少子化

Another compressed modernity:
A youth bulge led by compressed demographic transition and fertility decline

17

압축적 인구전환 Compressed Demographic Transition

사회·경제·문화 차원의 압축적 근대성

- 사회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기존 문화 간의 마찰(Chang 2010, 2022)

인구학적 차원의 압축적 근대성 - 압축된 인구전환

- 1950년대까지 출산율이 하락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1970년대까지 높은 출산율이 지속됨.
- 한편,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인구가 증가하였고, 이 기간의 많은 출생아가 이후 거대한 유스 벌지를 형성
- 이 유스 벌지 세대는 과당경쟁에 노출되는 가운데 성평등·자아실현 등 개인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획득하고(제2차 인구전환), 재생산을 억제하는 행동을 취했을 가능성.

18

圧縮人口転換 Compressed Demographic Transition

社会経済文化的な圧縮近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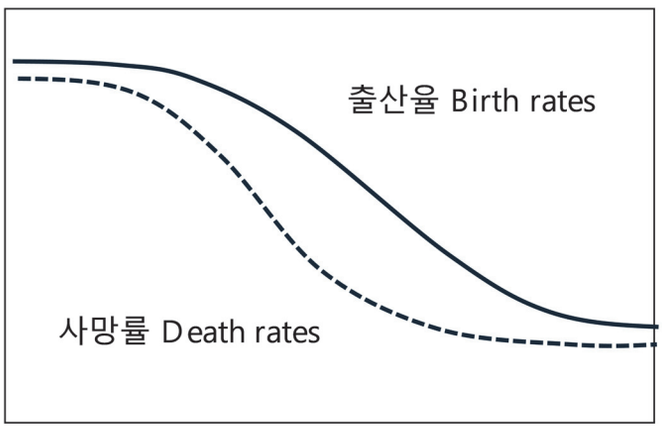
- 社会経済の急速な発展と旧来文化との摩擦（Chang 2010, 2022)

人口学的圧縮近代 – 圧縮された人口転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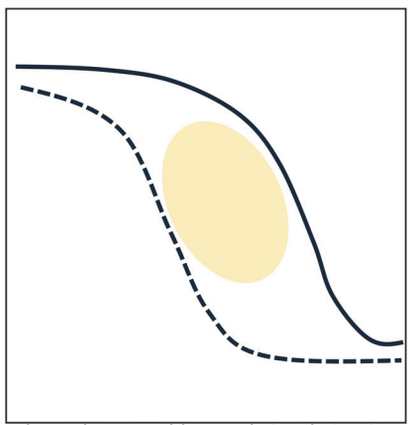
- 1950年代までに出生率低下が起きた日本と比べ、韓国は1970年代まで高出生率が続いた。
- 一方、死亡率は急速に低下して人口が増加し、この期間に大量に生まれた出生が、その後、巨大なユースバルジを形成する
- このユースバルジ世代が、過当競争にさらされる中、男女平等や自己実現など、個人を重視する新たな価値観を得（第２の人口転換）、再生産を抑制する行動をとった可能性。

18

인구전환
Demographic tran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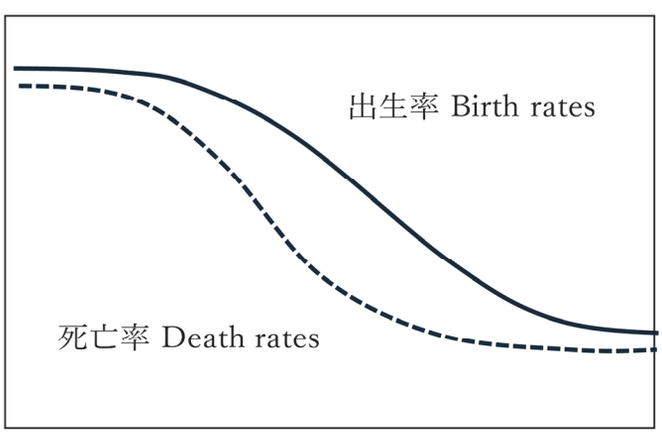
압축된 인구전환
Compressed demographic tran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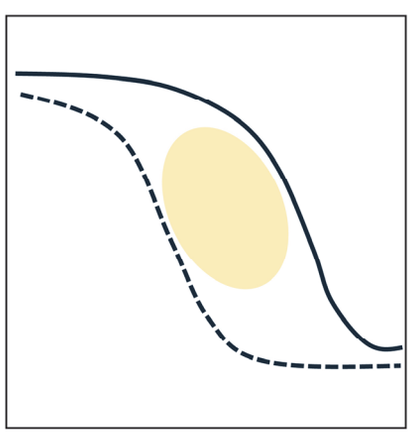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높은 출산율이 많은 출생아를 만들어 냄

19

人口転換
Demographic transition



圧縮された人口転換
Compressed demographic tran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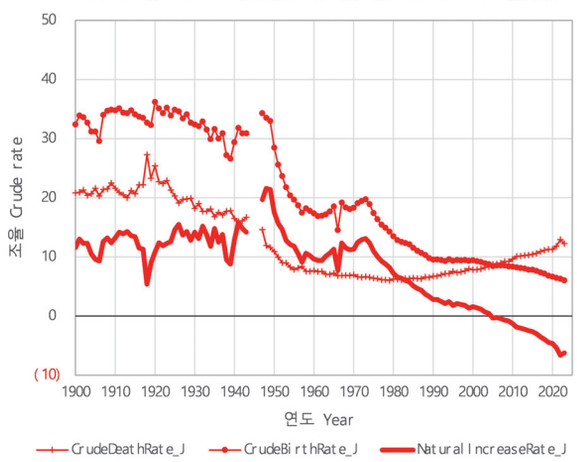


人口が急増する中で、高い出生率が大量の出生数を生み出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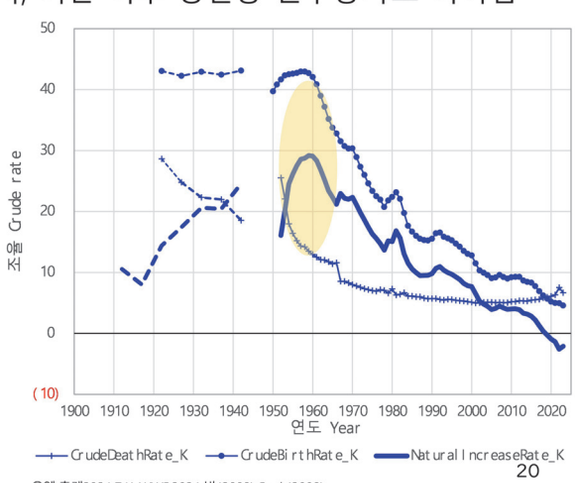
19

일본과 한국의 인구전환
조사망률, 조출생률, 자연증가율

- 한국은 사망률 하락 후에도 비교적 높은 출산율이 지속. 1950~1970년대의 인구증가와 맞물려 출생아 수가 늘었으며, 이는 이후 청년층 인구증가로 이어짐



후생노동성「인구동태통계」Vital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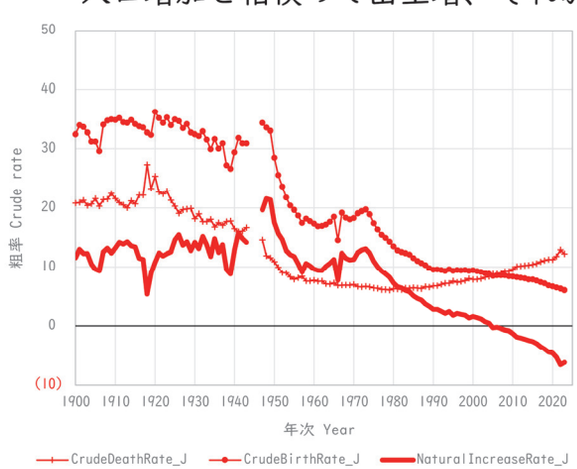


유엔 추계2024,7/1 WWP2024 박(2009) Park(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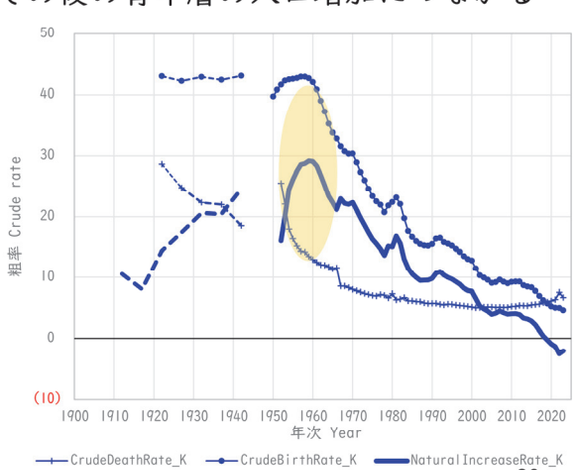
20

日本と韓国の人口転換
粗死亡率、粗出生率、自然増加率

- 韓国は死亡率低下後も比較的高い出生率が継続、1950年代～1970年代の人口増加と相俟って出生増、それがその後の青年層の人口増加につなが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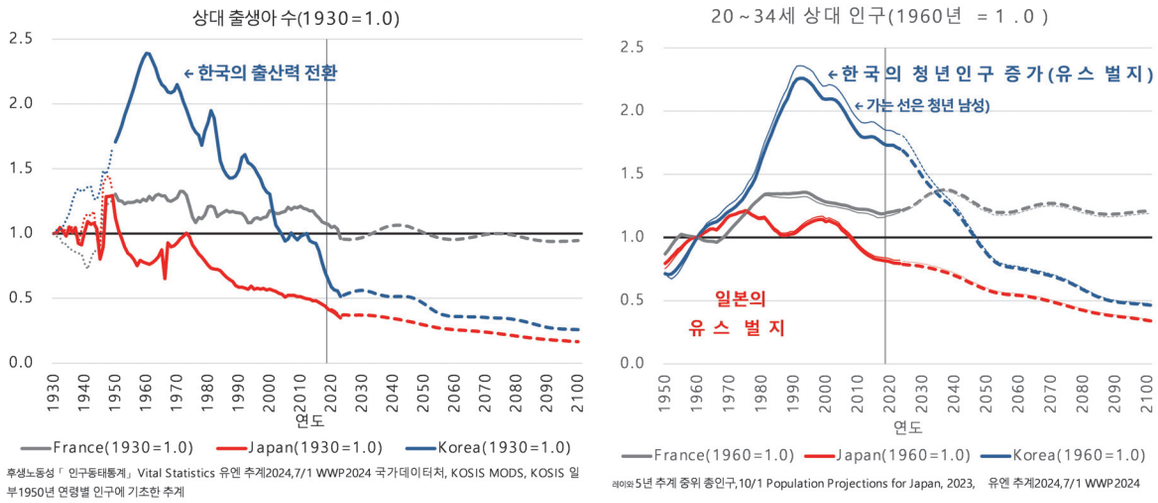
厚労省「人口動態統計」Vital Statistics



国連推計2024,7/1 WWP2024 朴(2009) Park(2009)

20

출생아 수와 청년인구(남녀)의 상대적 변화(프랑스, 일본,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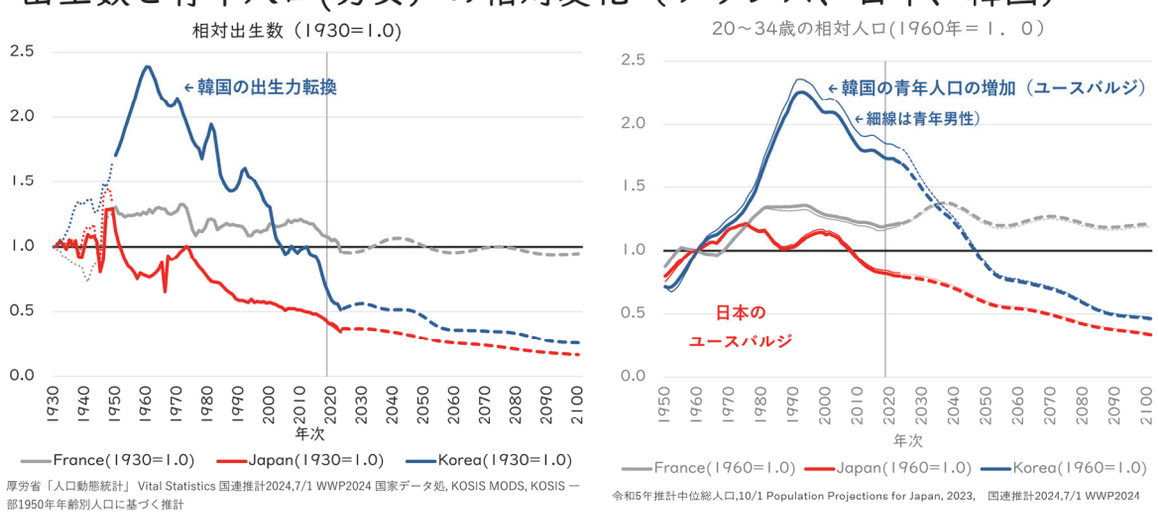
후생노동성「인구동태통계」Vital Statistics 유엔 추계2024,7/1 WWP2024 국가데이터처, KOSIS MODS, KOSIS 일부1950년 연령별 인구에 기초한 추계

레이와5년 추계 중위 총인구,10/1 Population Projections for Japan, 2023, 유엔 추계2024,7/1 WWP2024

한국은 유스 벌지뿐 아니라 심각한 남성 과잉도 동시에 발생(조성호, Keita Suga, 문승한 외 (조·스가·문 외) 2023). 일반적으로 여성의 초혼율 하락은 예상되지 않지만(Schoen 1983), ① 한국의 남성 과잉은 군 지역에 집중되어 서울 등 대도시권에서는 여성이 부족하지 않음, ② 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른 미스매치(Raymo and Iwasawa 2005)가 한국에서도 발생, ③ 여성의 희소성은 여성에게 유리한 결혼을 촉진하지만(Guttentag and Secord 1983), 성불평등한 결혼은 수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위가 높아진 여성은 수적 부족으로 교섭력이 더욱 커져(Anderson and Kohler 2015), 결혼에 요구하는 조건이 높아지고 있을 가능성 등을 생각할 수 있음.

21

出生数と青年人口(男女）の相対変化（フランス、日本、韓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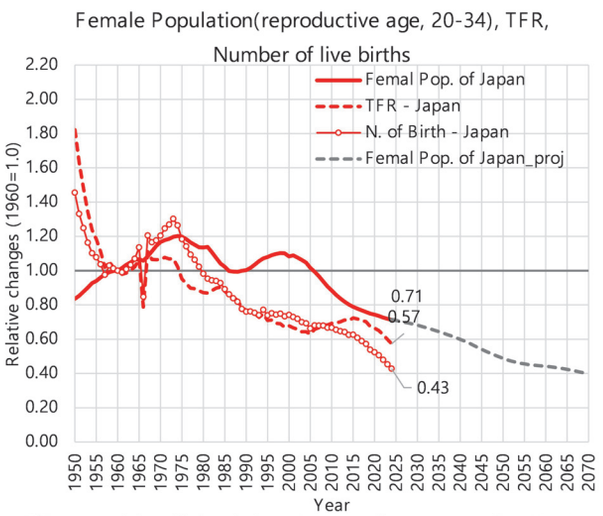
厚労省「人口動態統計」Vital Statistics 国連推計2024,7/1 WWP2024 国家データ処, KOSIS MODS, KOSIS 一部1950年年齢別人口に基づく推計

令和5年推計中位総人口,10/1 Population Projections for Japan, 2023, 国連推計2024,7/1 WWP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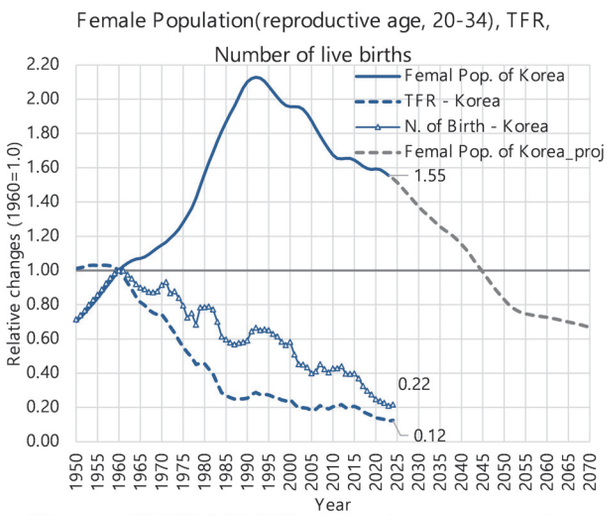
韓国はユースバルジだけでなく、著しい男性過剰も同時発生（조성호, Keita Suga, 문승한 외 （曺・菅・ムンほか） 2023）。通常は女性の初婚率低下は予測されない（Schoen 1983)が、①韓国の男性過剰は郡部に集中し、ソウルなど大都市圏では女性過少ではない、②女性の高学歴化によるミスマッチ(Raymo and Iwasawa 2005)が韓国でも起きている、③女性の希少性は女性に有利な結婚を促すものの（Guttentag and Secord 1983）、男女不平等な結婚は受け入れられず、むしろ、地位が上昇した女性が、過少ゆえにさらに交渉力を上げ（Anderson and Kohler 2015）、結婚に対する条件が引き上げられている可能性などが考えられる。

21

1960년 기준 20~34세 여성인구, 출산율, 출생아 수(상대적 수준)
높은 인구밀도는 낮은 출산율을 초래(Lutz et al. 2006). 한국의 저출산 배경에는 일본을 훨씬 웃도는 유스 벌지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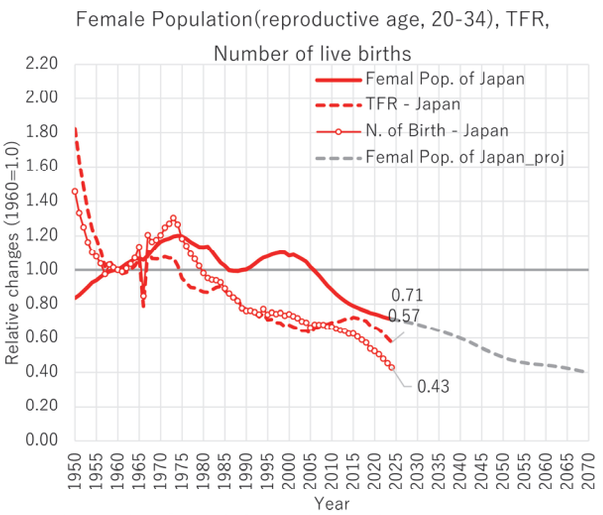
자료/Sources: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Vital Statistics of Japan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일본의 장래추계인구(레이와5년 추계)」 출생·사망 중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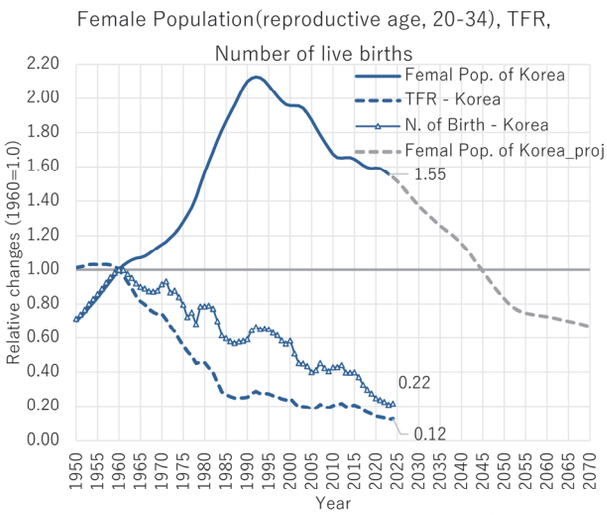
자료/Sources: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Vital Statistics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유엔「 세계인구전망2024」,

22

1960年を基準にした20～34歳女性人口、出生率、出生数（相対水準）
人口高密度は低出生率を招く（Lutz et al. 2006)、韓国の少子化の背景に日本をはるかに上回るユースバルジの存在



資料/Sources: 厚労省「人口動態統計」 Vital Statistics of Japan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日本の将来推計人口（令和5年推計）」出生中位・死亡中位,



資料/Sources: 国家データ処「人口動向調査」 Vital Statistics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国連「世界人口推計2024」,

22

결과 요약

- 초혼 과정, 출산 과정
  - 일본은 만혼화→비혼화 국면
  - 한국은 급격한 초혼 연기→연기 추세가 멈췄는가?→템포 효과의 종식에 따른 회복(실질적인 회복은 아님)
  - 한국의 초혼에서 첫째아 출산으로의 이행은 2010년대 후반 크게 감소했으나 이후 회복. 다만 둘째아·셋째아로의 이행은 일본을 크게 하회→「자녀 1명 사회」로.
  - 1980년대 후반 출생 코호트 이후에는 한국의 초혼과 출산이 일본 수준을 밑돌 전망.

23

結果のまとめ

- 初婚過程、出生過程
  - 日本は晩婚化→非婚化局面
  - 韓国は急激な初婚先送り→先送りが底を打った？→テンポ効果の終焉による回復（実質的な回復ではない）
  - 韓国の初婚から第1子は、2010年代後半に著しく落ち込むが、その後回復。ただし、2子、3子への移行は日本を大きく下回る→「子ども1人社会」へ。
  - 1980年代後半生まれ以降は、韓国の初婚と出生は、日本の水準を下回る見込み。

23

결과 요약(계속)

- 양국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청년인구 추이(20~34세 여성인구)
  - 압축적 인구전환으로 출생아 증가와 이후 유스 벌지를 경험한 한국
  - 일본은 1970년대 중반 1960년의 1.2배로 정점에 도달한 뒤 감소. 2024년에는 0.57배, 2050년에는 1960년의 절반 수준
  - 한국은 1990년대 청년인구가 1960년의 2.2배(유스 벌지). 이후 감소하지만 2024년에도 여전히 1.5배이며, 2050년경 1960년 수준을 하회.
- 부모가 되는 세대의 인구증가는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자녀의 양에서 질로의 전환을 촉진. 또한 제2차 인구전환에서 나타나는 개인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획득하면서 출산을 억제하고 있을 가능성
- 청년이 살아갈 장소와 수단의 확보가 필수(해외이주도 그중 하나). 다만 한국의 청년인구는 이미 감소 국면에 진입하여 과당경쟁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앞으로 확실히 도래할 올드 벌지에 대한 대책도 필요. 이러한 전개는 다른 후발국 later comers 에도 공통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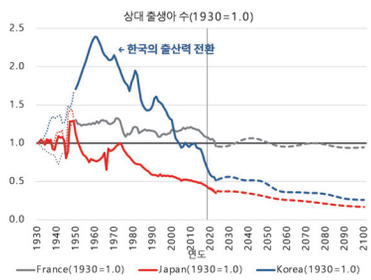
24

結果のまとめ（つづ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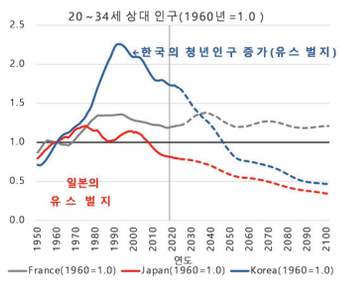
- 両国で異なる若者人口の推移（20～34歳女性の人口）
  - 圧縮人口転換により、出生数とその後のユースバルジを経験した韓国
  - 日本は1970年代半ば、1960年の1.2倍でピーク、その後減少し2024年は0.57 、2050には1960年の半分に
  - 韓国は、1990年代、1960年の2.2倍の若者人口（ユースバルジ）、その後減少するが2024年でまだ1.5倍、2050年頃に1960年の水準を下回る。
- 親になる世代の人口増は、過当競争を引き起こし、子どもの量から質への転換を進めたほか、第２の人口転換で見られる個人を重視する価値観を得て、出生を抑制している可能性
- 若者が生きるための場所と手段の確保が必須（海外移住もその一つ）。ただし、韓国ではすでに若者人口は減少局面。過当競争がやわらぐ可能性も。
- 一方で、今後確実に到来するオールドバルジへの対策も必要。こうした展開は他の後発国 later comers にも共通する課題。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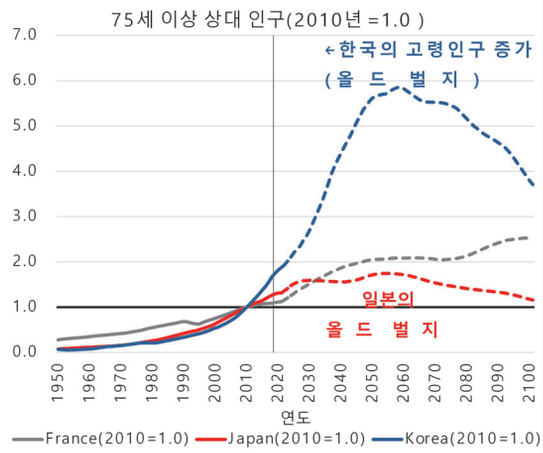
75세 이상 인구(남녀)의 상대적 변화(프랑스, 일본, 한국)



무엇노동성「 인구동태통계」Vital Statistics 유엔 추계2024,7/1 WWP2024 국가데이터처, KOSIS MODS, KOSIS 일부1950년 연령별 인구에 기초한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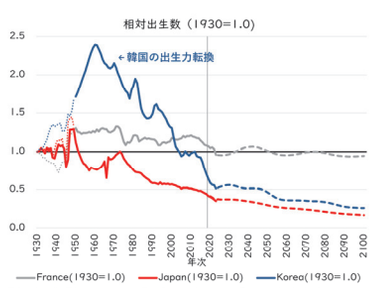
총무성 통계국「 국세조사」, 10/1 Population census, 국가데이터처, KOSIS MODS, KOSIS, 레이와5년 추계 중위 총인구,10/1 Population Projections for Japan, 2023, 유엔 추계2024,7/1 WWP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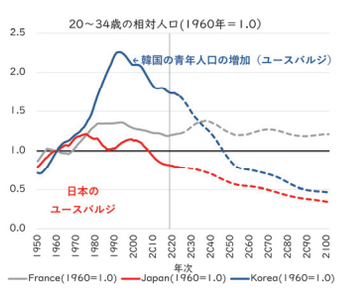
총무성 통계국「 국세조사」, 10/1 Population census, 국가데이터처, KOSIS MODS, KOSIS, 레이와5년 추계 중위 총인구,10/1 Population Projections for Japan, 2023, 유엔 추계2024,7/1 WWP202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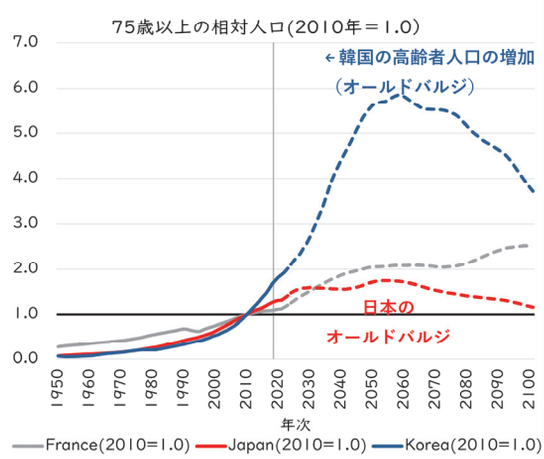
75歳以上人口(男女）の相対変化（フランス、日本、韓国）



厚労省「人口動態統計」Vital Statistics 国連推計2024,7/1 WWP2024 国家データ処, KOSIS MODS, KOSIS 一部1950年年齢別人口に基づく推計



総務省統計局「国勢調査」, 10/1 Population census, 国家データ処, KOSIS MODS, KOSIS, 令和5年推計中位総人口,10/1 Population Projections for Japan, 2023, 国連推計2024,7/1 WWP2024



総務省統計局「国勢調査」, 10/1 Population census, 国家データ処, KOSIS MODS, KOSIS, 令和5年推計中位総人口,10/1 Population Projections for Japan, 2023, 国連推計2024,7/1 WWP2024

25

References

- Anderson, Thomas, and Hans - Peter Kohler(2015)"Low fertility,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gender equ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3 381-407.
- Chang, Kyung-Sup(2010) *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 Familial Political Economy in Transition*, Routledge.
- Chang, Kyung-Sup(2022) *The Logic of Compressed Modernity*, John Wiley & Sons.
- 조성호, Keita Suga, 문승현 외 (2023)(2023),『출생성비 불균형에 따른 혼인 특성과 정책적 함의』,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성호·스가 게이타·문승현(2023)『출생성비 불균형에 따른 혼인 특성과 정책적 함의』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Guttentag, Marcia, and Paul F. Secord(1983). *Too Many Women? The Sex Ratio Question*.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23)『일본의 장래추계인구(레이와 5년 추계』(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2023) *Population Projections for Japan (2023 revision)*.
- Lutz, W., Testa, M.R. & Penn, D.J. (2006). "Population Density is a Key Factor in Declining Human Fertility." *Population Environment* 28, 69–81 https://doi.org/10.1007/s11111-007-0037-6
- 박경숙(2009). 식민지 시기(1910년-1945년)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조. 한국인구학, 32(2), 29-58.(박경숙(2009)「식민지 시기(1910년-1945년)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조」『한국인구학』제32권 제2호, 29–58쪽)
- Raymo, James M. and Miho Iwasawa (2005) "Marriage Market Mismatches in Japan: An Alternative 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Education and Marri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70, No.5, pp.801-822.
- Schoen, Robert (1983) "Measuring the tightness of a marriage squeeze," *Demography*, 20(1), 61-78.
- UN(2024)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감사의 글 Acknowledgments

- 본 발표는 과학연구비조성사업 기반연구(B)「'정보'가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과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설문실험을 통한 접근」(연구책임자 이와사와 미호)(25K00701, 레이와 7~10년도), 후생노동행정추진조사사업비보조금(정책과학종합연구사업(정책과학추진연구사업))「초고령화·다양화하는 가구구조에 주목한 인구·가구추계 방법의 정교화 및 사회 재편을 위한 연구」(연구책임자 이와사와 미호), 후생노동통계협회 조사연구위탁사업「외국인 인구증가가 국제결혼과 귀화를 통해 일본 국적 인구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장래 전망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이와사와 미호)의 연구성과임. 본 연구에서 사용한「인구동태조사」분석결과에는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표 정보를 2차 이용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음.

26

References

- Anderson, Thomas, and Hans - Peter Kohler(2015)"Low fertility,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gender equ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3 381-407.
- Chang, Kyung-Sup(2010) *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 Familial Political Economy in Transition*, Routledge.
- Chang, Kyung-Sup(2022) *The Logic of Compressed Modernity*, John Wiley & Sons.
- 조성호, Keita Suga, 문승현 외 (2023)(2023),『출생성비 불균형에 따른 혼인 특성과 정책적 함의』,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曹成虎・菅桂太・ムン・スンヒョン（2023）『出生性比の不均衡による婚姻の特性と政策的含意』世宗：韓国保健社会研究院）.
- Guttentag, Marcia, and Paul F. Secord(1983). *Too Many Women? The Sex Ratio Question*.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23)『日本の将来推計人口（令和5年推計』(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2023) *Population Projections for Japan (2023 revision)*.
- Lutz, W., Testa, M.R. & Penn, D.J. (2006). "Population Density is a Key Factor in Declining Human Fertility." *Population Environment* 28, 69–81 https://doi.org/10.1007/s11111-007-0037-6
- 박경숙(2009). 식민지 시기(1910년-1945년)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조. 한국인구학, 32(2), 29-58.（朴京淑（2009）「植民地期（1910年-1945年）朝鮮の人口動態と構造」『韓国人口学』第32巻第2号、29–58頁）
- Raymo, James M. and Miho Iwasawa (2005) "Marriage Market Mismatches in Japan: An Alternative 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Education and Marri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70, No.5, pp.801-822.
- Schoen, Robert (1983) "Measuring the tightness of a marriage squeeze," *Demography*, 20(1), 61-78.
- UN(2024)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謝辞 Acknowledgments

- 本報告は、科学研究費助成事業基盤研究(B)「「情報」が子育ての認識や出生意欲に与える影響：オンラインサーベイ実験による接近」(研究代表者 岩澤美帆)（25K00701、令和7～10年度)、厚生労働行政推進調査事業費補助金（政策科学総合研究事業（政策科学推進研究事業））「超高齢化・多様化する世帯構造に着目した人口・世帯推計手法の精緻化及び社会の再編に向けた研究」（研究代表者　岩澤美帆）、厚生労働統計協会調査研究委託事業「外国人人口の増加が国際結婚や帰化を通じて日本国籍人口に与える影響とその将来見通しに関する研究」（研究代表者　岩澤美帆）の研究成果であり、本研究で使用した「人口動態調査」に関する分析結果には、統計法第32 条及び第33 条の規定に基づき、調査票情報を二次利用したものが含まれている。

26

The 7th KIHASA-IPSS Annual Policy Forum
Living Environments in an Era of Demographic Change: Mobility, Family, and Care

특별세션

特別セッション

양국 연구기관의 연구 교류 방향에 관한 논의

今後の研究連携の提案

일본

日本

향후 연구협력 제안
今後の研究連携の提案

KOREKAWA, Yu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국제관계부장
是川 夕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国際関係部長

한국

韓国

KIHASA와 IPSS 향후 협력을 위한 제언

KIHASAとIPSS 今後の協力に向けた提言

김희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팀장

キム・ヒニョン | 韓国保健社会研究院 国際協力チーム長

[MEMO]

[MEMO]

[MEMO]